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비교 연구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후계 사례를 중심으로 -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

이 재 준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비교 연구

–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후계 사례를 중심으로 –

지도 교수 백 창 재

이 논문을 정치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

이 재 준

이재준의 정치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손 인 주 (인)

부위원장 백 창 재 (인)

위 원 이 희 옥 (인)

위 원 안 치 영 (인)

위 원 안 경 모 (인)

초 록

독재 국가에서 권력승계는 체제의 위기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후계자의 취약한 정당성은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권력 투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구소련에선 강력한 독재자였던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 권력 공백에 따른 '승계의 위기'가 나타났다. 그러나 권력승계가 반드시 위기로 이어졌던 것만은 아니었다. 이점에서 중국과 북한은 유의미한 비교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56년 소련에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 이후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모두 후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두 국가의 권력승계의 안정성은 차이가 있었다. 중국 마오쩌둥은 '승계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엔 실패했다. 반면 북한 김일성은 '승계의 위기'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중국의 마오쩌둥과 북한 김일성의 권력승계 안정성은 왜 달랐는가?'이다. 이를 통해 두 국가의 권력승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발견하고자 했다.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비교는 마오쩌둥과 김일성 사후 두 국가가 서로 다른 이념적 경로로 나아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중국은 마오쩌둥 사후 급진 좌경 이념에서 벗어나 개혁개방의 길에 들어섰다. 반면, 북한은 김일성 사후 더욱 공고하게 급진 이념을 유지했다.

본 연구는 합리적 선택 이론 중심 접근을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현상을 분석했다. 다만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선호를 외생적인 것으로 보는 것과 달리, 선호는 제도적 맥락에 의해서 형성되는 내생적인 것으로 보았다. 사회주의 제도라는 맥락에서 중국과 북한의 정치행위자들의 선호를 규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 정치행위자들은 이념적 선호를 갖게 된다. 정치행위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이 현실에 실현되길 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념적 노선 투쟁은 집권당 간부 조직의 개편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념적 선호는 조직적 선호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두 사례에서 권력승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비교권위주의 이론을 통해 분석했다. 전임자와 후계자의 관계, 전임자의 지배 연합 승계, 후계자의 독자적 지배 연합 형성이라는 세 차원에서 중국과 북한 사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권력승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전임자와 후계자의 관계에서, 이

념의 일치성은 후계자가 전임자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로동당은 사회주의 혁명 정당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는 모두 자신의 이념이 사후에도 관철되기를 원했다. 중국 덩샤오핑이 후계자가 될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문혁 이념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념을 체계화하고, 유일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둘째, 후계자와 지배 연합의 관계에서, 권력구조의 차이에 따라 권력승계의 안정성이 달랐다. 집단지배에 비해 일인지배에서 권력승계의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화궈펑과 김정일 모두 전임자의 지명으로 후계자가 되었고, 둘 다 전임자의 이념을 계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궈펑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산당 주석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반면 김정일은 종신 집권에 성공했다. 김정일과 화궈펑이 다른 권력 구조에 처했다는 점이 두 후계자의 운명을 가른 요인이었다. 후계자 김정일은 일인지배 권력구조에서 권력승계를 이뤘기 때문에 지배 연합의 지지 이탈로 인한 위협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에 집단지배 권력 구조에서 화궈펑이 지도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배 연합 다수의 지지를 유지했어야 했다. 화궈펑으로의 권력 승계 당시 지배 연합의 다수는 마오쩌둥의 문혁 이념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는 마오쩌둥의 이념을 계승할 수밖에 없었던 화궈펑에 대한 지배 연합 다수의 지지 이탈로 이어졌다.

집단지배에서 후계자는 집권당 정치 엘리트들과 새로운 지배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변수는 지배 연합에 참여한 정치 엘리트 다수의 선호 변화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념적 유연성을 전임자가 지정한 후계자에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한계가 있다. 후계자의 정당성은 바로 전임자에게 있으며, 전임자의 이념을 부정할 경우 바로 후계자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집단지배 권력 구조에서 권력승계의 안정성은 취약했다.

셋째, 마지막 지배 연합 구성의 일원성은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지배 연합 구성이 다원적일 경우, 전임자의 이념과 다른 이념을 추구하는 정치 행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임자가 내세운 이념이 오류가 드러날 경우 지배 연합 내 정치 엘리트들이 대안적 이념을 추구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다원적 지배 연합 구성에서 권력을 승계한 후계자는 전임자의 이념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지배 연합 다수의 이념적 선호에 맞춰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혹은 후계자는 지배 연합에서 다른 이념적 선호를 갖고 있는 정치 엘리트들을

지배 연합으로부터 축출함으로써 권력을 공고화할 수 있다. 지배 연합의 이념적 단일성을 관철한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배체계는 북한에서 후계자 김정일이 집권을 공고화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지배 연합 구성이 다원적일 경우 기대이익 제공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었다. 화궈펑이 파벌들 사이에서 정치적 제휴를 통해 지도자 지위를 다시 인정받아야 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후계자 화궈펑은 전임자의 지배 연합을 그대로 승계하지 못했다. 즉 전임자였던 마오쩌둥의 지배 연합이 후계자 화궈펑에 대한 지지를 놓고 분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중국 마오쩌둥 권력승계 사례는 현재 중국의 권력승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마오쩌둥의 권력승계가 권력승계의 제도화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중국에서 마오쩌둥 사후 만들어진 권력승계 제도의 기능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권력승계의 제도화가 마오쩌둥의 권력승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권력승계 제도가 없어지거나 바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권력승계의 문제를 예측하는 데에서도 함의를 갖는다. 마오쩌둥 사후 중국 권력승계 제도화는 격세지정, 임기제한제, 연령제한을 통해 이뤄졌지만, 이 같은 권력승계의 제도들이 19차 당대회 이후 파기되었다.

북한의 경우는 체제 변화 가능성과 결부해 김일성의 권력승계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존재한다. 마오쩌둥 사후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나아간 반면, 김일성 사후 북한은 체제의 보수성이 유지되었다. 독재자의 사후 권력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차이가 각기 체제 변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각기 다른 조건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중국 권력승계 사례를 통해 되짚어 볼 수 있다.

주요어 : 중국, 북한, 권력승계, 비교권위주의, 체제 변화,
학 번 : 2015-30051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 대상 5
제 3 절 선행 연구 검토 6
1. 중국의 권력승계에 대한 연구 7
2. 북한의 권력승계에 대한 연구 11
3. 연구의 차별점 13
제 4 절 연구의 구성 15
제 2 장 이론 및 연구방법 17
제1절 권위주의 이론 17
1. 권위주의 체제의 정의 17
2. 독재 권력에 대한 일반적 설명 20
3. 권위주의 이론과 권력승계 23
제 2 절 후계자와 지도자와의 관계 25
1. 후계자의 딜레마 25
2. 혈연승계 이론 27
제 3 절 후계자와 지배연합의 관계 29
1. 선정인단 이론(Selectorate theory) 29
2. 권력 구조와 권력승계 안정성 40
3. 후계자의 집권 안정과 제도 44
4. 파벌의 영향 47
제 4 절 권력승계에서 정책 변화 48
제 5 절 물리적 강권기구와 대중 저항 51
1. 군에 대한 통제 52
2. 대중에 대한 억압과 포섭 55
제 6 절 연구 방법 56
1. 비교 분석의 디자인 56
2. 연구 자료 60
제 3 장 중국 마오쩌둥의 권력승계 64

제 1 절 중국 공산당 권력 구조.....64
1. 파벌 연합 구조의 형성.....64
2. 권력 구조의 변동.....72
3. 일인지배의 확립.....88
4. 마오쩌둥 사후 권력구조: 집단지배.....99
제 2 절 후계 선정 시기.....101
1. 린뱌오로의 후계 좌절.....101
2. 왕훙원의 부침.....115
3. 덩샤오핑의 복권과 축출.....123
4. 후계자의 딜레마와 혈연승계.....128
제 3 절 권력 이양 시기.....130
1. 지도자의 지지.....130
2. 전임자의 지배 연합 분화.....135
3. 독자적 지배 연합 형성의 실패.....147
4. 화궈펑의 퇴진.....177
5. 경제적 성과의 문제.....185
6. 마오쩌둥 사후 체제 변화.....191
제 4 장 북한 김일성의 권력승계.....193
제 1 절 북한 로동당 권력 구조.....193
1. 파벌 연합 구조의 형성.....193
2. 권력 구조의 변동.....199
3. 김일성 일인지배 강화.....206
4. 일인지배의 확립.....209
5. 김일성 사후 권력구조: 일인지배의 유지.....212
제 2 절 후계자 선정 시기.....214
1. 갑산파의 숙청.....214
2. 군 지휘부의 부상.....218
제 3 절 권력 이양 시기.....221
1. 지도자의 지지.....221
2. 전임자의 지배 연합 승계.....246
3. 독자적 지배연합 형성.....258
4. 김정일의 지도자 지위 확립.....273
5. 경제적 성과의 문제.....291
6. 북한 권력승계와 체제의 보수성.....302

재 5 장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비교 분석 305
제 1 절 전임자와 후계자의 관계 305
1. 후계자의 독자적 지배 연합 305
2. 혈연 승계의 영향 307
3. 이념적 요인 312
4. 물리적 강권기구 313
제 2 절 권력 구조의 차이 314
제 3 절 지배 연합 구성의 성격 318
제 4 절 권력승계와 정책 변화의 상관성 324
제 6 장 결론 330

참고문헌 336

Abstract 373

표 목차

[표 1] 흐루시초프와 브레주네프 집권 시기 연 평균 성장률 49
[표 2] 대약진 운동 시기 곡물 생산량과 정부 구입량 82
[표 3] 대약진 운동에 따른 인구 변화 83
[표 4] 중국 공산당 9기 중앙위원회 정치국 구성 94
[표 5] 8기 정치국과 중앙문화혁명소조 구성 96
[표 6] 9차 당대회 공산당 지도부 구성 103
[표 7] 중국 공산당 제9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구성 111
[표 8] 10차 당대회 공산당 지도부 구성 122
[표 9] 10기 공산당 정치국 구성 136
[표 10] 사인방 축출 이후 공산당 정치국 구성 147
[표 11] 덩샤오핑 복귀 이후 정치국 구성 155
[표 12] 11기 정치국 상무위원 구성 변화 179
[표 13] 11기 정치국 구성변화 179

[표 14]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중앙위원 내 파벌 분포.....197
[표 15] 북조선로동당 2차대회 중앙위원 내 파벌 구성.....198
[표 16] 조선로동당 권력구조 변화.....205
[표 17] 1980년 제6차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위원.....268
[표 18] 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구성.....269
[표 19] 로동당 지도부 구성 변화.....279
[표 20] 북한 로동당 권력 변동.....289

그림 목차

[그림 1] 이집트 아랍사회주의자연합(ASU) 조직.....22
[그림 2] 권력승계에서 후계자의 집권 구조.....24
[그림 3] 선정인들의 이념적 선호의 변화 과정.....37
[그림 4] 옌안 체제(Yan’an round table).....66
[그림 5] 중국 공산당에서 일인지배 지수 변화.....100
[그림 6] 북한의 일인지배 지수의 변화.....213
[그림 7] 집단지배와 일인지배에서 권력승계.....31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독재 국가에서 권력승계는 체제의 위기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최고지도자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민주적 선거 제도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권력승계가 가능하지만, 독재 국가에선 신뢰할 만한 권력승계 절차가 존재하기 어렵다. 이념을 정치적 정당성으로 내세우는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도, 권력승계는 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다. 특히 일인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전통적 사회주의 이념에서, 독재자 개인이 지정한 후계자가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는 더욱 어렵다. 후계자의 취약한 정당성은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권력 투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구소련에선 강력한 독재자였던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 권력 공백에 따른 '승계의 위기'가 나타났다.[1]

그러나 권력승계가 반드시 위기로 이어졌던 것만은 아니었다. 이점에서 중국과 북한은 유의미한 비교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56년 소련에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은 마오쩌둥과 김일성에 상당한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모두 후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후계자 양성이 공산주의 혁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 사안이라고 인식했다.[2] 그런데 두 국가의 권력승계의 안정성은 차이가 있었다. 중국 마오쩌둥은 '승계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엔 실패했다. 중국의 경우 마오쩌둥 이래로 지속적인 권력승계의 불안정성을 보였다. 린뱌오, 왕훙원, 덩샤오핑 등 후계자들을 연이어 교체했다. 마오

---

[1] Myron Rush, *How Communist States Change Their Ruler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Myron Rush, *Political Succession in the Uss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5). pp.13-15; Alfred G Meyer, "Communism and Leadership,"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16, no. 3 (1983); Peter Frank, "The Soviet Union," in *Leadership and Succession in the Soviet Union, Eastern Europe and China* (Springer, 1986). 이들 연구들은 주로 소련에서 스탈린 사후 최고지도자 지위를 두고 벌어진 권력 투쟁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

[2] Jae-Cheon Lim, "North Korea's Hereditary Succession: Comparing Two Key Transitions in the Dprk," *Asian Survey* 52, no. 3 (2012).

쩌둥이 최종적으로 지정한 화궈펑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최고지도자 지위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반면 북한 김일성은 '승계의 위기'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김일성은 안정적인 후계 체제를 구축했으며, 그의 사후에도 후계자 김정일은 공고한 권력을 유지했다.

중국 마오쩌둥과 북한 김일성은 권력승계의 안정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권력승계 안정성을 제외하면, 중국과 북한은 상당히 유사했다. 마오쩌둥과 김일성 모두 항일투쟁에서 집권의 정당성을 획득한 카리스마적 독재자였다. 또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으로 유가적인 가치관을 공유했다. 항일투쟁 과정에서 민족주의라는 요소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자본주의로 미발전한 상태에서 봉건적인 성격이 짙게 남아 있었다. 소련 코민테른의 방침과 지시가 건국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역시 유사했다.

스탈린 사후 소련이 탈급진화하는 상황에서, 두 지도자는 이념적으로 급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흐루시초프는 1959년 소련 공산당 당대회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했으며, 사회주의에 대한 위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는 전인민의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했다고 밝혔다.[3] 흐루시초프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명분으로 자행된 스탈린의 공포 정치를 청산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이 같은 흐루시초프의 노선을 거부했다.[4] 마오쩌둥은 1962년 8기 10중전회에서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 독재를 통한 계속혁명이론을 주장했다. 자본주의의 복귀를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한 계급투쟁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오쩌둥의 이 같은 생각은 극좌 이념에 입각한 문화대혁명의 이념적 바탕이었다.[5] 김일성도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한 계급투쟁이 지

---

[3] Clemens Dutt, *Fundamentals of Marxism-Leninism*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 House, 1963). pp.595-596.

[4] 양호민.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의 재고: 고전적 맑스주의에서 소련의 붕괴까지」,『북한학보』, 29, 2004.

[5] 中共中央党校党史教研究室资料组编. 『中国共产党历次重要会议集』 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3), p.196-197; 楊繼繩. 『墓碑: 中國六十年代大饑荒紀實』 下編 (香港: 天地 图书有限公司, 2018), pp.1131-1132. 마오쩌둥은 8기 10중전회에서 다음과 같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에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의 계급투쟁이 존재한다. 전복 당한 반동 계급은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다시 기회를 노려 자본주의의 복귀를 기도한다. 게다가 인민 중에는 아직 사회주의 개조가 이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6]

이처럼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여러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권력승계의 안정성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의도된 결과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93년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실패를 권력승계 문제로 지적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혁명의 대를 어떻게 이어 나가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혁명의 대가 바뀌는 시기에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영도가 올바르게 계승되지 못하면 사회주의 위업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김정일 동지가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함으로써 영도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었다"라고 했다.[7] 북한의 권력승계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성공했음을 밝힌 것이었다.

북한은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위해 중국의 사례를 학습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중국의 권력승계 실패를 오래전부터 주목했다. 북한 로동당 고위 간부 출신 신경완의 증언에서 이 같은 북한 지도부의 인식을 알 수 있다. "북한 지도부는 강청(장칭), 왕홍문(왕훙원)을 비롯한 4인방이 유소기(류샤오치), 등소평(덩샤오핑)을 공격하는 걸 보고 부르죠아에 대한 문화혁명이 아니라 혁명 노간부들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로 인식했다. 모택동(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의 오랜 전통을 무시하고 후계 문제를 비원칙적으로 처리해 폐단이 나타났다고 단정했다. 더욱이 문화혁명 과정에서 혼란을 진정시키는데 앞장서 후계자로 결정된 임표(린뱌오)가 쿠데타를 시도하다 발각돼 죽은 것도 후계 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한 탓으로 돌렸다." [8]

사회주의의 길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의 길을 걷고자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계급투쟁은 피할 수 없으며,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계속되어야 한다."

[6]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당사상사업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67년 5월 25일)」, 『김일성 저작집 』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안경모. 『북한의 선군노선과 권위구축동학: 정치적 계승의 위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2013). pp.45-47. 김일성은 1966년 이른바 '5·25' 교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했더라도 세계 혁명이 완수되지 못한 채 제국주의 위협이 남아 있는 상황에선, 내부와 외부의 원수들의 반항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서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필요하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바로 원수들에 대항한 계급투쟁의 형식이다."

[7] 김일성.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8]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서울: 토지, 1999), p.100.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1년까지 소련과 중국의 권력동향을 자세히 소개하는 로동당 내부 '통보자료'를 발간했다. 이 자료는 중국과 소련에서 후계 문제를 잘못 처리해 겪은 진통을 상세히 소개한 것이다. 일주에 한 차례 로동당 중앙의 지도원급, 내각 성의 부국장급, 도당의 책임지도원급, 군단의 부장급까지 배포되었다. 자료 배포와 함께 종종 간부들에게 후계 문제의 절박성을 호소하는 토론을 벌이도록 했다. 중국과 소련의 사례를 통해, 북한 김일성 정권은 후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음을 알 수 있다.[9] 북한은 승계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김일성과 북한의 지도부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다. 김일성과 로동당 지도부는 권력승계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레닌과 호치민을 제외하고는 사후에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10] 김일성은 이러한 권력승계 실패를 막고 싶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은 권력승계에서 중국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의도한 차이'를 보였다. 권력승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발견하는 데, 중국과 북한은 유용한 비교 분석 대상인 것이다. 중국과의 비교 분석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중국의 마오쩌둥과 북한 김일성의 권력승계 안정성은 왜 달랐는가?'이다. 이를 통해 두 국가의 권력승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물론 북한이 중국의 권력승계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고, 그것이 권력승계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 실증이 어렵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권력승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북한이 성공할 있었던 권력승계 전략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한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권력승계 안정성을 좌우하는 변수들을 발견하고자 했다.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비교는 마오쩌둥과 김일성 사후 두 국가가 서로 다른 이념적 경로로 나아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모두 흐루시초프의 탈급진화 움직임을 거부하고, 급진 이념 노선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들이 사망한 이후 중국과 북한의 이념적 노선은 극명하게 달라졌다. 중국은 마오쩌둥 사후 급진 좌경 이념에서 벗어나 개혁개방의 길에 들어섰다. 반면, 북한은 김일성 사후 더욱 공고하게

---

[9] Ibid. pp.100-101.

[10] Yung-hwan Jo, "Succession Politics in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olitical Stability," *Asian Survey* 26, no. 10 (1986).

급진 이념을 유지했다. 이러한 차이는 두 국가의 권력승계에서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일성은 사망하기 3년 전인 1991년 9월 다음과 같이 북한사회주의 이념의 공고함을 권력승계에서 찾았다. 그는 “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이 하루 아침에 다 망하였지만, 우리 나라만은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해 나가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북한 권력승계의 우월성에서 찾았다. 김일성은 “우리가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난 시기 당을 강화하였고 김정일 동지가 당의 조직 사상적 기초를 쌓고 대를 이어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수령의 후계자를 바로 내세워야 수령이 이룩하여 놓은 혁명 업적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고 나중에는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11]김일성은 김정일로의 권력승계에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이념이 사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 대상

권력승계는 후계자가 지도자 지위에 오르는 단발적인 사건을 의미하지 않는다. 후계자로의 권력이양 과정은 후계자 집권 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후계자 선정, 후계자로의 권력 이양, 권력 투쟁, 후계자의 집권 공고화로 이어지는 과정 전체를 권력승계의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후계자가 집권을 공고화하지 못할 경우 지도자 지위를 둘러싼 새로운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는 권력승계를 후계자 선정, 후계자로의 권력 이양, 후계자의 집권 공고화라는 세 단계로 나눴다.

이에 따라 중국 마오쩌둥과 북한 김일성의 권력승계를 후계자 선정에서 후계자의 집권 공고화까지 포괄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분석 시기를 설정했다. 다만, 마오쩌둥과 김일성 모두 일인지배를 확립한 다음 지

---

[11] 김일성. 「일군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여야 한다」, 『김일성 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12] Myron Rush, "The Problem of Succession in Communist Regim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1978). Martin McCauley,Stephen Carter, *Leadership and Succession in the Soviet Union, Eastern Europe and China* (Springer, 1986). 김태효,강채연. 「북한 권력승계의 주기 (週期) 모델과 북한 체제의 작동원리」, 『국제정치논총』, 58(2), 2018.

명한 후계자를 연구 대상으로 했다. 두 비교 대상의 유사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마오쩌둥과 김일성 모두 후계자 결정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승계의 안정성에선 차이를 보였다.

중국의 경우 마오쩌둥이 1966년 문화대혁명으로 일인지배를 확립한 다음, 린뱌오를 후계자로 지명한 시기부터, 화궈펑이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에서 물러난 1981년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화궈펑은 마오쩌둥 최후의 후계자로 마오쩌둥 사후 권력을 이양 받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권력을 유지하는 데엔 실패했다. 화궈펑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 중국 공산당 직위에서 물러나야 했다.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 갑산파와 군 지휘관인 김창봉·허봉학을 숙청하고 1967년 일인지배를 확립한 이후,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어 1994년 김일성 사후 국방위원장에 오른 1998년까지를 분석했다. 후계자 김정일은 1998년 헌법을 개정해 국가 주석직을 폐지하고, 대신 최고 권력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한 국방위원장에 취임했다. 김정일이 최고 지도자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요 분석 시기는 권력승계 과정이다. 그럼에도 권력승계 이전에 이뤄진 권력 구조의 형성 과정을 포함했다. 권력 구조의 형성과 이에 따른 성격이 이후 권력승계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에서 건국 이후 권력 구조가 형성, 변천하는 과정에 다룰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분석 시기에 앞선 이전 시기에 대한 설명을 수반했다.

제 3 절 선행 연구 검토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를 비교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중국, 북한을 다른 개별 국가 권력승계와 비교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에 대한 연구들의 접근 방식 역시 공통의 분류 기준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선 중국과 북한 각각의 권력승계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중국의 권력승계에 대한 연구

중국에서의 권력승계와 관련, 하나의 큰 흐름은 파벌주의적 시각이다. 파벌은 일반적으로 항일 투쟁과 같은 공통의 경험, 학연이나 지연 등 비공식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비공식 관계는 후견인-피후견인 관계(patron-client)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중국 엘리트 정치 연구는 비공식적 관계, 파벌에 초점을 맞췄다.[13] 당시 중국 정치에서 제도가 취약했고, 형식적인 역할과 실제 영향력 사이에 간극이 컸다. 이 같은 중국 정치의 특성에 따라 연구도 비공식적 부문인 파벌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14] 일반적으로 권력승계의 성패는 파벌 사이의 권력투쟁의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파벌주의와 권력투쟁 접근은 구분하기 어렵다. 파벌 간 권력투쟁 과정을 통해 후계자의 권력 유지와 상실을 분석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15]

로웰 디트머의 연구는 1980년대 권력승계와 파벌 투쟁을 다뤘다. 공산당 내 원로들은 파벌을 형성하면서, 후견인과 피후견인 관계에 따라 각각 후계자를 내세운다고 한다. 권력승계는 결국 원로들의 파벌 경쟁과 협상의 산물인 것이다. 이 때문에 후야오방이나 자오쯔양은 공식적인 최고지도자였지만,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쥔 원로들의 파벌 투쟁에 의해 그 지위가 매우 취약했다고 설명한다.[16] 조셉 퓨스미스의 연구는 화궈펑이 덩샤오핑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이유도 이같이 분석했다. 덩샤오핑은 젊은 개혁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덩샤오핑의 비공식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화궈펑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17] 주장환의 연구는 덩샤오핑 이후 중국 엘리트 정치의 본질을 '과두제의 제

---

[13] Andrew J Nathan, "A Factionalism Model for Ccp Politics," *The China Quarterly* (1973). Tang Tsou, "Prolegomenon to the Study of Informal Groups in Ccp Politics," *The China Quarterly* 65 (1976). Lucian W Pye, *The Dynamics of Chinese Politics* (Cambridge: Gunn & Hain, 1981).

[14] Avery Goldstein, "Trends in the Study of Political Elites and Institutions in the Prc," *The China Quarterly* 139 (1994).

[15] John E Gardner, *Chinese Politics and the Succession to Mao* (London: Macmillan, 1982).; Richard Baum, *Burying Mao: Chinese Politics in the Age of Deng Xiaop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16] Lowell Dittmer, "Patterns of Elite Strife and Succession in Chinese Politics," *The China Quarterly* 123 (1990).

[17] Joseph Fewsmith, *Elite Politics in Contemporary China* (London: Routledge, 2015). pp.35-58..

도화’ 라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분석 역시 파벌 · 권력투쟁 중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18] 조영남의 연구[19]는 1980년대를 중심으로 보수파와 개혁파의 파벌 대립으로 중국 엘리트 정치를 분석했다.

제1선과 제2선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권력승계의 문제를 설명하는 연구도 비공식적 정치에 주목한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권력승계의 위기를 마오쩌둥의 유산에서 찾는 연구도 있었다. 프레더릭 트위스는 마오쩌둥의 제1선과 제2선이라는 개념으로 권력승계 문제를 분석했다. 제1선은 일상의 업무를 담당하고, 제2선은 정책 방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제1선에 있는 후계자가 제2선에 있는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갈등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류샤오치, 린뱌오, 화궈펑, 후야오방, 자오쯔양 등 제1선의 후계자들이 같은 패턴으로 물러났다는 것이다.[20]

파벌·권력투쟁 중심 접근은 권력승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보여주지 못했다. 파벌들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기 하지만, 파벌 간 권력투쟁의 결과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선 설명이 부족하다. 파벌이 형성되는 유인, 권력투쟁의 원인, 파벌 투쟁의 승리 요인이 인과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권력승계의 관점에서, 집권당에서의 정치엘리트 재편이 후계자의 권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적 분석도 요구된다.

한편, 비공식적 정치와 공식적 정치에서 비공식적 정치가 왜 더 강력했는지 의문을 남긴다. 비공식적 지도자들이 공식적 지도자들보다 더 막강했다는 것 이상의 설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후계자들은 공식적인 최고지도자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비공식적인 영향력에 대항하지 못했다. 즉 비공식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기반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 둘 간 권력 차이가 어떻게 비

---

[18] 과두제 제도화는 파벌들이 각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경쟁적으로 공존하면서, 제도를 통해 첨예한 갈등을 해결한다는 개념이다. 주장환. 『중국 엘리트 정치 : 구조·행위자·동학』 (서울: 아연출판부, 2013), pp.29-94. 저자의 또다른 연구로, 주장환. 「2012 년 중국 권력 투쟁의 전개와 그 특징」,『대한정치학회보』, 20(2), 2012.

[19] 조영남. 「덩샤오핑 시기 중국 엘리트 정치의 파벌 분석」,『중소연구』, 39(4), 2016.

[20] Frederick C Teiwes, "The Politics of Succession: Previous Patterns and a New Process," in *China's Post-Jiang Leadership Succession: Problems and Perspectives,* ed. John Wong, Zheng Yongnian (New Jersey: World Scientific, 2002).

롯된 것인지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권력 자원과 이들의 전략적인 상호작용까지 보여주지는 못했다.

중국 정치에서 공식적 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권력승계의 제도화를 다룬 연구가 활발해졌다. 마오쩌둥 사후 1980년대 초부터 덩샤오핑은 중국 정치의 제도화를 진전시켰다. 정치 엘리트의 충원, 승진, 퇴직이라는 정치 체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주목한 연구들은 개인들이 휘두르는 비공식적 영향력은 줄어든 반면, 공식적인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고 했다.[21] 덩샤오핑이 제도 건설자 역할을 했지만, 실제 제도화는 덩샤오핑 퇴임 이후 1990년부터 본격화했다는 연구도 있다. 덩샤오핑 자체가 비공식적인 인적 관계에 의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2]

이 같은 맥락에서 제도 중심적 연구들은 덩샤오핑 이후 공산당 제도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앨리스 밀러는 중국 덩샤오핑 시기 이후, 중국 엘리트 정치는 정교하고 점진적인 제도화 과정을 거쳐왔다고 주장했다. 정치 엘리트들의 의사결정 절차가 제도화되면서 이들 간의 경쟁도 점차 집단적 지도 체제에 대한 합의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한다. 중국 엘리트 정치가 제도화된 데엔 덩샤오핑이 추진한 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다. 첫째, 덩샤오핑은 규칙적이며 예상 가능한 정치 과정과 정책결정은 중국의 근대화 성공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았다. 둘째, 자발적 군중 투쟁에 의한 마오쩌둥의 혁명 정치 때문에 중국이 무질서와 좌경 일탈로 나아갔고, 이 같은 혼란이 재연되는 일을 막아야 했다. 셋째, 덩샤오핑의 지도력은 마오쩌둥의 독재적 권위에 반대하고 최고 지도부 내부에 집단적 의사 결정 방식을 세웠다.[23]

징 황의 연구는 정쩌민, 후진타오로의 권력 승계 과정이 이전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기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생결단의 '위계적 게임(hierarchical game)'에서 보다 공식화한 '경쟁적인 공존의 게임

---

[21] Harry Harding, "Political Development in Post-Mao China," in *Modernizing China : Post-Mao Reform and Development*, ed. A. Doak Barnett,Ralph N. Clough (New York: Routledge, 1986).

[22] Chien-wen Kou,Xiaowei Zang, "Informal Politics Embedded in Institutional Contexts: Elite Politics in Contemporary China," in *Choosing China's Leaders*, ed. Chien-wen Kou,Xiaowei Zang (London: Routledge, 2013).

[23] Alice L Miller,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Changing Dynamics of Chinese Leadership Politics," in *China'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Prospects for democracy,* ed. Cheng Li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8).

(game of competitive coexistence)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규칙은 타협과 합의를 강조하는데, 장쩌민과 후진타오로의 권력 승계는 새로운 규칙을 반영한 결과라고 한다. 공식적인 규칙, 합의 절차 등 정치적 제도화의 결과라고 했다.[24]

제도 중심 접근은 특정한 제도적 조건에서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을 상대적으로 간과했다. 중국 정치에 대한 제도적 분석의 경우 중국 정치의 제도화와 권력승계의 안정성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는 특정한 정치적 경로를 산출한다고만 보기 어렵다. 물론 제도가 정치행위자들을 규율하는 단순한 게임의 규칙일 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제도가 행위자의 선택이나 행위자 사이의 권력 분포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25] 제도주의적 접근은 그 게임에서 참여자들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서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합리적 선택 이론 중심 접근은 행위자에 초점을 맞춘다. 행위자가 이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전제하면서,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을 분석한다. 중국에서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권력승계 문제를 다룬 징 황의 연구[26]는 지도자와 후계자 관계를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분석했다. 지도자는 후계자의 영향력 확대를 후원함으로써,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런데 지도자는 후계자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자신의 권력이 약화되는 부담을 갖게 된다고 한다. 지도자와 후계자 사이엔 죄수의 딜레마에서 나타나는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신뢰의 부재는 거듭된 후계 실패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 한편, 이 같은 후계자의 딜레마를 1989년 도입된 퇴직 제도를 통해 극복했다는 연구[27]도 있다. 퇴직 제도를 통해 지도자와 후계자 사이엔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높였다는 주장이다.

---

[24] Jing Huang,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Succession in China: Progress and Implications," *China'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Prospects for democracy* .

[25] 이정남의 연구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 간 권력의 비대칭적 변화에 따른 권력승계 제도의 개편에 주목했다. 이정남. 「중국 집단지도체제 권력승계의 제도화와 19 차 당대회이후의 변화: 새로운 게임 규칙의 모색인가?」, 『중소연구』, 42(2), 2018.

[26] Jing Huang, *Factionalism in Chinese Communist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88-106.

[27] Yongjing Zhang, "The Successor's Dilemma in China's Single Party Political Syste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7, no. 4 (2011).

2. 북한의 권력승계에 대한 연구

북한의 권력승계에 대한 연구들은 제도적 차원, 조직적 차원, 합리적 선택이론적 접근으로 분류 가능하다. 먼저 제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수령제 국가로 규정하고, 김정일의 후계를 수령제의 완성으로 본 연구이다. 정영철의 연구는 수령제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김정일의 후계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은 지도력을 통해 후계자로서 지위를 구축했다고 한다.[28] 스즈키 마사유키는 북한 정치 체제를 소련식 당-국가 체제 위에 수령을 위에 둔 수령제라고 규정하면서, 후계자가 수령의 영도를 대를 이어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봤다.[29] 김광용의 연구도 수령제의 완성과 김정일의 후계 체제의 상호 연관성에 주목한 것이다.[30]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이후 수령제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 김근식의 연구는 수령제의 변화에 주목했다. 과거 수령제에선 수령이 당을 국가기관과 군을 지도하고 장악하는 방식이었는데, 김정일 권력승계 이후 당, 군, 정이 각각 수령의 직할 통치 기구로 관계가 바뀌었다고 한다.[31] 수령제에서의 당군청 체제라는 맥락에서, 김갑식의 연구는 김정일 시기 당, 군, 정이 위기에 대응해 상호 역할 분담 체제를 구축했다고 분석했다.[32]

수령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을 간과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수령제 하에서 지도자, 후계자, 지배 연합이 각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완성하기 위한 후계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지도자 김일성·후계자 김정일·지배 연합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

[28]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서울: 선인, 2005),

[29] 鐸木昌之. 『北朝鮮 : 首領制の形成と変容 : 金日成, 金正日から金正恩へ』 (東京: 明石書店, 2014). 와다 하루키는 수령제 대신 유격대 국가라는 말을 사용했다. 와다 하루키.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파주: 돌베개, 2002), p.123.

[30] 김광용. 『북한 '수령제'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5).

[31]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2), 2002.

[32] 김갑식. 「권력구조와 엘리트」, 장달중 편, 『현대 북한학 강의 』 (서울: 사회평론, 2013).

다음 조직적 차원에서 권력승계 과정을 분석한 연구이다. 김구섭과 차두현의 연구는 김정일이 당과 군에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대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연구는 김정일이 이미 1972년 김정일이 '사로청'을 통한 세대교체를 통해 권력승계 작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1973년 북한 로동당 5기 7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은 '당조직 및 선전비서'에 올라 당내 후계자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또 3대혁명 소조운동을 통한 세대교체를 바탕으로 김정일은 자신을 지지하는 젊은 간부들을 충원했다. 군부에선 1980년 이후 신진 엘리트가 대거 기용됐다.[33] 현성일의 연구 역시 간부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김정일이 인사권을 장악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을 간부로 조직하면서, 권력승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측근을 발탁하는 방식을 간부 정책으로 활용했다고 한다.[34]

조직 장악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에서 후계자가 숙청을 통해 집권을 공고화하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주기 이론에 따른 분석이다. 후계자가 연구는 후계자 임명 전후 권력투쟁기, 새로운 후계자의 권력장악기, 후계자의 권력공고화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주기가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혈연승계 과정이 이같은 주기를 반복했다는 것이다.[35] 그러나 북한 권력승계 과정의 반복적 패턴을 통해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데에서 그쳤다. 후계자의 정치적 생존을 숙청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만 단순하게 설명했다는 한계가 있다.

카리스마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권력승계를 분석하기도 했다. 한 김정일은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투쟁과 같은 업적을 이룰 수는 없었지만, 드라마·상징·의식 등을 통해 카리스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36] 김정일이 김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카리스마를 신비화, 우상화라는 상징 전략을 통해 김일성과의 일체화를 추구했다는 분석[37]도

---

[33] 차두현, 김구섭. 『북한의 권력구조와 권력엘리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pp.126-140.
[34] 현성일. 『북한의 국가 전략과 파워 엘리트: 간부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pp.219-260.
[35] 김태효, 강채연. 「북한 권력승계의 주기 (週期) 모델과 북한 체제의 작동원리」.
[36] 권헌익, 정병호. 『극장 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 되는가』 (파주: 창비 2013).
[37] 유영옥. 「김정일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상징전략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0(3), 1996.

비슷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권력승계에 대한 합리적 선택 이론적 접근으로는 우선 오경섭의 연구[38]를 들 수 있다. 연구는 북한에서의 혈연승계를 수령, 후계자, 지배 엘리트들이 각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설명했다. 지배엘리트들은 정치투쟁, 권력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 후계자와 연합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고 했다. 박형중의 연구 [39]는 북한이 극심한 경제 침체 상황에서 통치연합의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잉여를 제공, 정권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합리적 선택 이론 중심적 접근은 정치 행위자의 선택 이면에 담겨있는 의도를 분석하는 데 용이하다. 그럼에도 합리적 선택 이론은 실제 정치 행위자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실증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 선택 이론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먼저 정치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선호를 제대로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정치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선호가 공산당의 최고지도자 직위인지, 경제적 이익인지, 혹은 국민이나 집권당 간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존경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선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치행위자들 사이에 전략적 선택에 담긴 의도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렵다. 다음 구조적이거나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행위자는 사회적 구조나 제도라는 조건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나 제도가 행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분석해야 한다.

3. 연구의 차별점

합리적 선택 이론은 행위자의 선택에 대한 동기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다만 합리적 선택 이론 중심 접근은 행위자의 선호 극대화를 전제하면서도, 행위자들의 선호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이는 행위자들의 선호를 외생적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행위자의 선택에 대한 설명 역시 부족하기 쉽다. 합리적 선택 이론 중심 접근에선 후

---

[38] 오경섭. 「북한 권력승계의 특징과 3대세습체제의 지속가능성」, 『세종정책연구』, 6(1), 2010.

[39]박형중. 「북한은 왜 '붕괴'도 '개혁· 개방'도 하지 않았을까?」, 『현대북한연구』, 16(1), 2013.

계자 선정을 둘러싸고 지도자, 지배 연합의 정치 엘리트들이 전략적 선택을 보여줬다. 그런데 정치행위자들의 선택에 작용하는 유인을 간과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행위자의 선택에 대한 유인을 권력, 영향력 확대나 위협의 제거 등 모호한 개념으로 제시했다.

본 연구는 합리적 선택 이론 중심 접근을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선호를 외생적인 것으로 보는 것과 달리, 선호는 제도적 맥락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주의 제도라는 맥락에서 중국과 북한의 정치행위자들의 선호를 규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 정치행위자들은 이념적 선호를 갖게 된다. 이는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배제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는 혁명 정부로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치행위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이 현실에 실현되길 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념은 단지 정치적 신념 체제를 넘어서서 행위자의 선호가 될 수 있다.

이념은 행위자에 선택의 유인이기 때문에,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념을 행위자의 동기로 포함하지 않는 기존 합리적 선택 이론 중심적 접근은 현실을 타당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사회주의 제도적 맥락에선 이념 역시 행위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이익, 선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선 기존 합리적 선택 이론이 간과했던 이념이라는 요소를 중요한 행위자의 동기로 보았다. 한편, 사회주의 제도에서 정치행위자의 또다른 선호는 공산당 조직에서의 지위이다. 공산당 고위직 간부는 사회적 지위와 함께 물질적 보상까지 얻을 수 있다. 정치행위자는 조직적 선호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도는 중요한 변수이다. 다만 제도 중심 접근에 따른 선행연구들은 권력승계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거나, 제도가 일정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중점을 뒀다. 이 때문에 행위자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제도는 행위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을 조정하는 기제이다. 나아가 행위자는 제도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들이 보인 권력승계의 제도화에 대한 지나친 믿음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도 본 연구가 갖는 의의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권력 투쟁의 극단화를 막는 제도가 도입될 수는 있지만, 권위주의 체제에서 권력 투쟁으로부터 독립적인 권위 있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도는 정치 엘리트의 정치 연합, 혹은 정치 파벌 사이의

권력 관계가 반영된 결과이다.[40] 본 연구는 제도와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했다.

합리적 선택 이론 중심 접근에서 기본 분석 단위는 행위자 개인이다. 그러나 정치 현실에선 개인이 따로따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들이 모인 파벌을 주요 분석 단위로 설정했다. 다만 파벌-권력투쟁 중심 접근에 따른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파벌-권력투쟁 중심 접근은 파벌 간 권력투쟁의 전개 과정을 묘사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갖기 쉽다. 파벌 간 균형이 어떤 원인으로 무너지게 되는지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다시 행위자들의 선호와 전략적 선택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파벌 간 균형이 이동하는 현상은 행위자들의 추구하는 선호와 전략적 선택에 따라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행위자, 이념, 제도, 파벌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를 분석했다. 이는 지도자, 집권당의 의사결정기구, 선전, 조직 등 상호작용을 통해, 후계자의 집권 유지와 실패를 설명하는 것이다. 즉 어떤 행위자들이 지도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이들이 어떻게 연합하면서 지도자와 도전자의 경쟁이 전개되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모호하게 남아 있는 지도자 선정 과정이 보다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다.

제 4 절 연구의 구성

제1장에서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를 비교하는 이유를 밝혔다. 중국과 북한은 상당한 정치적 유사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권력승계의 안정성이 달랐던 원인을 연구질문으로 제시했다. 이어 후계자 문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중국, 북한으로 나눠서 검토했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차별점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중국, 북한의 후계자 생존을 분석하기 위한 권위주의 이론들 정리했다. 권위주의 체제의 정의와 권위주의 이론의 적용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후계자와 지도자, 후계자와 지배 연합, 권력승계와 정책 변화, 군과 대중에 대한 통제로 나누어 관련 이론들을 정리했다.

---

[40] Milan W.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15.

제3장에서는 중국 마오쩌둥의 권력승계 사례를 북한과의 비교라는 맥락에서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마오쩌둥이 후계자로 선택했던 린뱌오, 왕훙원, 덩샤오핑이 후계에 실패하게 된 과정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마지막 후계자로 선택한 화궈펑의 사례를 분석했다. 특히 중국에서 마오쩌둥 사후 집단지배가 복원된 이후 후계자 화궈펑이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석직에서 퇴진하게 된 과정과 원인을 집중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후야오방을 중심으로 한 선정인단 재편, 그에 따른 지배 연합의 구성 변화가 화궈펑의 집권에 미친 영향을 밝혔다.

제4장에서는 북한 김일성의 권력승계 사례를 중국과의 비교라는 맥락에서 분석했다. 북한 로동당의 권력 구조 형성과 변화를 제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김일성의 2인자였던 갑산파, 군부의 숙청 과정을 밝혔다. 김정일에 대한 후계 지명 과정과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지도자 지위 공고화를 분석했다. 김정일이 전임자의 지배 연합의 지지를 얻고 자신의 독자적 지배 연합을 구축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권력승계 과정을 통해 김정일이 정치적 생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제시했다.

제5장에서는 중국 마오쩌둥과 북한 김일성의 권력승계 사례를 비교했다. 권력 구조, 지도자와 후계자의 관계, 후계자와 지배 연합, 권력승계와 정책 변화라는 차원에서 두 사례를 차이점을 다뤘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소련, 베트남, 시리아 등 다른 권위주의 국가와 대조함으로 권력승계와 관련 일반적 의미를 찾고자 했다.

제6장은 결론 부분으로 연구가 갖는 중국과 북한의 현재적 함의를 제시했다. 특히 권력승계라는 맥락에서 북한의 체제 변화 가능성을 다뤘다.

제 2 장 이론 및 연구방법

제1절 권위주의 이론

1. 권위주의 체제의 정의

권위주의는 민주주의 체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민주주의 체제를 이루는 요소가 결여된 정치 체제를 포괄한다. 이 때문에 권위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 설명 가능하다. 로버트 달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반대 정파와 정치적 경쟁자를 허용하고, 정부와 반대 정파 간 경쟁이 존재하는 정치 체제이다. 민주주의에서 경쟁은 주로 선거를 둘러싸고 이뤄지는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보편적 선거권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는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정치가들의 자유 경쟁,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등을 요소로 한다.[41] 권위주의는 이러한 민주적 요소들을 결여한 정치 체제라고 볼 수 있다.

권위주의 체제에선 민주주의와 달리 반대 정파의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권위주의는 반대 정파가 집권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권위주의 체제에는 국가 수준에서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없는 국가 외에도, 민주적 제도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인 경우도 들어간다. 집권 세력에 반대하는 정파는 지하에서 활동하거나 투옥, 추방되기 일쑤다.[42] 여러 민주적 제도 중에서도 공정한 선거의 결여는 권위주의 체제를 정의하는 핵심적 요소로 제시된다.[43]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이 같은 개념 규정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 군부 독재 국가, 일

---

[41] Robert Dahl,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1). pp.1-3.

[42] Steven Levitsky, Lucan A Way,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Hybrid Regimes after the Cold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6-7;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22.

[43]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 교수진. 『정치학의 이해』 (서울: 박영사, 2019), p.312.; Jennifer Gandhi, *Political Institutions under Dictatorship* (New York: Cambridge Unviversity press, 2008); Adam Przeworski, *Democracy and the Market: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인 독재 국가, 일당 독재 국가 등이 모두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될 수 있다.

권위주의 체제는 민주주의와 반대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역시 민주주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근대 권위주의 체제는 권력을 독점하는 집권당의 통치 제도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이것이 봉건 왕조와 구분된다. 근대 권위주의 체제에서 집권당은 사회적 동원을 확대하고,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정치 이념을 확산하며, 대중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한편으로 끌어들인다. 이러한 정당의 역할로 인해, 권위주의 통치는 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 공산당의 경우도 혁명 시기 계급 투쟁을 종결하면, 다양한 사회세력들을 정당으로 포섭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일당체제를 확립하기도 한다. 제도화한 집권당은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 제도는 권위주의 일당 체제가 생존하는 근간이다.[44] 권위주의 역시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체제를 유지하는 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권위주의 체제는 여러 정치 체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권위주의는 유사성을 찾기 어려운 여러 정치 체제가 섞여 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 국가들에게는 공통된 속성이 존재한다. 법과 같은 사회적 합의를 관철하는 독립적 사법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권력을 얻기 위한 갈등이나 충돌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권력 투쟁은 제도 차원의 해결보다는 폭력으로 귀결하기 쉽다.[45] 권위주의의 본질적 속성은 억압(repression)에 있으며, 국가의 억압 기구가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강력하다. 억압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의 독재자나 집권 정당은 반대 세력의 도전을 차단하고, 사회적 저항 세력을 통제할 수 있다.

권위주의 체제를 비민주주의 국가의 통치 체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과 달리, 후안 린쯔는 권위주의를 전체주의나 민주주의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정치 체제라고 한다. 그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제한되어 있지만 책임지지 않는 정치적 다원주의, 정교한 이데올로기는 없지만 정치적 동원이 없는 뚜렷한 사고 방식을 특징으로 하면서, 지도자나 소수 그룹이 공식적으로 잘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

[44] Samuel P Huntington, “Social and Institutional Dynamics of One-Party Systems,” in *Authoritarian politics in modern society*, ed. Samuel P. hungtinton, Clement H. Moore (New York: Basic Books, 1970).
[45]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39.

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 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르면, 권위주의 체제엔 군부 관료 국가, 파시즘, 탈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동원된 권위주의 정권, 그리고 사회주의의 탈전체주의 정권 등이 포함된다. 린쯔의 정의에서, 권위주의 체제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하지 않으며, 개혁개방 이후 중국처럼 사회주의의 탈전체주의 정권을 포함한다.[46]

하지만 이 같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의 구분이 중국이나 북한의 엘리트 정치에 대한 분석틀로서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조영남의 연구는 마오쩌둥 집권 시기 중국을 특정해서 린쯔의 정의에 따른 전체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린쯔는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으로, 다원주의 제도와 조직의 소멸, 최고 통치자와 특정 정당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정치·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동원이라고 했다. 중국에서 마오쩌둥 시기는 여기에 부합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오쩌둥의 일인지배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연구는 지적했다. 따라서 엘리트 정치의 특정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47]

---

[46] Juan José Linz,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2000). pp.159-261.

[47] 조영남. 『중국의 엘리트 정치』 (서울: 민음사, 2019), pp.97-98. Samuel P Huntington, Clement Henry Moore, “Conclustion: Authoritarianism, Democracy, and One-Party Politics,” in *Authoritarian Politics in Modern Society: The Dynamics of Established One-Party Systems*. 중국의 정치 체제를 서구식 민주주의 관점과 다르게 ‘선발주의’로 정의하기도 한다. 중국 학자인 후안강(胡鞍钢)은 중국에서 정치가그룹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두 가지 기제에 의해 만들어진다. 첫번째 기제는 민주 추천 기제이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감독을 받아 중앙위원회와 당기율검사위원회의 인선(人選)조가 간부 자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지도자그룹에 편입될만한 예비 후보들을 선발한다. 두번째 기제는 당대회에서의 민주 선거 기제이다. 지방 당대회에서 전국 대표를 선출하고, 이렇게 뽑힌 대표들이 전국 당대회에서 중국의 정치가 그룹인 중앙위원을 선출한다. 胡鞍钢. 『中国道路与中国梦想』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2013), pp.129-130. 중국에서 공산당의 집단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두 단계의 단련과 검증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첫번째 단계는 공산당의 성, 자치구, 시 위원회의 서기를 맡아 국정 운영에 앞서 지방 정부를 운영하는 단련, 검증을 받는다. 두번째 단계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나 후보서기로서 정치국 상무위원의 주요 조력자가 되는 ‘집단 권력 이양 및 승계’의 과도기이다. 이러한 훈련과 검증 과정을 통해, 당의 집단적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胡鞍钢. 『中国集体领导体制』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3), pp.77-85. 서구 학자인 다니엘 벨은 능력을 검증 받은 인물이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가 되는 중국 정치 모델을 현능주의(meritocracy)로 제시한 바 있다. Daniel A Bell, *The China Model: Political Meritocracy and the Limits of Democracy*

린쯔와 달리, 사무엘 헌팅턴은 민주적 선거 제도의 결여를 권위주의로 정의하고, 사회주의 일당독재 국가를 권위주의 범주에 포함했다. 그리고 중국의 일당독재를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했다.[48] 권위주의 체제를 민주적 선거 제도의 부재로 설명하는 최소주의적 정의이다. 이는 린쯔에 비해 엄밀한 개념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이론이 엘리트 정치에 대한 풍부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공해줄 줄 수 있다는 점은 유용하다. 정치 체제의 유형을 거시적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독재자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미시적 작동 원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 이론은 독재자와 지배 연합, 물리적 강권 기구, 대중의 관계를 중심으로 독재자의 집권 유지와 실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틀로 유용하다. 린쯔의 체제 유형론과 다른 미시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를 다뤘다. 민주적 선거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독재자의 권력승계를 둘러싼 권력 투쟁의 문제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독재자의 집권 유지와 실패의 원인들을 설명하는 권위주의 이론의 개념과 분석틀은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

2. 독재 권력에 대한 일반적 설명

권위주의 이론은 독재 체제, 독재 권력이 유지되는 구조에 관심을 기울인다. 독재 권력이 생존하는 방식 중에서도, 지배 연합은 핵심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독재자도 혼자서 국가를 통치할 수 없으며, 독재자는 지배 연합의 지지를 통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재자는 전통적 엘리트, 집권당 간부, 군 장성 등에게 특권을 제공하고, 이들 소수의 정치적 제휴 세력은 독재자를 위해 다수의 대중을 통제한다. 지배 연합에 대한 특권은 지배 연합이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한다. 지배 연합과 대중에 대한 재화의 불평등 배분은 독재 권력이 유지될 수 있는 전략인 것이다. 독재자는 자신의 선의와 무관하게 국민 전체에 대한 보편적 이익을 훼손하기 쉽다 국민에 대한 독재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자의 폭정은 역설적으로 독재 권력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다.[49]

권위주의 체제에 분석은 독재자와 지배 연합, 대중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는 독재자가 직면한 두 차원에서의 위협을 보여준다. 대중의 저항에 따른 위협과 지배 연합으로부터 위협이다. 독재자는 지배 연합에 특권적 이익을 보장하고, 지배 연합은 대중을 통제함으로써, 독재자의 생존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배 연합의 권력이 독재자를 압도할 경우 독재자를 축출할 수 있는 위협일 수 있다.[50] 따라서 독재자는 지배 연합으로부터 위협인 권력 공유의 문제, 대중의 저항에 따른 권위주의적 통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51]

권위주의 이론에서 주목하는 또다른 독재 권력의 유지 기제는 집권당이다. 집권당을 통해 독재자는 지배 연합의 관계를 조정, 규율한다. 일반적으로 지배 연합의 정치 엘리트들은 다양한 이해 관계를 갖기 마련이다. 지배 연합 내 정치 엘리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지배 연합이 와해되면서, 체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집권당의 의사결정 제도는 지배 연합에 참여한 정치 엘리트들의 행위를 규율하면서, 지도자의 지배 연합에 참여한 정치 엘리트 전체가 집합적 이익을 얻도록 유도한다. 지도자 입장에선 제도가 '양날의 칼' 인 셈이다. 집권당 의사결정 제도가 독재자의 권력을 제약하기도 하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 연합을 가능케 하기도 한다.[52]

집권당의 의사결정 제도는 반대 세력을 집권당으로 끌어들여, 권위주의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회 저항 세력의 형성을 차단할 수도 있다. 이집트의 독재자였던 가말 압델 나세르(Gamal Abdel Nasser)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954년부터 1981년까지 1970년까지 장기 집권했다. 나세르가 창당한 집권당 아랍사회주의연합(Arab Socialist Union, ASU)은 장기 독재의 기반이었다. 집권 초기 나세르의 최대 위협은 바로 군부였다. 당시 군부 출신 각료들은 내각에서 군과 정보기관을 맡고 있었다.

---

[49]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p.4-6; Bruce Bueno De Mesquita, Alastair Smith, *The Dictator's Handbook: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 (New York: PublicAffairs, 2011). pp.75-99.

[50] Sergei Guriev,Konstantin Sonin, "Dictators and Oligarchs: A Dynamic Theory of Contested Property Righ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 no. 1-2 (2009). Bruce Bueno de Mesquita et al.,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IT Press, 2003). pp.2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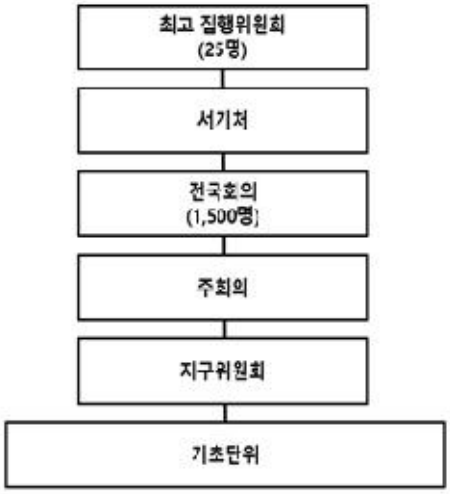
[51]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p.3-12.

[52] Jason Brownlee, *Authoritarianism in an Age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82-83.

ASU는 광범위한 대중을 당으로 흡수하면서, 자신을 위협하는 군을 견제할 수 있었다. ASU엔 1963년 당원 500만명이 가입했다. 이집트 인구 6명 중 1명이 당원이었다. ASU는 최고 집행위원회를 정점으로 서기처, 전당대회, 주·현 위원회, 기층 단위로 구성되었다. 형식적으로는 기층 조직에서부터 대표자를 선출, 상부 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최고 집행위원회, 서기처와 같은 상층 조직은 기술 관료, 정치적 파벌의 지도자 등을 나세르가 직접 임명했다. 전국회의의 경우 노동자, 농민 등 빈민 계층들을 참여시켰다.

이러한 당 조직 제도를 바탕으로 나세르는 경쟁 파벌들을 통합하고, 사회적 균열을 막았다. 나세르는 ASU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세력, 기술 관료, 전문가들과 제휴했다. 특히ASU는 양극화가 극심한 이집트에서 빈민을 자신의 정치적 제휴 세력으로 끌어들였다. 1967년 이스라엘과의 중동전쟁에서 이집트가 패배하면서 나세르는 위기에 몰렸지만, ASU를 바탕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다른 군부 경쟁자들을 제거할 수 있었다.[53] 나세르는 집권당의 통치 제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치 엘리트들과 제휴를 맺을 수 있었다. 그는 1970년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전까지 종신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림 1] 이집트 아랍사회주의자연합(ASU) 조직



※ 출처: Jason Brownlee, *Authoritarianism in an Age of Democratiz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87

[53] Ibid. pp.85-88.

나세르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독재자는 군, 경찰, 정보기관 등을 동원한 물리적 강권만으로 집권하지 않는다. 집권 정당을 통해 정치 엘리트들과 제휴를 맺으며, 정치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다. 권위주의 국가는 단순히 강권, 억압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다.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기제가 있다. 즉 집권당의 통치 제도와 지배 연합이다. 이것이 무너졌을 때 권위주의 체제와 지도자는 위기에 빠진다. 지도자가 권력을 잃거나 나아가 권위주의 체제 전환까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권위주의 이론이 권력을 이어받은 후계자의 생존을 분석하는 직접적 분석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이론은 후계자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이론 구성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후계자 역시 지도자이며, 그의 생존 역시 지배 연합과 집권 정당의 의사결정 제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후계자가 어떤 제도에서 어떤 정치 엘리트와 제휴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후계자의 정치적 생존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권력승계 차원에서 후임자의 정치적 생존을 좌우하는 변수가 추가될 수 있다. 전임자의 제휴 세력이 전임자가 지정한 후임자를 역시 지지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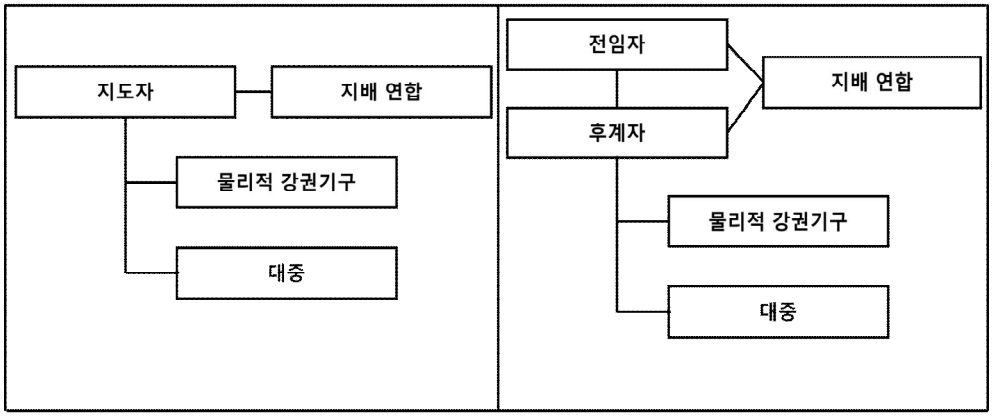
3. 권위주의 이론과 권력승계

권위주의 이론들은 독재자의 권력 유지 요인에 대한 비교정치학적 분석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독재 국가라고 하더라도 독재자 개인 차원에서 벗어나 지배 연합, 물리적 강권 기구(군, 비밀 경찰)가 어떤 방식으로 독재자의 집권과 체제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분석틀을 제공한다. 권위주의 이론들은 구소련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탈사회주의 독재 국가, 군부 독재 국가 등에서의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했다. 이 때문에 권위주의 이론은 독재 국가들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비교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독재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틀을 제공하는 권위주의 이론이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이론에선 지도자와 지배 연합, 물리적 강권 기구, 대중의 관계를 다뤘다. 권위주의 이론을 권력승계에 적용할 때엔 후계자라는 정치 행위자가 추가된다. 그리고 지도자에서 후계자로 분석의 중심이 전환된다. 이에 따라 권위주의 이론을 권력승계의 분석틀로 적용하기 위해선 후계자를 중심으로 이론들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존재한다.

권력승계라는 관점에서, 권위주의 이론은 후계자의 정치적 생존은 두 차원에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도자와 후계자와의 관계이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후계자는 지도자의 지지는 권력승계의 전제 조건이다. 후계자는 지도자와 관계에서 우선 지도자의 지지를 유지해야만 한다. 다음 지배 연합과 후계자와의 관계이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독재자는 지배 연합의 지지를 통해 집권을 유지할 수 있다. 지배 연합이 이반한다면 후계자는 권력을 이양 받더라도 집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후계자와 지도자(현직자 혹은 전임자), 후계자와 지배 연합, 후계자와 물리적 강권기구, 후계자와 대중의 관계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관계에 따라 권력승계의 안정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림 2] 권력승계에서 후계자의 집권 구조



따라서 본 연구에선 권위주의 이론들을 권력승계라는 관점에서 세 차원으로 정했다. 첫째, 후계자와 지도자와의 관계이다. 이는 권력승계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후계자와 지배 연합의 관계이다. 지도자 사후 후계자의 집권의 안정성은 지배 연합의 지지에 달려 있다. 셋째, 후계자와 물리적 강권기구와의 관계이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대중의 반란을 막기 위해선 강권기구에 통제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강권기구가 후계자를 위협할 수 있다. 권력승계의 안정성은 후계자가 물리적 강권기구를 통제해야만 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에선 후계자와 대중의 관계에 대해선 다루지 않았다. 경험적 연구[54]에 따르면, 독재 정권이 대중에 의해

[54] Barbara Geddes et al.,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p.178-181.

무너지는 경우보다는 지배 연합의 이탈이나 물리적 강권기구의 쿠데타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제 2 절 후계자와 지도자와의 관계

1. 후계자의 딜레마

후계자는 지도자의 지명을 받아 그 지위를 획득,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지도자와 후계자의 관계가 순탄할 수만은 없다. 고든 툴록은 독재 국가에서 지도자와 후계자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틀을 제시했다.[55] 툴록에 따르면, 독재 국가에서 지도자는 후계자의 지명과 동시에 후계자로부터의 위협이 시작된다. 후계자는 지도자를 암살해야 하는 강력한 유인을 갖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지도자가 빨리 사망할수록 후계자의 권력승계도 빨라질 수 있다. 둘째, 지도자가 후계자를 교체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지도자 입장에서 공식적 후계자의 존재 자체가 지도자 지위를 위협한다고 느끼기 쉽고, 이는 후계자 교체로 이어지기 쉽다. 후계자는 지도자가 존재하는 한 자신의 지위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다. 후계자는 지도자를 제거할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도자의 지배 연합 중 일부가 지도자가 아닌 후계자로 지지를 옮길 수 있다.

지도자 입장에선 공식적 후계자의 존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지도자는 후계자가 자신을 제거할 충분한 동기를 갖고 있음을 인식한다. 지도자는 공식적인 후계자를 두는 경우는 드물다. 후계자를 둔다고 하더라도, 지도자는 후계자로부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마련한다. 첫째, 지도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이나 권력 기반이 약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지도자를 위협할 수 없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다. 둘째. 권력 승계에 어떤 준비도 해놓지 않는 것이다. 후계자 결정을 모호하게 남겨두거나, 여러 후계자 후보들을 두기도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경우들에서 권력승계가 폭력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p.3-5. 대중 봉기에 의해 독재자가 축출되더라도, 대중 봉기가 지배 연합 내 정치엘리트에 의해 지도되는 경우가 많았다.

[55] Gordon Tullock, *Autocracy* (Hingham: Kluwer Academic Publisher, 1987). pp.151-174.

높다는 점이다. 지도자 사후 권력 투쟁이 발생하기 쉽다. 여러 후보들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 폭력을 수반한 경쟁을 벌이기 쉽다. 권력승계 과정에서 내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도자가 후계자로부터의 정치적 위협을 차단할 수는 있지만, 지도자 사후 권력승계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공식적인 후계자를 지정하는 것도, 지정하지 않는 것도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후계자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툴록은 지도자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지도자 사후 평화적인 권력승계의 방식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지도자가 '선거인단'을 만들어 자신의 사후 후계자를 선출하도록 하기도 한다. 소련에서의 정치국이 그 예라고 했다. 이를 통해 지도자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권력을 상실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사후엔 평화적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 가톨릭의 교황 선출 과정인 '콘클라베'와 같은 절차가 선거인단을 통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가톨릭은 천년 동안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이뤘다.

그러나 툴록이 보다 강조하는 방식은 '혈연 승계'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선 지도자와 후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도자가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에게서 교체하기는 쉽지 않다. 후계자인 아들도 기다리기만 하면 권력을 승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툴록은 모든 혈연승계가 안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혈연이 아닌 정치엘리트를 후계자로 지명할 때보다 지도자와 후계자가 상호 신뢰할 가능성은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혈연승계에서 후계자는 권력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도자가 위협을 훨씬 적게 느낀다. 아들이 아버지인 지도자를 암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혈연승계에서 후계자는 권력승계를 준비할 수 있으며, 지도자 사후 평화적인 권력승계를 이루기 용이하다고 한다.

툴록은 지도자 사후 정치엘리트에게도 혈연 승계가 합리적 대안이라고 했다. 혈연승계를 통해 정치엘리트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엘리트에게 가장 좋은 결과는 자신이 직접 지도자 지위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그리고 다른 정치엘리트들이 지도자가 될 경우 기존의 이익이나 권력 분포가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정치엘리트들은 직접 지도자가 되는 길보다는 유력한 후계자를 지지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 전임 지도자의 아들은 유력 후계자이다. 정치엘리트

들은 전임 지도자의 아들과의 연합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혈연승계 이론

제이슨 브라운리의 연구[56]는 혈연 승계에 대한 툴록의 가설 중에서도 후계자와 정치 엘리트의 관계에 보다 중점을 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툴록은 혈연 승계에 대한 두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혈연 승계가 지도자가 후계자로부터 받는 위협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지도자 사후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임 지도자의 혈연 승계 후계자를 지지하는 연합을 형성한다. 브라운리의 연구는 정치 엘리트들이 혈연 승계 후계자를 승인하는 문제에 보다 중점을 두고, 독재자들의 후계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먼저 집권당이 지도자에 앞서는 경우이다. 이미 존재했던 당 조직에서 지도자 지위를 획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치 엘리트들이 후계자 결정을 당에 맡기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지도자가 당에 앞서고 지도자를 뽑았던 확립된 선례가 없는 경우이다. 지도자가 집권당을 건설하고, 지도자의 권위가 당을 압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치 엘리트들은 지도자가 지정한 후계자나 혈연승계 후계자를 승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브라운리는 이 같은 결과를 정치 엘리트들의 위험 회피로 설명했다. 지도자가 당에 앞서는 경우, 정치 엘리트들은 지도자 사망에 따른 지도력 공백(leadership vacuum)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갖게 된다. 정치 엘리트들은 이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혈연 승계 후계자를 승인하게 된다. 혈연 승계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권력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정치엘리트들은 누리던 기존 이익마저 상실할 수 있다. 반면 당이 지도자를 압도하고, 당에서 지도자를 결정한 선례가 있을 경우, 지도력 공백에 따른 위험은 줄어든다. 혈연 승계 후계자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권력투쟁에 따른 불확실성, 기존의 이익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 이 경우 정치 엘리트들은 이전 집권자의 혈육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고자 할 것이다.

문제는 브라운리의 이론이 북한 사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

[56] Jason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59, no. 4 (2007).

북한을 유일하게 예외적인 사례로 분류했다. 브라운리에 따르면, 소련은 한반도 이북을 점령하면서, 북한의 로동당을 세웠다. 김일성은 이 로동당에서 지도자 지위에 올랐다. 브라운리의 이론대로라면, 김일성의 후계자는 당 조직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일성은 아들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정했고, 김정일은 종신집권에 성공했다. 브라운리의 설명처럼, 북한이 단지 유일한 예외 사례라고 넘어갈 수는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브라운리의 이론적 분석에 한계가 존재했다.

중국에 대한 사례 분석 역시 한계가 있었다. 브라운리의 이론에서, 중국은 당이 지도자보다 선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등 비혈연승계가 이뤄졌다고 한다. 브라운리의 이론에 예외가 되는 사례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권력승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중국 공산당에서 전임 지도자를 선출한 선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혈연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도력의 공백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엘리트들의 동기를 설명할 수는 없다. 실제 중국 공산당의 정치엘리트들이 지도자 선택에서 갖고 있었던 동기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브라운리가 정치엘리트들의 선호를 기존의 이익 유지, 위험 회피만으로 단순하게 설명했다.

브라운리 이론의 문제는 혈연승계 후계자와 전임 지도자가 지정한 후계자가 사실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혈연 관계는 아니더라도 지정된 후계자가 정치엘리트들의 현존하는 이익을 유지시켜줄 수도 있다. 지정 후계자도 지도력을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 위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혈연승계 후계자는 전임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갈등 가능성을 낮추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정치엘리트와의 관계에선 뚜렷한 의미를 갖기 어렵다. 전임 지도자 사후에는, 혈연승계 여부 상관없이, 후계자가 정치엘리트들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해줄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지도자 사후엔 지도자가 아닌 지배 연합 정치엘리트 다수의 지지가 필요하다. 브루스 부에노 디 메스키타 등의 연구에 따르면, 현직자의 사망 이후, 도전자는 핵심 후원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57] 이는 후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지배연합의 정치 엘리트들은 지도자가 사망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찾는데, 후계자는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줌으로

[57] Mesquita, Smith, *The Dictator's Handbook: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 pp.23-29.

써, 권력승계에 성공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혹은 후계 경쟁 시기에 지배 연합에 기대 이익에 대한 공약이나 신호(signal)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배 연합의 정치 엘리트에겐 후계자가 전임자와 혈연 관계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전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배 연합은 기대 이익이 후계자에 대한 지지 여부의 관건이다.

제 3 절 후계자와 지배연합의 관계

1. 선정인단 이론(Selectorate theory)

(1) 후계자의 정치적 생존 전략

부에노 디 메스키타 등의 선정인단 이론[58]은 후계자와 지배 연합의 관계에 대한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 이론은 원래 지도자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선정인단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결정하는 집단으로, 지배 연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도자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선정인단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 이론은 전임 지도자 사망하거나 축출된 이후 후계자의 집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지도자 일반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분석틀이기 때문이다. 선정인단 개념을 지배 연합이라고 본다면, 후계자는 지배 연합의 정치엘리트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만 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

선정인단 이론은 지도자의 결정과 지도자의 생존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이뤄지는지 설명한다. 그는 민주주의, 권위주의, 사회주의, 왕정 등 체제 유형에 따른 지도자 선출을 다루지 않았다. 대신 모든 정치 체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연역적 이론이다. 민주주의나 권위주의 모두 지도자가 선출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정인단 이론은 국가 사이에서, 혹은 시기 별로 권력승계의 문제를 비교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다.

선정인단 이론에서 정치체는 지도자, 도전자, 선정인, 승리연합 등으로 구성된다. 선정인은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다. 선정인은 국가를 비롯한 정치체의 구성원인 거주민의 부분이다. 따라서

---

[58] Mesquita et al.,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pp.77-106.

각각 정치체에서도 선정인의 규모는 다르며, 한 정치체에서도 시기에 따라 선정인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같은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지도자 선출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은 언제나 제한이 따른다. 다만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국민 대다수가 선정인이 되지만, 권위주의 국가의 경우 선정인은 소수이다.

결국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선정인으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한다. 지도자는 자신을 지지하는 선정인 규모가 다른 선정인 규모를 능가할 때 도전자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그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이 때 지도자를 지지하는 선정인 그룹을 '승리 연합'이라고 한다. 승리 연합에 속한 선정인들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도자는 안정적으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지도자는 선정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권력을 얻을 수도, 빼앗길 수 있다. 선정인단 이론에서 지도자의 권력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승리 연합(W)의 규모와 선정인(S)의 규모이다. 승리 연합의 크기가 클수록, 선정인의 규모가 작을수록 지도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충성 법칙인 'W/S'로 나타낼 수 있다. 반대로 권력을 잃을 확률은 '1−W/S'로 나타낼 수 있다. 승리 연합과 선정인의 비율은 지도자의 권력 안정에서 핵심적인 독립변수인 것이다.

관건은 승리 연합을 유지하거나 도전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선정인에게 제공하는 이익이다. 승리 연합에 속했던 선정인들이 이탈하지 않으려면 지도자는 이들에게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반대로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인을 제공할 수 없는 도전자는 앞으로의 기대 이익(expected benefit)을 제시해야 한다. 메스키타는 지도자가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은 공적 재화(public good)와 사적 재화(private good)로 나눴다. 공적 재화는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 일반에 주는 이익이다. 비배타적, 비경쟁적 성격을 갖는다. 또 공공 정책을 통해 제공된다. 이와 달리 사적 재화는 핵심적인 특정 지지 그룹에게 제공된다. 배타적이면서 경쟁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즉 지도자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인 그룹들만 누릴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이다.[59]

지도자가 승리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적, 사적 재화 공급이 필수적이다. 재화를 승리 연합에 속한 선정인에 제공함으로써, 지도자는 이들의 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 지도자와 승리 연합을 구성하는

[59] Ibid., p.31.

선정인 사이의 친밀감은 결정적 변수가 아니다. 선정인은 재화를 통해서 지도자를 결정한다.[60] 따라서 이데올로기, 혈연, 종교 등은 선정인의 선호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사적 재화와 공적 재화의 최적 비율은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치 제도에 따라 선정인단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사적, 공적 재화를 분배하는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선정인단의 크기는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많은 공적 재화 공급이 권력을 얻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 반면 독재 국가의 경우 권력을 떠받치는 극히 일부 정치 엘리트에게만 이익을 주는 사적 재화 공급이 효과적이다. 공적 재화 공급에 들어갈 재정을 줄이고, 대신 사적 재화 공급에 집중하면,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충성심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정인단의 크기를 결정하는 정치 제도에 따라 지도자나 도전자가 취할 수 있는 집권 전략은 달라지게 된다.

승리 연합의 충성심은 승리 연합의 크기에도 영향을 받는다. 지도자는 공공 혜택을 대가로 소규모 승리 연합에 사적 재화를 공급한다. 그런데 승리 연합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승리 연합이 누렸던 사적 재화에 대한 배타적 혜택이 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승리 연합에 속한 선정인들의 충성도는 그만큼 약화된다.[61] 권위주의 국가의 특성으로 인해 공적 재화의 비율은 적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권위주의 체제에서 집권 전략은 공적 재화보다는 사적 재화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적 재화를 이미 공급하고 있는 현직자는 권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승리 연합의 선정인들은 현직자가 권력을 유지하고 승리 연합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사적 재화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전자는 현직자에게 도전하는 데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물론 도전자가 현재 승리 연합에 제공되는 사적 재화보다 더 많은 사적 재화를 제공한다고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도전자의 약속은 권력 교체기와 같은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선정인들은 도전자가 집권에 성공할 가능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결국 메스키타의 선정인단 이론에서 도전자가 승리연합을 구성하려면 그에 따른 기대 이익이 높아야 한다. 즉 개별 선정인은 도전자의 승

---

[60] Ibid., pp.86-87.
[61] Ibid., p.173.

리 가능성과 이익에 따라 도전 연합에 참여할지 결정한다. 도전자에 대응한 현직자의 전략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현직자는 승리연합 선정인들이 향후 받게 될 기대 이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결국 핵심은 누가 어떤 이익을 받을지에 대한 공약이 승리의 조건이다. 다시 말해, 선정인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사적 재화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현직자나 도전자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사적 재화는 메스키타의 이론에서 핵심적인 전제이다. 물론 사적 재화와 공적 재화라는 개념 구분은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권 전략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 유용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국민 전체에 이익을 주는 공적 재화가 중요하지만, 권위주의 국가에선 지도자의 승리에 기여한 승리연합에 지원하는 사적 재화가 중요하다. 권위주의 국가에선 승리 연합의 선정인들을 위한 사적 재화 공급을 위해 공적 재화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폭정과 정부 부패가 지도자의 선의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독재자는 생존을 위해 특정 제휴 세력에 사적 재화를 공급해야 한다.

사적 재화 개념을 전제함으로써, 메스키타의 이론은 명확한 논리적 구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선정인이라는 행위자의 유인을 사적 재화로 국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사적 재화는 행위자의 이익이나 선호보다도 좁은 개념이다. 행위자의 선호는 사적 재화 외에도 직위, 명예 등 다양한 선호로 나타날 수 있다. 사적 재화만으로 행위자의 선택을 설명할 수 없다. 정치 행위자와 사적 경제 주체의 선호가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

선정인의 선호를 사적 재화로 한정할 수는 없다. 정치 행위자에게는 다양한 선호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현상에서 행위자들 사이엔 공통의 선호가 존재한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공통의 선호를 둘러싸고, 정치 행위자들 사이에 제휴나 갈등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선호를 너무 단순하게 전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공통된 선호를 전재하지 않는 것도 현상을 제대로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제도적 맥락과 선호 형성

메스키타의 선정인단 이론은 행위자의 선호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분석하는데, 이는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이익 극대화를 행위자의 유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합리적 선택이론이 전제하는 선

호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선호를 행위자가 이미 알고 있는 외생적 개념으로 제시한다. 선호의 의미는 개념 바깥에서 나오지 않으며, 선호 그 자체로부터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행위자의 선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기본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이 같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제도는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해석하고 선호를 정의할 수 있는 맥락을 제시한다.[62]

선정인단 이론의 문제는 이익을 사적 재화로 한정한다는 점이다. 이 이론을 북한에 적용한 한병진의 연구[63]에 따르면, 김일성은 지배 연합의 축소를 추구했다고 한다. 정치적 충성 유지를 위한 사적 재화의 제공에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용을 최소로 줄이면서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에서 지배 연합의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지배 연합이 축소되면 지배 연합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충성 경쟁도 심화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 김일성 역시 지배 연합을 축소해서 지배 비용을 줄이고, 지배 연합 정치 엘리트들의 충성을 강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일성이 지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배 연합을 축소했는지는 사실 확인하기 어렵다. 지배 연합 축소에 따른 비용 감소가 유의미한 수준인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메스키타의 이론이 전제한 사적 재화라는 유인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지배 연합의 정치 엘리트의 선호에 대해선 보다 정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역사제도주의 접근에 따르면,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제도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 [64]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 정치 행위자의 선호는 민주주의 국가의 것과는 다르다. 사회주의 일당독재 체제에서 정치 행위자의 선호는 결국 공산당 고위 간부가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부르주아와 계급은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 이와 달리 사회주의 체제에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거 소련에서 특권적 이익을 누린 노멘클라투라는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영

---

[62] Sven Steinmo, "Political Institutions and Tax Policy in the United States, Sweden, and Britain," *World Politics* 41, no. 4 (1989).

[63]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국가전략』, 15(1), 2009.

[64] Thelen Kathleen,Sven Steinmo,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ed. Sven Steinmo, Thelen Kathleen,Frank Longstre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향력을 행사했다. 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구소련의 경제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65] 사회주의 일당독재에서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속한다는 것은 정치 행위자의 선호로 규정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직이나 의원직에 대한 재선이 정치 행위자의 선호로 규정되는 것과 대비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정치엘리트의 주요한 선호는 이념이다. 공산당 지도자는 단순히 권력이나 이권을 넘어서,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이 노선 투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념이 정치 행위자의 선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사회주의 일당독재의 제도적 맥락에서 연유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산당은 혁명 정당이다. 근대의 일당독재는 왕정과 다르다. 사회주의 체제의 지배 정당은 이념을 통해 민중을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동원이 성공할 때 지배 정당은 집권을 유지할 수 있다.[66] 이 같은 혁명 정당에 참여하는 간부들도 이념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로 추구하는 강한 성향을 갖는다.

메스키타는 선정인의 이념은 기대 이익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직 사적 재화와 공적 재화가 선정인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념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선호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념의 유사성이 지도자 선택의 직접적 동인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선정인의 선호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일당독재 체제라는 제도적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 선호의 특징이다. 메스키타의 선정인단 이론이 지도자 선정의 보편적 이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국가에 따라 다른 제도적 맥락의 차이에 대해선 설명이 부족했다. 제도적 맥락에서 선정인의 선호를 재정해야만, 현실에 적합한 이론을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선호로서 이념이 갖는 역동적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생긴다. 정치 행위자가 추구하는 이념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이념들이 등장해 경쟁을 벌인다. 이념의 역동성은 정치 행위자의 선호에서 변화를 가져온다. 이 같은 성격으로 인해 행위자의 정치적 제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행위자들은 선호에 따라 다른 행위자들과 제휴를 맺게 되는데, 선호가 변하면 정치적 제휴에도 균열이 발생한다. 행위자들은 자신의 이념을 관철할 수

---

[65] MS Voslenskiĭ, *Nomenklatura: The Soviet Ruling Class* (Garden City, NY: Doubleday, 1984). pp.72-73.

[66] Huntington, *Social and Institutional Dynamics of One-Party Systems*.

있는 지도자를 지지할 수 있으며, 이념 변화에 따라 그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

특정 이념에 대한 지지는 정치 국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념의 정치적 성과가 드러나는 시점이 그 기준이다. 정치적 성과가 나오기 전엔 이념은 단지 각 정파의 징표 정도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념이 보다 독립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념이 가져온 성과에 따라 각각의 이념을 내세우는 정파의 정치적 영향력도 바뀌게 된다. 이는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이념적 선호가 달라져서 나오는 결과이다.

이념의 성과가 나오기 전까진, 이념의 정치적 영향은 크지 않다. 이 시기에는 정치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이념이 위기를 풀 수 있는 해법인지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각기 다른 이념에 따라 정치적 연합을 구성하며 경쟁한다. 그러나 이념에 따른 성과가 드러나면서 경쟁 상황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정치적 성과에 따라 정파 간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긍정적 결과를 낸 이념을 지지하는 정치 연합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67] 반면 이념의 성과가 부정적일 경우 이를 지지하는 정파는 도태된다. 이념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기엔 이념이 정파의 생존을 좌우한다. 이념의 정치적 성과에 따라서 정파가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특정 이념의 성과에 따라, 선정인들은 자신의 이념을 수정하기도 한다. 어떤 이념이 긍정적 성과를 낼 경우 이를 지지하는 정치적 연합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반대로 이념이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경우 이를 지지하는 연합은 줄어들게 된다. 이념에 대한 정치적 피드백(feed-back)이라고 할 수 있다.[68] 지도자의 이데올로기 성패에 따라 그를 지지하는 선정인들의 수도 변화할 수 있다. 이는 당연히 지도자와 도전자의 권력 투쟁에서의 승패와 직결된다.

학습 이론은 이 같은 새로운 이념의 등장이 정치적 권력 균형의 변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학습 이론에서 이념은 이익을 정의

---

[67] Mark Blyth, "Powering, Puzzling, or Persuading? The Mechanisms of Building Institutional Order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1, no. 4 (2007).

[68] Paul Pierson,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 no. 2 (2000). Injoo Sohn, "After Renaissance: China's Multilateral Offensive in the Developing World,"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8, no. 1 (2012).

하며, 그 이익을 얻기 위한 인과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행위자는 목표가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거나 목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학습하는 데에서 새로운 이념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학습을 통해 새로운 이념을 통해 이익을 재정의하고,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인과적 과정을 새롭게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들은 이념의 변화를 둘러싸고 경쟁하고 새로운 정치적 연합을 구축하게 된다. 이는 정치적 권력 균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 이념을 추구했던 정치 행위자는 정책 실패와 연관된 이념으로 인해 권력을 상실하기 쉽다. 반면, 새로운 이념을 제시한 행위자는 권력을 얻게 된다. 상층의 정치 엘리트 사이에서 논쟁과 설득의 과정이 권력 균형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69]

여기서 행위자의 학습 과정이 단일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개인과 조직 수준에서 학습의 과정이 다르게 전개된다. 개인 수준에서의 학습은 조직 수준에서의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본 단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학습은 개인 수준처럼 단일한 성격을 갖지 않는다. 새로운 개인이 조직에서 충분한 권력을 갖고 있다면, 인사과 재정 권한을 통해 새로운 이념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조직에서 개인들은 학습의 정도가 각기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조직 내에서 경쟁적 관점들을 형성한다. 특히 개인들은 이념의 성공과 실패와 무관하게 인사, 조직에서의 물질적 이익 등으로 인해 특정 이념을 지지하기도 한다. [70]

조직 내에서 학습 과정은 역동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른 기능적 업무, 정보 소통 경로 등에 따라 같은 조직에 속한 개인이라도 다른 이념적 입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차이가 파벌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직 내 정보가 파벌 내에서 공유되면서, 파벌 구성원들 사이에선 단일한 이념이 구축되고, 이것이 파벌 사이의 이념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파벌들 사이에선 이념의 성과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경쟁적 이념을 내세운다. 이념적 성과에 대해 조직 내에서 파벌의 분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파벌의 분화는 권력 투쟁을 불러온다. 기존 지도부를 장악한 파벌은 정책의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반면, 정책 실패의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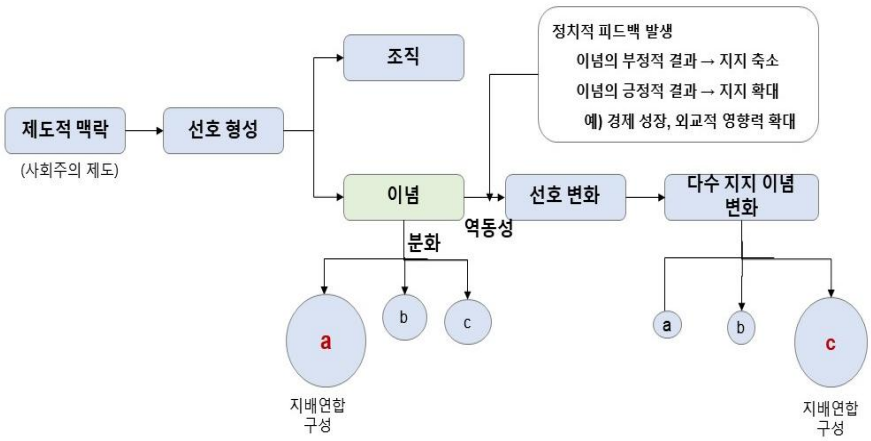
---

[69] Andrew Bennett, *Condemned to Repetition?: The Rise, Fall, and Reprise of Soviet-Russian Military Interventionism, 1973-1996* (Cambridge: MIT Press, 1999). pp.78-79; John Kurt Jacobsen, "Much Ado About Ideas: The Cognitive Factor in Economic Policy," *World Politics* 47, no. 2 (1994).

[70] Bennett, *Condemned to Repetition?: The Rise, Fall, and Reprise of Soviet-Russian Military Interventionism, 1973-1996*. p.88, pp.98-100.

은 외부적 요인으로 치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 파벌들은 조직 내부 차원으로 돌리는 경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지도부를 장악한 파벌들은 기존의 이념을 고수하면서 권력을 유지하지만, 반대 파벌들은 정책 실패를 기회로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면서 권력 획득을 시도할 수 있다. 때로 반대 파벌들은 조직 외부에서 정치적 동맹 세력을 구축하면서 기존의 지도부를 압박하기도 한다.[71]

[그림 3] 선정인들의 이념적 선호의 변화 과정



권력승계 과정에서 후계자는 자신의 이념의 성과를 입증함으로써, 선정인단 다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념적 선호는 이념의 성과에 따라 변화하는 피드백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념의 성과는 경제 정책과 관계 깊다. 후계자가 인민의 경제적 수요를 얼마나 충족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 성장, 혹은 생산력의 증가가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다. 식량 생산량의 증가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만일 생산력 저하에 따른 대규모 기아가 발생할 경우 후계자가 내세우는 이념은 지지를 얻기 어렵다.

---

[71] Barbara Levitt,James G March, "Organizational Learn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14, no. 1 (1988); Yaacov Vertzberger, *The World in Their Minds: Information Processing, Cognition, and Perception in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pp.246-249; Bennett, *Condemned to Repetition?: The Rise, Fall, and Reprise of Soviet-Russian Military Interventionism, 1973-1996*. pp.102-103.

이 같은 맥락에서 브레슬라우의 ‘권위 구축’(building authority)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권위 구축은 소련에서 지도자가 자신의 정책 프로그램을 정당화하고, 경쟁력을 갖춘 대체불가능한 지도자임을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문제 해결사와 정치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 해결사로서, 시대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또 정치가로서 자신의 지도력에 대해 기존 정치 지도부가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국가적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권위 구축을 통해 후계자는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적 제휴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권위 구축은 후견적 관계, 경쟁자의 축출을 통한 권력 공고화(power consolidation)라는 개념과는 다르다.[72]

브레슬라우어의 ‘권위 구축’ 역시 지도자의 정책적 성과에 따라 지지를 확대하는 피드백 모형과 유사한 설명이다. 다만 권위 구축과 권력의 공고화를 구분하는 브레슬라우어의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 권위 구축은 정책적 성과를 통해 정치 엘리트들의 지지를 확대하고, 후계자의 권력 공고화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권위 구축은 권력 공고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권력 공고화를 후견적 지원이나 경쟁자 숙청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권위 구축을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 또다른 문제는 브레슬라우어의 권위 구축이라는 분석틀이 스탈린 이후 소련의 엘리트 정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강력한 일인지배 독재자였던 스탈린의 권력에 정책적 실패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권위 구축은 일인지배에서 벗어난 스탈린 사후 권력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3) 조직과 이념

사회주의 일당독재 체제라는 제도적 맥락에서, 행위자의 선호는 조직과 이념이라는 두 차원에서 볼 수 있다. 풀어서 말하면, 집권당의 고위 간부직에 오르고, 이념을 관철하는 것이 행위자의 선호로 정의할 수 있다. 결국 사회주의 일당독재라는 맥락에서, 조직과 이념은 선호의 양대 요소이다. 그리고 조직과 이념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일당독재

[72] George W Breslauer, *Khrushchev and Brezhnev as Leaders: Building Authority in Soviet Politics* (London George Alen & Unwin, 1982). pp.3-4.

국가의 집권당은 이념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구축해야 한다. 당 조직은 이념을 구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념과 조직의 변화는 집권당 지도자의 정치적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

프란츠 슈어만의 설명은 조직과 이념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 슈어만은 중국 정치를 중심으로 이념과 조직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는 이념이 '계급이나 개인의 특징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일반적인 정의에서 다소 벗어났다. 대신 '조직의 특징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규정했다. 혁명 정당은 특정한 이념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라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념은 '조직을 만들고 사용 목적에 복무하는 행동 결과와 관련된 체계적인 사고 집합'이라고 정의된다. 혁명 정당은 이념에 따라 조직의 역할과 성격이 규정된다.[73]

이념은 단순히 정치 체제, 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만은 아니다. 근대 국가에서 이데올로기는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시그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혁명 정당은 이데올로기를 위해 조직되기 때문에, 혁명 정당 내에서의 이념 투쟁은 어떤 파벌이나 세력이 권력을 쥐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짓는다. 즉 이념이 바뀌면 혁명 정당 내에서 지도부 구성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이념 투쟁에서 승리하고, 혁명 정당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를 장악하게 그에 맞는 인물들이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념 투쟁은 공산당이라는 혁명 정당에서 조직을 둘러싼 갈등의 전초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념은 공산당 조직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념은 공산당 지도부에 편입하는 정치 엘리트와 그렇지 않은 정치 엘리트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그 조직 구성이 선정인들의 선호와 직접 관련된다. 어떤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느냐는 문제는 어떤 선정인들과 승리연합을 형성할 것인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이는 선정인의 선호, 기대 이익과 직결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산당에서의 서열, 직위는 이익, 이권을 접근할 수 있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념은 선정인이 추구하는 선호의 하나이면서, 공산당 고위 간부에 오를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신호 역할을 한다.

이념은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첫째, 이념 자체가 선호가 되는 경우이다. 선정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을 내세우는 지도자를

---

[73]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pp.18-19.

지지하기 쉽다. 자신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도자 입장에선 다수의 선정인들이 지향하는 이념을 내세울수록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이념이 공산당 조직 구성에 대한 신호가 되는 경우이다. 어떤 지도자가 어떤 이념을 주장하느냐는 문제는 어떤 선정인이 공산당 고위 간부가 될 수 있는지 강력한 신호이다. 지도자의 이념에 가까운 선정인들은 공산당의 핵심 간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반면, 지도자와 다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세력은 공산당 조직에서 축출될 수 있다.

집단지배에서 지배 연합 구성은 후계자에게 새로운 과제이다. 전임자의 지지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후계자는 지배 연합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유인은 사회주의 체제에선 이념·조직과 관련된다. 집단지배에서 정치 엘리트들에게 전임자와 후계자는 별개의 문제다. 만일 후계자가 지배 연합의 다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집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후계자는 지배 연합 다수가 선호하는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권력을 얻을 수 있다.

2. 권력 구조와 권력승계 안정성

(1) 권위주의의 유형화: 집단지배와 일인지배

메스키타의 선정인단 이론은 지도자와 지배 연합(선정인단)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분석틀이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의 유형에 따라 지도자와 지배 연합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곧 후계자와 지배 연합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분석틀로 의미를 갖는다. 밀란 스볼릭은 권위주의 체제의 유형을 경쟁적 독재(contested dictatorship)와 확립된 독재(established dictatorship)로 구분했다. 경쟁적 독재와 확립된 독재가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개념은 아니다 메스키타의 선정인단 이론처럼, 독재자와 지배 연합 사이의 권력 분포는 한 평면에서 연속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럼에도 이 두 가지 유형은 지배 연합에 의해 지도자가 축출될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경쟁적 독재와 확립된 독재는 각각 집단지배(oligarchy)와 일인지배(personal autocracy)

에 대응하는 개념이다.[74]

먼저 경쟁적 독재(contested autocracy)는 독재자와 지배 연합이 권력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독재자와 지배 연합이 권력의 균형을 이루며, 독재자는 지배 연합에 의해 권력을 제한된다. 공산당 정치국, 자문회의 등의 의사 결정 기구는 권력의 공유를 뒷받침하는 제도이다.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지배 연합은 독재자의 이 같은 기도를 억제할 수 있다. 지배 연합은 독재자를 축출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독재자는 지배 연합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독재자는 교체될 수 있다.

다음 확립된 독재(established autocrats)는 독재자가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이다. 독재자는 지배 연합과 권력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배 연합에 의해 축출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독재자를 위협할 만한 경쟁자도 없다. 독재자는 집권 유지를 위해 지배 연합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다. 확립된 독재에선 개인 숭배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개인 숭배는 독재자가 최고의 정치적 지위를 획득했다는 선언 성격이 짙다. 확립된 독재라고 하더라도 독재자는 혼자서 국가 통치에 전담할 수는 없다. 그는 권력을 공유하는 정치 엘리트 대신 위계적인 행정 관료나 군 조직과 지배 연합을 구성하게 된다. 행정 관료나 군 간부들은 독재자와 권력을 공유하지 않으며, 독재자에게 복종하는 지위에 있다.[75]

따라서 일인지배에서 지배 연합은 집단지배와 다른 양상을 갖는다. 집단지배에서 정치 엘리트들은 집단적 의사 심의·결정 기구를 통해 정치적 제휴를 이룬다. 사회주의 국가에선 공산당 고위 간부들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인지배에서 이러한 집단적 의사 결정 방식은 축소되거나,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다. 혹은 아예 독재자 일인의 결정을 관철하고 집행하는 조직이 강화된다. 집단지배는 독재자와 지배 연합 간 권력 균형에 따라, 의사 결정이 상대적으로 수평적이다. 반면 일인지배에선 독재자의 권력 독점에 따라, 의사 결정이 상대적으로 수직적이다.

스볼릭의 확립된 독재 개념은 바바라 게디스의 일인지배(personalist)와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게디스는 권위주의 유형을 일인지배와 함께, 군부 지배(military), 일당 지배(single party), 혼합적 지배(amalgams of pure types) 등으로 분류했다. 게디스의 분류는 정치적 직책과 정책에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를 기준으로 삼았다. 첫째, 군

---

[74]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p.55-56.
[75] Ibid. pp.53-63.

부 지배는 군 장교 집단이 지도자를 결정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체제이다. 둘째, 일당 지배는 다른 정당이 존재하거나 선거제도가 존재하더라도, 특정 정당이 지배적으로 정치적 직책에 접근하고 정책을 통제하는 정치 체제이다. 셋째, 일인 지배는 정치적 직책과 정책 결정이 지도자 개인의 재량에 좌우되는 정치 체제이다. 지도자는 군 출신일 수도 있으며,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군부나 정당이 지도자로부터 독립적인 정책 결정권이 없다는 점에서, 일인 지배가 군부나 일당 지배 체제와 다르다.[76]

게디스는 다양한 권위주의 유형에 따른 특징을 잘 드러냈다. 그러나 이론 구성에서 문제가 존재한다. 제도 유형들이 중첩될 수 있기 때문이다.[77] 물론 권위주의 국가 중엔 일인지배, 군부지배, 일당지배 등 세가지 순수한 이념형에 해당하는 국가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유형들이 혼재하는 권위주의 국가도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류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에서 군이 강권력을 행사하며 정치에 개입하는 경우는 일반적이다. 게디스가 혼합적 지배를 또 다른 제도 유형으로 설정한 것도 이런 난점 때문이다. 권위주의 국가들을 어느 하나의 유형에 넣기 어렵다. 대개는 혼합적 유형으로 분류되기 쉽다. 더 중요한 문제는 게디스의 분류가 지도자와 지배 연합의 권력 관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는 후계자의 위협 요인으로서 지배 연합의 이탈이라는 문제와 다소 무관하다.

게디스 등이 공저한 최근 연구에선 일인지배를 지배 연합과의 관계에서 지표로 설정했다. 이 연구는 일인지배를 개인주의(personalism)라고 표현했는데, 일인지배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인지배는 안보 기구에 대한 독재자의 개인적 통제, 충성스러운 준군사조직의 창설, 고무도장 역할을 하는 집권당의 집행위원회, 인사권에 대한 독재자 개인의 통제, 정권을 지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당의 창설, 군에서의 진급에 대한 독재자의 통제 등이다. 이 같은 일인지배화를 게디스(Geddes) 등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독재자가 집권 첫해 일인지배 수준이 높을 경우 평균 집권기간은 14.7년, 낮을 경우 평균 집권 기

[76] Barbara Geddes, "Authoritarian Breakdown: Empirical Test of a Game Theoretic Argu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tlanta, 1999).
[77]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29.

간은 7.8년이었다고 한다.[78]

본 연구에서는 집단지배(경쟁적 독재)와 일인지배(확립된 독재)를 권위주의의 대조적인 유형으로 제시했다. 경쟁적 독재와 확립된 독재에 대응되는 집단지배와 일인지배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집단지배와 일인지배에서 독재자가 받는 위협의 차이가 중요한 부분이다. 후계자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분석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독재자가 처한 위협 상황은 후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2) 후계자의 집권 공고화

독재자와 지배 연합의 권력 관계는 후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후계자는 새로운 독재자이기 때문이다. 후계자 역시 전임자의 사망이나 퇴진 이후엔 지배 연합의 지지를 통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지배 연합에 의한 축출 위협을 안고 있다. 따라서 독재자와 지배 연합의 위협 수준을 낮추면서, 자신의 집권을 안정시키는 경향은 후계자의 집권 공고화에 대한 분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독재자가 경쟁적 독재에서 벗어나 확립된 독재로 나아가고자 하는 유인은 최고지도자 지위에 오른 후계자에게도 나타난다.

집단지배와 일인지배에 따라, 독재자가 직면하는 위협이 달라진다. 먼저 집단지배에서 독재자가 직면하는 위협은 지배 연합에 속한 정치 엘리트로부터 나온다. '권위주의적 권력공유의 문제' (The problem of authoritarian power sharing)이다. 지배 연합은 독재자를 지지하면서, 독재자와 함께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권력을 보유한 개인들의 집합이다.[79] 지배 연합은 독재자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인 셈이다. 독재자는 지배 연합의 지지를 얻어야 집권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지배에서 독재자가 직면한 위협은 지배 연합에 참여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반란이다. 정치 엘리트들은 독재자를 제거할 수 있다.

반면 일인지배에선 독재자가 지배 연합 내부로부터 받는 위협은 사라진다. 일인지배 제도에서 독재자는 정치적 경쟁자를 언제든 제거할 수 있다. 일인지배에서 독재자는 안정된 장기 집권을 구가하기 쉽다.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외국의 점령, 리비아 무아마르 가다피는 대중

[78] Geddes et al.,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pp.79-80.
[79]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p.5-6.

봉기, 스탈린은 뇌졸중이라는 자연적 원인으로 각각 독재를 마감했다. 그럼에도 이들 일인지배 독재자들이 지배 연합의 이탈로 권좌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었다.[80]

이러한 차이는 마키아벨리가 터키와 프랑스의 왕정을 비교한 구절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 '터키에선 한 지배자가 왕국 전체를 통치하며, 나머지는 왕의 하인들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왕은 혈통 귀족 집단 중에 하나이다. 왕은 귀족들을 없애기 어려우며, 귀족을 없애고자 한다면 왕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터키에서 왕의 자리는 얻기는 어렵지만, 일단 얻고 나면 권좌를 지키는 일은 쉽다. 반대로 프랑스에선 왕의 자리에 오르기는 쉽지만, 이를 지키기는 극도로 어렵다.' [81] 프랑스에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귀족들에 의해 교체될 수 있는 위험 때문이다. 이는 집단지배와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집단지배에서 지도자는 지배 연합으로 축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독재자는 집단지배에서 일인지배로 전환하고자 하는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에서 지도자는 지배 연합으로부터 축출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배 연합 내 정치 엘리트들을 숙청하거나, 자신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정치 엘리트들을 지배 연합으로 충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혹은 독자적인 권력 기반이 미비해 위협이 되지 않을 인물들로 빈자리를 채우기도 한다. 일단 지도자가 정치적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기 시작하면, 지배 연합과의 갈등에서 유리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일인지배가 강화할수록 지도자의 집권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82] 이를 후계자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후계자의 안정적 집권은 집단지배에서 일인지배로의 전환에 달려 있다.

3. 후계자의 집권 안정과 제도

후계자의 집권 안정과 제도에 대해서도, 독재자에 대한 이론들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독재자는 권력을 이양 받은 초기

---

[80] Ibid. p.7, p.55.
[81] Niccolò Machiavelli, *The Prince*, trans. Peter Bondanella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16-17.
[82] Ibid. pp.61-63; Geddes et al.,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pp.85-89.

지배 연합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독재자는 지배 연합과 권력 배분을 두고 새롭 협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집권을 가능하게 한 지배 연합이 역으로 독재자에겐 심각한 위협이다. 이 때문에 독재자는 지배 연합과의 권력 공유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인지배를 확립하고자 하는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된다. 일단 독재자가 지배 연합과 첫번째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자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독재자는 지배 연합과의 이어지는 권력 투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83] 시간이 지날수록 일인지배로 전환은 보다 수월하다.

지배 연합이 독재자에게 공동으로 저항하는 데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우선 제휴 동맹의 정치 엘리트들은 독재자의 행동들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있다. 지배 연합은 독재자의 궁극적 목표가 일인지배인지 알기 어렵다는 뜻이다. 게다가 독재자에 저항했다가 실패할 경우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정보의 부족과 위험 부담 때문에 지배 연합은 집합 행동(collective action)의 문제[84]에 봉착하기 쉽다. 지배 연합의 정치 엘리트들이 독재자에 대한 행동의 일치를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치 엘리트들이 독재자에 대한 도전을 주저하는 사이에,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을 확대한다. 권위주의 체제는 그 특성상 관료조직과 지배 정당에 크게 의존한다. 독재자는 두 조직에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임명하면서, 점차 자신의 권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지배 연합이 독재자를 교체하지 못하는 사이에 관료 조직과 집권당은 독재자에 대한 충성을 제도화한다. 결국 독재자는 충분한 권력을 축적해 나가면서, 종국엔 도전 받지 않는 권력을 확립한다. 경쟁적 독재가 확립된 독재로 전환한 것이다. 비로소 지배 연합이 독재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독재자는 집권 유지를 위해 지배 연합과 권력을 공유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85]

독재자의 일인지배 구축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공식적인 협의 제도이다. 협의 제도를 통해 독재자와 지배 연합 사이에 공력 공유에 대한 약속이 보다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먼저 의사 결정이 협의

---

[83] Geddes et al.,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pp.85-89.

[84] Mancur Olson, *The Theory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85]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p.53-80.

기구를 통해 이뤄지면 독재자와 지배 연합의 상호 작용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다. 다음 독재자가 공식적인 협의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지배 연합은 독재자의 권력 확대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다. 지배 연합은 독재자의 권력 확대를 막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집단지배에서 일인지배로의 전환을 차단할 수 있다.[86] 협의 제도는 지배 연합의 집합 행동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제이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칠레 피노체트 정권에서의 군 통치 회의(Junta militar de gobierno),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정자문회의((Majlis Ash-Shura) 등이다. 이러한 집단적 의사 결정 제도로 인해, 독재자는 집단지배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를 받게 된다.[87]

공식적 협의 제도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후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하다. 후계자가 일인지배 전환에 성공하고, 안정적인 집권을 누리기 위해선 협의 제도라는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협의 제도에 대한 무력화에 나서거나, 후계자가 자신의 지시를 관철하는 별도의 의사결정 기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지배 연합이 후계자의 일인지배 전환 의도를 간파해버리고 말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에서 본다면, 제이슨 브라운리의 연구[88]에 허점이 드러난다. 당이 지도자에 선행하기 때문에 혈연승계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다. 집권당의 공식적인 협의 기구 때문에, 후계자가 권력을 공고화하기 어려운 것이다. 후계자의 일인지배 전환 시도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뜻이다. 후계자는 지배 연합에 의한 축출 위협을 벗어나기 힘들다.[89]

독재자의 권력 공고화와 관련, 한병진의 연구는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공유지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공유지식은 다수가 독재자를 지지하고 있다고 다수가 믿는 것이다. 독재자가 소수의 충성파를 통해 도전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면서 공유지식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공유지식이 형성되면 심리적 차원에서 독재자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90] 제도 대신 심리적 요인을 강조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지식은 심리적 차원에 치중한 설명으로 실제 사례를

---

[86] Ibid., pp.85-87.
[87] Ibid., pp.7-8.
[88]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89] 다만 공식적 협의 제도의 무력화가 일인지배의 결과인지, 일인지배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인지는 명확하진 않다.
[90] 한병진. 「권력투쟁의 미시적 작동원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28(3), 2017.

통해선 실증하기 어렵다. 확립된 독재, 혹은 일인지배에서 지배 연합은 독재자에게 이미 순응하는 정치 엘리트로만 구성된다. 도전 가능성이 있는 정치 엘리트들은 이미 제거된 상태다. 확립된 독재에서 독재자가 안정적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지배 연합 엘리트의 심리적 변화에서 기인하기보다, 지배 연합의 구성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4. 파벌의 영향

협의 제도가 집합 선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면, 파벌주의는 집합 선택의 문제가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게디스 등의 연구[91]에 따르면, 여러 파벌들로 분열된 지배 연합이 독재자의 권력 강화를 저지하는 단일한 행동에 나서기는 어렵다. 반면 지배 연합의 결속력이 강력할수록, 독재자의 권력 강화를 제한하는 데 유리하다. 특히 독재 정권을 수립한 세력으로 구성된 지배 연합은 조직적으로 단일하고 지배 연합의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협의도 수월하다. 이러한 성격의 지배 연합은 독재자와의 협상에 성공을 거두기 쉽다. 지배 연합이 파벌주의로 분열되어 있을 경우, 독재자가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데에 유리하다.

이러한 설명은 후계자의 권력승계 상황에도 유추될 수 있다. 지배 연합이 독재 정권 수립을 이끌었던 인물들로 이뤄진 단일한 조직이라면, 후계자가 자신의 권력을 집중해 나아가는 데 불리하다. 후계자는 지배 연합에 새로운 정치 엘리트들을 충원함으로써, 지배 연합의 단일한 결속력을 무너트릴 필요가 있다. 독재 정권 수립에 기여한 공신(貢臣)들의 연합 구조 타파는 후계자가 안정된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 넘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후계자가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분열 통치' (divide-and-rule)이다. 대런 애쓰모글루 등의 연구[92]에 따르면, 분열 통치 전략은 집합 행동의 문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정치적 추축 집단(political pivotal group)에게 특혜를 제공해 매수하면서, 정치적 도전자들로부터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선별적 유인과 징

---

[91] Geddes et al.,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pp.89-94.

[92] Daron Acemoglu, Thierry Verdier,James A Robinson, "Kleptocracy and Divide-and-Rule: A Model of Personal Rule,"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2, no. 2-3 (2004).

벌을 통해 정치 세력들이 단합을 차단한다. 일단 추축 집단에 대한 매수하는 데 성공하면, 도전자를 물리치고, 더 이상 여타의 정치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재자는 부패한 '도둑정치'(kleptocracy)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게 된다. 애쓰모글루 등의 연구는 지배 연합보다 범위가 넓은 정치·사회 세력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 통치는 지배 연합에서의 집합 행동 문제를 강화하고, 독재자가 권력을 강화하는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제 4 절 권력승계에서 정책 변화

권력승계 과정에서 후계자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항상 관심의 초점이다. 전임자와 다른 정책적 노선 추구가 체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승계는 정책 대안을 실험하는 기회일 수 있다. 후계자는 전임자를 공격함으로써, 전임자의 권위를 깎아내림으로써, 광범위한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 부가적으로 후계자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전임자의 잘못으로 전가할 수 있다. 전임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1956년 구(舊)소련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니키타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을 공격했고, 흐루시초프 역시 후임자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세스쿠나 동독 에리히 호네커는 모두 전임자의 지원으로 권력을 이양 받았지만, 권력을 얻은 이후 전임자를 비판했다.[93]

발러리 분스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소련 스탈린 사후 권력승계 과정에서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의 주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권력승계 국면이라는 특정한 시기에서 경제 정책의 두드러진 특징들이 보였다. 전임자에 비해 후계자들이 대중의 수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권력승계 시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대중적 저항과 같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노출할 수 있는데, 후계자는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대중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충족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적 주기는 흐루시초프와 브레주네프 권력승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인당 국민소득, 월급, 연금 수혜 등 국민의 경제적 수요 충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권력 승계 시기에 보다 높았다. 국민의 경제적 수요가 충족되어야,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대될 수 있다. 국민의 경제적 수요에 미치지

[93] Rush, *How Communist States Change Their Rulers*.

못할 경우, 집권당은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체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94]

[표 1] 흐루시초프와 브레주네프 집권 시기 연 평균 성장률(단위:%)

	국민 소득 (1960-1978)	일인당 국민소득 (1965-1978)	근로자·피고용인의 월급 증가율 (1964-1978)	집단농장 농부의 월급 증가율 (1964-1978)	연금을 받는 수혜자수 (1954-1978)
승계 시기 (1954-1957, 1965-1968)	7.7	6.2	5.2	10.1	9.1
승계 이후 시기 (1958-1964, 1969-1978)	5.6	4.4	3.2	4.6	3.2

※ 출처 : Valerie Jane Bunce, "The Succession Connection: Policy Cycles and Political Change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 no. 4 (1980).

분스의 연구는 권력승계 과정에서 후계자의 정책 주기를 보여줬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주기가 공산당 통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스는 이러한 정책 주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주로 국민의 지지에서 찾았다. 정치 엘리트 내부에서의 지지도 후계자가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선정인들은 후계자의 이념적 성과에 따라 이념적 선호를

[94] Valerie Jane Bunce, "The Succession Connection: Policy Cycles and Political Change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 no. 4 (1980).

정하고, 이에 따라 후계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념적 성과는 결국 국민의 경제적 수요를 얼마나 충족했는지가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다. 국민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집권당의 독재 체제가 전체가 국민의 저항이라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집권당 정치 엘리트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경우이다.

소련에서 스탈린 이후 권력승계 과정은 정책적 논쟁의 과정을 수반했다. 조지 브레슬라우어의 연구에 따르면, 소련 스탈린 사후 흐루시초프와 브레주네프로의 각각 두차례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정책의 변화 패턴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스탈린 이후 소련에서 권력승계는 두 단계로 이뤄졌다. 첫번째 단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정치 엘리트들이 권력투쟁을 벌이면서 정책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국무원 총리 말렌코프는 경공업, 소비재 생산을 강조했던 반면, 공산당 제1서기 흐루시초프는 중공업, 국방을 중시했다. 이 둘은 정책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면서, 점차 흐루시초프가 정책 결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대했다. 두번째 단계는 경쟁자들로부터 정책 주도권을 탈취하면서, 점차 자신의 정책 결정 권한을 확대하고, 정치국 개편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증대하는 과정이다. 이후 권력을 장악하고 나면 상대의 정책을 흡수, 절충적인 정책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95]

주로 구소련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녔다. 먼저 권력승계 과정에서의 정책을 둘러싼 역동성은 스탈린 이후 소련의 권력 분포가 집단지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스탈린 이후 권력승계는 집단지배라는 조건에서 이뤄졌다. 만일 스탈린 사후에도 일인지배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변화, 정책적 논쟁이 이뤄질 수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 권력승계 과정에서 일인지배가 유지되는 경우 정책에서 다른 패턴이 나타날 수 있었다. 또다른 문제는 후계자의 권력승계 정당성이 전적으로 전임자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계자의 전임자에 대한 비판은 단지 전임자의 권위를 훼손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후계자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일일 수 있다.

물론 권위주의 국가에서 독재자는 정책의 성과에 둔감한 경향을 보이기 쉽다. 민주주의 국가처럼 지도자의 정책 실패를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의회와 같이 일부 민주적 제도를

---

[95] George W Breslauer, "Political Succession and the Soviet Policy Agenda," *Probs. Communism* 29 (1980).

도입한 권위주의 국가의 경우도 지도자가 정책 실패에 대해 지도자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96]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책임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집단지배와 일인지배는 정책적 성과에 대한 반응성은 달라질 수 있다. 일인지배에선 독재자의 취약한 경제적 성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배 연합이 독재자의 잘못된 정책이나 유토피아적인 정책 실험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다. 일인지배에서 독재자들이 참혹한 경제 정책을 고수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와 달리, 집단지배에선 지배 연합의 엘리트들이 독재자를 축출할 수 있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될 여지가 더욱 많다.[97]

로널드 윈트로브는 이 같은 상황을 '독재자의 딜레마'로 설명하기도 했다. 독재자의 권력이 강할수록, 권력자가 직면한 위협도 커진다는 뜻이다. 이 같은 딜레마는 정책 실패에 대한 피드백에서 비롯된다. 독재자가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면, 독재자 주변의 정치 엘리트들은 두려움 때문에 독재자의 실패에 침묵하기 마련이다. 이는 두가지 위협으로 이어진다. 하나는 대중으로부터 오는 위협이다. 독재자의 정책 실패에, 대중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군으로부터 오는 위협이다. 정책 실패에 대한 대중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선 군의 권력을 확대해줘야 한다. 강한 권력을 갖게 된 군은 독재자에게 새로운 부담이다. 독재자의 권력 강화가 역으로 독재자를 위태롭게 만드는 '독재자의 딜레마'가 벌어진다.[98]

제 5 절 물리적 강권기구와 대중 저항

집단지배에 비해 일인지배에서 후계자(독재자)는 안정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지배 연합에 의해 축출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인지배에서도 다른 위협들은 남아 있게 된다. 먼저

---

[96] Timothy J Besley,Masayuki Kudamatsu, "Making Autocracy Work," *STICERD Development Economics Discussion Paper*, no. 48 (2007); Edmund Malesky,Paul Schuler, "Nodding or Needling: Analyzing Delegate Responsiveness in an Authoritarian Parlia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4, no. 3 (2010).

[97]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p.196-198.

[98] Ronald Wintrobe,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p.20-22.

대중 봉기가 정권을 위협할 수 있다. 권위주의 체제의 원죄는 대중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음 군으로부터 오는 위협이다. 권위주의 정권은 대중에 억압을 포기할 수 없다. 군은 대중을 억압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그런데 대중을 억압하기 위해 군에 의존할수록, 군의 정치적 영향력이 함께 증대한다. 독재자는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군의 특권과 정책적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 시점에서 군이 대중을 억압하는 데에서 넘어, 독재 정권 자체를 향할 수 있다.[99]

따라서 독재자는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한다. 대중 저항과 군의 쿠데타 위험이다. 대중 저항을 통제하기 위해선 군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단일한 지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효과적으로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문제는 군의 쿠데타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반대로 쿠데타를 막기 위해 군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분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문제는 대중을 효과적으로 억압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독재자는 '강압의 딜레마'(coercing dilemma)에 부딪친다.[100] 독재자는 대중의 위협과 군의 위협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다. 강압의 딜레마 상황에서 독재자는 위협의 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대중의 위협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군이 단일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사회에 깊이 관여하도록 할 것이다. 반면 군의 위협을 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하면서, 군 조직을 분열시키고 사회로부터 차단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독재자는 군의 대중에 대한 억압과 군에 대한 통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1. 군에 대한 통제

군의 충성은 독재자의 집권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를 위해 독재자는 군에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대부분 전문 군인들은 군의 생존과 효율성을 선호한다.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고, 인사와 훈련을 비롯한 군의 업무에 대해선 자율성을 보장받길 원한다. 다른 국가 기관이 군 조직에 관여하는 일을 극히 꺼린다.[101] 군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다른

---

[99] Ibid., p.10.
[100] Sheena Chestnut Greitens, *Dictators and Their Secret Police: Coercive Institutions and State Viol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21-23.
[101] Barbara Geddes,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 no. 1 (1999); Eric A.

국가 조직의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군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특권, 강압 수단 사용에 대한 면책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문제는 군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지휘체계가 강화할수록, 군이 정치에 행사하는 영향력도 강력해진다는 점이다. 군의 쿠데타를 막기도 어려워진다. 군에 대한 유인 제공과 함께 군을 통제해야만 독재자는 집권을 유지할 수 있다. 군에 대한 통제는 두 차원에서 이뤄진다. 하나는 분열(fragmentation) 수준을 높이는 전략이다. 군 내부와 외부에서 경쟁을 유발하면서, 경제와 균형을 통해 군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군의 사회적 배타성(socially exclusivity)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로부터 유리된 조직으로 남게 하는 것이다.

(1) 분열 전략

먼저 분열 전략은 군을 여러 조직으로 분할하며 통제하는 방식이다. 군 조직 사이에 경쟁을 유도하거나, 군과 별개로 국내 안보 조직을 따로 조직하는 것이다. 이라크의 경우 군과 함께 국내 안보를 담당하는 경찰, 준군사조직, 공화국수비대를 따로 두었다. 다수의 군, 정보 조직을 운영하면서, 상호 중첩적인 기능을 갖도록 하기도 한다. 상호 감시, 견제를 통해 군이 집단적 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군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이다. 독재자는 군의 쿠데타를 차단하기 위해 지휘체계의 효율성 저하를 대가로 치르는 것이다.[102]

특히 권위주의 국가에선 다수의 중첩적인 군 조직들을 두면서도 이를 조정하는 기구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휘체계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의도이다. 중동의 권위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는 군에 대한 권위를 조직 사이의 권력 균형을 통해 추구한다. 조직 간 경쟁을 부추기고, 조직 간 업무가 중첩되도록 한다. 군 전체를 총괄하는 합동사령부는 서서류상 존재할 뿐이다. 합동 훈련도 거의 열리지 않는다. 합동 훈련이나 합동사령부가 있으면, 군 조직들 사이의 경쟁보다는 협력이 강화되고, 이는 지도자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예를 들

Nordlinger, *Soldiers in Politics: Military Coups and Governments* (Prentice Hall, 1977). pp.65-66;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p. 127-133.

[102] Greitens, *Dictators and Their Secret Police: Coercive Institutions and State Violence*. pp.25-25.

면, 육군이 공수 훈련을 위해 공군의 항공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나 최고지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심지어 육로 호송의 경우도 여러 군 조직들 사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03]

(2) 사회적 배타성

권위주의 체제에선 군을 조직할 때 사회적 출신 배경을 살핀다. 보다 충성스럽고,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을 군에 충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은 사회 구성을 그대로 반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권위주의 국가에선 군이 사회 구성과 무관하게 조직된다. 독재자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군인을 충원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독재자와 같은 사회, 인종적 배경을 갖춘 군인들이 독재자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이들은 독재자와 같은 정체성을 갖고, 이익을 공유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으로 고립된 집단 출신들이 응집력을 갖고 작전을 수행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탈취할 가능성이 낮다.

독재자들은 군 조직 구성에서 자신의 인종 그룹이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들을 선호한다.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가다피는 공화국 수비대를 카다피의 부족에서 채웠다. 아들 카미스는 정권 보호를 위해 창설된 엘리트 여단을 맡도록 하고, 매제 아둘라 세누시를 정보 기관 수장으로 임명했다. 가다피는 친인척, 같은 부족원들을 중심으로 군을 조직한 것이다. 이라크의 독재자였던 사담 후세인은 그의 고향 티크리트 출신 5000명으로 특수보안국 '암 알암' (Amn al-Amm)을 조직하기도 했다. 특수보안국의 수장은 후세인의 아들 쿠사이가 맡았다.

독재자는 군을 사회와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한다. 가디피는 수단, 차드, 말리, 나이제리아에서 군인을 고용했다. 또 사회적 소수 집단을 동원하기도 한다. 사회적 소수이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혹은 아예 소규모의 정보 기관을 세우기도 한다. 독재자의 이 같은 방식들은 모두 군으로부터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데에서 나온다.

---

[103] Norvell B. De Atkine, "Why Arabs Lose Wars," *Middle East Quarterly* (December 1999).

독재자가 끊임없이 군 인사 교체에 나서는 것도 군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순환 보직이다. 군 장교가 한 직위을 장기간 맡을 경우 군 조직 내에서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관계가 그렇다. 순환 보직은 이러한 인적 관계를 애초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휘관에 대한 숙청과 재임용을 반복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순환 보직은 군의 집단적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104]

2. 대중에 대한 억압과 포섭

대중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독재자가 대응하는 방법은 포섭과 억압이다.[105] 권위주의 지도자라고 해도, 억압만으로 통치할 수 없다. 사회의 다양한 분규에 대처하기 위해선 협력과 타협이 필요하다. 독재자도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협력과 타협의 제도화 수준에 따라, 독재자의 위기 대응 능력은 달라질 수 있다. 위기 대응 능력은 곧 독재자의 집권 유지와 결부된다. [106]

물론 권위주의 체제에서 강압은 필수불가결한 집권 유지 수단이다. 일인지배나 집단지배 모두 강압은 집권 유지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중에 대한 억압은 비용이 따른다. 도덕성이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더 큰 대중 봉기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불러올 수도 있다. 억압은 최종적 수단이다. 그래서 권위주의 체제에서 억압과 함께 포섭을 집권 유지에 활용한다. 포섭은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도적 협의, 조정 기구로 끌어들이는 전략이다. 민중 봉기에 따른 독재 정권의 축출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반대 세력을 포섭하고, 이들과 이익을 나누며, 타협을 벌인다.[107]

집권당의 집단적 의사 결정 방식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 세력들의 연합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국가의 집권당은 다양한 사회 세력을 포괄하는 '과다 연합'(oversized coalition)을 구축하면서, 장

---

[104] Greitens, *Dictators and Their Secret Police: Coercive Institutions and State Violence*. pp.27-30.
[105]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10.
[106] Jennifer Gandhi,Adam Przeworski, "Authoritarian Institutions and the Survival of Autocra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 no. 11 (2007).
[107] Gandhi, *Political Institutions under Dictatorship*. pp.74-75.

기 집권을 이어간다. 민주주의에선 사회적 균열에 따라 여러 정당들이 나뉘면서, 권력을 얻기 위한 경쟁을 벌인다. 반면 권위주의에선 집권당이 여러 사회 세력들과 연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균열이 집권당 내 파벌의 형태로 나타난다. 집권당 내에서 정치 엘리트들이 분화하고, 이들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이권과 공직을 나누며, 집단적 의사를 결정한다.[108]

제니퍼 간디는 권위주의 체제의 생존을 위해 정치 제도들이 진화 발전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그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의회, 정당 등 민주주의 체제의 제도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흥미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의회는 저항 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수단이라고 했다. 의회는 반대 세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면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의회정치라는 제도적 협상 과정을 통해, 반대 세력들은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트리기 보다는 체제 안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의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당제 역시 마찬가지다. 독재정권이 강력하게 통제만 한다면, 다당제는 권위주의 통치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109]

권위주의 체제는 반대 세력의 저항으로 체제 위기를 맞는 데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권위주의 국가마다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한다고 했다. 일당독재 정당에 반대 세력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새로 의회를 설립할 수도 있다. 혹은 자문회의와 같은 의회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반대 세력을 끌어들인다. 이후 반대 세력들은 제도 안에서 언론의 자유나 인권과 같은 자신들의 의제를 주장하게 된다. 독재자는 체제 유지를 위해 이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110]

제 6 절 연구 방법

1. 비교 분석의 디자인

사회과학으로서 정치학은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과학으로서 정치학은 원

---

[108] Beatriz Magaloni, "Voting for Autocracy: The Politics of Party Hegemony and Its Demi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15-16.
[109] Gandhi, *Political Institutions under Dictatorship*. pp.78-79.
[110] Ibid. p.164.

인과 결과라는 인과 관계를 검증,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변수와 변수 간의 상관 관계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원인은 독립변수, 결과는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치학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을 발전시켜왔다. 바로 비교정치학적 방법이다.[111]

비교정치학적 방법은 일반적 법칙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다. 사르토리는 비교분석방법을 인과형 가설, 법칙을 가능한 한 다수의 사례에 체계적으로 대입, 검증하는 분석 방법이라고 했다.[112] 레이프하트는 실험방법, 통계분석방법과 함께 변인간의 경험적 관계를 찾아내는 연구방법의 하나라고 했다.[113] 메릿은 변인 간 연계된 법칙을 도출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한 이론에 입각하여 다양한 정치사회체계의 주요 국면이 나타내는 유사성과 상이성의 근거를 밝혀내는 작업이라고 했다.[114]

비교정치학 방법으로 우선 들 수 있는 건 최대유사체계 분석이다. 마치 자연과학에서 실험과 마찬가지로, 검증하고자 하는 독립변수만을 제외하고 다른 변수가 최대한 유사한 사례를 찾는 것이다. 독립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상수화하는 것이다. 만일 연구대상현상인 종속변수의 각각의 비교 사례에서 다르게 나타났다면, 비교사례 사이의 유사성으로는 그러한 종속변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으며, 상이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를 위해 유사성이 극대화되면서, 상이성을 극소화한 사례를 뽑아 비교해야 한다. 여기서 극소화한 상이성이 바로 독립변수인 것이다. 레이프하트는 다수의 변수를 통제해, 소수의 변수 상호 간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과다변수의 문

---

111 자연과학에서 가설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한 다음, 일반적 법칙을 수립한다. 실험 과정에선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한다. 이 때 검증하고자 하는 하나의 독립변수만을 다르게 조작한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나머지 조건을 같게 통제한다. 이를 상수라고 한다. 실험을 통해,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가설은 참이 되며 법칙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정치학 연구가 실험실에서 이뤄지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다만 이미 있었던 일을 실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결과가 달랐던 두 개 이상의 어떤 장소 사이, 혹은 나 시기를 비교해, 실험실과 유사하게 가설을 검증해 볼 수 있다. 과학으로서 정치 현상을 둘러싼 일반적 법칙을 찾아가는 방식인 것이다.

112 Giovanni Sartori,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 no. 4 (1970).

113 Arend Lijphart,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Comparative Metho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 no. 3 (1971).

114 Richard L Merritt, *Systematic Approaches to Comparative Politics* (Illinois: Rand McNally, 1970).

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레이프하트는 비교분석이 과대 변인, 과소 사례라는 취약성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한계를 다수의 주요 변수들이 유사하고, 상관성을 보려는 변수들이 서로 다를 때 비교가능한 사례라고 했다. 즉 이 경우 다수의 변수를 상수로 처리함으로써, 과대 변인, 과소 사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봤다. 수가 제한된 비교가능한 사례에 초점을 맞추며, 부분적인 일반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대유사체계 분석은 비슷한 사례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데 주목하는 방식이다. 최대유사체계분석의 논리를 뒤집어, 전혀 다른 사례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 경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셰보르스키와 튜니의 연구[115]는 최대상이체계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전혀 다른 사례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 데 주목하는 것이다. 이 같은 퍼즐을 활용해 연구자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전혀 다른 사례에서 독특하게 나타난 유사성을 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둘 이상 사례에서 유사한 결과를 낳게 된 유사한 원인을 찾아냄으로써,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비교 분석은 정치학이 과학적 실증에 입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정치학의 과학적 실증 가능성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주진 않았다. 사르토리가 지적하듯이 '비교가능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문제는 남는다. 둘 이상의 비교 사례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유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설명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비교가능성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나아가 개념의 추상성 수준은 또다른 비교연구의 난점이다. 비교 분석에 사용되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일 경우 자의적인 개념 조작이 되기 쉽다.

토드 랜드먼의 연구[116]에 따르면, 비교 분석은 사례의 수에 따라 연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비교 개념의 추상 수준과 비교 국가의 수가 비례한다고 했다. 즉 많은 국가들을 비교할수록 개념의 추상 수준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랜드먼은 비교 국가의 수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첫째, 다수 국가 비교이다. 이는 자연과학에서 발견되는 실험적 방

---

[115] Adam Przeworski,Henry Teune,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New York: Wiley-Interscience, 1970). pp.34-39.

[116] Todd Landman,Edzia Carvalho, *Issues and Methods in Comparative Politic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2003). pp.51-94.

식에 가깝다. 많은 국가들 자료를 이용해 양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소수 국가 비교이다. 다수와 소수 국가 비교가 다소 겹쳐지기는 하지만, 소수 국가 비교가 의도적으로 사례를 선택하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소수 국가 비교는 비교가능한 사례 전략, 초점을 맞춘 비교 등과 같은 이름으로 분석이 이뤄진다. 여기선 엄밀한 사례 선택을 통해 변수를 통제하고, 가설을 입증할 수 있다. 셋째, 한 국가 연구이다. 한 국가만을 다루더라도 다른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비교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맥락적인 묘사를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다.

비교정치학 방법론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사례의 선정이다. 특히 소수 사례 분석에서 비교 대상 선정은 더욱 어렵다. 대상 사례의 유사성은 비교 연구의 가능성과 직결된다. 대상의 선정에서 유사점이 많을수록 변수를 통제하기 용이하다. 이 점에서 중국과 북한의 비교 분석은 쉽지 않다. 국가의 규모, 정치 엘리트의 충원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의 경우 차이가 많기 때문에, 권력승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변수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비교 가능성에 대한 방법론적 문제에 대해, 본 연구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의도된 차이'에 주목했다.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에서 차이는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국가의 규모, 이념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정치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선택을 했고, 이것이 권력승계의 방식과 결과에서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김일성은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권력승계 사례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아, 이들 국가들과 다른 권력승계 전략을 취하고자 했다.

김일성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자 했다. 그리고 이들과 다른 권력승계 방식을 찾고자 했다. 김일성과 그의 측근들은 권력승계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레닌과 호치민을 제외하고는 사후에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117] 김일성은 소련 스탈린 사후 스탈린에 대한 비판을 지켜봤다. 중국에선 류샤오치, 린뱌오, 왕훙원 등 마오쩌둥이 지정한 후계자들이 권력승계에 실패했다. 김일성은 이러한 상황을 막고 싶었다. 이것이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에서 '의도한 차이'로 나타났다. 김일성은 의도적으로 마오쩌둥이나 스탈린과 다른 권력승계 방식을 찾으려 했고, 이것이 중국, 소련과 다른 권력승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었다.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는 화궈펑으로의 권력승계

[117] Jo, "Succession Politics in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olitical Stability."

와 다른데, 이는 명백히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권력 승계에 대한 비교 분석은 '의도된 차이'라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서 유의미하다. 권력 승계에 영향을 미친 독립변수를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으로부터 분리해,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은 권력승계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권력승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권력승계에 실패하고, 사후 비판을 받았던 사실들이 김일성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마오쩌둥이나 스탈린과는 다른 권력승계 방식을 오랫동안 고민했다. 이것이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방식의 차이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한 차이는 권력승계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 자료

본 연구는 독재자, 후계자, 지배 연합의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전략적 선택, 행위 유인, 정치적 제휴 등이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정치 엘리트들의 지도자들을 다룬 공산당의 공식 평전[118]들은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집단 작업을 통해 평전을 출간해왔다. 공식 평전은 해당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특히 평전에는 대상 인물을 기억하는 사람의 회고가 인용되는데, 인물의 말과 표정까지 상세하게 다뤘다.

평전과 마찬가지로 회고록 역시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공산당의 주요 인물들의 회고록[119] 외에도 이들을 곁에서 보좌했던 인물들의 회고록[120] 등이다. 이밖에 중국 군부 지도자들의 회고록[121]도 다수 출간되었다.

---

[118] 逢先知,金冲及. 『毛泽东传』(北京:中央文献出版社, 2013); 金冲及. 『周恩来传』(北京:中央文献出版社, 2008); 金冲及, 陈群, 曹应旺. 『陈云传 』(北京:中央文献出版社, 2015); 李先念编写组. 『李先念传 1909-1949』(北京:中央文献出版社, 1999); 聂荣臻传编写组. 『聂荣臻传 』(北京:当代中国出版社, 2006) 등.

[119] 邓力群. 『邓力群自述： 二十个春秋 (1975-1987)』(香港:大風出版社, 2006); 薄一波. 『若干重大决策与事件的回顾 』(北京:中央党史出版社, 2008); 薛暮桥. 『薛暮桥回忆录』(天津:天津人民出版社, 1996); 杨尚昆. 『杨尚昆日记 』(北京:中央文献出版社, 2001); 胡乔木. 『胡乔木回忆毛泽东』(北京: 人民出版社, 2014) 등.

[120] 李锐. 『大跃进亲历记：毛泽东秘书手记』(北京:中央文献出版社, 1999). 『庐山会议实录』(郑州:河南人民出版社, 2001); 吴江. 『十年的路: 和胡耀邦相處的日

이러한 회고록에서도 권력 투쟁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회고록들은 정치 행위자들이 제휴를 맺고, 특정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맺는 동기나 이유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최근엔 공산당 원로들의 증언을 정리한 구술사가 편찬되기도 했다.

지도자 선정과 관련된 주요 회의 기록들도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중국 공산당의 주요 회의에서 나온 발언과 결정들은 자료집 형태로 출간되어 있다.[122] 역대 중국 공산당의 당대회 기록을 모은 책들도 다수 있다. 또 덩샤오핑, 천윈, 리센넨 등 공산당의 역대 지도자들이 발표와 글과 발언들이 지도자별로 문집, 연보로 간행되었다.[123] 이런 자료들을 통해 중요 회의에서 후계자들이 어떤 정치적 제휴 전략을 취했는지, 정치 엘리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홍콩 중문대학에선 문화대혁명과 관련된 중국 공산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출간하기도 했다.[124]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의 저작집[125]은 북한 정치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들 최고지도자의 절대권력에 의해 북한이 움직여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문헌들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단결을 고양하는 목적에서 서술되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2차 연구를 바탕으로, 전체 맥락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을 활용할 필요

子』(香港:鏡報文化企業有限公司, 1995); 于光远. 『1978: 我亲历的那次历史大转折』(北京: 中央编译出版社, 2008); 张云生. 『毛家湾纪实: 林彪秘书回忆录』(北京: 春秋出版社, 1988) 등.

121 耿飚. 『耿飚回忆录』(北京:人民出版社); 李德生. 『李德生回忆录』(北京:人民出版社, 2012); 徐向前传编写组. 『徐向前传』(北京:当代中国出版社, 2006); 陈锡联. 『陈锡联回忆录』(北京:解放军出版社, 2007) 등.

122 中共中央文献研究室, 『建国以来重要文献选编』1-20册 (中央文献出版社, 1995); 中共中央党校党史教研究室资料组编. 『中国共产党历次重要会议集』(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3); 中央档案馆, 『中共中央文件选集』(北京: 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82); 张树军,高新民. 『中共十一届三中全会历史档案』(北京: 中国经济出版社, 1998); 中共中央文献研究室, 『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汇编』(北京: 人民出版社, 1982); 中共中央党史研究室. 『中国共产党历史大事记 (1921年7月-2011年6月)』(北京: 人民出版社, 2011) 등.

123 中共中央文献研究室 『建国以来毛泽东文稿』1-13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8); 中共中央文献研究室. 『毛泽东文集』(北京: 人民出版社, 1999); 逄先知, 冯蕙. 『毛泽东年谱 (1949-1976)』(北京:中央文献出版社, 2013). 李先念传编写组,鄂豫边区革命史部编写. 『李先念年谱』(北京: 中央文献出版社, 2011) 등.

124 宋永毅, 『中国文化大革命文库』(香港: 香港中文大学, 2002).

12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 저작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정일 선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가 있다.[126]. 최근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간행되고 있는 '김정일 전집'은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다. 본 연구는 김정일의 지시와 발언을 광범위하게 수록한 김정일 전집을 주요 1차 자료로 활용했다.[127] 이밖에 북한에서 전기나 회고록 형식으로 간행한 김일성, 김정일 관련 자료들도 유용하다.[128]

우선 각각의 회의 결과와 로동당 조직 인사를 담은 로동신문을 활용할 것이다. 통일원은 북한 로동당 당대회 자료집을 5권으로 묶어서 출간하기도 했다.[129] 여기엔 주요 로동당 간부에 대한 인사,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 수록되어 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간행한 북한연구자료집도 유용하다. 여기엔 로동당 전원회의 기록 등이 담겨 있다.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정리, 공개하는 냉전사 자료들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냉전 시기 북한에 주재한 구 공산권 국가들의 외교관들의 증언을 담고 있다. 본국에 보고한 북한 국내 정치 상황에 관한 기록들이다. 이밖에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기밀해제 보고서도 유용하다. CIA는 김정일의 권력 승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최고 지도부의 권력 투쟁은 미국 정보 기관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탈북한 북한 고위 인사들의 회고록이나 증언록은 북한 내부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황장엽의 회고록이 대표적이다. 1990년대 탈북한 북한 정치 엘리트들의 증언을 중앙일보사에서 편찬한 자료가 존재한다.[130] 이 밖에 통일부에서 간행한 연도별 인명사전은 정치적 연합의

---

126 류길재. 「김일성· 김정일의 문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남대 북한대학원,『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12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김정일 전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이 문헌은 1977년까지 김정일의 노작, 연설, 담화를 담아 2020년 3월 현재 29권까지 출간되었다.

128 김남진.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 』(평양:평양출판사, 1995);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평양:평양출판사, 2000);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탁진, 김강일, 박홍제. 『김정일 지도자』(평양: 평양출판사, 1994); 한재만. 『김정일 인간, 사상, 령도』(평양: 평양출판사, 1994).

129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130 황장엽. 『황장엽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시대정신, 2006);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서울: 중앙일보사, 1995); 성혜랑. 『등나무집』(서울: 지식나라, 2000); 이항구. 『김정일과 그의 참모들』 (서울: 신태양사, 1995);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서울: 토지, 1999); 중앙일보

동인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물론 김정일의 저작집에선 김정일이 자신의 조직사업에 설명을 담고 있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서울: 중앙일보사 1994).

제 3 장 중국 마오쩌둥의 권력승계

제 1 절 중국 공산당 권력 구조

1. 파벌 연합 구조의 형성

(1) 옌안 체제의 형성

건국 초기 중국 공산당은 지방 근거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파벌들로 이뤄진 옌안 체제를 바탕으로 했다. 옌안체제는 1935년 쭌이회의(遵義會議)에서 시작되어, 1940년대 전반 옌안정풍운동을 통해 완성되었다. 옌안 체제는 파벌 간 연합과 분권을 특징으로 했다. 마오쩌둥은 이 같은 성격의 옌안체제를 개편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통치를 강화하고자 했다. 옌안 체제 개편에 따라 지방 분권적 권력 구조는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 강화로 변화했다. 동시에 파벌 연합의 의사결정구조는 마오쩌둥으로의 권한 집중으로 변모했다.[131]

옌안 체제의 분권적 구조는 1927년 공산당의 대봉기가 실패 이후 공산당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기원했다. 공산당 혁명군은 국민당의 공격을 피해 도시를 떠나 농촌 각지에 흩어져 근거지를 구축했다. 징강산, 장시 등 상대적으로 국민당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산간, 오지였다. 공산당은 이들 근거지에서 홍군에 병력을 충원하고 물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혁명을 지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산당 중앙의 통제가 관철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중앙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지의 공산당 하부 조직들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국민당의 비밀경찰의 공격으로 인해 공산당이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1931년 공산당 중앙 조직을 장악한 28명의 볼셰비키 그룹은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시도했지만, 한계에 부딪쳤다.[132]

---

131 안치영. 「마오쩌둥 (毛澤東) 의 옌안 (延安) 체제 재편과 가오강 (高崗) 사건」, 『서강인문논총』, 제44집, 2015.

132 Jerome Chen, "The Communist Movement 1927-1937,"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ed. John King Fairbank,Denis Twitchett (New

중국 공산당의 분산주의 성향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1935년 쭌이회의에서 공산당 지도자로 부상한 마오쩌둥은 유격전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공산당의 군사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정규전으로 일본군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마오쩌둥은 유격전(게릴라전)을 통해 일본군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37년 중국 공산당은 독립, 자주, 분산 작전을 핵심으로 한 유격전 원칙을 하달했다. 각 지역 군은 작전을 자유롭게 운용하며, 산간 지역에 근거지를 구축해, 의용군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산당은 중국 각지에 근거지를 두고 일본군과 교전했다. 이 과정에서 화북, 화중, 화남, 동북 등 중국 전역에 흩어진 공산당의 군대가 독립적으로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산당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했다. 공산당에서 민주집중제가 관철되지 않는 사이에, 지방 근거지를 중심으로 한 공산당 하부 조직에선 느슨한 연대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133]

공산당 하부 조직에선 느슨한 유대감은 '산봉우리(山頭)' 주의라는 현상으로 발전했다. 산봉우리는 공산당의 근거지를 이르는 말로, 중국 공산당이 게릴라전을 펼치기에 이상적이었다. 그런데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한 근거지는 당 중앙은 물론 다른 하부 조직들과 유리되기 쉬웠다. 고립된 근거지에서 공산당의 게릴라군은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근거지에서 함께 싸운 공산당 지도자와 그가 이끄는 게릴라군, 당 간부와 장교들 사이엔 강력한 유대감이 생겨났다. 이 같은 개인적 관계는 공산당에서 파벌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바탕이었다. 중국 공산당에서 이러한 파벌주의를 '산봉우리' 주의라고 불렀던 것이다. 마오쩌둥은 '산봉우리' 주의는 중국의 혁명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당군, 일본군을 분산시키기 위해 농촌에 근거지를 구축했고, 각지의 공산당과 군대가 전투를 벌이였는데, 이 과정에서 각지의 집단을 산봉우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명이다.[134]

따라서 옌안 체제에서 중국 공산당 권력 구조는 파벌 연합적 성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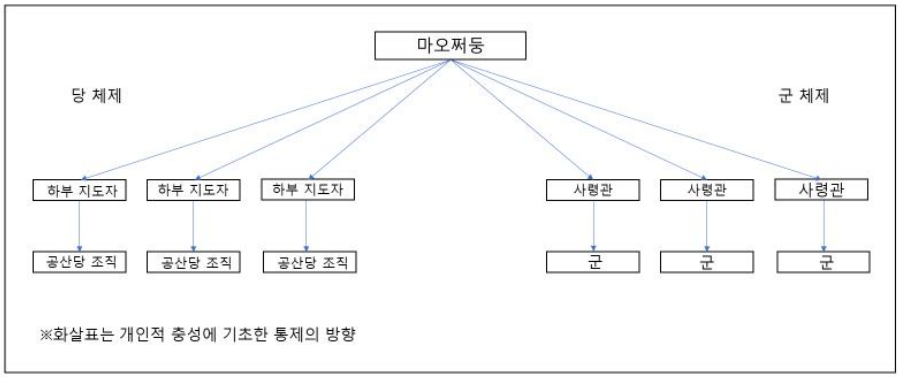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133] 中共中央党史研究室. 『中国共产党历史 』 第一券 (北京: 中共党史出版社, 1991), pp.477-480.; Lyman Van Slyke, "The Chinese Communist Movement During the Sino-Japanese War 1937—1945,"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ed. John King Fairbank,Denis Twitchet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134] 毛泽东. 「时局及其它问题(一九四五年二月十五日)」, 『毛泽东思想万岁（1943—1949）』 (1967). Huang, *Factionalism in Chinese Communist Politics*. p.8.

갖고 있었다. 옌안 체제는 마오쩌둥에 대한 하부조직 지도자와 각 지역 사령관들의 개인적 충성에 기초한 것이었다. 동시에 하부조직 지도자들이 각 근거지 조직을, 지역 사령관들은 산하의 군부대를 통제했다. 마오쩌둥은 하부조직 지도자들을 마치 중국의 전통 왕조에서 자율성을 갖고 지방을 통치했던 '제후'와 유사하다고 했다. 하부조직 지도자들이 중국의 각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자신의 파벌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각각의 산봉오리, 파벌 지도자들을 잇는 정점이었다.[135]

[그림 4] 옌안 체제(Yan' an round table)



※ 출처 : Jing Huang, *Factionalism in Chinese Communist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9.

옌안 체제에서 마오쩌둥은 하부 지도자들의 개인적 충성을 바탕으로 공산당에서의 권력을 확대했다. 남은 문제는 이념의 장악이었다. 당시 이념은 왕밍이 이끈 소련 유학파가 주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소련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적 훈련을 받았다. 다른 공산당 지도자들에 비해, 이념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다. 마오쩌둥은 이념적 정당성을 획득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136] 마오쩌둥은 1938년 6기 6중전회에서 마르크스 이념에 대한 학습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사상을 모두 연구하면서, 중국의 역사, 정세와 상황에 대한 연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산당원은 국제주의적인 마르크스주의자이지만, 마르크스주의가 일정한 민족적 양식과

[135] Huang, *Factionalism in Chinese Communist Politics*. pp.9-10.
[136] Ibid. pp.118-119.

서로 결합했을 때, 비로소 현실에 실현할 수 있다" 고 했다.[137]

마오쩌둥의 이념적 정당성은 왕밍 등 소련 유학파와의 노선 투쟁을 통해 달성할 수 있었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역사적 유산에 대한 계승과 민족적 특징을 강조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소련 유학파의 이념과 달랐으며, 마오쩌둥의 이념적 색깔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마오쩌둥은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에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왕밍 등 소련 유학파와 이념적 노선 투쟁을 벌였다고 볼 수 있다. 옌안 정풍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1941년 9월 정치국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왕밍과 소련 유학파의 문제를 강력 비판했다. 소련 유학파들이 공산당 지도부로 소비에트 운동을 주도하면서 공산당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고 했다. 마오쩌둥은 이들을 좌경 기회주의, 주관주의, 파벌주의로 몰아붙였다. 마오쩌둥은 "마르크스주의를 교조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실제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고 했다. 중국에서의 풍부한 실천 경험을 마르크스주의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오쩌둥의 이 같은 발언은 정풍운동의 기조를 밝히는 것으로, 그 시작을 예고했다고 볼 수 있다.[138]

옌안정풍운동은 단순히 공산당 당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교육을 의미하지 않았다.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에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마오쩌둥의 사상이 당의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잡는 과정이기도 했다. 1942년 2월 마오쩌둥은 '당의 일하는 방식 바로 잡자' 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하면서 옌안정풍운동을 본격화했다. 그는 여기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중국의 현실, 실천과 무관하게 이해하는 교조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마오쩌둥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입장, 관점, 방식으로 역사, 혁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천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론가라고 했다.[139]

1942년부터 3년 동안 옌안 정풍 운동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마오쩌둥 사상' 이 정립되었다.[140] 이로써 마오쩌둥은 조직 차원뿐만 아니라 이념 차원에서도 최고지도자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다. 옌안 체제는 조직과 이념 두 차원에서 그

---

[137] 毛泽东. 「中国共产党在民族战争中的地位（一九三八年十月十四日）」, 『毛泽东选集』 第二券 (北京: 人民出版社, 2009).
[138] 胡乔木. 『胡乔木回忆毛泽东』 (北京: 人民出版社, 2014), pp.193-195
[139] 毛泽东. 「整顿党的作风（一九四二年二月一日）」, 『毛泽东选集』 第三券 (北京: 人民出版社, 2009).
[140] Huang, *Factionalism in Chinese Communist Politics*. pp.119-125.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조직 차원에서 공산당의 정점인 마오쩌둥 지휘 아래, 공산당 하부조직의 지도자들이 마오쩌둥에 개인적 충성을 바탕으로 결합했다. 다음, 이념 차원에서 마오쩌둥 사상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이념적 단일성을 갖추었다.

(2) 옌안 체제의 재편 시도

마오쩌둥은 파벌주의가 지배하는 옌안체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1944년 4월 옌안 고급간부 회의에서 "현재 당 내에서 맹목적인 '산봉우리' 주의 경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혁명과정에서 산봉우리는 중국에서의 혁명 과정에서 불가피했지만, 적과의 전쟁과 무관하게 유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산봉우리중의가 파벌을 형성하고, 당의 단결을 저해한다고 봤다.[141] 중국 공산당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산봉우리주의를 철저하게 없애는 게 맞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이 대도시를 장악하고, 교통과 통신이 모두 편리해지면, 산봉우리주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142] 마오쩌둥은 산봉우리주의를 없애는 방법으로 '돌옮기기'를 제시했다. 공산당의 각 지역 중앙국 간부, 군 지휘관들을 원래의 근거지에서 빼내어 재배치하는 것이다.[143] 마오쩌둥은 1947년 국공내전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고 선언했고, 이후1948년 1월 각 지역의 중앙국과 분국의 당 중앙에 대한 보고 체계 개선에 나섰다. 산봉우리주의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두달마다 지방 분국과 사령관들이 각 지역의 사정과 당 중앙의 정책에 대한 실시 상황을 보고도록 한 것이다. 지방의 권력이 과대해진 반면, 중앙의 권력이 약화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144]

---

141 毛泽东. 「学习和时局（一九四四年四月十二日）」, 『毛泽东选集』 第三券 (北京: 人民出版社, 2009). 陈伙成. 「关于党反对山头主义历史的思考」, 『中共党史研究』, 第3期, 1993.

142 毛泽东. 「时局及其它问题(一九四五年二月十五日)」. 王钦双,王前. 「七大前后毛泽东如何破除山头主义」, 『党的文献』, 第4期, 2015.

143 毛泽东. 「第七届中央委员会的选举方针(一九四五年五月二十四日)」, 中央文献研究室, 『毛泽东文集 』 第三券 (北京: 人民出版社, 1993).

144 李方祥. 「新民主主义革命时期中共反对"山头主义"的历史考察」, 『中国高校社会科学』, 第5期, 2015. 毛泽东. 「在杨家沟中共中央扩大会议上的讲话(一九四七年十二月二十五日、二十八日)」, 中央文献研究室, 『毛泽东文集 』 第四券 (北京: 人民出版社, 1993). 王华玲. 「"请示报告": 解放战争时期中央与地方关系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옌안 체제를 개편했다. 공산당의 지방 하부조직 지도자들을 중앙으로 불러들이는 방식이었다. 지방 하부조직 지도자들을 근거지로부터 자리를 옮기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방의 독립성을 약화하면서,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 조치였다. 이를 중국에선 '오마진경'(五馬進京)이라고 불렀다. 5개 중앙국 지도자들이 중앙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었다. 동북국 제1서기 가오강, 화공국 제1서기 라오수스, 서남국 제1서기 덩샤오핑, 서북국 제2서기 시중쉰, 중남국 제2서기 덩즈후이를 1952년부터 1953년까지 중앙으로 직위를 이동시켰다. 물론 이 다섯명외에도 1950년대 초 류보청, 허룽, 예젠잉도 지방에서 중앙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오마진경은 정확한 숫자를 말했다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45]

마오쩌둥은 공산당의 의사결정을 자신에게 집중하고자 했다. 그는 1953년 5월 19일 류샤오치와 양상쿤에게 서면으로 "이후 중앙 명의 문건, 전보는 모두 반드시 내가 본 후에 발송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며 주의를 줬다. 또 "지난 수차례 당 중앙의 결의가 나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는 잘못이며, 기율을 어긴 것"이라고 질책했다. 당시 양상쿤은 중공 중앙 판공청 주임으로 정치국과 서기처 회의에 대한 사항을 마오쩌둥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류샤오치는 당 중앙의 일상업무를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오쩌둥은 류샤오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데 대한 질책을 했다고 볼 수 있다.[146]

1950년대 초 마오쩌둥은 옌안 체제 재편에 나섰다. 오마진경은 공산당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조치라는 의미와 더불어, 중앙 권력을 다원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옌안 체제의 파벌 연합 성격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가오강 사건이다. 마오쩌둥은 가장 강력한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던 류샤오치를 견제하고 싶었다. 이는 가오강의 류샤오치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가오강을 비판하는 역설적 상황이 빚어졌다. 표면적으로는 가오강이 당의 저

新探」,『党史研究与教学』, 第3期, 2016.

145 李响. 「"五马进京, 一马当先"撤销大区的台前幕后」,『国家人文历史』, 第5期, 2015. 黄力民. 「"五马进京"之说并不准确」,『党史博采』, 第4期, 2017.

146 毛泽东. 「关于用中央名义发文件、电报问题的信和批语 (一九五三年五月十九日)」, 中央文献研究室,『建国以来毛泽东文稿 』 第四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0); 林蘊暉. 『中華人民共和國史 第二卷 向社會主義過渡: 中國經濟與社會的轉型, 1953-1955』 (香港: 香港中文大學, 2009), p.283.

해했다는 이유였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마오쩌둥이 옌안 체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부딪친 한계였던 것이다. 마오쩌둥은 여전히 파벌 연합 성격의 옌안 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147]

따라서 옌안 체제에서 마오쩌둥은 파벌 지도자들의 지지에 기반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옌안 체제는 근본적으로 마오쩌둥의 일인지배라고 하기보다는 합의제적 성격이 강했다. 마오쩌둥이 조직과 정책에서 공산당의 다른 고위 간부들의 의사로부터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마오쩌둥의 1인 우위와 류샤오치를 2인자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바로 옌안체제였던 것이다.[148] 물론 마오쩌둥의 권위는 분명 다른 파벌의 지도자들보다는 우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의 견해에 대한 다른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오쩌둥 역시 반대자들을 숙청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다.

(3) 공식적 제도 차원

중국 공산당은 출범부터 집단지배 체제를 바탕으로 했다. 집단지배는 중국 정치에서 집단지도, 혹은 집단영도라고도 한다. 레닌이 세운 전통적인 공산당 모델을 바탕으로 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 이후 중국 공산당이 집단지도 원칙을 관철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는 파벌 연합, 합의제적 성격의 옌안 체제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이 공산당의 의사 결정 제도로 나타났다. 제도는 실재하는 권력 구조의 산물인 것이다. 물론 중국 공산당은 건국 이전부터 집단지도 원칙을 규정했다.

1921년 제1차 당대회에선 집단지도(集体领导) 체제를 조직 원리로 받아들였다. 모든 회의는 다수의 결정에 따르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한다는 원칙이었다. 다만 현실에 맞게 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공산당 내에 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하며, 위원들은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집단지도 원칙은 이후 중국 공산당의 발전하면서 중요한 조직 원리로 이어졌다.

---

147 안치영. 「마오쩌둥 (毛澤東) 의 옌안 (延安) 체제 재편과 가오강 (高崗) 사건」.

148 안치영. 『덩 샤오핑 시대의 탄생 : 중국의 역사 재평가와 개혁』 (파주: 창비, 2013), p.68.

1927년 중국 공산당 제5차 당대회에서 ‘조직문제결의안’이 통과된다. 이 결의안은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 지부에 이르기까지 집단적 지도를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시 통과된 당장(黨章)에선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상무위원회를 조직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 중 총서기를 선출하며, 중앙위원 중 일부로 중앙정치국을 구성하며, 전국의 정치 업무를 지도한다고 했다. 중앙정치국 일부가 중앙 상무위원회로 조직되어 당의 일상업무를 처리한다.’ [149]

이듬해인 1928년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제6차 당대회가 열렸는데, 집단지도 원칙을 보다 구체화했다. 결의안은 당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면서 집단 토론과 집단 의사 결정을 관철하도록 했다.[150] 조직문제 결의안에선 당의 집단적 지도와 함께 분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도부 내에서의 역할 분담을 강조한 것이다. 집단지도 체제의 핵심 지도기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정식으로 조직됐다. 당시 당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중앙위원회는 정치국을 선출하며, 정치국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되는 기간을 전후해 당내 정치 업무를 지도한다. 중앙위원회는 동시에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출한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일상업무를 수행한다.”

1935년 1월 중국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마오쩌둥은 공산당의 집단지배를 바탕으로 한 제도들을 확립했다. 모든 사람은 충분한 발언권을 가지며, 자유발언과 충분한 토론을 인정받도록 했다. 회의에선 의견이 갈리는 것을 허용했으며, 개인의 의견을 남겨두도록 했다. [151] 이어 1948년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 위원회 제도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개인이 중요 사항을 전횡하는 일을 막고, 집단지배 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일체의 중요한 문제는 위원회 토론을 거치도록 했다. 위원회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는 공산당 중앙에서 지부였다. 당뿐만 아니라 정부, 군의 각급 기관에서도 위원회가 중요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민간조직 내 당 조직에도 예외는 아니었다.[152]

---

[149] 中央档案馆. 『中共中央文件选集』第三册（北京： 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89), pp.145-146.

[150] 中共中央. 「政治义结案（一九二八年七月九月）」, 中央档案馆,『中共中央文件选集』 第四册（北京: 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82).

[151] 蒯正明. 「中国共产党集体领导制度建设的历史演进与现实启示」,『理论学刊』, 第10期, 2012.

[152] 毛泽东. 「关于健全党委制（一九四八年九月二十日）」, 『毛泽东选集』 第四

집단지배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도 공산당의 통치 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열린 1956년 제8차당대회에서도 이 같은 원칙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당시 통과된 당장은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위원회가 명예주석 한 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마오쩌둥이 중앙위원회 주석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면서, 대신 명예주석은 맡을 수 있다고 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 이어 공산당 선전부가 '마오쩌둥 사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했다.[153] 마오쩌둥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개인 숭배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지시에 근거해, "개인을 신격화하고, 개인의 업적을 찬양하는 행위를 반대한다"며 "어떤 개인도 독단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발언했다.[154]

2. 권력 구조의 변동

건국 직후 공산당의 권력 구조는 파벌 연합적 성격이 짙었으며, 공식적으로도 집단지배에 입각한 의사결정 제도를 유지했다. 그럼에도 마오쩌둥에 대한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지지는 공고했다. 마오쩌둥은 항일전쟁과 국공 내전에서 승리를 거뒀고, 중국을 건국한 업적을 이룩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주도한 대약진 운동이 참혹한 실패로 이어지면서, 마오쩌둥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지속되지 못했다. 마오쩌둥의 이념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나타났으며, 지배 연합은 이념적으로 분화했다. 공산당의 원로 간부의 마오쩌둥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155] 대약진 운동 과정에서 마오쩌둥의 일인지배가 강화했지만, 대약진 운동의 실패 이후엔 마오쩌둥의 일인지배가 약화하는 부침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券 (北京: 人民出版社, 2009).

153 陈丽凤. 『中国共产党领导体制的历史考察, 1921-2006』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8), pp.164-169.

154 中共中央党校党史教研究室资料组编. 『中国共产党历次重要会议集』 下, pp.69-87.

155 Maurice Meisner, *Mao's China and After: A History of the People's Republic*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9), pp.230-239. 毛泽东. 「重看《人民日报》社论《发动全民 , 讨论四十条纲要, 掀起农业生产的新高潮》后写的信(一九五八年五月二十六日)」, 『建国以来毛泽东文稿 』 第七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8).

(1) 마오쩌둥 일인지배의 강화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156]은 1957년 11월 소련에 방문[157] 이후 본격화했다.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 흐루시초프가 야심찬 경제 발전 계획을 내놓던 시점이었다. 흐루시초프는 새로운 5개년 계획을 통해 소련이 새로운 사회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공언했다. 15년 내에 소련이 주요 생산품에서 미국을 넘어서겠다고도 했다. 흐루시초프는 소련을 방문한 마오쩌둥에게 1인당 산업 생산이 1970년쯤이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마오쩌둥은 소련의 급속한 경제 발전 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마오쩌둥 역시 흐루시초프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에 입각한 경제 발전을 낙관했다.[158] 마오쩌둥은 소련 방문 기간 "소련 흐루시초프 동지는 10년이면 소련이 미국을 추월하겠다고 했다. 중국 역시 15년 후면 영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했다.[159]

이처럼 마오쩌둥은 소련 방문에서 중국의 생산력 발전 목표를 제시

---

156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1956~1967년 전국농업발전요강(수정초안)'을 발표했다. 요강은 농업 생산력 제고를 목표로 제시했다. 공업은 국민경제 발전의 주축이지만, 농업은 공업에 밑바탕이 되는 식량과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농촌은 공업에 가장 큰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주의 방식인 농업합작화을 통해 농업 생산력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했다. 수정초안이 나온 직후 1957년 10월 27일 인민일보 사설에서 '약진'(躍進)이라는 말이 나왔다. 농업 관련 각종 사업들이 12년 동안 거대한 약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1월 13일 인민일보 사설에서 다시 농업 합작화 이후 '대약진'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했다. 후에 마오쩌둥은 이 사설의 주제가 명확하고, 분석이 정확하다고 칭찬하면서, 모진(冒進) 대신 약진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中共中央. 「一九五六年到一九六七全国农业发展纲要（修正草案）（一九五七年十月二十五日）」, 中共中央文献研究室,『建国以来重要文献选编』 第十册 （北京：中央文献出版社, 1995).; 社论, 「建设社会主义农村的伟大纲领」, 『人民日报』, 1957.10.27; 社论, 「发动全民, 讨论四十条纲要, 掀起农业生产的新高潮」, 『人民日报』, 1957.11.13; 毛泽东. 「重看《人民日报》社论《发动全民 , 讨论四十条纲要, 掀起农业生产的新高潮》后写的信(一九五八年五月二十六日）」.

157 마오쩌둥은 1957년 11월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12개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및 노동당 대표회의'(제1차 모스크바 회의) 참석을 위해 소련을 방문했다.

158 Andrew G Walder, *China under Mao: A Revolution Derailed*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p.153; Roderick MacFarquhar, *The Origins of the Cultural Revolution*, vol. 2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pp.15-19.

159 中共中央文献研究室. 『毛泽东文集 』第七卷 （北京：人民出版社, 1999), p.123.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은 사전에 경제 정책 전문가, 관료들로부터 검토를 받은 바 없었다.[160] 마오쩌둥은 흐루시초프의 발언에 고무되어 과감한 생산 목표를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오쩌둥은 소련 흐루시초프에 대한 경쟁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161]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쟁 심리가 경제 발전에 대한 마오쩌둥의 조급증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1950년 중반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에,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마저 느꼈다.[162] 그는 중국이 낙후한 경제로 인해 수동적인 상황에서 처해 있으며, 정신적으로 속박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15년 후 양곡, 철강 생산량이 늘면 중국이 더 많은 것을 주도할 수 있다고 했다.[163]

대약진 운동은 마오쩌둥의 소련 방문 이후 1958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발전 속도에 대한 마오쩌둥의 집착은 건국 직후부터 있었다.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개조를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하고자 했다. 농업 집단화, 농공업 생산력 발전에도 속도를 높였다. 마오쩌둥은 전문가들이 세워놓은 애초 계획을 초과하는 과도한 생산 목표를 제시기도 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 현실적 조건이었다. 마오쩌둥은 객관적 상황을 무시한 채 대규모 군중 동원을 통해 현실적 조건들을 초월하고자 했다.[164] 하지만 이는 현실에서 정책 집행을 책임진 간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마오쩌둥의 급속한 사회주의 개조와 비현실적 생산 목표에, 국무원 고위 간부들은 반발했다. 이를 '무모한 돌진에 대한 반대' (이하 반모진, 反冒進)를 주장했다. 저우언라이. 천윈, 리셴넨, 보이보 등이 주축이었다. 우선 1956년 초반 문제가 된 건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1957년도 사회기반시설 건설 계획이었다. 1957년 사회기반기설 건설 예산은 전년보다 32% 증가한 121억 위안이었는데, 다시 170억 위안, 180억 위안으로 두 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증액했다. 저우언라이, 리푸춘, 리셴넨 등은 1956년 2월 6일 사회기반시설 건설 예산을 147억원으로 감액

---

160 楊繼繩. 『墓碑: 中國六十年代大饑荒紀實』 下編, p.682.
161 조영남. 『중국의 엘리트 정치』, pp.138-139.
162 曾红路. 「再论"大跃进"的历史成因」, 『南京大学学报』, 第4期, 1998.
163 毛泽东. 「工作方法六十条 (草案) (一九五八年一月)」, 中央文献研究室, 『毛泽东文集 』 第七券 (北京: 人民出版社, 1993).
164 楊繼繩. 『墓碑: 中國六十年代大饑荒紀實』 下編, p.673; Frederick C. Teiwes,Warren Sun, *The Politics of Agricultural Cooperativization in China : Mao, Deng Zihui, and the "High Tide" of 1955* (New York: Routledge, 2015). pp.28-50.

하기로 결정했다. 급속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계획은 객관적인 조건을 넘어선 무리한 계획이라는 이유였다. 이틀 후 저우언라이는 국무원 제24차 전체회의에서 실현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경우 혼란을 빚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두 달만인 4월 하순 마오쩌둥은 정치국 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억 위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우언라이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마오쩌둥과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165]

저우언라이는 무모한 경제 발전 추진에 반대하고, 이를 교정하는 정책을 지속했다. 이러한 입장은 1956년 9월 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중국 공산당 제8차 당대회에서도 나타났다. 류샤오치의 정치보고는 무모한 경제 계획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았다. 저우언라이 등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였다. 당시 저우언라이가 작성한 제2차 5개년계획에 대한 보고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 "수요와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경제의 속도를 규정해야 하며, 우경보수주의와 좌경모험주의 경향을 모두 방지해야 한다. 이것이 당의 임무이다." 결국 제8차 당대회 결의는 무모한 경제 계획 추진에 반대를 선언했다.[166]

중국의 관료들은 경제 균형을 강조했지만, 마오쩌둥은 흐루시초프처럼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리고 집단화, 대중 동원이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167] 마오쩌둥은 정치를 통해 경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믿었다. 천윈, 덩즈후이, 저우언라이 등은 균형론에 입각한 신중한 입장을 제시했지만 마오쩌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제 균형, 계획, 경제 법칙을 부르주아적 미신으로 치부했다. 대신 인간적 요소, 대중적 열기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정책 결정을 주도하지

---

[165] 薄一波. 『若干重大决策与事件的回顾 』 上卷 (北京: 中央党史出版社, 2008), pp.374-375; 金冲及. 『周恩来传』 三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2008), pp.1109-1110. 후차오무의 회고에 따르면, 저우언라이는 마오쩌둥에게 총리로서 (사회기반시설 예산 증액)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고, 마오쩌둥은 이에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오쩌둥은 베이징을 떠났다고 한다.

[166] 楊繼繩. 『墓碑: 中國六十年代大饑荒紀實』 下編, pp. 679-680.

[167] 대약진 운동은 농업과 공업에서 높은 생산 목표를 세우고, 군중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의 영도에 따라 인민 대중을 동원한 경제 건설을 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1958년 2월 전국인민대회 1기 5차 회의는 국무원이 제출한 1958년 국민경제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전년에 비해 공업총생산량 17.8%, 농업총생산령은 6.1%, 사회간접자본 투자 17.8%, 철강 생산 19.2%, 식량 생산 5.9% 증가를 각각 목표로 제시했다. 높은 생산량 확대 계획은 대약진의 정신을 담은 것이었다. 특히 공업의 경우 철강 생산 목표량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마오쩌둥은 1958년 철강 생산량을 전년 535만톤에서 두배가 늘어난 1070만 톤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못했다. 마오쩌둥은 직접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반대를 용인하지 않았다. 일인지배를 강화해가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168]

급속한 생산력 발전 목표를 두고, 마오쩌둥은 공산당 지도부 내에서의 반대에 직면했다. 마오쩌둥은 반대자들을 우파로 몰았다. 경제 정책을 정치 이념의 문제로 전환한 것이다. 1958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광시(广西)성 난닝(南宁)에서 마오쩌둥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의 목적은 '반모진' 비판이었다. 마오쩌둥은 "지난 3년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다. 우파가 일격을 가했다. 몇몇 동지는 우파가 되기까지 불과 50미터 거리가 남았을 뿐이다. 우파는 전면적인 반모진에 나섰다"고 했다. 몇몇 동지는 저우언라이 등을 가리킨 것이다. 마오쩌둥이 반모진을 비판하면서, 커칭스(柯庆施), 캉셩(康生), 리징추안(李井泉)은 반모진 비판에 가세했다. 왕런중(王任重)과 타오주 (陶铸) 도 이들의 발언에 동조했다. 반모진을 주장했던 간부들은 자신들에게 비판이 집중되면서 충격에 빠졌다. 마오쩌둥은 "반모진은 잘못이며, 우경보수주의 사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169]

마오쩌둥의 반모진 비판은 1958년 3월 9일 청두(成都)에서 열린 정치국확대회의에서 이어졌다. 반모진을 주장했던 이들은 모두 자신의 주장을 접었다. 저우언라이는 반모진이 사회주의 건설 문제에서 오류였다고 반성했다. 마오쩌둥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산당 간부는 없었다. 이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개인숭배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개인숭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올바른 개인 숭배이다.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에 대한 것이다. 그들의 손 안에 진리가 있는데, 숭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다른 하나는 옳지 않은 개인 숭배이다. 분석이 없는 맹목적인 숭배가 그렇다." 이러한 발언은 마오

---

168 Walder, *China under Mao: A Revolution Derailed*. pp.154-157. Frederick C Teiwes,Warren Sun, *China's Road to Disaster: Mao, Central Politicians, and Provincial Leaders in the Unfolding of the Great Leap Forward, 1955-1959* (New York: ME Sharpe, 1999). pp.85-86.

169 李锐. 『大跃进亲历记：毛泽东秘书手记』 上券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9), pp.71-80; 薄一波. 『若干重大决策与事件的回顾 』 下卷 (北京: 中央党史出版社, 2008), pp.448-450; 楊繼繩. 『墓碑: 中國六十年代大饑荒紀實』 下編, pp.683-687. 난닝회의에서 비판을 받은 간부들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셴넨은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복용해야 했다. 마오쩌둥에게 단독으로 불려가 비판을 받은 저우언라이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반려되었다고 한다. 다만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천윈은 병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쩌둥 자신에 대한 개인 숭배를 용인하는 것이었다.[170]

대약진 운동은 1958년 5월 중국 공산당 8기 당대회 2차회의에서 공식 결정되었다. 마오쩌둥의 건의에 따라 대약진을 공산당의 총노선으로 선포하고, 중국 전역에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171] 총노선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당을 분열시키는 자가 될 수 있었다. 마오쩌둥은 총노선에 회의적 태도를 갖고 있는 간부들에게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경고했다.[172] 저우언라이와 천윈은 마오쩌둥의 결정에 철저하게 복종했다. 저우언라이는 "자신은 반모진의 잘못을 저지른 주요 책임자"라면서, "국가의 건설 속도를 떨어트림으로써 간부와 군중의 적극성에 손해를 입혔다"고 반성했다. 또 "마오 주석이 제안한 건설 노선의 정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천윈은 "반모진은 군중의 생산 고조의 위대한 성과를 간과한 채 당시의 위축된 재정 상황만을 과장한 오류였다"고 반성했다.[173]

이처럼 대약진 운동은 마오쩌둥의 일인지배 강화와 맞물렸다. 건국 전후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는 파벌 연합적인 구조였다. 그런데 대약진 운동을 관철하기 위해 마오쩌둥은 반모진을 선언한 제8차 당대회 결의를 뒤집었다. 공산당 지도부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마오쩌둥이 번복한 것이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이념에 반대하는 인물들을 우경보수주의, 분열 분자라고 비판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이념에 따른 당의 단결을 요구했다. 마오쩌둥 자신에 대한 개인 숭배를 합리화하기도 했다. 조직 차원에선 국무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서기처의 권한을 강화했다. 당시 대약진 운동의 주요 정책 결정은 총서기 덩샤오핑이 주재하는 서기처 회의에서 나왔다.[174] 공산당의 간부들은 이제 마오쩌둥의 이념을 집행하는 관료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

[170] 毛泽东. 「在成都会议上的讲话(一九五八年三月)」, 中央文献研究室, 『毛泽东文集』 第七券 (北京: 人民出版社, 1993). 楊繼繩. 『墓碑: 中國六十年代大饑荒紀實』 下編, pp.687-694.

[171] 中共中央党史研究室. 『中国共产党历史大事记 (1921年7月-2011年6月)』 (北京: 人民出版社, 2011), p.87.

[172] 毛泽东. 「在八大二次会议上的讲话 (二) (一九五八年五月十七日)」, 『毛泽东思想万岁(1958—1960)』 四券 1968年武汉版, 1968).

[173] 李锐. 『大跃进亲历记 : 毛泽东秘书手记』 上券, pp.369-370.

[174] 楊繼繩. 『墓碑: 中國六十年代大饑荒紀實』 下編, pp.703-704. 대약진 운동 시기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이념의 적극적인 지지자였지만,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드러나면서, 대약진 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의 출판물에선 덩샤오핑의 대약진 운동을 적극 지지했다는 언급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약진 운동과 함께, 마오쩌둥은 전면적인 농업 집단화를 추진했다. 인민공사[175]의 수립이었다. 1958년 7월 1일 천보다는 '홍기'에 인민공사의 개념을 농업과 공업을 결합한 기층 단위라고 했다.[176] 이어 7월 16일 홍기에 게재한 '마오쩌둥 동지의 깃발 아래'라는 글을 통해 마오쩌둥의 인민공사 이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공(工, 공업)·농(農, 농업)·상(商, 교환)·학(學, 문화교육), 병(兵, 민병)을 대규모 인민공사로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마오쩌둥 생각이라고 했다. 인민공사 안에서 공업과 농업을 통해 물질 생활을, 교육을 통해 정신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인민공사를 통한 전 국민의 무장화는 바로 물질과 정신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다.[177]

이처럼 인민공사는 공업, 농업, 상업, 교육, 전인민의 무장화를 통합한 대규모 기층 조직이었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마오쩌둥은 인민공사가 영도에 편리할 것으로 생각했다. 국민들의 생산과 생활을 관리하기 쉽다는 뜻이었다. 다시 말해, 농민을 통제하고 농산물을 징발하기 쉽다고 인식되었다. 인민공사는 생산력 발전을 위해 필연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었고, 급속한 생산력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대약진 운동의 목표와 결부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마오쩌둥에게 인민공사는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를 높이고 공산주의로 향하는 중요 기반이었다. 결국 마오쩌둥의 의지에 따라 8월 17일 베이다이허에서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의 농촌 인민공사 건립 문제 결의'가 채택되었다.[178]

마오쩌둥은 자신에 대한 반대를 용인하지 않았다. 그 첫 희생자가 당시 국방부장이었던 펑더화이였다. 루산회의에서 마오쩌둥에게 7월 14일 보낸 개인적 서신이 문제가 되었다. 서신은 대약진 운동이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잘못이 있었

---

[175] 인민공사는 소형 합작사를 통합해 대형 합작사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했다. 대약진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농업 생산 조직으로 보았던 것이다. 규모를 늘리고, 생산 도구를 보다 넓게 공유함으로써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 대형 합작사가 인민공사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토지, 농기구, 가축 등 생산수단을 인민공사에 귀속시키고, 인민공사는 일괄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분배하도록 했다. 일부 개인이 사유한 경작지를 인민공사로 편입시켰다. 농촌의 집단화를 심화, 사적 소유의 잔재를 없앤 것이다.

[176] 陈伯达. 「全新的社会, 全新的人」, 『红旗』, 第3期, 1958.

[177] 陈伯达陈伯达. 「在毛泽东同志的旗帜下」, 『红旗』, 第4期, 1958.

[178] 薄一波. 『若干重大决策与事件的回顾』 下卷, pp.517-520; 楊繼繩. 『墓碑: 中國六十年代大饑荒紀實』 下編, pp.722-723; 조영남. 『중국의 엘리트 정치』, p.145.

다는 내용이었다. “대약진 운동 과정에서 소자산가계급의 광적인 열정으로 인해 좌경 오류를 범했으며, 군중노선과 실사구시라는 방식으로부터 이탈했다”고 비판했다.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편지를 ‘펑더화이 동지의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7월 16일 배포했고. 회의 의제로 선포했다.[179] 펑더화의 편지는 마오쩌둥을 직접 비판한거나 대약진 운동의 성과를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의 비판을 묵과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오쩌둥은 펑더화이 비판에 앞서 군의 움직임에 대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펑더화이의 편지를 배포한 16일 베이징에 있던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황커청(黄克诚)을 루산으로 소환했다. 마오쩌둥이 펑더화이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황커청 총참모장이 베이징에서 군대를 장악하는 일을 우려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자 국방부부장이었던 린뱌오를 루산으로 불렀다. 이밖에 류샤오치, 저우언라이, 양상쿤, 펑전, 쑹런충(宋任穷), 안즈원(安子文) 등 공산당 고위 간부들을 루산으로 소환했다.[180]

펑더화이의 편지에 대한 회의는 17일부터 22일까지 이어졌다. 회의에선 후차오무, 마오쩌둥의 비서 리루이(李锐), 후난성 제1서기 저우샤오저우(周小舟), 외교부 부부장 장원톈 등 참가자 다수가 펑더화이의 편지에 동의했다. 특히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장비계획부부장 완이(万毅)는 펑더화이 편지에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황커청 총참모장은 펑더화이의 주장에 대해 “기본 정신이 맞다”고 동조했다. 이같은 회의 분위기는 마오쩌둥의 23일 연설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와 펑더화이에 동조하는 이들이 우파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너희들은 우파가 되기까지 30 킬로미터 남았다”고 비난했다.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의 편지를 당의 이념적 노선 투쟁으로 전환했던 것이다.[181]

마오쩌둥은 당의 다수 의견을 억누르고, 대약진 운동의 이념과 정책을 관철했다. 마오쩌둥의 발언 이후 회의는 펑더화이와 그에게 동조했던 황커청, 저우샤오저우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를 건국의 업적을

---

[179] 逄先知,冯蕙. 『毛泽东年谱 (1949-1976)』 第四卷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2013), pp.102-103.

[180] 楊繼繩. 『墓碑: 中國六十年代大饑荒紀實』 下編, pp.861-862. 逄先知,冯蕙. 『毛泽东年谱 (1949-1976)』 第四卷, 105-106.

[181] 逄先知,金冲及. 『毛泽东传』 第五券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2013), pp.1950-1956; 楊繼繩. 『墓碑: 中國六十年代大饑荒紀實』 下編, pp.869-872; 李维民. 「万毅张军在庐山会议」,『淡黄春秋』, 第3期, 1995.

이룩한 마오쩌둥의 카리스마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보다는 마오쩌둥이 대중에 대해 갖고 있었던 영향력이 공산당 간부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수 있다. 보이보의 회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발언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오쩌둥은 연설에서 "남이 나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남을 범하지 않지만, 남이 나를 범하면 나도 반드시 남을 범한다"고 하면서, "당신들 해방군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는 홍군(紅軍)을 찾아 갈 것이며, 별도의 해방군을 조직하겠다"고 했다. 마오쩌둥은 펑더화이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니, 자신도 펑더화이에게 반격을 가하겠다는 뜻이다.[182] 그리고 그 방식이 농민과 노동자로 이뤄진 새로운 혁명군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을 비판한 이들을 반당 분자로 규정하고 직무를 박탈했다. 8월 2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소집, '중국 공산당 8기 8중전회 펑더화이 동지를 수괴로 하는 반당 집단의 착오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는 펑더화이의 편지와 발언을 마오쩌둥과 공산당 중앙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펑더화이를 수괴로 황커청, 장원톈, 저우샤오저우 등 우경 기회주의 반당집단이 공산당의 총노선, 대약진, 인민공사를 반대하는 맹렬한 공격을 발동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반당 집단으로 몰린 이들은 각각 직무를 박탈당했다.[183]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의 직무를 박탈하면서,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루산회의 직후 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9월 5일 개최되었다. 루산회의의 결정을 학습하고, 펑더화이, 황커청 등 반당 집단을 비판하기 위한 취지였다. 회의는 펑더화이 대신 국방부장에 오른 린뱌오가 주재했다. 대군구, 야전군, 각 성의 군구 등의 사령관을 비롯한 군의 고위 간부 1070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펑더화이와 황커청을 마오쩌둥에 반대하는 반당 분자로 규정했다. 그리고 루산회의에서 펑더화이를 지지했던 완이와 함께 펑더화이의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군 간부들이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다.[184]

마오쩌둥은 공산당 지도부 다수의 결정이나 입장을 번복하고, 마오쩌둥 개인의 생각을 관철했다. 이는 마오쩌둥이 지배 연합과 권력을 공유하는 집단지배에서 일인지배로 권력 구조가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게디스 등에 따르면, 일인지배의 지표는 안보 기구에 대한 독

---

182 薄一波. 『若干重大决策与事件的回顾 』 上卷, p.604.
183 李锐. 『庐山会议实录』 (郑州: 河南人民出版社, 2001), pp.315-318.
184 李维民. 「万毅张军在庐山会议」.

재자의 개인적 통제, 충성스러운 준군사조직의 창설, 고무도장 역할을 하는 집권당의 집행위원회, 인사권에 대한 독재자 개인의 통제, 정권을 지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당의 창설, 군에서의 진급에 대한 독재자의 통제이다.[185] 대약진 운동 시기 마오쩌둥은 군을 통제하고, 인사권을 통제했으며,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마오쩌둥 자신의 생각을 관철했고, 군의 진급을 통제했다. 일인지배 지표 여섯 가지 중 네 가지를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대약진 운동의 추진 과정에서 마오쩌둥의 일인지배는 분명히 강화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이념에서 조금이라고 벗어나는 인물들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의 일인지배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약진 운동이 참혹한 결과로 나타나면서, 공산당 정치국 내에선 마오쩌둥 이념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2) 대약진 운동의 실패

대약진 운동은 경제적 재앙을 불러왔다. 대약진 운동은 주관적 의지와 노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을 담고 있었다. 심지어 농업 집단화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1958년 농업 인력 1640만명을 도시 산업 지역으로 재배치했다. 이는 1957년 기준 산업 인력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대규모 관개 사업, 각 가정에서 소규모로 철을 생산하는 '뒷마당 철 용광로' 사업 등에 농업 인력들이 투입되었다. 이로 인해 1958년 농업 인력은 전년에 비해 380만명이 줄었다.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무한한 생산력을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마오쩌둥의 생각과 정반대였다. 농업 생산량이 급감했다. 곡물 생산량은 1958년 2억톤에서 1960년 1억4300만 톤으로 줄었다. 곡물 생산량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시 식량 지원과 수출에 따른 정부의 곡물 조달은 늘었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 1인당 곡물 보유량은 급감했다. 이는 영양 부족으로 이어졌고, 영양 부족은 다시 노동 생산성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졌다.[186]

---

[185] Geddes et al.,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pp.79-80.

[186] Wei Li,Dennis Tao Yang, "The Great Leap Forward: Anatomy of a Central Planning Disaste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3, no. 4 (2005).

[표 2] 대약진 운동 시기 곡물 생산량과 정부 구입량

연도	곡물 생산량 (백만 톤)	정부 구입량 (백만 톤)	1인당 곡물 보유량 (kg)
1955	184	48	256
1956	193	40	284
1957	195	46	273
1958	200	52	268
1959	170	64	193
1960	143	47	182
1961	148	37	209
1962	160	32	229
1963	170	37	231
1964	188	40	256

※ 출처: Wei Li, Dennis Tao Yang, "The Great Leap Forward: Anatomy of a Central Planning Disaste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3, no. 4 (2005).

극심한 식량 부족 사태는 사망률 급증과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다. 식량 부족에 따른 아사자 수는 수천만 명으로 추정된다. 양지성의 조사에 따르면, 1958년부터 1962년까지 기아로 인한 사망자수는 중국 공식 인구 통계로 추산할 경우 1643만명, 중국 지방 정부 통계 취합으로 추산할 경우 2098만명으로 추정했다. 양지성은 중국 국내외 인구 통계, 연구 자료들을 종합해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대약진 운동으로 인한 아사자수를 3600만명으로 추정했다.[187]

대약진 운동이 참혹한 실패로 나타나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서 마오쩌둥에 대한 지지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대약진 운동이 시작된지 1년만에 대약진 운동은 농업 생산력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마오쩌둥은 1959년이 되자 이미 문제가 드러난 대약진 운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마오쩌둥은 심각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1959년 7월 루산회의를 앞두고 마오쩌둥은 탄전린, 톈자잉에게 "천윈만이 경제를 관리할 수 있고 나는 아닌가?" 라고 물었다. 마오쩌둥이 천윈이 맡았던 경제 정책을 자신이 직접 관장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비판을 걱정한 말이었다. 1959년 여름엔 경제 정책을 맡은 공산당

187 楊繼繩. 『墓碑: 中國六十年代大饑荒紀實』 下編, pp.972-1005.

고위 간부들이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마오쩌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마오쩌둥의 불안감은 반대자에 대한 물리적 압박으로 이어졌다.[188]

[표 3] 대약진 운동에 따른 인구 변화(추정치)

연도	인구 (백만)	출산율 (1000명당)	사망률 (1000명당)	기대수명 (년)	영아 사망율 (1000명당)
1955	606.7	43.0	22.3	44.6	154
1956	619.1	39.9	20.1	47.0	143
1957	633.2	43.3	18.1	49.5	132
1958	646.7	37.8	20.7	45.8	146
1959	654.3	28.5	22.1	42.5	160
1960	650.7	26.8	44.6	24.6	284
1961	644.8	22.4	23.0	38.4	183
1962	653.3	41.0	14.0	53.0	89
1963	674.2	49.8	13.8	54.9	87
1964	696.1	40.3	12.5	57.1	86

※ 출처: Judith Banister, "An Analysis of Recent Data on the Population of Chin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0, no. 2 (1984). 저자는 중국에서 1982년 실시된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의 이전 인구 자료들을 조정해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만들었다. 1982년 인구 조사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것으로, 광범위하고 정교한 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1950년대 말에서 1970년대까지 중국에서 혼란이 극심한 시기로 중국 정부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3) 지배 연합의 분화

마오쩌둥은 공산당 내 반대를 억누르면서 대약진 운동을 관철했다. 그러나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귀결되면서, 지배 연합 내에서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이념에 대한 지지가 이탈하기 시작했다. 공산당의 2인자였던 류샤오치는 1958년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을 지지했지만, 1959년

[188] 楊繼繩. 『墓碑: 中國六十年代大饑荒紀實』 下編, pp.849-850. 李锐. 『庐山会议实录』, pp.12-13.

농업 생산력이 추락하는 상황을 목도했다. 이후 1962년 대약진 운동의 과오를 지적했다. 마오쩌둥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과 당의 단결로 인해 비판을 주저했지만,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189]

1961년은 농촌에서 일어난 경제난에 대한 대대적인 현지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가 1962년 공산당 내에서의 대약진 운동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190] 중국 각 지방의 현지 조사를 담당한 덩리췬은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 그는 농업 집단화의 예외로 개인 영농을 일부 인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저우언라이, 천윈, 보이보, 리부춘 등 공산당 고위 간부들도 농업 집단화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191] 공산당 지도부 내에서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이념에 대한 이탈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마오쩌둥과 지배 연합인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대약진 운동에 둘러싼 공산당 내 갈등은 1962년 '7000인 대회'[192]에서 표출했다. 마오쩌둥은 대회 첫날 회의에서 "상황이 좋아졌다. 착오는 모두 바로 잡혔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발언했다.[193] 그런데 류샤오치가 이러한 생각과 다른 발언을 했다. 1월 27일 마오쩌둥이 주재한 전체회의였다. 그는 구두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입각해 말하면, 국내 경제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부족하다. 1959년 이후 3년 동안 농업 생산은 크게 감소했다. 공업 생산도 1961년 40%가 줄었다. 2, 3년 전만해도 농업과 공업 생산력에서 대약진이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진전은 없고 퇴보만 있었다.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연재해다. 다른 하나는 1958년 이후 우리들의 결점과 착오이다. 내가 농

---

189 楊繼繩. 『墓碑: 中國六十年代大饑荒紀實』 下編, p.1110. 저자는 류샤오치의 비서였던 야오리원(姚力文)으로부터 류샤오치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경위를 들었다고 전했다.

190 陆剑杰. 「论1962年的党内争论--读《毛泽东传（1949-1976）》的笔记」, 『党的文献』, 第5期, 2014.

191 邓力群. 『邓力群自述』 (北京: 人民出版社, 2015), pp.313-329.

192 1962년 1월 중앙공작회의(일명 7000인 대회)를 개최했다. 공산당 중앙과 각 성과 시의 책임자들을 망라하는 대규모 대회였다. 국내외 정세를 논의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자는 취지였다. 마오쩌둥은 경제 상황이 전년에 비해 호전되었다는 낙관적 믿음도 대회가 개최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193 张素华. 『变局: 七千人大会始末, 1962年 1月 11日-2月 7日』 (北京: 中国青年出版社, 2012), pp.149-150.

부에게 ‘농업 생산이 어려웠던 원인이 무엇인가? 자연 재해가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농부가 답하기를 ‘자연재해가 있었지만 적었다’면서, ‘자연재해가 30%라면, 사람으로 인해 재앙이 70%이다(三分天灾，七分人祸)’라고 답했다.”[194] 이는 마오쩌둥의 과오를 언급한 것이었다.

다음날인 29일 린뱌오가 류샤오치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일련의 어려움은 우리들이 마오쩌둥 주석의 지시, 경고, 사상,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마오 주석의 사상을 관철해야만 할 때”라면서, “마오 주석의 사상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혹은 이를 방해하기라도 한다면,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했다. 린뱌오의 이같은 발언에, 마오쩌둥은 “당의 노선과 군사방침과 관련, 정말 좋은 발언이었다”고 칭찬했다. 또 “린뱌오 동지의 발언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에게 정리를 부탁한다. 앞서 류샤오치 동지의 발언에 대한 답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마오쩌둥은 류샤오치의 의견에 대한 우회적 반박이었다.

앞서 18일 당서기 펑전은 마오쩌둥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바 있었다. 펑전은 “마오쩌둥 주석이 어떤 잘못도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3년 동안 과도 문제(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와 식당(인민공사의 공동식당)은 마오쩌둥 주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펑전은 마오쩌둥의 잘못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경향을 지적했다. 주석의 잘못에 대해 거론했다가 몰락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날 천보다는 펑전을 발언을 반박했다. 천보다는 “우리가 엉망을 만들었는데, 그게 마오쩌둥 주석의 책임인가?”, “주석이 한 일에 대해서 감사라도 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사람은 비판할 수 있지만, 마오 주석은 비판할 수 없다”고 했다.

공산당 지도부에서 마오쩌둥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결국 마오쩌둥은 자아비판을 하게 되었다. 마오쩌둥은 공산당 각급 간부 7000여명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무릇 중앙이 범한 책임은 내 책임이다. 나는 중앙위원회 주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을지라도 제1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마오쩌둥이 간부들의 비판을 받고, 자아비판까지 하는 일은 거의 처음이었다.[195]

7000인 대회 이후 마오쩌둥의 농업 집단화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마오쩌둥의 좌경 노선에 입각한 급격한 농업 집단화에

---

[194] 逢先知, 金冲及. 『毛泽东传』 第五券, pp.2160~2161.
[195] 薄一波. 『若干重大决策与事件的回顾 』 下卷, pp.720-721.

서 벗어나, 개인 영농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1962년 6월 류샤오치, 덩샤오핑 등 간부들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8기 10중전회를 준비했다. 주요 의제는 인민공사화에 따른 농촌의 경제난이었다. 류샤오치, 덩샤오핑, 천윈 등 간부들은 농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책임전(责任田), 포산도호(包产到户)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별 농가에게 생산과 거래에 자율성을 부여한 정책이었다. 덩샤오핑은 7월 2일 중앙서기처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중앙 간부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포산도호에 대해 논의했다. 덩샤오핑은 포산도호에 대해 "황색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과도기엔 (생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가져다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196]

마오쩌둥은 이들의 생각에 반대했다. 그에게 농업 집단화는 사회주의 혁명 과정이었다. 농업 집단화에서 벗어난 생산 방식은 마오쩌둥 자신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었다. 마오쩌둥의 비서인 톈쟈잉(田家英)은 7월 마오쩌둥을 만나, 포산도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마오쩌둥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오쩌둥은 "당신의 주장은 집체경제를 위주로 한 것인가, 개인경제를 위주로 한 것이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마오쩌둥은 "그 의견은 당신의 개인적 의견인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톈쟈잉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답했다. 다음날 마오쩌둥은 회의를 소집하고, 톈자잉이 포산도호 같은 것들을 언급한다며 비판했다.[197] 또 6월 20일 천윈이 역시 개별 농가가 생산을 책임이지는 분전도호(分田到户)의 필요성을 마오쩌둥에게 주장하자, 마오쩌둥이 강하게 화를 냈다고 한다.

류샤오치, 천윈을 비롯한 공산당 주요 고위 간부들이 대약진 운동에 회의적인 입장을 갖게 되면서, 마오쩌둥과 갈등이 빚어졌다. 1962년 7월 베이징에서 마오쩌둥은 류샤오치를 불렀다. 류샤오치는 "천윈과 톈자잉은 당 내에서 의견을 말했을 뿐이며, 조직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마오쩌둥은 "조직 원칙이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다시 류샤오치가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굶주린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상황에서, 역사는 당신과 나의 역할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마오쩌둥은 "삼면홍기가 부정 당하고, 토지가 (개인에게) 분할되는데, 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라면서

196 逄先知,金冲及. 『毛泽东传』 第五券, pp.2195-2196.
197 董边, 锺德山,曾自. 『毛泽东和他的秘书田家英』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2016), p.64-65.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반박했다. 마오쩌둥은 스탈린 사후에 벌어졌던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것으로 우려했던 것이다. 흐루시초프는 스탈린 사후 스탈린을 격하했다.[198]

마오쩌둥은 자신을 비판하는 간부들과의 갈등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근본적 이념 대립으로 설정했다. 마오쩌둥은 호별 영농을 자본주의로 이해했다. 그는 베이다이허 중앙공작회의 직전인 7월 20일 담화에서 포산도호, 분전도호를 비판했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찬성하는가, 자본주의를 찬성하는가” 라고 물었다. 마오쩌둥은 농업 생산 방식에 대한 논쟁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적 대립으로 설정한 것이다.[199] 이는 단순히 정책적 노선 문제가 아니었다. 포산도호 등을 주장하는 간부들이 자본주의를 따르는 반혁명 집단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문제였다. 이러한 불안은 양상쿤(杨尚昆)의 일기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같은달 18일 마오쩌둥으로부터 “집체의 길인가, 개인의 길인가” 라는 질책을 들었다. 그는 일기에서 “사태가 매우 위중하다. 정말 불안하다.” 고 기록했다.[200] 공산당 내 심각한 노선 투쟁에 따른 간부들에 대한 숙청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오쩌둥은 류샤오치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1964년 류샤오치가 독립 왕국을 만들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던 것이다.[201]

지배 연합이 이념적으로 분화하면서, 마오쩌둥은 지배 연합을 재편하려는 징후를 보였다. 1962 년 9 월 8 기 10 중전회[202]에서 마오쩌둥은 공산당 내 자본주의, 수정주의, 기회주의 세력이 있음을 지적했다. 마오쩌둥은 중국 정세를 무산계급 혁명 시기로 규정하고, 사회에 무산계급과 자산계급 간 계급투쟁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마오쩌둥에 따르면, 자산계급은 소수이지만, 기회를 노려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벗어나 자본주의

198 王光美,刘源. 『你所不知道的刘少奇』 (郑州: 河南人民出, 2000), p.90; 楊繼繩. 『墓碑: 中國六十年代大饑荒紀實』 下編, pp.1121-1122; Walder, *China under Mao: A Revolution Derailed*. pp.184-185.

199 逢先知,金冲及. 『毛泽东传』 第五券, p.2199.

200 杨尚昆. 『杨尚昆日记 』 下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2001), p.196.

201 Frederick C Teiwes, *Revival: Politics and Purges in China: Rectification and the Decline of Party Norms, 1950-65* (New York: Routledge, 2015). p.375.

202 8기 10중전회의는 1962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열렸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회의가 8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있었다. 그리고 8기 10중전회의의 기조는 앞서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어진 베이다이허 중앙공작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의 길을 가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계급투쟁은 불가피하다. 계급투쟁은 공산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산계급의 존재는 공산당 내 수정주의 사상의 사회적 근원이다. 따라서 마오쩌둥은 당 내 기회주의 사상 경향을 반드시 경계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3] 그의 발언은 자본주의, 혹은 수정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간부들을 공산당에서 축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류샤오치 등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야기한 문화대혁명의 기본 이념과 맞닿아 있었다.[204]

마오쩌둥은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중국의 건국 이후 막강한 개인 권력을 휘둘렀다는 견해가 있다. 마오쩌둥은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중국에서 집단지배는 덩샤오핑의 노력에 의해 개혁개방 시기 제도화하기 시작했다고 한다.[205] 그러나 대약진 운동의 참혹한 실패 이후 마오쩌둥은 류샤오치를 비롯한 공산당의 다른 지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의 급진적인 농업 집단화 정책이 덩샤오핑, 천윈, 덩즈후이 등에 의해 후퇴되기도 했다. 마오쩌둥의 일인지배가 일관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일인지배의 확립

(1) 이념적 노선 투쟁

원래 마오쩌둥은 1953년부터 제1선과 제2선 개념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제1선으로 일상업무를 주관하고, 마오쩌둥은 제2선으로 일상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1선에서 류샤오치는 정치국 상위를, 덩샤오핑은 서기처 회의를 각각 주관했다. 제1선에서의 국가 통치 경험을 바탕으로, 마오쩌둥 이후 집단지도 체제를 이끄는 차기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제1선과 제2선이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마오쩌둥은 제1선의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이 자신의 이념에서 이탈해 '독립 왕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마오쩌둥은

---

[203] 中共中央党校党史教研究室资料组编. 『中国共产党历次重要会议集』 下, pp.196-197.
[204] Walder, *China under Mao: A Revolution Derailed*. p.188.
[205] Cheng Li, *Chinese Politics in the Xi Jinping Era: Reassessing Collective Leadership*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6). pp.15-16.

제1선의 간부를 자본주의를 따르는 주자파(走資派)로 간주했다.[206]

마오쩌둥은 공산당 내에서 자본주의, 혹은 수정주의의 길을 가는 우파들을 축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오쩌둥은 1966년 7월 장칭에게 문혁의 성격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다. 마오쩌둥은 "현재 기본 임무는 전당, 전국에서 우파를 타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파가 정변을 일으킬 때) 좌파는 내가 일으킨 세력과 조직을 이용해 우파를 타도할 것"이라며, 문화대혁명은 우파 타도를 위한 치열한 훈련"이라고 했다.[207] 그는 문혁을 통해 공산당에서 자본주의를 따르면서 공산당 지도부에 있는 당권파(当权派)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208]

마오쩌둥은 자신의 계급투쟁 이념에 따라 공산당 중앙 조직을 개편하고자 했다. 다만 자본주의를 따르는 당권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당권파를 특정하는 문제는 결국 이념적 투쟁을 통해 가려질 수밖에 없었다. 이념을 통해 정치 엘리트의 분화와 제휴가 나타나고, 이념 투쟁을 거치면서, 공산당 조직의 개편이 이뤄진다. 이념 투쟁, 지배 연합의 분화, 조직 개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마오쩌둥이 공산당 조직 개편에 앞서 당내에서 이념적 문제를 우선 제기하는 것도 이 같은 과정으로 분석할 수 있다.

1965년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공작회의에서 마오쩌둥은 수정주의 문제를 제기했다.마오쩌둥은 "만약 중공 중앙에 수정주의가 나타난다면, 반란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공산당 중앙이 군벌도 좋고, 수정주의도 좋다고 한다면, 이는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다. 이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반란을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마오쩌둥이 제기한 이념 문제는 공산당 간부에 대한 대규모 개편을 예고한 전조였다.

한달 후 야오원위안이 쓴 '신편 역사극 '해서의 파직'을 평함'[209]이라는 글을 둘러싸고, 되면서, 공산당 중앙에서 이념 논쟁이 본격화

---

[206] 彭厚文. 「文革前中共中央的"一线、二线"制度」,『党史博览』, 第8期, 2010.

[207] 毛泽东. 「给江青的信(一九六六年七月八日)」, 『建国以来毛泽东文稿』第十二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8). 마오쩌둥은 자본주의 우파를 모습을 감춘 채 기회를 노리는 귀신에 비유했다. 7,8년 지나면 소귀신, 뱀귀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급적 성격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마오쩌둥 자신은 귀신을 때려잡는 공산당의 종규(鍾馗, 중국 도교에서의 신)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8] 逢先知,金冲及. 『毛泽东传』 第六券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2013), pp.2355-2358.

[209] '해서의 파직'(海瑞罷官)은 베이징시 부시장이자 저명한 역사가인 우한의

했다. 논쟁은 공산당 지도부의 이념적 차이를 드러냈다. 마오쩌둥이 이후 밝힌 바에 따르면, 야오원위안은 장칭의 부탁에 따라 '해서의 파직'을 비평하는 글을 작성했다. 장칭과 야오원위안은 마오쩌둥에게 글에 대한 비평을 부탁했다. 마오쩌둥은 다시 이를 류샤오치, 덩샤오핑, 펑전, 루딩이에게 주었는데,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이 출간에 반대했다. 마오쩌둥은 애초 야오원위안의 글을 발표하도록 할 생각이었다. 다만 이들의 이념적 지향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210]

마오쩌둥은 해서파관을 쓴 베이징시 부시장 우한에 대한 조사를 문화혁명오인소조에게 명했다. 소조는 펑전을 조장으로 루딩이 캉성, 저우장, 우렁시가 조원으로 있었다. 펑전은 1966년 2월 3일 문화혁명오인소조의 회의를 열고, 해서의 파관에 관한 문제를 다뤘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당면 학술 토론에 관한 문화혁명오인소조의 회보제강'(이른바 2월제강)을 발표했다.[211] 2월제강은 학술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펑전이 이끄는 문화혁명오인소조는 우한을 비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펑전은 베이징시 시장이고 우한은 베이징시 부시장이었다. 애초 장칭, 야오원위안은 베이징에서 '해서의 파직'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되어 상하이에서 발표한 바 있었다. 이 같은 정황은 마오쩌둥이 펑전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는 이유였다. 마오쩌둥은 우한의 작품에 대해 이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1965년 12월 21일 항저우에서 천보다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요한 부분은 파직이라는 데에 있다. 가정제는 해서를 파직했고, 우리는 펑더화이를 파직했다. 펑더화이는 해서이다.[212]

작품이다. 명나라 가정제가 해서를 파직한 역사적 사건을 경극 형태로 창작한 것이다. 야오원위안은 이 작품에 대한 비평을 1965년 11월 10일 상하이의 문회보 (文汇报) 에 게재했다. 야오원위안은 작품이 단간풍, 번안풍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인민공사를 무너트리고 지주부농의 복귀를 원하는 작가의 의중을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작품에서 해서가 빼앗긴 밭을 돌려준 대목, 가정제가 부당하게 해서를 파직한 대목이 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210] 逢先知,金冲及. 『毛泽东传』 第六券, p.2364.

[211] 2월제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술 논쟁은 매우 복잡하고, 짧은 시간 동안 명확하게 다루기 쉽지 않다. 실사구시 원칙을 견지하여, 진리에 대해선 누구나 평등하다. 따라서 이치로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하며, 학벌이나 권력으로 사람을 억압해선 안된다. 우한이 자본주의 세계관으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대하고 정치적 오류를 범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면에서의 토론을 정치문제에만 국한하지 말고 학술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을 해야 하며, 의견이 계속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을 보류하도록 해야 한다."

[212] 席宣,金春明. 『"文化大革命"简史』 (北京: 中共党史出版社, 2006), p. 71.

마오쩌둥은 2월제강을 비판했다. 항저우에서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정치국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였다. 마오쩌둥은 “학술계, 예술계가 사실상 자본가, 소자본가 계급에 장악되었다고”고 했다. 대학, 중학, 소학 대부분이 자본가, 소자본가 계급, 지주, 부농 출신들이 농단하고 있다. 엄중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어 3월 28일부터 사흘 간 캉셩, 장칭, 장춘차오 등과의 담화에선 ‘2월제강’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가했다. 마오쩌둥은 “‘2월제강’은 계급 경계를 혼동하고, 시비를 분별하지 않아 잘못된 것이다. 불순분자를 비호한다면, 중앙선전부와 베이징시 위원회, 문화혁명오인소조는 해산해야 한다. 8기 10중전회에서 계급투쟁을 결의했음에도, 우한이 어떻게 반동적인 글을 그렇게나 많이 써댈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다시 4월 16일엔 “난 우한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영혼과 의식의 투쟁을 건드리는 것이며, 광범위한 문제이다”, “수정주의는 문화계에서만이 아니라 당정군, 특히 당과 군에서 수정주의가 지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213] 캉셩은 중앙서기처 회의를 개최, 마오쩌둥의 담화를 전달했다. 그리고 ‘2월제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 지배 연합의 개편

‘해서의 파직’으로 촉발된 이념 투쟁은 공산당 중앙의 조직 개편으로 이어졌다. 1966년 5월 4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에서 중앙정치국 확대의가 있었다. 회의는 2월제강을 두고 문화혁명오인소조 지도부를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펑전이 문화혁명오인소조의 캉성 몰래 ‘자기의 의견에 따라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학술비판의 정치적 성격을 감춘 자본가 계급의 복원을 위한 수정주의 강령’이라는 내용이었다. 회의는 문화혁명오인소조 조장 펑전, 조원이자 중앙선전부장인 루딩이에 대한 비판이 이뤄졌다. 한편 회의에선 총참모장 뤄루이칭과 공산당 판공청 주임인 양상쿤까지 비판을 받았다. 뤄루이칭은 국방부장인 린뱌오가 아내 예췬을 시켜 마오쩌둥에게 모함한 군 총참모장이다. “뤄루이칭이 정치를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것을 반대한다”, 마오쩌둥 사상을 반대한다” 등의 내용이었다.

이 회의 결과는 1966년 5월 16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통

[213] 逢先知,金冲及. 『毛泽东传』 第六券, pp.2373-2375.

지’ (5·16 통지)로 발표되었다. 5·16 통지에는 마오쩌둥의 공산당 중앙 조직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었다. 마오쩌둥은 이념 투쟁을 통해 공산당 고위 간부들을 분류하고, 수정주의자로 분류한 자들을 당직에 몰아내고자 했다. 통지는 여러 차례 공산당 중앙의 수정주의 이념의 출현을 우려하는 대목들이 다음과 같이 등장했다. “당·정·군 내 자본가 계급을 대표하는 수정주의 분자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일단 시기가 무르익으면 정권을 탈취하고, 무산계급 독재를 자본가 계급 독재로 전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런 인물들 중 어떤 이들은 이미 우리에게 간파되었지만, 어떤 이들은 아직 간파되지 않았으며, 어떤 이들은 우리의 후계자로 신임을 얻어 양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흐루시초프 같은 이들인데, 그들은 지금 우리 곁에서 잠자고 있다. 각급 당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이점을 주의해야 한다.” [214]

이 같은 마오쩌둥의 의중은 5·16 통지 이후 공산당 중앙 조직 재편이 전개되었다. 마오쩌둥의 이념을 지지하는 인물들이 공산당 고위직에 올랐다. 반대로 마오쩌둥 이념에 반대하는 인물은 밀려났다. 1966년 8월 공산당 8기 11중전회에선 문화대혁명의 전면 실시를 선언한 ‘무산계급의 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작성한 ‘사령부를 포격하라: 나의 대자보’라는 글이 배포되었다. 사령부는 당권파가 장악한 공산당 중앙 조직이며, 그 중심이 류샤오치임을 암시했다. 이 회의에서 공산당 2인자였던 류샤오치가 8위로 밀려났다. 덩샤오핑은 총서기 직위로 중앙 일상업무를 주관하는 일을 다시 못하도록 했다. ‘반란은 정당하다’ (造反有理), ‘사령부를 포격하라’ 등 마오쩌둥의 발언은 공산당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숙청을 정당화하기 위해 애초부터 의도된 것이었다.[215] 이와 반대로. ‘마오쩌둥 천재론’을 주장한 린뱌오는 단숨에 공산당의 2인자가 되었다. 린뱌오는 마오쩌둥의 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한 인물이었다. 문혁소조에 속한 타오주, 천보다, 캉셩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되었다.

마오쩌둥이 공산당 조직을 재편할 수 있었던 배경엔 그가 군중에게 갖고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다. 마오쩌둥은 군중을 동원해 공산당 중앙을 공격하도록 했다. 그는 1967년 1월16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확대회

---

[214]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通知」, 『人民日报』, 1966.5.16.

[215] Roderick MacFarquhar,Michael Schoenhals, *Mao's Last Revolu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pp.89-92.

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십여년 동안 우리 간부들에게서 변질이 있었다. 좌파 군중이 일어나 권력을 탈취하는 게 좋겠다. 우파가 권력을 쥐는 건 당연히 안 좋다. 좌파의 역량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군중이 새로운 간부를 뽑게 해야 한다.” [216] 그는 공산당 원로 간부들을 ‘당권파’로 규정하고, 군중을 동원해 이들을 공격했다.

군중들이 공산당 중앙을 공격하면서, 공산당 중앙 조직을 무력화했다. 1968년 10월 8기 12중 전원회의가 그랬다. 문화대혁명 급진 군중 조직인 조반파의 영향으로, 8기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의 71%가 반역, 외국과 내통, 간첩 등의 모함을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중앙위원 전체 97명 중에 전원회의 참석자는 40명에 불과했다. 회의 시작 직후 중앙위원 10명을 새로 임명해 참석인원 과반수를 넘기도록 했다. 기존 중앙위원들이 대거 참석하지 못한 회의엔, 문혁파가 자리를 채웠다. 문혁소조, 각 지역 혁명위원회, 군위판사조(军委办事组 , 군사 업무 담당) 등의 책임자 74명이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들 조직은 문화대혁명 시기 기존 공산당 조직을 대체해 조직된 것이다. 이들이 회의 참석자 51%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이 회의에서 천이, 예젠잉, 리푸춘, 리셴넨, 쉬샹첸, 네룽전, 주더, 천윈 등 이른바 ‘당권파’를 비판했다.[217]

이후 1968년 10월 8기 12중전회에선 공산당 중앙 조직 변화가 더욱 현저했다. 린뱌오, 장칭이 주도한 공산당 8기 12중전회에선 류샤오치를 영원히 당에서 출당시켜며, 당 내외의 일체의 직무에서 물러나도록 했다.[218] 반역, 간첩 혐의였다. 그러나 류샤오치는 마오쩌둥과 이념에 맞섰던 게 진정한 이유였다. 린뱌오와 장칭은 덩샤오핑에 대해서도 당적 삭제를 추진했지만, 마오쩌둥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장칭은 공산당 중앙위원도 아니었지만, 문혁소조의 부조장이었다. 문혁소조 부조장이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출당 안건을 주도했던 것이다.

1969년 4월 제9차 당대회에선 문화대혁명의 이념 노선에 따라 중앙위원 170명, 후보위원 109명 총 279명을 선출했다. 그중 8기 중앙위원 출신은 53명에 불과했다. 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 전체의 19%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이념에 찬성하지 않았던 원

---

[216] 逢先知,金冲及. 『毛泽东传』 第六券, pp.2435.
[217] 中共中央组织部, 中共中央党史研究室,中央档案馆. 『中国共产党组织史资料』 第六卷 (北京: 中共党史出版社, 2000), pp.8-9.
[218] 李安增. 『1976-1982年中国当代史』 (北京: 新华出版社, 2004), p.39.

로 간부들(당권파)이 대거 물러난 결과였다. 그리고 그 자리를 린뱌오, 장칭을 위시한 문혁 급진파가 채웠다. 9기 정치국원 구성에서도 문혁파는 14명으로 원로 간부 7명을 압도했다. 이제 마오쩌둥은 이념을 통해 공산당 중앙 조직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재편했다. 마오쩌둥은 일인지배를 구축했던 것이다.

[표 4] 중국 공산당 9기 중앙위원회 정치국 구성(1969년 4월)

	원로 간부	문혁파
주석단	마오쩌둥(주석), 린뱌오(부주석)	
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언라이	마오쩌둥, 린뱌오, 천보다, 캉셩
정치국원	저우언라이, 예젠잉, 류보청, 주더, 쉬스유, 리셴넨, 동비우 (7명)	마오쩌둥, 린뱌오, 예췬, 천보다, 리줘펑, 우파셴, 천시롄, 황용셩, 치우후이줘, 캉셩, 장칭, 장춘차오, 야오원위안, 셰푸즈 (14명)

※ 출처 : 中共中央组织部, 中共中央党史研究室,中央档案馆. 『中国共产党组织史资料』 第六卷, pp.32-33

급격한 공산당 조직 재편에 예젠잉을 비롯한 군 지도자들은 반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양 정치 세력 간 충돌은 1967년 2월 11일부터 16일까지 화이런탕(怀仁堂)에서 있었던 중앙연두회의에서였다. 저우언라이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선 한편으로 군의 고위 간부들이, 또 다른 한편으로 문혁 세력들이 자리했다. 고위 간부들은 문혁 주도 세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오후 회의에서 예젠잉은 캉셩, 천보다, 장춘차오 등을 직접 가리키며 비판했다. 그는 "너희들이 당, 정부, 공장, 농촌을 혼란에 빠트렸다. 그리고 반드시 군대를 혼란하게 하고자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16일 회의에선 탄전린, 천이, 리셴넨, 위추리 등이 문화대혁명의 오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탄전린은 장춘차오 등이 공산당 고위 간부들을 탄압한 일을 두고서 "공산당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당과 군의 원로 간부들이 비판에 나서자, 문혁 급진파는 마오쩌둥에게 군 간부들이 문화대혁명을 부정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마오쩌둥은

19일 정치국 회의를 소집, 화이런탕회의에 참석한 당군 고위 간부들을 비판했다.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화이런탕에서 열린 정치국회의에서 문혁파는 고위 간부들을 이른바 '2월역류'로 몰아세웠다. 당과 국가의 각급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도 이어졌다. 결국 중앙정치국이 사실상 활동을 정지당했다. 중앙정치국을 대신해 문혁소조가 중앙정치국의 역할과 기능을 갖게 되었다.[219]

(3) 의사결정 제도 변화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통해 자신의 이념을 중심으로 공산당을 재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선 기존 공산당 조직을 파괴하는 이른바 '천하대란'을 일으켜야 했다. 마오쩌둥은 군중을 동원한 비정상적 방식으로 자신과 지배 연합의 권력 균형을 무너트렸다. 마오쩌둥은 자신을 지지하는 문화대혁명 군중 조직을 배경으로 지배연합을 공격했다. 그 결과, 집단지배를 뒷받침하는 중앙정치국은 기능을 상실하고, 대신 마오쩌둥의 결정을 관철하는 문혁소조가 국가 통치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중앙문화혁명소조가 정치국 기능을 대체했다.[220]

5•16 통지에 따라, 기존 문화혁명오인소조를 없애면서, 새롭게 문화혁명소조(문혁소조)를 설립했다. 이는 공산당 의사결정 제도의 변화였다. 문혁소조는 마오쩌둥이 직접 결정하고 설립한 특수 조직이다. 문혁소조는 사실상 정치국, 서기처를 압도하는 직권을 행사했다. 이후엔 정치국과 서기처를 대신해 국가의 주요 업무를 처리했다. 문혁소조는 마오쩌둥의 지휘를 받았으며, 주로 천보다, 장칭, 장춘차오, 캉셩 등 문혁 급진파로 이뤄졌다. 그리고 문혁소조의 명의로 전당, 전국, 전군에 지시와 통지가 하달되었다. [221]

공산당 의사결정 제도 변화는 권력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마오쩌둥은 집단적 의사결정 기구인 정치국을 무너트리고, 마오쩌둥의 일인지배를 뒷받침하는 의사결정 기구를 창설한 것이다. 건국 이후 중일전쟁, 국공내전을 거친 원로 간부들은 중앙정치국을 통해 집단적 의사결

---

[219] 叶剑英传编写助. 『叶剑英传』 (北京: 当代中国出版社, 1995), pp.360-361.
[220] 中共中央党史研究室. 『中国共产党历史 』 第二券 (北京: 中共党史出版社, 1991), p.789. Meisner, *Mao's China and After: A History of the People's Republic*. pp.314-315.
[221] 中共中央组织部, 中共中央党史研究室,中央档案馆. 『中国共产党组织史资料 』 第六卷, pp.60-62.

정에 참여했다. 따라서 중앙정치국 대체하는 문혁소조 설립은 집단적 의사결정 대신 마오쩌둥이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오쩌둥 일인지배화라는 권력 구조의 변경이 의사결정 제도의 변화로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다.

중앙문혁소조는 마오쩌둥의 사령부 역할을 수행했다. 처음엔 간부 10명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수천명의 간부들을 충원했으며,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을 압도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문혁소조는 마오쩌둥의 권력을 기반으로 하면서, 철저히 마오쩌둥의 의도에 따라 움직였다. 린뱌오, 저우언라이는 문혁소조가 "마오쩌둥의 무산계급 혁명 노선을 충실하게 집행했다"고 평하기도 했다. 중앙문혁소조는 마오쩌둥 개인에 충성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었다.[222]

[표 5] 8기 정치국과 중앙문화혁명소조 구성(1966년 5월)

정치국	중앙문화혁명소조
마오쩌둥, 류샤오치, 저우언라이, 주더, 천윈, 린뱌오, 덩샤오핑, 동비우, 천이, 리푸춘, 펑더화이, 허룽, 류보청, 리셴넨, 리징추안 (15명)	천보다(조장), 장칭, 왕런중, 류즈젠, 장춘차오, 캉셩, 타오주, 셰탕중, 인다 , 왕리, 관펑, 치번위, 무신, 야오원위안 , 장핑화, 궈잉취, 정지차오, 양즈린 , 류원전 (19명)

※ 출처 : 中共中央组织部, 中共中央党史研究室,中央档案馆. 『中国共产党组织史资料 』 第六卷, pp.23-24, p.62.

(4) 일인지배 확립과 후계의 문제

대약진 운동의 실패 이후, 공산당 지도부 내에선 마오쩌둥의 좌경 이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류샤오치는 7000인 대회 이후 마오쩌둥과 공산당의 이념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을 벌였다. 심지어 류샤오치는

[222] Andrew G. Walder, *China under Mao*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pp.202-203; MacFarquhar,Schoenhals, *Mao's Last Revolution*. pp.99-101; Michael Schoenhals, "New Texts: Speeches at the Ninth National Congres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Stockholm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2 (1990).

공산당 중앙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면서, 경제, 정치, 외교, 행정에서 마오쩌둥의 노선으로부터 이탈하기도 했다. 류샤오치는 공안국장에게 "마오쩌둥은 7000인 대회 이후 베이징을 떠나 있으면서 류샤오치의 이 같은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다.[223] 마오쩌둥의 일인지배가 확립된 상황이라면, 마오쩌둥은 자신의 이념에서 벗어난 공산당 지도부를 숙청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공산당 지도부 숙청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맥파커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마오쩌둥이 류샤오치 축출을 자신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마오쩌둥이 1943년 확고한 지도자 지위를 구축하기 이전부터, 류샤오치, 저우언라이, 천윈, 펑전과 같은 인물들이나 군 지휘관들은 독자적인 명성을 확립해왔다. 더구나 류샤오치는 공산주의 이론가, 공산당 조직가, 노동 전문가라는 면에서 마오쩌둥을 능가했다. 류샤오치는 마오쩌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동맹이었다. 결국 당시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 시기 마치 신과 같은 권위로 당을 장악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류샤오치가 자신을 지지하는 간부들이 들어간 공산당 조직을 관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류샤오치를 중심으로 공산당 지도부가 마오쩌둥에 맞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총서기 덩샤오핑이 마오쩌둥 편에 설 것인지 확실치 않았다는 것이다.[224]

결국 마오쩌둥은 옌안 체제로부터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산당 정치국을 비롯한 집단적 의사결정기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좌경 이념에 치우친 정책을 관철하기 어려웠다. 대약진 운동 실패 이후, 마오쩌둥의 좌경 이념이 공개적인 비판을 받았다. 마오쩌둥이 국가 최고지도자라는 지위가 위협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의 반발을 무시하기는 어려웠다. 일인지배에서 독재자는 자신의 정책에 대한 지배 연합의 견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독재자가 급진적인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

[223] 楊繼繩. 『墓碑: 中國六十年代大饑荒紀實』 下編, p.1127.

[224] Roderick MacFarquhar, *The Origins of the Cultural Revolution*, vol. 3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pp.432-433. 맥파커의 견해와 달리, 신화통신 기자 출신 양지청은 마오쩌둥의 절대적 권위가 문화대혁명이 발동할 수 있었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옌안 시기부터 마오쩌둥에 대한 신격화가 시작되었으며, 마오쩌둥은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문혁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마오쩌둥은 법, 정책, 도덕, 사회적 기준 위에 존재하는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楊繼繩. 『天地翻覆』 上册 (香港: 天地圖書, 2018), pp.52-56.

문화대혁명은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옌안 체제는 근본적으로 합의 체제에 속했다. 이에 반해 문혁 시기 권력구조는 마오쩌둥 개인이 절대적 권력을 가졌다. 마오쩌둥은 군중 동원을 통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집단지도체제를 붕괴시켰다. 마오쩌둥과 공산당의 문혁 급진파는 조반파와 홍위병을 조종하면서, 공산당 원로 간부들을 공격했다. 그 결과 마오쩌둥은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다.[225] 다시 말해, 문혁 시기 마오쩌둥은 더 이상 지배 연합으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일인지배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다.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데엔 공산당 지도부에서의 이념적 분화에서 찾을 수 있다.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이 참혹하게 실패하면서, 마오쩌둥의 급진적 좌경 이념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났던 것이다. 마오쩌둥은 대중을 동원해 지도부를 공격하도록 했다. 문화대혁명의 원인을 당 최고 지도부 사이의 분열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226]도 있다. 마오쩌둥 사상의 좌경화, 급진적 이상주의, 마오쩌둥의 가부장적 절대권력, 개인 독재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한다. 물론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의 좌경 이념에서 비롯되었다.

마오쩌둥은 공산당 지도부 내에서 자신의 이념을 그대로 관철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을 촉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징 황의 연구는 정책을 책임진 제1선의 지도부와 제2선의 마오쩌둥의 대립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제1선 지도자들은 일상의 정책 업무를 맡았으며, 마오쩌둥은 제2선에서 일상적인 정책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문제는 정책적 선호의 차이였다. 마오쩌둥과 달리, 제1선의 지도자들은 이념적 의미보다는 정책적 성과을 중시했다. 이는 제1선과 마오쩌둥이 1962년 초 다시 제2선으로 물러난 상황에서,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은 제1선에서 정책을 책임졌다. 이들은 급진적인 정책에 대한 변화를 꾀했으며, 중앙 관료 기구의 통제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마오쩌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다.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의 공식 입장[227]도 이와 비슷했다. “마오쩌둥은 자기가 공평하고 완벽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로부터 심각한 저항에 직면했다고 생각했다. 이

---

[225] 안치영. 『덩 샤오핑 시대의 탄생 : 중국의 역사 재평가와 개혁』, pp.68-71.

[226] 안치영, 『중국 개혁개방 정치체제의 형성』, 1976-1981"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227] 中共中央党史研究室. 『中国共产党历史』 第二券 下册 (北京: 中共党史出版社, 1991), p.779.

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를 ‘독립 왕국’, ‘자산계급 사령부’로 지칭하며 타도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인해 공산당 간부들은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이념에 회의적인 시작을 드러냈다. 마오쩌둥에 사회주의 비전에 대한 정치 엘리트들의 이탈도 분명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사회주의적 비전이 멈추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다. 농업 집단화와 같은 사회주의 혁명 과정이 후퇴되어선 안 된다고 보았다. 마오쩌둥의 이념이 좌절된 상황에서, 마오쩌둥은 자신의 이념을 추동하기 위한 돌파구로 문화대혁명을 촉발했던 것이다.[228]

한편, 문화대혁명의 성격에 대해. 소련을 모델로 한 당-국가 체제의 해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문화대혁명은 공산당 고위 간부에 대한 대규모 숙청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통해 기존의 당 조직을 파괴하고, 마오의 비전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조직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했다고 한다.[229] 이 분석에 따르면, 문화대혁명은 여러 이념들이 공존하는 기존 공산당을 무너트리고, 대신 마오쩌둥의 계급투쟁 이념만을 관철하는 당조직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마오쩌둥 사후 권력구조: 집단지배

마오쩌둥은 문혁 이후 일인지배를 확립했다. 지배 연합에서 그의 지위를 위협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중국 건국 초기 공산당은 파벌 연합적인 옌안 체제에서 시작했다. 공산당 정치국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배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958년 대약진 운동을 시작하면서 마오쩌둥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일인지배가 강화되었다. 대약진 운동 실패에 따라 지배 연합이 분열되면서, 공산당 지도부 일부가 마오쩌둥에 대한 지지를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대혁명을 통해 마오쩌둥은 자신의 좌경 계급투쟁 이념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한 원로 간부들을 축출했다. 이를 통해 마오쩌둥은 흔들리지 않는 일인지배를 확립했다. <그림 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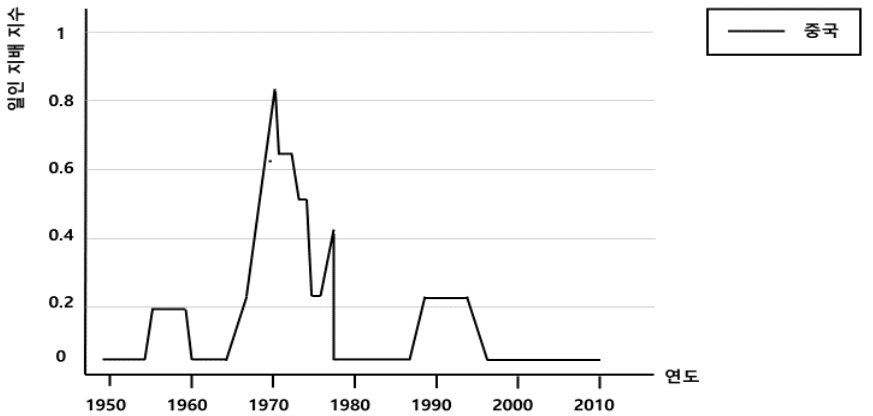
1971년 9월 13일 린뱌오 사건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의 최고지도자 지위가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은 찾기 어렵다. 다만 문혁 급진파가 장악했던 지배 연합의 구성에서 변화가 발생했다. 마오쩌둥의 승인을 받아

---

[228] Lowell Dittmer, *Liu Shaoqi and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New York: Routledge, 2015). pp.26-53.
[229] Walder, *China under Mao*. pp.200-201.

저우언라이가 원로 간부들을 복권시켰으며, 마오쩌둥이 지방에 경력을 쌓은 젊은 간부들을 공산당 중앙으로 발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배 연합은 복권된 원로 간부, 지방에서 발탁된 문혁 수혜, 기존 문혁 급진파로 구성되었다. 지배 연합 내에서 이들 파벌이 대립, 균형을 이루면서, 마오쩌둥의 지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230]

[그림 5] 중국 공산당에서 일인지배 지수 변화



※ 출처 : Geddes et al.,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p.83.

문제는 마오쩌둥 사후에 발생했다. 마오쩌둥이 사라진 상황에서, 어떤 파벌의 지도자도 권력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마오쩌둥 사후 공산당 권력 구조는 일인지배에서 집단지배로 전환했다. 화궈펑으로의 권력 승계는 집단지배라는 권력 구조 상황에서 이뤄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화궈펑은 전임자의 지배 연합 다수로부터 지지를 얻어 권력을 이양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화궈펑은 안정적인 집권 유지를 위해 독자적 지배 연합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집권 유지에 위협이

---

[230] Geddes et al.,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pp.82-83. 게디스 등은 일인지배화(personalization)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중국 공산당의 일인지배화 정도를 나타냈다. 1949년 건국 이후 마오쩌둥의 권력 집중은 부침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집단적이었던 권력 구조는 1950년대 마오쩌둥으로의 온건한 권력 집중을 이뤘다. 하지만, 대약진 운동 실패 이후 일인지배가 약화했다. 그리고 다시 1960년대 문화대혁명을 통해 급속한 권력 집중을 이뤘다. 이후 마오쩌둥의 건강 악화, 공산당 통치의 정상화 등으로 일인지배가 약화되었다. 마오쩌둥 사후, 공산당은 다시 집단지배를 복권했다고 한다.

될 수 있는 전임자의 지배 연합을 축출하는 대신, 독자적 지배 연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지배 연합으로부터 지도자 지위를 위협받지 않는 일인지배를 확립할 수 있었다.

제 2 절 후계 선정 시기

마오쩌둥은 자신의 이념을 후계자 선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이념에 대한 충성도는 마오쩌둥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기본 전제였다. 마오쩌둥은 소련에서 스탈린 사후 스탈린에 대한 흐루시초프의 비판에 큰 충격을 받았다.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기 위해선 후계자를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오쩌둥은 1964년 6월 중앙공작회의에서 후계자의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마르크스를 잘 이해하고 수정주의를 하면 안된다. 둘째, 자산가 계급이 아닌 인민 다수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다수의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다만 가오강, 펑더화이, 황커청 등 당을 분열시키는 반당 분자에 대해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문제가 있으면 동지들과 상의해야 하며, 반대 의견도 자유롭게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과오를 저지르면, 자아비판해야 한다.[231] 결국 마오쩌둥이 가장 강조한 후계자의 덕목은 자신의 무산계급 혁명 이념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1. 린뱌오로의 후계 좌절

(1) 지도자의 후계 지명

마오쩌둥은 선정인단의 이익을 공약하는 방식으로 일인지배를 구축하지 않았다. 대신 선정인단 조직을 와해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정치국을 비롯한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들을 무력화했다. 군중에게 '사령부를 포격하라' 는 구호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신 마오쩌둥은 문혁소조를 정치국과 별개의 지도 조직으로 격상시키면서, 자신의 일인지배를 구축할 수 있었다. 기존 공산당 고위 간부들은 정치국,

[231] 毛泽东. 「培养无产阶级的革命接班人(一九六四年六月十六日）」, 『建国以来毛泽东文稿 』 第十一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8).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무너지면서, 제도적으로 마오쩌둥에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마오쩌둥은 군중 동원을 통해 다른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을 압도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공산당 정치국이라는 집단지배 제도를 무너트릴 수 있었다.

1969년 4월 제9차 당대회에서 마오쩌둥이 자신의 일인지배를 확립하면서, 동시에 후계자를 지명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인지배는 후계 문제와 별개일 수 없다는 뜻이다. 당대회에서 마오쩌둥을 공산당의 최고지도자로 명시한 당장이 통과되었다. 동시에 '린뱌오는 마오쩌둥의 친밀한 전우이자 후계자'라는 내용이 당장에 들어갔다. 집단지배에선 공산당의 지도자를 특정 개인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그 후계자는 개인에 의해 지명될 수 없었다. [232] 린뱌오는 마오쩌둥의 일인지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면서, 후계자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린뱌오의 후계 지명은 전적으로 마오쩌둥 일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류샤오치 후계 결정 역시 마오쩌둥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지만, 린뱌오와 상황이 달랐다. 류샤오치의 경우, 마오쩌둥은 공산당 의사결정 제도들과 다른 정치국원들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했다. 반면 린뱌오의 경우, 다른 정치국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오쩌둥의 독단적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 린뱌오는 다른 정치국원들에겐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는 1950년대 군사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었으며, 행정업무와 거리가 멀었다. 특히 잦은 병치레로 인해 1960년대 초엔 일상업무와 떨어져 있었다. 다만 이념을 기준으로, 마오쩌둥이 선택할 수 있는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대안이었을 뿐이었다. [233] 린뱌오의 경우 마오쩌둥의 일인지배가 확립된 상황에서 오직 마오쩌둥의 결정에 따른 결과였다. 일인지배가 확립된 상황에서 후계자 결정은 마오쩌둥에 달린 것이었다. 린뱌오가 후계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마오쩌둥의 지지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마오쩌둥의 일인지배가 확립된 이후, 후계자 지위는 전적으로 최고지도자의 결정에 달렸다.

---

[232] 席宣,金春明. 『"文化大革命" 简史』, pp.187-188.

[233] Frederick C Teiwes, *Leadership, Legitimacy, and Conflict in China: From a Charismatic Mao to the Politics of Succession* (London: Macmillan, 1984). p.106.

[표 6] 9차 당대회 공산당 지도부 구성

(중앙위원회 주석: 마오쩌둥, 부주석: 린뱌오)

	원로	린뱌오 파벌	장칭 파벌	기타
정치국 상무 위원회	저우언라이	린뱌오 천보다	캉셩	
정치국	저우언라이, 예젠잉, 주더, 류보청, 쉬스유, 리셰넨, 동비우	린뱌오, 천보다, 예췬, 리쭤펑, 우파셴, 추후이쭤, 황융셩	캉셩, 장칭, 장춘차오, 셰푸즈, 야오원위안,	천시롄

※ 출처 : 中共中央组织部, 中共中央党史研究室,中央档案馆. 『中国共产党组织史资料 』 第六卷, pp.31-32를 바탕으로 재구성.

먼저 린뱌오는 마오쩌둥의 이념에 대한 절대적 충성으로 후계자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린뱌오는 마오쩌둥의 이념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밝혔고, 이는 그가 후계자 지위에 오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린뱌오는 펑더화이 문제를 논의한 1959년 8월 1일 중앙위원회 회의, 1962년 7000인대회에서도 마오쩌둥의 편에 섰다. 당시 당 중앙 간부들은 마오쩌둥의 결정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후에도 린뱌오는 "(마오쩌둥) 주석이 계획한 것이면 나도 계획한다", "마오쩌둥 사상의 지도를 받은 인민혁명은 전진하는 기차", "마오쩌둥 사상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자" 등 마오쩌둥 이념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강조하곤 했다.[234]

다음 린뱌오가 마오쩌둥에 대한 군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군의 지지는 마오쩌둥의 일인지배를 공고화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군을 장악하지 못할 경우 마오쩌둥의 일인지배는 쉽게 흔들릴 수 있었다. 린뱌오는 마오쩌둥이 군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었다. 린뱌오는 군 내에서 탁월한 전략가라는 명성을 얻고 있었다. 군부 내에선 린뱌오에 대한 일종의 존경심이 있었다. 마오

[234] 王年一. 『大动乱的年代』 (北京: 人民出版社, 2009), p.277.

쩌둥은 린뱌오를 후계자로 지목함으로써, 군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235] 중국 정치에서 군 지휘관이 정권의 핵심에 오르는 것은 중국의 역사에서 반복되어온 경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236]

마오쩌둥의 기대대로, 린뱌오는 군 지휘부를 마오쩌둥의 이념에 맞게 재편했다. 마오쩌둥은 군 내에서 인민들의 혁명 정신을 강조했고, 정치 사업을 중시했다. 그런데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뤄루이칭은 군의 전문화를 강조했다. 정치 이념이 아닌 기술과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마오쩌둥의 이념에서 빗겨갔던 것이다. 린뱌오는 마오쩌둥의 의중에 맞춰 뤄루이칭을 숙청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마오쩌둥이 린뱌오에게 기대했던 역할이었다.[237] 린뱌오는 군을 마오쩌둥의 이념으로 재편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파셴, 리줘펑 등 자신의 측근들을 채워넣었다. 린뱌오는 군에서 기존 간부들을 제거하고, 군을 장악할 수 있었다. 마오쩌둥의 이념에 따른 군의 재편 과정이 린뱌오의 군에 대한 통제를 확고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뤄루이칭 축출은 마오쩌둥의 의도에 따라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뤄루이칭은 1962년 이후 류샤오치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 1965년 1월 류샤오치가 주재한 제3기 전국인대에서, 뤄루이칭은 국방위원회 부주석에 올랐다. 나아가 류샤오치는 린뱌오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 뤄루이칭이 린뱌오의 권한과 업무를 승계하도록 허락했다. 이는 뤄루이칭에 대한 마오쩌둥의 의심으로 이어졌다. 마오쩌둥은 류샤오치를 축출하기 앞서 뤄루이칭과 그와 가까운 허룽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65년 8월 예젠잉은 린뱌오에게 "(마오쩌둥) 주석이 찾아와서 뤄루이칭의 일은 너가 나설 필요가 없으며, 당 중앙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238]

다만, 린뱌오가 단지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주장[239]은 설득력이

---

[235] Frederick C Teiwes,Warren Sun, *The Tragedy of Lin Biao: Riding the Tiger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1966-1971*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6).

[236] Roderick MacFarquhar, "The Succession to Mao and the End of Maoism,"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ed. Roderick MacFarquhar,John K. Fairban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237] Teiwes,Sun, *The Tragedy of Lin Biao: Riding the Tiger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1966-1971*. pp.24-30.

[238] 楊繼繩. 『天地翻覆』 上册, pp.137-138; 舒雲. 『林彪傳』 下冊 (香港: 明鏡出版社, 2016), p.347.

[239] Teiwes,Sun, *The Tragedy of Lin Biao: Riding the Tiger During the*

떨어진다. 린뱌오는 건강 문제로 비서나 측근, 아내인 예췬에게 결정을 위임한 경우 많았으며, 마오쩌둥이 절대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린뱌오의 비서 출신 장윈셩은 린뱌오가 문화대혁명 시기 조반파의 공격으로부터 인민해방군 정치주임 샤오화(肖华), 예젠잉, 쉬샹첸 등 군 지도부를 보호하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240] 린뱌오가 마오쩌둥의 의중에 따라 군 원로를 숙청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린뱌오가 이를 원하지 않았다거나 소극적이었다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 린뱌오는 군 원로들이 축출된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임명하며 장칭을 위시한 문혁 급진 그룹을 압도했다. 더구나 장윈셩은 린뱌오의 비서 출신으로 린뱌오를 옹호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2) 후계자의 독자적 지배연합 확대 시도

린뱌오는 군에서 원로 간부들을 제거하면서 권력을 확대했다. 1966년 린뱌오는 우파셴을 시켜서 허룽이 정권을 탈취하는 음모를 벌였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 또 중앙군사위원회 상무위원 덩샤오핑이 반동 분자, 반당 분자라고 모함했다. 천이에 대해선 '당과 군 내에 숨겨 있으면서 때가 오면 폭탄을 터트릴 자'라고 했다. 예젠잉, 네룽전 등 당과 군을 아우르는 원로 간부들도 정권 탈취 음모를 벌인다는 모함을 받았다.

린뱌오는 공산당 내 군 지도자들을 제거하면서, 군을 혼자 장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68년 3월 린뱌오는 군 총참모장 양청우, 공군정치위원 위리진을 무고해 직무에서 배제했다. 대신 린뱌오는 자신의 측근인 황융셩을 군총참모장에 임명했다. 이어 린뱌오는 군위판사조(军委办事组)를 설립해 황융성을 조장으로 임명했다. 군위판사조는 우파셴, 예췬, 리쭤펑, 추후이쭤 등 린뱌오의 측근들로 구성됐다. 군위판사조는 중앙군사위원회를 대신해 군의 일상 업무를 주관했다.[241] 황융성, 우파셴, 리쭤펑, 추후이쭤는 대장정을 겪은 군의 원로로 린뱌오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이른바 '린뱌오 집단'이라는 파벌을 형성했

Cultural Revolution, 1966-1971. pp.23-24.

[240] 张云生. 『毛家湾纪实: 林彪秘书回忆录』 (北京: 春秋出版社, 1988), p.65, p.102-105.

[241] 中共中央组织部, 中共中央党史研究室,中央档案馆. 『中国共产党组织史资料』 第六卷, p.55.

다.[242]

린뱌오는 군권에 만족하지 않았다. 공산당 지도 조직에선 장칭을 위시한 문혁 급진파의 세력이 확대되고 있었다. 제9차 당대회에선 장칭, 장춘차오, 야오원위안이 정치국 위원에 선출되었다. 린뱌오 입장에서 군을 넘어서 당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자칫 문혁 급진파에 의해 후계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린뱌오는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아 빨리 후계를 이어야 한다는 조급함을 갖고 있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243] 여러 추론이 가능하지만, 린뱌오가 후계자 지위를 보다 공고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린뱌오과 장칭 파벌 사이의 갈등은 1970년 8월 23일 시작된 9기 2중전회에서 첨예화했다. 린뱌오 파벌은 헌법 개정안에 국가주석직을 삽입하는 안건을 제시했다. 여기엔 복잡한 정치적 배경이 담겨 있었다. 린뱌오는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숭배를 조장하면서, 국가주석[244]에 취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오쩌둥은 린뱌오의 제안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가주석직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주석에 취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장칭 등 문혁 급진파는 마오쩌둥의 입장에 찬동했다. 마오쩌둥과 장칭 일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린뱌오와 그의 파벌은 국가주석직 부활을 추진했다.

린뱌오 파벌이 국가주석 설치를 제안했던 데엔 여러 해석들이 존재할 수 있다. 먼저 마오쩌둥의 후계자 린뱌오에 대한 신임과 관련된 해석이다. 당시 국가주석은 후계자 지위와 맞물리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류샤오치는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1959년 제2기와 제3기 전국인대 모두 두 차례 걸쳐 국가주석으로 선출되었다. 최고지도자 마오쩌둥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후계자 류샤오치는 국가주석이라는 공식적 구도를 형성했다. 국가주석직 문제는 후계자 린뱌오에 대한 마오쩌둥의 신임을 확인하는 수단일 수 있었다.[245] 다만 우파셴은 린뱌오가 마오쩌둥이 아닌 자신이 국가주석에 취임하는 문제에 대해선 반대했다고 전했다.[246]

---

[242] 王年一. 『大动乱的年代』, pp.282-283.
[243] 席宣,金春明. 『"文化大革命"简史』, p.207.
[244] 국가주석은 1954년 중국 헌법에 규정되면서, 마오쩌둥이 국가주석이 취임했다. 이후국가주석직에 변화가 없었는데, 1959년 제2기 전국인대에서 마오쩌둥을 이어 류샤오치가 국가주석에 취임했다. 류샤오치가 1968년 퇴임한 이후 동비우가 국가주석직을 대리했고, 국가주석직은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245] 楊繼繩. 『天地翻覆』 上册, pp.741-744.
[246] 吳法憲. 『歲月艱難：吳法憲回憶錄』 (香港: 北星出版社, 2006), pp.777-77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석 문제는 마오쩌둥이 린뱌오의 야심을 시험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린뱌오가 마오쩌둥의 신임을 확인하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국가주석 설치안을 두고, 린뱌오 파벌은 국가주석을 반대하는 장칭 일파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했다.[247] 23일 2중전회 개막식에서 린뱌오는 마오쩌둥을 국가주석직에 추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조별 토론에서, 천보다, 예췬, 우파셴, 리쭤펑, 추후이쭤 등 린뱌오 일파는 마오쩌둥의 국가주석 추대를 주장했다. 나아가 조별 회의에선 린뱌오를 국가부주석을 추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4일엔 조별 회의에서 천보다의 발언을 담은 '공산당 9기 2중전회 간보'가 나왔다. 간보는 모두가 린뱌오의 발언을 열렬하게 지지했고, 천보다가 린뱌오의 주장을 가장 깊이 있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간보에서 소개된 천보다의 발언은 한마디로 린뱌오의 주장을 부정하는 자는 반동 분자이며 수정주의로 당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간보에선 회의 참석자들이 마오쩌둥을 국가주석으로, 린뱌오를 국가부주석으로 추대하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린뱌오는 마오쩌둥의 공식적 후계자이며, 천보다는 공산당 최고의 이론가였던 만큼 참석자들은 이들의 주장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248] 이는 마오쩌둥이 위대한 지도자이자 천재임을 부정하고 그의 국가주석 추대에 반대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장칭 등 문혁 급진파를 겨냥한 공격이었다. 이와 함께 린뱌오를 국가부주석에 추대해 그의 후계자 지위를 공고화하자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당시 회의 분위기는 린뱌오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린뱌오의 주장을 일축하는 글을 발표했다. '나의 몇 가지 의견'[249]이라는 제목이었다. 마오쩌둥을 천보다의 이름을 거명하며 비판했다. 천보다가 사람들을 기만했고, 평온한 루산에 폭발을 일으켰으며, 천보다가 마르크스, 레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마오쩌둥의 글이 발표된 이후, 회의는 천보다에 대한 비판으로 기울었다.

우파셴, 추후이쭤, 황융성, 리쭤펑이 "국가주석을 설치할 거면 린뱌오가 맡아라"라는 마오쩌둥의 말을 전하자, 린뱌오가 이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247] 王年一. 『大动乱的年代』, p.294.

[248] Ibid. pp.297; 陈锡联. 『陈锡联回忆录』 (北京: 解放军出版社, 2007), pp.366-367.

[249] 毛泽东. 「我的一点意见(一九七〇年八月三十一日)」, 『建国以来毛泽东文稿』 第十三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8).

천보다는 물론, 마오쩌둥의 국가주석 추대를 주장한 우파셴 등도 비판을 받았다. 9월 10일 폐막식에선 천보다에 대한 격리조사가 결정되었다. 9기 2중전회를 고비로 린뱌오의 지위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250]

린뱌오가 마오쩌둥의 거듭된 반대에도 국가주석직을 제안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린뱌오의 오판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린뱌오는 국가주석직 반대가 마오쩌둥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마오쩌둥을 찬양하기만 하면 마오쩌둥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특히 천보다는 마오쩌둥의 신임을 얻기 위해 국가주석직을 강하게 제안했다고 한다.[251]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린뱌오를 옹호하는 입장에 가깝다. 린뱌오가 단지 마오쩌둥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국가주석을 강력하게 제안했다는 설명은 린뱌오 파벌과 장칭 파벌 사이의 정치적 갈등을 간과한 것이다. 국가주석직을 문제를 두고 린뱌오 파벌이 장칭 파벌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3) 지도자와 후계자의 갈등

린뱌오에 대한 마오쩌둥의 견제는 그의 측근들에 대한 비판에서 그치지 않았다. 마오쩌둥은 린뱌오와 그의 파벌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갔다. 마오쩌둥은 9기 2중전회(루산회의) 이후 노선 문제에 대해선 그대로 두지 않는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가지 방법을 쓴다고 밝히기도 했다. 첫째, 돌 던지기이다. 천보다 등을 비판하는 지시를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둘째, 모래를 섞는 방법이다. 군위판사조에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이다. 셋째, 담벼락 모퉁이 허물기이다. 천보다를 비판하는 비진정풍(批陳整風)처럼 린뱌오의 측근들을 공격하는 것이다.[252]

마오쩌둥은 세가지 방법을 통해 린뱌오 파벌을 압박했다. 먼저 1970년 11월 16일 '천보다의 반당 문제를 전달하는 데 지시'를 발표했다. 이른바 '돌 던지기'이다. 이 문건에서 천보다가 9기 2중전회에

250 王年一. 『大动乱的年代』, pp.297-301.
251 Teiwes,Sun, *The Tragedy of Lin Biao: Riding the Tiger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1966-1971*. pp.137-138.
252 毛泽东. 「在外地巡视期间沿途各地负责人谈话纪要(一九七一年八月-九月)」, 『建国以来毛泽东文稿』 第十三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8); 王年一. 『大动乱的年代』, p.301.

서 반당, 반마르크스, 반레닌주의 음모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또 천보다는 가짜 마르크스주의자, 야심가, 음모가라고 비난했다. 1971년 1월 26일 공산당 중앙은' 천보다의 반당 죄상 자료' 를 배포했다. 천보다가 마오쩌둥의 무산계급혁명 노선에 반대했으며, 반혁명 · 반당 음모 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이었다. 다시 2월 21일에는 반당분자 천보다 문제를 확대 전파하는 통지' 를 발표했다.

다음 마오쩌둥은 린뱌오가 장악한 군위판사조에 추가로 간부를 파견했다. 린뱌오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모래 섞기' 이다. 1971년 4월 공산당 중앙은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베이징군구 제2정치위원 지덩쿠이와 부총참모장 장차이첸(张才千)을 군위판사조에 충원했다. 군위판사조의 린뱌오 파벌인 황융셩과 우파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앞서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중앙위원회 명의로, 저우언라이는 리더셩을 베이징군구 사령관, 셰프즈를 베이징군구 제1정치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 역시 군권을 쥐고 있던 린뱌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린뱌오를 뺀 채 그의 측근들을 비판했다. 담벼락 모퉁이 허물기인 것이다. 1971년 4월 15일 공산당 중앙은 '비진정풍' 보고대회를 열었다. 9기 2중전회의 노선 문제를 거론하면서, 황융셩, 우파셴, 예췬, 리쭤펑, 추후이쭤 등 린뱌오 파벌 핵심 인물들을 강력 비판했다. 이들이 당을 분열시키는 천보다의 노선을 따르는 오류를 저질렀으며, 파벌을 만드는 잘못을 범했다는 내용이었다. 마오쩌둥은 린뱌오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뱌오 측근에 대한 비판은 바로 린뱌오를 향하고 있었다. 린뱌오 역시 이를 인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린뱌오는 그의 측근들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되었다.[253]

마오쩌둥의 압박에, 린뱌오는 마오쩌둥을 제거하는 계획에 나섰다. 마오쩌둥은 1971년 8월 15일부터 9월 12일까지 중국 남부 지역을 순회했다. 당시 마오쩌둥은 1년 전 9기 2중전회(루산회의)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마오쩌둥은 당의 분열을 책동하는 파벌주의 음모를 비판했다. 그는 장사(长沙)에서 후난성 군구 정치위원들과 담화를 가졌다. 당시 마오쩌둥은 "황융셩, 우파셴, 예췬, 리쭤펑, 추후이쭤 등 5명에 대한 검토 보고가 전달되었을 것"이라며, "루산회의 문제는 아직

253 王年一. 『大动乱的年代』, pp.301-307.

끝난 게 아니며 해결된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254] 마오쩌둥의 이 같은 발언은 린뱌오 파벌에 대한 지속적인 문책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 린뱌오 파벌은 마오쩌둥의 발언 내용에 대해 주시하고 있었다. 각 지역의 군지휘부 고위 간부들로부터 마오쩌둥의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마오쩌둥이 자신들을 겨냥해 비판하는 내용들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마오쩌둥이 린뱌오 파벌을 응징할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담은 우한에서의 발언은 이들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린뱌오는 아내 예췬, 아들 린리궈(林立果)와 회의를 갖고 마오쩌둥을 제거하고자 하는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255]

일반적으로 독재자가 공식적인 후계자를 결정하는 순간, 현직자와 후계자의 갈등이 시작된다. 후계자는 현직자를 제거하고자 하는 강력한 유인을 갖기 때문이다. 후계자는 자신의 권력승계 시기를 앞당기고 권력을 가능하면 빨리 얻고자 할 것이다. 또 현직자가 언제 자신을 교체할지 모르는 위험부담마저 안고 있다.[256] 특히 후계자가 군을 지배하고 있을 경우 현직자가 느끼는 위협의 강도는 더 강할 수 있다. 현직자는 후계자가 쿠데타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후계자의 권력 강화를 견제해야 할 유인을 갖게 된다.

마오쩌둥은 일인지배를 구축할 수 있었지만, 사회를 통제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문화대혁명으로 공산당과 행정 조직들의 사회 통제 기능이 훼손되면서, 마오쩌둥은 군에 의존해야 했다. 마오쩌둥은 자신에 대한 개인숭배를 강조하는 군 지도자 린뱌오에게 후계자 지위를 인정해줬다. 린뱌오의 후계자 지위 취득에 대해, 저우언라이는 "당시 공산당 내 상황 변화에서 기인했다" 고 밝혔다.[257] 군은 일인지배에서 자율과 특권을 부여받는다. 문화대혁명의 결과로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군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대신 민간 간부 출신의 비율은 줄었다. <표 참조>

---

[254] 汪东兴. 『汪东兴回忆: 毛泽东与林彪反革命集团的斗争』 (北京: 当代中国出版社, 2010), pp.70-103.
[255] Ibid. pp.143-144.
[256] Gordon Tullock, *Autocracy*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2).
[257] 金冲及. 『周恩来传』 中央文献出版社, 2008), p.1807.

[표 7] 중국 공산당 제9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구성

출신	숫자	9차 당대회 비율	8차 당대회 비율
군 사령관	60	35.3	26.4
군 정치위원	25	14.7	11.5
군 출신 합계	85	50	37.9
공산당	48	28.2	59
당교	5	2.9	3.1
민간 간부 합계	53	31.1	62.1
군중 조직	30	17.7	–
불명	2	1.2	–

※ 출처 : Jurgen Domes,Marie-Luise Näth, China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Politics between Two Party Congress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p.35.

원래 중국 공산당은 중앙군사위원회를 바탕으로 인민해방군을 통제했다. 그런데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통제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1967년 마오쩌둥은 에드거 스노우에게 "문화대혁명 기간 충돌이 창, 소총, 박격포까지 동원하는 내전 상태로까지 확대되었다"고 토로했다.[258] 질서 회복을 위해선 군 지휘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마오쩌둥은 린뱌오와 그를 따르는 군 지휘관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 린뱌오가 경쟁자들을 제거하면서 군 조직을 독자적으로 장악했다. 린뱌오가 이끄는 군위판사조는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를 대신하며, 자율성을 누렸다.[259] 린뱌오는 군을 통제하던 공산당의 원로 간부들을 제거하고, 사실상 군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캉셩, 장칭 등 문혁파가 군을 통제하던 원로 간부들에 대한 공격에 가세하기도 했다.

이제 문제는 당의 통제에서 벗어난 린뱌오의 군이 지도자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이다. 공산당의 집단지도가 무너지고, 각급 당조직들이 와해된 상황에서,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군이었다. 군이 당을 대체하게 되었다. 공산당이 무너진 상황에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강권 조직인 군은 자율성을 누리게 된 것이다. 군을 이끄는

[258] Edgar Snow, *The Long Revolution* (New York: Random House, 1972). p.174.
[259] Qiu Jin, *The Culture of Power: The Lin Biao Incident in the Cultural Revolution* (Redwoo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p.109-110.

린뱌오의 위상은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린뱌오의 권력 강화는 역설적으로 파국적 결과를 가져왔다.[260]

나아가 린뱌오는 자신의 파벌주의적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마오쩌둥을 자극했다. 마오쩌둥은 9기 2중전회 1년 후인 1971년 8월 15일부터 9월 12일까지 중국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찰을 실시했다. 당시 마오쩌둥은 린뱌오 파벌에 대해 파벌주의, 분열 책동이라고 비난했다.[261] 마오쩌둥의 이 같은 생각은 린뱌오의 입장과 달랐다. 후계자 린뱌오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하기 위해선 독자적 지배연합의 구축이 불가피했다. 린뱌오를 지지하는 정치엘리트 내 다수가 될수록 그의 후계자 지위는 공고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배 연합 내 후계자에 대한 지지가 확대될수록 현직자는 위협을 느끼고 이를 견제하기 쉽다. 현직자의 견제는 다시 후계자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기 쉽다. 현직자와 후계자 사이의 신뢰는 안정적인 권력승계의 기본적 조건인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린뱌오의 후계 실패의 원인을 '권력승계의 모호성'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류샤오치 축출 이후 권력승계가 이뤄지는 단계적 절차들이 사라지면서, 린뱌오가 마오쩌둥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류샤오치가 후계자이었을 때엔, 1선과 2선이라는 구분이 있었다. 마오쩌둥은 퇴임에 앞서 2선으로 물러나 있고, 류샤오치는 후계자로서 일상업무를 주관했다. 그런데 류샤오치가 숙청된 이후 이러한 권력승계의 과도기적 절차가 없어졌다. 게다가 제9차 당대회에선 마오쩌둥의 퇴임 이후 직위인 명예주석제 안건이 탈락되었다. 이는 마오쩌둥이 종신집권 의도로 비춰질 수 있었다. 린뱌오는 국가주석직을 통해 마오쩌둥의 후계자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하지만 마오쩌둥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 린뱌오는 자신의 불안한 후계자 지위로 인해, 마오쩌둥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고 한다.[262]

권력승계의 단계적 절차에 대한 지적은 린뱌오와 마오쩌둥의 갈등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 가능하다. 린뱌오가 마오쩌둥의 국가주석직 취임을 완고하게 주장했던 이유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권력승계 절차의 부재가 린뱌오와 마오쩌둥의 충돌에 본질적 원인이라고

---

[260] Teiwes, *Leadership, Legitimacy, and Conflict in China: From a Charismatic Mao to the Politics of Succession*. p.110.
[261] 汪东兴. 『汪东兴回忆: 毛泽东与林彪反革命集团的斗争』, pp.134-144.
[262] MacFarquhar,Schoenhals, *Mao's Last Revolution*. pp.324-336.

보기는 어렵다. 린뱌오가 마오쩌둥에 대해 불안을 느끼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9기 2중전회 이후 마오쩌둥의 린뱌오 파벌에 대한 압박이었다. 린뱌오와 그의 측근들은 마오쩌둥의 이 같은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고, 쿠데타 음모로 이어졌다.

(4) 린뱌오 사건 이후 지배 연합 구성 변화

린뱌오 사건 이후에도 마오쩌둥의 일인지배는 여전히 유지되었다. 여전히 마오쩌둥의 정책과 조직 인사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 연합의 이념적 구성에 변화가 나타났다. 린뱌오 사건 이전까지는 마오쩌둥의 문혁 이념이 지배 연합에서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린뱌오 사건 이후 문혁 이념과 다른 이념적 선호를 갖는 정치 엘리트들이 지배 연합에 공존하게 된 것이다.[263] 린뱌오 사건 이후 지배 연합은 '원로 간부', '문혁 수혜자', '급진파' 등 세 파벌로 구성되었다. 원로 간부는 문혁 전후 숙청되었다가 복권된 인물들이다. 그리고 문혁 수혜자는 지방의 당과 군 조직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발탁된 이들이다. 마지막으로 급진파는 마오쩌둥의 이념을 철저히 추종하면서 문혁을 주도했던 세력이었다.[264] 린뱌오 사건 이후 공산당 지도부에선 이들 세 파벌의 연합과 갈등이 거듭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원로 간부의 복권은 저우언라이가 공산당 조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저우언라이는 마오쩌둥의 승인을 받아 당, 정, 군을 총괄하면서 공산당 조직을 재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저우언라이는 문화대혁명을 전후해 숙청되었던 원로 간부를 복권시켰다. 원로 간부를 당을 재건하는 핵심으로 보았던 것이다. 물론 원로 간부 복권은 마오쩌둥의 의사이기도 했다. 마오쩌둥은 1972년 1월 6일 저우언라이, 예젠잉에게 "'2월 역류'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며 "다시 2월 역류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오쩌둥은

263 린뱌오 사건 이전까지 린뱌오의 군부세력과 장칭의 대중운동 세력으로 양분된 급진파가 공산당 지도부를 독점했다. 그런데 린뱌오 세력의 축출로 인해 급진파는 장칭의 대중운동 세력만 남게 된다. 이후 장칭, 장춘차오, 왕훙원, 야오원위안 등 급진파는 이른바 사인방을 형성하게 된다.

264 Frederick C Teiwes,Warren Sun, *The End of the Maoist Era: Chinese Politics During the Twilight of the Cultural Revolution, 1972-1976* (New York: Routledge, 2014). p.12; 안치영. 『덩 샤오핑 시대의 탄생 : 중국의 역사 재평가와 개혁』, pp.75-77.

1972년 1월 11일 2월 역류의 책임을 지고 축출되었던 천이의 추도식에 참석했다.[265]

원로 간부의 복권은 군을 통제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다. 린뱌오 사건을 겪으면서, 마오쩌둥은 군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에게 군에 대한 우려를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다. "문화대혁명 시기 군의 사령관들은 모두 린뱌오, 천보다가 임명한 사람들이다. 우리 군을 바로잡아야 한다. 군사위원회가 무릇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고, 총리가 참석해달라." 마오쩌둥의 승인 아래, 저우언라이는 1971년 9월 정치국 회의에서 원로 간부인 예젠잉이 중앙군사위원회를 맡도록 했다. 문화대혁명 시기 만들어졌던 군위판사조가 해산하고, 다시 예젠잉 주관으로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군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도록 한 것이다.[266]

다음 문혁 수혜자이다. 문혁 수혜자는 문화대혁명 시기 고위 간부들의 숙청으로 인해 부상한 간부들이었다. 특히 린뱌오 사건으로 린뱌오, 예췬, 천보다, 황융셩, 우파셴, 리쭤펑, 추후이쭤 등 정치국 위원들이 죽거나 숙청되면서, 공산당 지도부의 권력 공백을 빚었다. 지도부 공백 사태는 지방의 젊은 간부들이 중앙 지도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문혁 수혜자들은 하나의 이념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방의 당과 군 조직에서 성장했으며, 문혁 시기 중앙으로 진출했다는 공통점을 있었을 뿐이었다. 일부는 원로 간부와 상당한 유대감을 갖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수혜자들은 관료적 위계질서에 따른 복종에 익숙했다. 이 때문에 수혜자들은 원로 간부와 급진파 사이를 오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최고지도자인 마오쩌둥의 의도에 따라 움직인 것에 불과했다.[267]

마지막으로 문혁 급진파이다. 문혁 초기 급진파는 군을 장악한 린뱌오 파벌과 군중에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장칭 파벌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런데 린뱌오 사건 이후 린뱌오 파벌이 대거 축출되면서, 문혁 급진파는 장칭 파벌만 남게 되었다. 장칭, 야오원위안, 왕훙원, 장춘차오은 강

---

[265] 金冲及. 『周恩来传』, pp.1812-1813.
[266] Ibid. p.1810.
[267] Roderick MacFarquhar, "The Succession to Mao and the End of Maoism 1969-1982," in *The Politics of China*, ed. Roderick MacFarquh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Teiwes,Sun, *The End of the Maoist Era: Chinese Politics During the Twilight of the Cultural Revolution, 1972-1976*. pp.13-14.

력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사인방 파벌을 구축했다. 이들은 마오쩌둥의 급진 좌경 이념을 추구했다. 급진파는 공산당의 다른 지도부와 협력하기보다는 이념적 투쟁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오쩌둥이 죽기 전 마오쩌둥의 연락관 역할을 수행했던 마오위안신 역시 문혁 급진파로 분류되었다. 마오쩌둥의 조카인 마오위안신은 마오쩌둥과 정치국 사이를 연결하면서, 사인방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268]

문혁 수혜자들은 마오쩌둥에 충성하면서도, 마오쩌둥의 문혁 이념을 추종하는 급진파와 정치적 제휴를 맺지 못했다. 장칭이 수혜자에 대한 이념적 공격을 가했던 사실들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1974년 '정원사의 노래' (园丁之歌)[269]라는 영화를 둘러싼 공방이 그랬다. 이 영화는 화궈펑이 당시 국무원 문화조 책임자였던 우더에게 제작을 추천한 작품이었다. 그런데 장칭, 장춘차오, 야오원위안은 이 작품을 수정주의 교육관을 담았다고 비판하고 상영을 금지시켰다. 화궈펑에 대한 이념적 비판을 의도한 것이었다. 화궈펑은 문혁에 따른 교육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는 저우언라이의 생각에 동의했다. 문혁 급진파는 바로 이 같은 점을 의식하고, 화궈펑과 이념적으로 대립했다.

2. 왕훙원의 부침

(1) 후계자 선정 방식의 변화

린뱌오 사건 이후 마오쩌둥은 후계자 선정 방식을 달리했다. 린뱌오와 같은 후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고려였다. 후계자를 확정할 경우 후계자를 관찰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고 봤다. 마오

---

[268] Teiwes,Sun, *The End of the Maoist Era: Chinese Politics During the Twilight of the Cultural Revolution, 1972-1976*. pp.15-19. 안치영. 『덩샤오핑 시대의 탄생 : 중국의 역사 재평가와 개혁』, pp.71-72.

[269] 원래 이 작품은 1972년 후난성의 전통 지방극 형식으로 현대적인 이야기를 담은 것이었다. 타오리라는 학생이 기차 기관사가 되겠다는 꿈만 꾸고 학교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젊은 여교사가 학생에게 학교 공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는 내용이었다. 화궈펑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던 저우언라이의 생각에 동의했고, 이 작품은 그러한 취지와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李海文. 「《 园丁之歌》 引发的一场波澜」, 『党史博览』, 第6期, 2015. Ting Wang, *Chairman Hua: Leader of the Chinese Communists* (Montreal: McGill-Queen's Press, 1980). pp.96-97.

쩌둥은 린뱌오 사건 이후 후계자를 당장에 명시하거나 공식화하지 않았다. 후계자를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은 대신, 다수 인물들에서 후계자를 선정하겠다는 뜻이었다. 저우언라이, 장춘차오, 덩샤오핑, 왕훙원 등 후보군에서 후계자를 선정하는 후계 경쟁 구도라고도 할 수 있었다. 여기서 후계자 선정에서 문화대혁명 이념에 대한 지지는 후계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었다.[270]

저우언라이는 린뱌오 사건 이후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가장 유력하게 고려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로의 후계에 대해 회의적인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저우언라이의 이념적 노선이었다. 저우언라이는 1950년대 중반 경제 발전 속도를 두고 '반모진' (무리한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한 반대)을 주장하면서, 마오쩌둥과 갈등을 빚은 바 있었다. 마오쩌둥 관점에서, 저우언라이는 보수, 우경 성향을 갖고 있었다.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저우언라이가 자신의 사후 문화대혁명을 부정할 것을 우려했다.[271] 마오쩌둥은 자신의 후계자가 문혁 이념을 지지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우언라이의 이념적 노선이 이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의 이념적 차이는 1970년대 초 중국의 대 미국 외교 정책을 두고서도 나타났다.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모두 소련의 패권주의에 반대해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데에선 생각이 같았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자신의 문혁 이념이 훼손되는 수준의 중미 관계에 대해선 반대했다. 1973년 11월 당시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했다. 키신저는 '핵우산' 계획을 협상 의제로 들고 나왔다. 소련이 중국의 핵능력 무력화를 목적으로 중국에 대한 대규모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이 공군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핵우산 제안은 저우언라이가 마오쩌둥의 결심 없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다만 저우언라이는 키신저의 제안에 대해 수용하고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협상 태도를 취했다. 미국 핵우산 계획에 대한 협의 내용에, 마오쩌둥이 불만을 갖게 되었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는 문혁을 주도한 마오쩌둥의 자존심을 자극했던 것이다. 소련의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용해, 미국이 중국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중국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인식

---

[270] 史雲,李丹慧. 『從批林到批鄧: 1972-1976. 難以繼續的 "繼續革命"』 (香港: 香港中文大學當代中國文化研究中心, 2008), p.168.
[271] Ibid. p.169.

했다.[272]

마오쩌둥은 중미 협상 직후 정치국 회의 열고, 저우언라이를 예젠잉과 함께 비판하도록 지시했다.[273]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정치국 회의에서 저우언라이는 수정주의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장칭, 장춘차오 등은 “주권을 상실한 국가의 치욕, 투항주의”, “미국 밑에 무릎을 꿇었다”라면서 저우언라이를 비판했다. 이들은 저우언라이가 1971년 이후 주도했던 중미 협상 전체를 아울러 비난했다. 결국 저우언라이는 회의에서 과도할 정도로 자아비판을 해야 했다.[274]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를 지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저우언라이는 대외 정책에서 거둔 실용주의적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 내에서의 극좌 노선을 바로잡고자 했지만, 마오쩌둥은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 린뱌오 사건 이후 저우언라이는 린뱌오를 극좌로 규정하면서, 극좌 노선의 오류를 지적했던 반면, 마오쩌둥은 린뱌오를 우파로 규정했다. 저우언라이의 문혁 이념 수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275]

(2) 왕훙원의 부상

마오쩌둥은 자신의 이념을 계승해줄 후계자를 원했다. 린뱌오는 대약진 운동이 처참한 실패로 귀결된 상황에서도 마오쩌둥의 이념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밝혔다. 당시 중국 공산당 원로 간부들 사이엔 마오쩌둥 이념과 그에 따른 정책의 후퇴 필요성을 공감하던 상황이었다. 린뱌오가 후계자 지명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엔 마오쩌둥에 대한 린뱌오의 이념적 충성이 중요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이념이 비판을 받고 수정되는 일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린뱌오의 후계가 좌절된 이후에도 마오쩌둥의 이 같은 입장을 변하지 않았다.

마오쩌둥은 1972년 린뱌오를 대체할 후계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는 폐렴을 앓은 이후 치명적으로 건강이 악화했다. 남아 있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 역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 캉셩과

---

[272] Ibid. pp.178-184; Henry Kissinger, *On China* (New York: Penguin Books, 2012).

[273] 예젠잉은 이전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274] 史雲, 李丹慧. 『從批林到批鄧: 1972-1976. 難以繼續的 “繼續革命”』, pp.174-177.

[275] 필립 쇼트,양현수 역. 『마오쩌둥(Mao : The Man Who Made China)』 2 (서울: 교양인, 2019), pp.459-461.

저우언라이는 암을 앓고 있었다. 마오쩌둥은 소련에서의 스탈린을 비판하며 일어난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가 중국에서 발생하면 안된다고 보았다. 문화대혁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혁명적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왕훙원은 문혁 급진파인 장춘차오와 야오원위안을 도와 상하이에서의 문혁을 이끌며 부상한 인물이었다. 왕훙원은 문혁 이념을 계승할 수 있는 적임자였다. 게다가 왕훙원은 농민 출신으로 군에서 복무했으며 이후 노동자가 된 이력을 갖고 있었다.[276]

왕훙원은 마오쩌둥의 문혁 시기 급진적 이념에 부합하는 인물이었다. 공장 노동자였던 왕훙원은 1966년 상하이에서 문화대혁명에 참여해 조반파 조직을 이끌었다. 그는 상하이 노동자 혁명 조반 총사령부(공총사)의 대표로 반란을 주도했다. 왕훙원의 공총사는 상하이의 기차역과 철로를 점령하면서, 공총사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을 벌였다. 공산당 문혁소조가 파견한 장춘차오는 이들의 합법화 요구를 수용했다. 마오쩌둥은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 장춘차오의 결정을 추인했다. 중국의 거대 도시 상하이에서 노동자들의 문혁 반란이 인정되자, 중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문혁 반란이 급속하게 번졌다.[277] 린뱌오가 마오쩌둥의 문혁에 대한 군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면, 왕훙원은 밑으로부터 노동자들의 문혁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마오쩌둥의 급진적인 문혁 이념을 구현한 조력자들이었다. 왕훙원이 주도한 군중 반란은 마오쩌둥이 원하던 바였다. 마오쩌둥은 “무산계급의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무계계급의 좌파 대오를 조직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좌파 대오에 의거해 군중을 동원하며, 군중을 단결시켜며, 군중을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278]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홍기는 공동 사설에서 “상하이는 공장 노동자들이 집중된 지역으로 마오쩌둥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우리 나라의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면서, “새로운 국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

---

[276] MacFarquhar,Schoenhals, *Mao's Last Revolution*.pp.356-357. Li Zhi-Sui, *The Private Life of Chairman Mao* (New York: Random House, 1994). pp.549-572.

[277] 楊繼繩, 『天地翻覆: 中國文化大革命史』 上冊 (香港: 天地圖書, 2018). pp.339-351.

[278] 毛泽东, 「必须组织和发展无产阶级左派队伍 (一九六六年)」, 『建国以来毛泽东文稿』 第十二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8).

동자와 농민은 여러 저항을 돌파하면서, 자신들의 혁명 조직을 수립하면서, 문화대혁명 운동에 뛰어들었다”며 “그 시작은 상하이였다”고 했다. 무산계급이 자본주의를 길을 걷는 당권파로부터 권력을 탈취하는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279]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이후, 중국 각지에서 노동자·농민·학생 등으로 이뤄진 조반파가 당과 공산당과 행정기관을 공격했다.

이듬해인 1967년 1월 공총사를 비롯한 조반파는 노동자들을 동원해 기존 상하이 시위원회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탈취했다. 장춘차오, 야오원위안 등 문혁 급진파가 이를 지원했다. 장춘차오와 야오원위안은 상하이에서 상하이 시위원회가 발간하는 문회보, 해방일보를 조반파에 넘겼다. 이에 따라 상하이에선 왕훙원이 이끄는 공총사를 비롯한 조반파가 시위원회를 대체했다. 마오쩌둥은 국무원 총리 저우언라이, 정치국 상무위원 천보다, 문혁소조 부조장 장칭을 불러, 상하이 조반파에 축하 전문을 보내도록 지시했다.[280] 이에 따라 공산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문혁소조, 국무원이 공동 명의로 상하이 조반파에 축전을 보냈다. “상하이 조반파의 경험을 배워 모두가 궐기해 자산계급 반동노선의 새로운 반격을 물리치자.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은 마오 주석을 지도자로 하는 무산계급 혁명 노선의 승리를 따라 전진하자”[281]는 내용이었다. 상하이는 문혁의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상하이에서의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왕훙원의 이력은 마오쩌둥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마오쩌둥은 1967년 7월 20일 우한에서 조반파가 군 기관을 습격한 이른바 7·20 사태 직후 상하이에 머물렀다. 당시 마오쩌둥은 상하이 시내를 둘러보며 우한과 달리 상하이의 질서가 조반파 노동자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높게 평가했다. 왕훙원은 조반파 노동자 30명과 함께 공총사에 반대하는 군중들을 진압하고, 노동자들은 창으로 무장하고 상하이 혁명위원회 건물을 경비했다. 장춘차오는 마오쩌둥에게 왕훙원에 대해 설명했고, 마오쩌둥은 왕훙원의 혁명 이력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다. 마오쩌둥은 이듬해인 1968년 10월 1일 중국의 국경절을 맞아 상하이 대표로 베이징을 방문한 왕훙원을 직접 만났다. 장

---

279 社论, 「把无产阶级文化大革命进行到底」, 『人民日报』 1967.1.1; 社论, 「"把无产阶级文化大革命进行到底」, 『红旗』, 第10期, 1967.

280 毛泽东, "对《上海市各干嘛造反派团体贺电》等五份材料的批语（一九六七年一月十一日）."

281 「中共中央、国务院、中央军委、中央文革小组给上海市各革命造反团体的贺电」. 『人民日报』, 1967.1.12.

춘자오의 소개였다. 왕훙원은 한국전쟁에서 참전했으며, 상하이 혁명위원회, 공총사의 직책을 겸하면서 매주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했다. 이에 마오쩌둥은 영원히 군중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했다. 10월 13일 시작된 8기 12중전회에서 마오쩌둥은 왕훙원을 직접 소개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왕훙원은 이 회의에서 노동자 대표로 발언했다. 왕훙원이 문혁의 '신성'(新星)으로 부상한 것이다.

왕훙원이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부상하게 된 것은 1971년 9월 13일 린뱌오의 쿠데타 음모 사건 이후였다. 1972년 7월 마오쩌둥은 다시 후계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저우언라이 등에게 밝혔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사후 공산당 노선이 수정주의로 변질되는 일을 막기 위해선 청년을 후계자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산당 부주석, 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30세에서 40세 사이이면서, 노동자나 농민 출신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마오쩌둥은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중국 전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왕훙원을 염두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오쩌둥은 1972년 9월 왕훙원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였다. 왕훙원을 관찰하고, 지도자로 교육하기 위한 조치였다. 왕훙원은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10차 당대회에서의 당장 개정 소조에 부임했다. 그리고 1973년 8월 24일 10차 당대회에서 부주석에 임명했다.[282]

왕훙원은 문화대혁명의 이념을 실천함으로써 마오쩌둥에 의해 후계자 지명을 받을 수 있었다. 왕훙원은 노동자들을 마오쩌둥의 이념에 따라 조직하고 동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오쩌둥은 군중노선, 무산계급의 혁명, 무산계급의 독재를 이념으로 제시했다. 왕훙원은 마오쩌둥의 이념을 마오쩌둥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실천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상하이에서 왕훙원이 이끄는 조반파는 당과 지방정부 기관으로부터 권력을 탈취했다. 이를 시작으로 중국 각지에서 노동자, 농민으로 이뤄진 조반파의 반란이 확산되었다. 왕훙원은 마오쩌둥의 이념을 가장 모범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었다.

(3) 지도자의 지지 상실

왕훙원은 마오쩌둥 이념을 충실하게 따랐다. 이는 그가 마오쩌둥으로부터 후계자로 지명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문제는 왕훙원이 파벌을

[282] 舒云. 「毛泽东为何选王洪文当接班人」,『党史博览』, 第6期, 2005. 史雲,李丹慧. 『從批林到批鄧: 1972-1976. 難以繼續的"繼續革命"』, pp.205-208.

형성했다는 점이었다. 왕홍원은 이른바 사인방이라는 문혁 급진파와 함께 파벌을 형성했다. 이는 마오쩌둥의 방침과 맞지 않았다. 마오쩌둥은 당 지도부의 단결을 강조하면서, 당 지도부 내에서의 파벌주의를 경계했다. 특정 파벌의 세력 확대를 용인하지 않았다. 후계자의 독자적인 지배 연합이 공산당 지도 조직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것 역시 마오쩌둥은 당을 분열시키는 파벌로 간주했다. 왕홍원을 비롯한 사인방의 독자적 세력 확대는 마오쩌둥의 이같은 의지에 역행하는 일이었다.

파벌주의에 대한 마오쩌둥의 경계는 정치적 상황 변화에서도 기인했다. 린뱌오 쿠데타 음모 사건 이후,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의 원로 간부들을 복권시키면서, 지배 연합이 원로 간부, 문혁파로 나뉘게 되었다. 이념적으로 분화된 지배 연합 구조에서 마오쩌둥은 급진적인 문혁 이념을 내세우는 사인방의 파벌 갈등을 견제했다. 게다가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경제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했다. 1974년에 접어들면서, 장칭은 더욱 적극적으로 폭력적인 선동에 나섰고, 그 결과 생산 시설이 마비되었다. 1974년 5월분 생산량은 대폭 감소해. 생산지수는 6.2%, 운송은 2.5%, 철강 생산은 9.4%가 급감했다.[283] 사인방은 급진적 문혁 이념을 내세우고, 당 지도부를 분열시키는 파벌주의를 드러냈다. 마오쩌둥은 사인방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마오쩌둥은 린뱌오 사건으로 권력 기반이 흔들리게 되자, 원로 간부들과의 제휴가 다시 필요했다. 원로 간부들의 입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문화대혁명 시기 무산계급정권에서의 계속 혁명 이론이라는 이념에 따라 공산당 간부 조직이 무너졌다. 문화대혁명 이념은 일체를 공격하고, 전면적 권력을 쟁취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무정부주의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문화대혁명 이념이 가져온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로 간부들의 도움이 절실했다. 마오쩌둥의 승인을 받아, 저우언라이는 원로 간부들을 복권을 추진했다.[284] 저우언라이는 문화대혁명 기간 교육, 위생, 문화예술 등에서 파괴된 국가 기능의 회복을 추진했다.[285] 이를 위해선 결국 원로 간부들의 복귀를 통해 당 중앙 조직의 회복이 필요했다.

---

[283] 陈长江,赵桂来. 『毛泽东最后十年(1966-1976：跟随毛泽东27年的警卫队长回忆录)』 (南京: 江苏人民出版社, 2018), pp.192-193.
[284] 金冲及. 『周恩来传』, pp.1815-1816.
[285] Ibid., p.1820.

[표 8] 10차 당대회 공산당 지도부 구성(1973년 8월)

(중앙위원회 주석: 마오쩌둥)

	원로 간부	문혁 급진파	문혁 수혜
정치국 상무 위원	저우언라이, 예젠잉, 주더, 동비우	왕훙원, 장춘차오, 캉셩	리더셩,
정치국 원	저우언라이, 예젠잉, 주더, 동비우, 류보청, 쉬스유, 리셴넨,	왕훙원, 장춘차오, 캉셩, 장칭, 야오원위안	리더셩, 화궈펑, 지덩쿠이, 우더, 왕둥싱, 천융구이, 웨이궈칭, 천시롄

※ 출처 : 中共中央组织部, 中共中央党史研究室,中央档案馆. 『中国共产党组织史资料 』 第六卷, pp.42-43.를 바탕으로 재구성.

원로 간부, 문혁 급진파, 문혁 수혜 그룹이 함께 마오쩌둥의 지배연합을 형성한 상황에서, 사인방의 파벌주의는 마오쩌둥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었다. 사인방의 원로 간부에 대한 이념적 공격은 마오쩌둥의 집권 기반을 약화하는 것이었다. 마오쩌둥은 수차례 사인방의 파벌 문제를 직접 비판했다. 1974년 7월 17일 마오쩌둥은 정치국 회의에서 장칭을 비판했다. 마오쩌둥은 “다른 사람들이 장칭 동지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지만 앞에서 말을 하지 않을 뿐”이라면서, “네 사람이 작은 파벌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왕훙원, 장춘차오, 야오원위안, 장칭이 파벌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였다. 마오쩌둥은 “장칭은 나를 대리하는 게 아니라 장칭 스스로를 대리할 뿐”이라고 밝혔다. 같은해 11월 12일엔 장치에게 보낸 서신에서 “얼굴을 많이 내밀 필요가 없다”,” 문건을 검토할 필요도 없다”, “조직 문제에 간여할 필요도 없다”, “다른 많은 이들을 원망하지 말고 단결을 도모해라” 라고 했다.[286]

원로 간부들이 왕훙원을 후계자로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작용했다. 마오쩌둥의 지배 연합에 복귀한 상황에서, 마오쩌둥은 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복귀한 원로 간부들은 문혁 급진 이념을 갖고 있으며 조반파 출신 왕훙원을 후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오쩌둥은 스스로 지명한 후계자를 다시 버릴 수밖에 없었다. 마오쩌둥

[286] 毛泽东. 「对“四人帮”的几次批评(一九七四年～一九七五年) 」, 『建国以来毛泽东文稿 』 第十三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8).

은 저우언라이와 덩샤오핑에게 “왕훙원이 정치력이 강하지 않으며, 명망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왕훙원의 국정 능력도 후계 지명이 철회된 요인이었다. 왕훙원이 부주석에 오른 이후, 마오쩌둥은 그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마오쩌둥은 다른 국가의 정상과 회담할 때 왕훙원을 배석시키곤 했다. 그런데 왕훙원은 상대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회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왕훙원이 역사나 고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점도 마오쩌둥이 왕훙원에 실망한 요인이었다. 생활 태도와 자질 역시 후계자로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훙원은 부주석에 올랐음에도 방탕한 생활을 했다. 술, 사냥, 마작, 포커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287]

왕훙원은 파벌주의와 무능함으로 인해 덩샤오핑에 의해 후계 지위에 밀려나게 되었다. 저우언라이의 병세가 위중해지면서 마오쩌둥은 덩샤오핑을 제1부주석에 임명했다. 이에 따라 왕훙원은 부주석,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직위는 유지했지만, 후계자 지위에선 자연스럽게 낙마했다.[288] 특히 마오쩌둥이 왕훙원에게 거듭 경고했던 부분은 사인방의 파벌주의였다. 이에 대해 마오쩌둥이 파벌의 균형을 통해 일인지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계자가 속한 특정한 파벌의 세력 확대를 원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3. 덩샤오핑의 복권과 축출

(1) 덩샤오핑의 복권

1973년 3월 저우언라이는 덩샤오핑의 복권을 정치국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치국 회의는 마오쩌둥의 동의에 따라, ‘덩샤오핑의 당 조직 생활과 국무원 부총리 직무 복귀’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덩샤오핑은 부총리 신분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국에서 벌어지는 주요 사항에 대한 토론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289] 덩샤오핑의 복귀는

---

[287] 李逊, 「王洪文的升沉」, 『炎黄春秋』, 第10期, 2015.
[288] 舒云. 「毛泽东为何选王洪文当接班人」.
[289] 中共中央文献研究室. 『周恩来年谱 (1949-1976)』 下卷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7), pp.581-583.

저우라이의 원로 간부 복권 정책과 맞물려 이뤄졌다.[290] 저우언라이는 린뱌오 사건 이후 공산당 중앙의 일상업무를 주관했고, 원로 간부들의 복권을 추진했다. 그는 1972년 4월 인민일보에 원로 간부의 복권을 주장하는 사설을 쓰도록 지시했다. 저우언라이는 직접 사설의 초안을 수정했다.[291] 사설은 원로 간부는 장기간 혁명 투쟁을 거쳐 단련된 보배로, 이전의 과오를 고친 자들을 구제하자는 내용을 담았다.[292] 저우언라이는 원로 간부의 복권 의지를 밝힌 것이다.

린뱌오 사건 이후 저우언라이는 마오쩌둥의 승인을 받아 원로 간부 복권을 추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덩샤오핑은 1972년 8월 3일 마오쩌둥에게 편지를 썼다. 덩샤오핑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시 당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었다. 마오쩌둥은 이 편지를 저우언라이에게 읽게 하고, 다시 왕둥싱 중앙판공청 주임에게 복사해 중앙위원들에게 배포해도록 했다. 마오쩌둥은 "덩샤오핑은 엄중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류샤오치와 구별해야 한다" 면서, "덩샤오핑은 류보청 동지를 도와 전쟁에서 여러 차례 공을 세웠으며, 소련의 수정주의에 굴복하지 않았다" 고 했다.[293] 이후 저우언라이는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차례 덩샤오핑의 당직 복권 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1973년 3월 9일 저우이라이의 주재로, 정치국은 덩샤오핑의 중국 공산당 복귀와 국무원 부총리 임명을 결정했다. 물론 이 결정에는 마오쩌둥의 동의가 있었다.[294]

덩샤오핑의 복권에 대해, 징 황의 연구는 마오쩌둥이 저우언라이를 묶어두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저우언라이는 린뱌오 사건 이후 당, 정, 군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마오쩌둥이 저우언라이의 권력을 견제하고자 했다. 마오쩌둥은 이를 위해 덩샤오핑을 불러들였다고 한다. 덩샤오핑은 중국 공산당의 각급 조직과 군을 아우르는 파벌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부상하는 저우언라이의 권력을 막을 수 있는 인물로 덩샤오핑이 적임이었다는 것이다.[295] 그러나 린뱌오 사건 이후 저우언라이는 자신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덩샤오핑의 복권 결정을 이끌었다.

---

290 席宣,金春明. 『"文化大革命" 简史』, pp.227-229.
291 中共中央文献研究室. 『周恩来年谱 (1949-1976)』 下卷, pp.520-521.
292
293 毛泽东. 「对邓小平来信的批语(一九七二年八月十四日)」, 『建国以来毛泽东文稿』 第十三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8).
294 中共中央文献研究室. 『周恩来年谱 (1949-1976)』 下卷, p.583.
295 Huang, *Factionalism in Chinese Communist Politics*. pp.325-328.

문혁 급진파·수혜파가 덩샤오핑의 복권을 반대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덩샤오핑의 복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결국 저우언라이의 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저우언라이는 병세가 악화하면서, 더 이상 업무를 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마오쩌둥에게 덩샤오핑을 후임자로 강력 추천했다.[296] 이를 감안하면 저우언라이의 권력을 막기 위해 덩샤오핑을 복권시켰다는 분석은 무리가 있다. 게다가 암으로 생명이 위중한 저우언라이를 마오쩌둥이 경계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마오쩌둥이 덩샤오핑의 복권에 나선 배경에는 군을 통제하는 문제가 있었다. 문혁 이후 군은 사회를 통제하는 핵심 수단이었다. 린뱌오 사망 이후에도 군은 지방에서 군정을 넘어서 민정에 개입하고 있었다. 마오쩌둥은 군의 영향력을 축소하고자 했다. 마오쩌둥은 1973년 12월 12일 정치국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정치국은 정무를 다루지 않고, 군사위원회는 군무를 다루지 않는다"며 "정치국은 정무를, 군사위원회는 군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오쩌둥은 덩샤오핑이 군사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 덩샤오핑은 중국 지방의 군 지휘관들이 민간 부문에 개입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했다. 덩샤오핑은 혁명 원로로 군 지휘관들과 강력한 인적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덩샤오핑의 복권을 통해, 마오쩌둥은 군 지휘관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 역시 작용했다.[297]

마오쩌둥은 군중으로부터 후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실험을 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다. 마오쩌둥은 왕훙원을 후계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국가 통치 능력을 갖춘 덩샤오핑을 다시 후계자로 고려했다. 마오쩌둥은 1974년 12월 23일 왕훙원, 저우언라이를 불렀다. 이 자리에서 마오쩌둥은 왕훙원에게 직접 사인방과 같은 파벌을 조직하지 말고, 당 내에서 단결을 요구했다. 또 마오쩌둥은 왕훙원에게 "사인방 중 한명인 장칭은 야심을 갖고 있는 인물로 보이는데,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느냐"며 질책했다. 이어 마오쩌둥은 덩샤오핑에 대해 "얻기 어려운 인재"라고 하면서, "(왕훙원보다) 정치 사상이 강하며 정치

---

[296] 马永辉. 「邓小平三次复出中的三位关键人物」,『党史纵横』, 第1期, 2004.

[297] MacFarquhar,Schoenhals, *Mao's Last Revolution*. pp.379-380; 中共中央文献研究室. 『周恩来年谱 (1949-1976)』 下卷, p.636-639; Rong Deng, *Deng Xiaoping and the Cultural Revolution*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2012). pp.258-261. 한때 마오쩌둥의 후계자였던 왕훙원은 군을 공격한 조반파의 지도자로, 그가 군정에 개입할 경우 군 지휘관들의 반발을 살 수 있었다.

력도 높다”고 평가했다. 마오쩌둥을 왕훙원과 저우언라이에게 덩샤오핑을 제1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참모장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한달 뒤 10기 2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을 부주석,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했다.[298]

(2) 지도자의 지지 철회

마오쩌둥은 덩샤오핑이 자신의 이념에 반대한다고 판단했다.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의 영향에 따른 경제적 파괴를 수습하고, 나아가 중국 공산당 조직, 군의 지휘 체계를 복원하는 ‘정돈’(整顿)에 나섰다.[299] 이는 사실상 문화대혁명 이념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주석은 혁명을 틀어쥐어 생산, 업무, 전쟁 준비를 추동해야 한다고 했는데, 요즘 어떤 동지들은 혁명만 잡고, 생산을 잡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마오쩌둥의 말을 빌려서,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의 오류를 비판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300]

마오쩌둥의 조카 마오위안신(毛远新)은 1975년 9월 마오쩌둥에게 여러 차례 문화대혁명에 대한 평가 문제를 거론했다. 덩샤오핑이 공산당 중앙의 일상업무를 주재하는 상황에서, 문화대혁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오위안신은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의 성과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고, 류샤오치의 오류를 지적하는 발언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덩샤오핑의 정돈이 문화대혁명의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마오쩌둥은 덩샤오핑이 일상업무를 주재하고, 문화대혁명 당시 나타난 문제들을 바로잡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은 어디까지나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을 긍정한다는 전제에서 덩샤오핑을 지지했을 뿐이다. 여기서 일종의 이념적 모순이 나타났다. 덩샤오핑의 정돈은 필연적으로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의 오류를 바로잡는 정책이었고, 이는 문혁을 부정하는 것이

---

[298] 陈长江,赵桂来. 『毛泽东最后十年(1966-1976：跟随毛泽东27年的警卫队长回忆录)』.

[299] 덩샤오핑의 정둔은 중국 개혁개방 이념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刘平斋. 「邓小平与 1975 年的整顿」,『社会科学研究』, 第5期, 2004.

[300] 邓小平. 「全党讲大局, 把国民经济搞上去（一九七五年三月五日）」, 中共中央文献编辑委员会,『邓小平文选』 第二卷（北京: 人民出版社, 1994). 张明军. 「1975 年全面整顿的历史考察」,『党的文献』, 第1期, 1995.

었다.[301]

마오쩌둥은 덩샤오핑을 지지하다가 점차 덩샤오핑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덩샤오핑의 정돈이 문혁에 대한 부정일 수 있다고 봤다. 그 결과, 마오쩌둥은 덩샤오핑을 후계자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화궈펑을 자신의 새로운 후계자로 지명하기에 이르렀다. 지도자와 후계자 사이의 이념적 불일치가 존재했던 것이다. 마오쩌둥은 화궈펑이 자신이 만년에 이룩한 문혁이라는 업적을 계승해줄 인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덩샤오핑에서 화궈펑으로의 후계자 교체를 지도자와 후계자 사이의 권력 투쟁으로 보는 관점[302]은 사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마오쩌둥은 1976년 1월 26일 저우언라이 사후 국무원 총리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화궈펑이 국무원을 이끌게 하고, 덩샤오핑은 국외 업무만을 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치국은 2월 2일 마오쩌둥 주석의 제의에 따라 화궈펑을 국무원 총리 대리로 임명했다. 또 당시 예젠잉의 건강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천시롄이 중앙군사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도록 했다. 사인방은 덩샤오핑과 예젠잉이 뒤로 물러난 상황에서도 이들이 자본주의 복귀를 꾀하는 주자파라는 공격을 이어갔다.[303] 마오쩌둥은 지도부 세력 균형을 고려해, 후계자를 덩샤오핑에서 화궈펑으로 대체했다.[304] 화궈펑은 문혁 수혜 그룹으로 사인방에 비해 온건하면서도, 마오쩌둥 이념에 대한 지지자였다.

덩샤오핑에 대한 사인방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976년 4월 5일 톈안먼 사건이 벌어졌다. 1976년 4월 7일 마오쩌둥의 제의에 따라 중앙정치국 회의는 화궈펑을 중앙위원회 제1부주석, 국무원 총리로 임명하고, 덩샤오핑을 당 내외의 일체 직무에서 해임했다. 이 회의는 덩샤오핑, 예젠잉, 수전화 (苏振华) 에게는 참석 통지가 가지 않았다.[305] 톈안먼 사건은 군중들이 사인방의 전횡에 반발한 측면이 있지만, 장칭과 장춘차오 등은 덩샤오핑의 책임으로 몰아갔다.

덩샤오핑은 중앙위원회 부주석에 복귀해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후계자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

[301] 王年一. 『大动乱的年代』, pp.410-412.
[302] Huang, *Factionalism in Chinese Communist Politics*. pp.345-349.
[303] 叶剑英传编写助. 『叶剑英传』, pp.391.
[304] 高皋. 『後文革史: 中國自由化潮流』 上券 (臺北: 聯經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 1993),p.4.
[305]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 『叶剑英年谱』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2007), p.1108.

문화대혁명 기간 공업과 광업 기업의 생산량과 교통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덩샤오핑은 정돈 1년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농공업 총생산액은 1975년 4504억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11.9% 성장했다. 공업총생산액은 15.1%, 농업총생산액은 4.6% 각각 늘었다. 강철은 2390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13.1% 증가했다. 석탄 생산량은 4억8200만 톤으로 16.7%, 원유 생산량은 7706만 톤으로 18.8% 각각 증가했다. 문혁 시기 마비되었던 철도 운송 기능도 회복해서, 운송량이 8.9억 톤으로 전년에 비해 12.9% 증가했다.[306]

4. 후계자의 딜레마와 혈연승계

마오쩌둥과 린뱌오의 갈등은 툴록이 지적하는 후계자와 지도자의 딜레마이다. 툴록은 이 딜레마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혈연승계를 제시했다. 그런데 마오쩌둥이 후계자 지명에서 혈연 승계를 언급했다는 내용을 찾기 힘들다. 그는 류샤오치, 린뱌오를 비롯해 이후 후계자 문제로 좌절을 거듭했다. 마오쩌둥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린뱌오 사건 이후에도 혈연 승계를 검토했다는 내용이 마오쩌둥의 발언과 지시를 담은 자료들에서 등장하지 않았다. 대약진 운동 이후 마오쩌둥은 정치적 권위에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자신의 친인척들로 지배 연합을 교체하지도 않았다. 이는 북한의 김일성이나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와 다른 모습이었다. 오히려 마오쩌둥은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홍위병을 자신의 권력 자원으로 삼았다.[307]

우선 마오쩌둥은 가족을 권력기반으로 삼기엔 그 수가 너무 부족했다. 첫째 아들 마오안잉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했고, 둘째 아들 마오안칭은 정신 질환을 앓았으며, 셋째 아들 어릴 적 잃어버렸다. 게다가 마오쩌둥의 동생 마오쩌탄은 유격전에서 전사했으며, 누이 마오쩌젠은 1930년 창사에서 처형되었다. 동생 마오쩌민은 1937년 처형되었다. 다만 마오쩌둥이 두번째 부인 허쯔전과 아이 5명을 낳았지만, 딸 리민만 살아남았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자녀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으며, 장칭과 결혼하고 난 뒤로는 자녀들과 따로 살았다. 자녀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키울 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마오쩌둥의 경호를 담당한 리린차오의 증

306 席宣,金春明. 『"文化大革命" 简史』, p.271.
307 Paul J Hiniker, "The Cultural Revolution Revisited: Dissonance Reduction or Power Maximization," *The China Quarterly* 94 (1983).

언에 따르면, 마오안잉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5년 한번 만날 정도였다고 한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자녀 누구도 공산당 고위 간부로 발탁하지 않았다.[308]

옌안 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이미 가장 강력한 파벌을 형성했던 류샤오치가 이미 마오쩌둥의 후계자 지위를 구축했다는 설명[309]도 가능하다. 애초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지정하는 논의 자체가 일어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마오쩌둥에게는 마오위안신이라는 조카가 있었다. 죽은 친동생 마오쩌민의 남은 아들이었다. 마오위안신은 상당한 정치적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문혁 시기 랴오닝성 혁명위원회 부주임을 맡았으며, 1975년 마오쩌둥과 정치국을 잇는 연락원으로 일했다. 마오쩌둥은 마오위안신을 친아들처럼 아꼈지만, 왕훙원처럼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부주석으로 발탁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310] 애초 후계자로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마오쩌둥은 혈연승계에 대한 이념적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오쩌둥은 애국심이나 군대에서의 헌신을 앗아가고 가족에 대한 애착만을 갖게 하는 유학(儒學)에 반대했다고 한다.[311] 마오쩌둥은 가족을 중시하는 중국의 봉건적인 사상에 반대했고, 이것이 혈연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마오쩌둥은 마르크스·레닌의 이념에 충실한 혁명가였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마오쩌둥이 마오안잉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다면 한국전쟁에 참전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마오안잉이 살아 있었더라도 후계자가 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이다. [312]

마오쩌둥이 중시한 후계자 선정 기준은 문혁 이념의 유지였다. 린뱌오의 경우 독자적 지배 연합의 확대가 마오쩌둥과 갈등을 일으킨 원인이었다. 후계자의 지배 연합 확대가 마오쩌둥에게는 위협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오쩌둥과 린뱌오의 갈등은 결국 혈연 관계의 부재에서 나타난 불신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린뱌오 사건 이후 마

---

308 Michael Lynch, *Mao* (London: Routledge, 2004). pp.201-219.

309 안치영. 「마오쩌둥 (毛澤東) 의 옌안 (延安) 체제 재편과 가오강 (高崗) 사건」.

310 霞飞. 「毛远新缘何被“保护审查”」,『党史博览』, 第4期, 2006.

311 Howard L Boorman, "Mao Tse-Tung: The Lacquered Image," *The China Quarterly* 16 (1963).

312 Steven Saxonberg, *Transitions and Non-Transitions from Communism: Regime Survival in China, Cuba, North Korea, and Vietna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113-117.

오쩌둥의 후계 문제는 문혁 이념 계승이 보다 강조되었다. 저우언라이의 경우 마오쩌둥과의 이념적 노선 차이로 인해 후계자가 되기 어려웠다. 덩샤오핑의은 문혁에 대한 마오쩌둥의 지지 요구를 거부하면서, 마오쩌둥의 지지를 상실했다. 왕훙원이 부상했던 이유도 상하이에서 조반파를 이끌었던 노동자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다만 그의 국정 능력 부족이 문제였다. 혈연 관계의 부재에 따른 지도자와 후계자의 불신보다는 지도자와 후계자 사이의 이념의 일치성이 관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 3 절 권력 이양 시기

1. 지도자의 지지

(1) 마오쩌둥의 화궈펑 지지 요인

마오쩌둥은 자신의 이념이 사후에도 지속되길 원한다. 그는 1976년 병세가 위중한 상황에서 화궈펑, 왕훙원, 장칭, 야오원위안, 왕하이룽 등에게 자신의 사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장제스에 대한 승리와 문화대혁명을 일생의 업적으로 꼽았다. 그런데 이 두가지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그 과업을 다음 세대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 특히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에 대해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걱정했다. 마오쩌둥은 화궈펑 등이 문화대혁명을 지켜주길 희망했던 것이다. 마오쩌둥은 그해 9월 9일 사망했다.[313] 문혁 이념의 계승은 마오쩌둥의 후계자 선택에서 핵심 기준이었던 것이다.

화궈펑은 마오쩌둥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후계자였다. 마오쩌둥은 사망 직전 그의 공식적 후계자로 화궈펑을 지목했다. 저우언라이 사망 직후인 1976년 2월 2일, 마오쩌둥은 화궈펑을 국무원 총리 대리로 임명했다. 그리고 그에게 “첫째, 당신이 일을 맡으면 마음이 놓인다. 둘째,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라. 셋째, 과거에 했던 방침을 살펴봐라.”라는 자필 메모를 전했다.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자필 메모를 정치국 회의에 전달했다. 이는 화궈펑이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였

313 王年一. 『大动乱的年代』, pp.448-449. 안치영. 『덩 샤오핑 시대의 탄생 : 중국의 역사 재평가와 개혁』, p.76. 마오쩌둥의 발언이 1976년 1월 13일에 있었는지, 6월 15일에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314]

사실 화궈펑은 마오쩌둥에 대한 충성심 외에 내세울 게 많지 않았다. 건국 이전 공산당의 현급 간부에 불과했으며, 연령으로만 봐도 공산당 혁명 원로들보다 어렸다. 다만 건국 이후 그가 마오쩌둥의 고향인 후난성 샹탄(湘潭)현의 현위원회 서기를 맡는 기회를 얻었다. 당시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의도와 지시를 잘 파악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궈펑이 탄현 현위원회 서기, 후난성 위원회의 주요 책임자를 역임하면서 마오쩌둥의 신임을 받았다. 그는 마오쩌둥이 수차례가 중대 사건과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서도,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고향인 샹탄현, 후난성에 각별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화궈펑은 그곳의 '부모관'(인민을 돌보는 부모와 같은 관리)이었다. 마오쩌둥이 보기에 화궈펑은 자신의 충실한 추종자이며, 문화대혁명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충실한 지지자로 비춰졌을 것이다.[315]

왕훙원 역시 문혁 이념의 강력한 지지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은 최종적인후계자로 화궈펑을 택했다. 왕훙원과 화궈펑은 사실 상당히 대조적인 인물들이었다. 린뱌오 사건 이후 마오쩌둥은 상하이에서 왕훙원을, 후난에서 화궈펑을 각각 중앙으로 불렀다. 왕훙원은 문화대혁명에 대한 급진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었고, 마오쩌둥의 후계자로서 중앙으로 소환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왕훙원의 문혁 이념 색채가 지나치게 짙었다는 점이었다. 관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인물이었다. 왕훙원이 지녔던 이 같은 정치적 약점은 화궈펑에게는 기회로 작용했다. 화궈펑은 왕훙원과 달리 언행이 무겁고 신중했다. 마오쩌둥은 화궈펑에 대해 '정직하고 온순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화궈펑은 '중후소문'(重厚小文)[316]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는 화궈펑이 중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317] 마오쩌둥은 문혁의 계승과 더불어, 국가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추구했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인물로 화궈펑을 후계자로 선택한 것이다.[318]

---

[314] 朱元石. 『吴德口述十年风雨纪事： 我在北京工作的一些经历』 (北京: 当代中国出版社, 2004), p.178.
[315] 李安增. 『1976-1982年中国当代史』, pp.40-41.
[316] 사마천이 쓴 '사기'에 나온 고사로, 한고조 유방이 주발에 대해 평했던 말이다. 유방은 주발에 대해 "중후하고 겉치레가 없는 사람으로, 유씨의 천하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317] 楊繼繩. 『天地翻覆』 下册, pp.982-983.
[318] 안치영. 『덩 샤오핑 시대의 탄생 : 중국의 역사 재평가와 개혁』, p.77.

(2) 후계자의 집권 정당성과 한계

마오쩌둥 사후 화궈펑의 집권 정당성은 마오쩌둥으로부터 나왔다. 마오쩌둥이 선택한 후계자라는 것이다. 마오쩌둥 사망 이후 1976년 11월 8일 해방군보는 '화궈펑 동지가 당의 영도자 된 것은 마오 주석의 결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해방군보 편집부 명의였다. 사설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직접 화궈펑을 제1부주석, 국무원 총리로 제안했다. 당시 마오쩌둥은 "당신이 일을 처리하면 안심이다"라며 화궈펑을 자신의 후계자 지위에 임명했다고 전했다.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후계자로서 자산가계급에 대한 무산계급의 승리, 수정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승리를 계승하는 당의 주축이라고 했다.[319]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이념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다. 화궈펑의 한계였다. 새로운 지배연합에 따라 유연하게 자신의 이념을 제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의 지명은 화궈펑의 권력 정당성의 원천이었지만, 동시에 제약 요소로 작용했다. 마오쩌둥 사후 문혁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화궈펑으로서는 문혁을 부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후계자로서 딜레마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마오쩌둥의 후광이 있어도 문제가 되고, 없어도 문제가 되는 처하게 된 것이다.[320]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계승자였기 때문에 마오쩌둥 이념을 부정하기 쉽지 않았다. 마오쩌둥에 대한 충실한 지지자라는 성격 때문에,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최종적인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마오쩌둥의 후계자라는 지위가 마오쩌둥 사후 화궈펑에게 한계로 작용했다.

다시 말해, 화궈펑은 '후계자의 함정'(successor trap)을 피하기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후계자는 집권 이후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한 선임자의 이념을 거부하기 어렵다. 전임지도자의 정치적 과오에도 불구하고, 선임자를 계승했다는 정치적 정당성으로 인해 전임자의 오류를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전임자 이념에서 정치적 오류가 이미 입증된 경우이다.

---

[319] 张树军,高新民. 『中共十一届三中全会历史档案』 下册 (北京: 中国经济出版社, 1998), pp.52-55.

[320] 안치영. 『덩 샤오핑 시대의 탄생 : 중국의 역사 재평가와 개혁』, pp.119-120; Maurice Meisner, *The Deng Xiaoping Era: An Inquiry into the Fate of Chinese Socialism 1978-1994* (Hill and Wang, 1998). p.88.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는 권력승계 이후 전임자의 이념을 더욱 강경하게 고수하기 쉽다. 정치 엘리트들은 새로운 정치적 이념을 요구하지만, 후계자는 전임자의 이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화궈펑의 마오쩌둥이 지정한 후계자라는 지위는 10월 6일 밤 정치국 회의에서도 나타났다. 정치국 회의 전에 화궈펑과 예젠잉은 회의 의제를 상의했다. 이들은 사인방 체포와 함께.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선출을 의제로 제안하기로 했다. 예젠잉은 화궈펑에게 마오쩌둥이 이미 생전에 화궈펑을 후계자로 낙점했으니, 화궈펑이 당연히 중임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화궈펑은 주석직을 사양하면서 오히려 예젠잉이 당 중앙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도록 회의에서 제안하겠다고 했다. 화궈펑의 이 같은 제안에, 예젠잉은 마오쩌둥이 후계자로 지정한 사람은 화궈펑임을 강조했다.[321] 실제 정치국 회의는 이들의 합의를 추인하는 성격이 강했다. 앞서 9월 21일 예젠잉과 녜룽전의 담화에서 사인방 문제를 논의하면서, "화궈펑은 마오쩌둥이 후계자로 지목한 사람으로 그의 지지를 얻어야만 한다" 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고 했다.[322]

예젠잉은 공산당 통치가 무너질 수 있는 혼란을 막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6일정치국 회의에서 마오쩌둥의 유지를 강조했다. 단결된 공산당이 마오쩌둥의 '미쳐 이루지 못한 꿈' 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사인방의 권력 탈취는 당과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길이었는데, 화궈펑은 과감한 조치로 인해 이러한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323]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이념의 계승자로서, 당과 국가가 붕괴될 수 있는 위기에서 구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문제는 화궈펑의 '이념적 보수성' 이었다.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좌경 노선을 추구했던, 사인방의 이념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당의 권력을 탈취했다는 수준의 비판에서 그쳤다. 마오쩌둥의 이념을 따랐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화궈펑은 사인방 체포가 있고 나서 한달 후 이 같은 이념적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 전군과 전국 인민은 마오쩌둥 유지를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계급투쟁 노선으로 당의 기본 노선을 설정해야 하며, 무산계급 정권의 계속 혁명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인방에 대해선, 당에 반하는

---

321 张树军,高新民. 『中共十一届三中全会历史档案』 上册 (北京: 中国经济出版社, 1998),pp.9-10.
322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 『叶剑英年谱』, p.1111.
323 张树军,高新民. 『中共十一届三中全会历史档案』 上册, pp.22-25.

집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사인방의 정권 탈취 시도를 저지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고 강조했다.[324]

이 같은 맥락에서 사인방 체포에 성공한 후 1976년 10월 18일 이 소식을 통보하면서, 화궈펑은 의미 있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4인방 체포를 '문화대혁명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사인방의 핵심적 문제는 공산당의 권력을 탈취하려는 음모였다고 했다.[325] 이어 10월 26일 중앙선전부 간부들에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첫째, 사인방을 집중 비판하면서 그와 연관해 덩샤오핑을 비판하라고 했다. 둘째, 사인방의 노선은 극우이다. 셋째, 무릇 마오쩌둥이 말한 것은 비판할 필요가 없다. 넷째, 1976년 톈안먼사건은 피하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엔 논리적 충돌이 있다. 사인방을 비판하면서도 사인방이 추종한 마오쩌둥의 이념을 비판하지 못 하도록 했다. 톈안먼사건에 대한 반혁명 성격으로 규정하고 덩샤오핑을 해임 처분한 일은 사인방이 시작한 것이었다. 그런데 톈안먼 사건으로 물러난 덩샤오핑을 비판하도록 한 것이다.[326] 덩샤오핑의 이념은 사인방의 이념과 달랐기 때문에, 사인방과 덩샤오핑을 함께 비판하는 일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었다.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합법적인 후계자이면서 그의 충실한 학생이었다. 마오쩌둥의 위광을 빌려 권력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는 당, 정, 군의 권력을 한 몸에 거머쥐었으면서도, 죽은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숭배를 고취시켜야만 했다.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숭배는 유일한 후계자인 화궈펑 자신에 대한 개인숭배로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이었다. 화궈펑은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대혁명을 지켜내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문화대혁명에 대한 부정은 곧 화궈펑 자신에 대한 부정을 의미했다.[327]

---

[324] 华国锋. 「在毛主席纪念党奠基仪式上的讲话」, 『人民日报』, 1976.11.24.
[325] 中共中央. 「中共中央通知（一九七六年十月十八日）」, 中央档案馆, 『共和国五十年珍贵档案』 下册 (北京: 中国档案出版社, 1999).
[326] 程中原, 王玉祥,李正华. 『转折年代：1976-1981年的中国』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2008), pp.28-29.
[327] 李安增. 『1976-1982年中国当代史』, p.45.

2. 전임자의 지배 연합 분화

(1) 지배 연합의 이탈

마오쩌둥 사후 중국 공산당 권력 구조는 일인지배에서 집단지배로 전환했다.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후계 지명을 받았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권, 당과 군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마오쩌둥 사후 다시 지배 연합 다수의 지지가 필요했다. 이 과정에선 전임자의 지배 연합 승계가 관건이다. 전임자의 지배 연합이 후계자에 대한 지지로부터 이탈할 경우 집권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권력승계의 실패, 권력승계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임자의 사망으로 인해, 현직자에 대한 도전자의 정치적 위험부담도 적다. 후계자가 지배 연합 내 다른 정치엘리트로부터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화궈펑은 전임자의 지배 연합 다수를 승계 받지 못했다. 화궈펑이 직면한 가장 위협은 문혁 급진파인 '사인방'의 이탈이었다. 장칭을 위시한 문혁 급진파(사인방)는 자신들에게 가장 큰 위협인 덩샤오핑과 예젠잉이 사라진 상황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은 모든 당직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특히 군을 통제했던 예젠잉은 군사위원회의 일상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1976년 2월 정치국은 예젠잉이 신병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 군사위원회 업무를 예젠잉 대신 천시롄이 주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문혁 급진파는 공산당 내 강력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권력 획득에 나섰다. 장칭은 마오쩌둥이 죽기 10여일 전부터 베이징대, 칭화대 등에서 자신의 대외 활동에서 스스로 마오 주석을 대리하며 당중앙이라고 칭했다. 베이징일보는 장칭에 대해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장칭 동지가 마오쩌둥 주석을 대리해 수도 인민들을 찾아보았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4인방으로 정치국원인 야오원위안은 이 보도를 베이징시위원회가 다시 배포하도록 했다.[328]

화궈펑은 집단지배 권력구조에서 지도자 지위를 승계했다. 따라서 화궈펑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 등 중앙 의사결정 기구에서 지지를 얻어야만 했다. 지배 연합 다수의 지지이다. 그런데 화궈펑을 지지하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소수였다.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은 화궈펑, 왕훙원 ,

[328] 朱元石. 『吴德口述十年风雨纪事： 我在北京工作的一些经历』, pp.173-174.

예젠잉, 장춘차오였다. 왕훙원과 장춘차오가 바로 4인방에 속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화궈펑은 열세에 놓였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화궈펑은 왕훙원과 장춘차오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결정을 늦추면서 정치적 상황 변화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표 9] 10기 공산당 정치국 구성(1976년 9월)

	원로 간부	문혁 급진파 (사인방)	문혁 수혜파
정치국 상무 위원	예젠잉	왕훙원, 장춘차오,	화궈펑(제1부주석),
정치국 원	예젠잉,웨이궈칭, 류보청, 쉬스유, 리셴넨(5명)	왕훙원, 장춘차오, 장칭, 야오원위안 (4명)	화궈펑, 리더셩, 지덩쿠이, 우더, 왕둥싱, 천융구이, 천시롄(7명)

※ 출처 : 中共中央组织部, 中共中央党史研究室,中央档案馆. 『中国共产党组织史资料 』 第六卷, pp.42-43.

이 같은 이유로 화궈펑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여는 대신 정치국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9월 29일 확대회의에는 원로 간부인 리셴넨과 문혁 급진파인 장칭이 참가했다. 이 회의에서 장칭은 "마오쩌둥 주석이 서거했는데, 당 중앙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다. 이는 화궈펑의 우유부단함과 무능함을 비판한 것이었다. 문혁 급진파인 왕훙원과 장춘차오는 집단지배 강화와 함께, 장칭의 직무를 임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장칭은 이미 공산당 정치국 원이라는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장칭에서 다시 직책을 줘야 한다는 뜻은 장칭을 공산당 중앙 주석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문혁 급진파의 이 같은 의도에 대해, 예젠잉과 리셴넨이 격렬히 반대하면서 부결되었다.[329] 군의 원수인 예젠잉 앞에서, 사인방은 무력을 보유하지 않은 데에서도 오는 위협을 느꼈다.[330] 화궈펑은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사인방의 도전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권력승계에 성공하기 위해선

[329] 范硕. 『叶剑英在1976』 (北京: 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95), pp.258-262.
[330] 楊繼繩. 『中國改革年代的政治鬥爭』 (香港: 天地圖書有限公司, 2010), p.50.

‘승리 연합’ (winning coalition)을 재구성해야 했다.

사인방의 강력한 도전에 화궈펑은 지배 연합 내 다른 정치 세력과 제휴를 모색해야 했다. 당시 지배 연합은 세 분파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 장징을 위시한 문혁 급진파, 둘째 예젠잉·리셴넨 등 문혁 생존자 원로 간부, 셋째 문혁 시기 마오쩌둥에 의해 중앙으로 발탁되어 고속 승진한 화궈펑을 비롯한 문혁 수혜자였다.[331] 화궈펑이 문혁 급진파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서, 원로 간부, 문혁 수혜자와 정치적 연합을 형성해야 했다.

(2) 승리 연합의 형성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이 사망 직후 권력 투쟁이 본격화했다. 이러한 모습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지도자 사망에 따른 권력승계가 얼마나 불안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날 정치국 회의의 중심 의제는 마오쩌둥의 장례 문제였지만, 장칭 등은 덩샤오핑의 당적을 삭제하고 화궈펑을 배척하고자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오쩌둥 장례 기간 사인방에 대한 대응이 긴밀하게 논의되었다. 예젠잉은 9월 12일 왕둥싱을 만나 이 문제를 이야기했고 이어 17일엔 화궈펑과 의견을 나눴다.[332] 문혁 급진파에 대항한 정치적 연합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화궈펑은 우선 원로 간부들과 정치적 연합을 시도했다. 화궈펑은 예젠잉과 사인방을 축출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333] 화궈펑에게 예젠잉과의 연합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비록 예젠잉이 군사위원회 일상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지만, 공식적으로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주석이면서, 군

---

[331] 안치영. 『덩 샤오핑 시대의 탄생 : 중국의 역사 재평가와 개혁』, pp.120.

[332]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 『叶剑英年谱』, p.1110.

[333] 1976년 9월 11일 화궈펑은 리셴넨을 만나 사인방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화궈펑은 “사인방이 각 성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 사인방과의 투쟁이 불가피하다. 지금 해결해야만 하는 시간이 왔다”고 했다. 이에 리셴넨은 “결심이 섰는가?”라고 묻자, 화궈펑은 “결심했다”고 답했다. 이어 리셴넨이 예젠잉을 만나 좋은 방법을 상의하라고 권하자, 화궈펑은 자신이 사인방의 감시를 받고 있는 터라 자신을 대신해 예젠잉을 접촉하길 부탁했다. 리셴넨은 9월 14일 시산(西山)에 있는 예젠잉의 의사를 확인했다. 리셴넨은 사인방에 대해“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예젠잉은 “너 죽고 내가 사는 투쟁”이라고 답했다. 예젠잉과 리셴넨은 천시롄 등 사인방에 대해 행동을 함께 할 인물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리셴넨은 추후 화궈펑에게 예젠잉과 만난 결과를 보고했다. 李先念传编写组. 『 李先念年谱』 5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2011), pp.448-449.

위 부주석이었다. 덩샤오핑이나 천윈 등 원로간부들이 공산당 지도부에서 축출된 상황에서, 예젠잉의 비중은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군대에 대한 명령권을 이용해, 중요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국내외 상황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었다.[334] 예젠잉은 화궈펑에 대한 군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이었다.

마오쩌둥 사후 지도자 선정은 비공식적인 정치적 제휴를 통해 진행되었다. 정치적 제휴를 맺는 과정은 비밀스럽게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인적 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예젠잉은 천윈, 탄전린, 리셴넨, 덩잉차오, 캉커칭 등 원로 간부들을 직접 만났다. 또 한셴추, 양더즈, 우커화 등 군의 고위 간부들과 의견을 나눴다. 4인방의 견제가 극심한 상황에서 은밀하게 소통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젠잉은 당과 군의 고위 간부들을 접촉, 이들의 의사를 확인했다. 그리고 사인방에 대한 승리를 자신했다.[335]

이처럼 후계 문제의 처리 과정은 비공식적이었으며, 개인적 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했다. 따라서 광범위한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의 역할은 중요했다. 예젠잉은 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했다. 이는 새로운 지배 연합을 구성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지배 연합의 정치 행위자에게는 집합선택의 문제가 존재한다. 개별 행위자들은 다른 행위자의 선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다른 행위자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했다.[336] 예젠잉은 4인방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한 행위자들의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집합행동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도전자인 장칭 등 급진파는 원로 간부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문혁 시기 예젠잉 역시 사인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 결과 예젠잉은 당과 군의 일상 업무로부터 배제되었다. 업무 배제의 표면적 이유는 그의 건강 문제였지만, 이면엔 예젠잉으로부터 군 지휘권을 박탈하고자 했던 사인방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

334 叶剑英传编写助. 『叶剑英传』, p.395.

335 Ibid. p.396; 李德生. 『李德生回忆录』 (北京: 人民出版社, 2012), pp.404-405. 리더셩은 예젠잉과의 만남에서 "지금 경제 생산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조직이 중요합니까?"라고 물었다. 그리고 예젠잉의 답을 정확히 듣기 위해 라디오를 껐다. 그런데 예젠잉은 라디오를 다시 켜더니 낮은 목소리로 "조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일화에서 예젠잉은 매우 비밀스럽게 사인방 축축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연합을 구축했음을 알 수 있다.

336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p.94-99.

경뱌오의 회고에 따르면, 정치국 결정 당시 마오쩌둥은 천시롄에게 “당신이 원수를 맡아달라”고 반복해 말했다고 한다. 당시 마오쩌둥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눈에 초점을 잃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를 보면, 예젠잉의 군사위원회 업무 배제 결정은 마오쩌둥의 정신이 흐려진 상황에서 문혁 급진파인 사인방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337]

급진파는 문혁 시기 원로 간부들에 대한 이념적 공격을 지속했다. 장칭은 저우언라이를 위시한 당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거듭해왔다. 1974년 장칭이 벌인 ‘비림비공(批林批孔)’ 운동은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쿠데타를 기도한 린뱌오 집에서 공자와 맹자 등 유가의 책이 나왔다는 것이다. 장칭은 이에 대해 린뱌오가 유가를 받아들여 중국의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하려고 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장칭은 이 일을 저우언라이와 리셴넨 등 당의 원로 간부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데 이용했다.[338] 화궈펑은 사인방과의 권력투쟁에서 원로 간부와 사인방의 대립을 활용할 수 있었다. 지배 연합 내 분파 간 대립이 화궈펑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였다. 리셴넨은 장칭 등이 내세우는 문혁 이념에 동의하기 어려웠다. 리셴넨은 장칭을 막을 수 있는 화궈펑에 대한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화궈펑이 리셴넨을 통해 군 원로이자 정치국 상무위원인 예젠잉과 제휴했던 것도 사인방과 원로 간부 사이의 적대적 관계에서 기인했다. 문혁 급진파에 대항한 연합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화궈펑은 도전세력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승리 연합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장칭은 지배 연합의 다른 분파들과의 제휴에 소극적이었다. 원로 간부로부터 지지를 얻기 힘든 상황에서, 사인방이 화궈펑에 도전해 승리하기 위해선 문혁 수혜파와의 제휴가 불가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방은 스스로 고립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른바 승리연합을 구성하기에는 정치적 제휴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았던 것이다. 당시 정치국 위원 중 상당수는 문혁 수혜자였다. 리더셩, 천시롄, 지덩쿠이, 왕둥싱, 우더, 천융구이 등이었다. 이들은 문혁에 대한 온건한 지지자였다. 사인방

337 耿飚. 『耿飚回忆录 』 下册 (北京: 人民出版社, 2017), pp.252-253.

338 李先念编写组. 『李先念传 1909-1949』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9), pp.787-789. 장칭은 중앙공산당 중앙의 ‘린뱌오와 공맹의도’(林彪与孔孟之道)라는 글을 발표하게 한 다음, 1974년 1월24일 개인명의로 지휘관에게 서신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날엔 베이징에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1만명을 동원해 비림비공 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칭은 “유가의 중용은 절충주의이며 마르크스-레닌 사상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대회에 참석한 저우언라이를 공격한 것이다. 함께 참석한 리셴넨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목격하고 마음이 무거웠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은 마오쩌둥의 문혁을 위한 집행자였다. 따라서 문화대혁명 수혜자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4인방은 자신들의 지배를 지지할 만한 어떤 정치적 제휴에도 소극적이었다.[339]

군 출신 원로와 문혁 수혜파가 모두 사인방에 적대적이었다는 점은 사인방에게 치명적인 한계였다. 군은 사인방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 1967년 2월 정치국 상무위원회 연두회의에서 일어난 이른바 '2월역류' 사건에서 군 원로들은 문혁 급진파로부터 반혁명, 반당 집단이라는 비판을 당했다. 린뱌오 사건 이후 사인방은 군에 대한 공격을 거듭했다. 리더셩은 문혁 수혜파였지만, 군 지휘관 출신으로 사인방과 적대적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340]

(3) 권력승계에서 군의 역할

원로 간부, 문혁 수혜파가 문혁 급진파에 반대해, 화궈펑을 지지했다. 이로써 화궈펑은 자신의 승리 연합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승리 연합의 구성만으로는 부족했다. 화궈펑의 후계 지위를 둘러싼 권력투쟁을 끝내기 위해선 강권 수단의 동원이 불가피했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국가에서 군, 비밀경찰, 경호부대 등 강권 기구는 독재자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의 후계 문제에서도 강권 기구의 지지를 얻거나 이를 장악하는 일이 권력 획득의 관건이었다.

마오쩌둥 사후 원로 간부들 사이에선 '비정상적 수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976년 9월 21일 녜룽전(聂荣臻)은 예젠잉에게 사인방에 대한 무력 수단 사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녜룽전은 양청우(杨成武)를 시산(西山)으로 보내 예젠잉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 녜룽전은 "4인방이 선수를 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면서 "사인방이 덩샤오핑을 해하고, 예젠잉을 연금하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당 내 권력투쟁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손을 써서 단호한 조

339 楊繼繩. 『中國改革年代的政治鬥爭』, pp.56-63.

340 1974년 비림비공(批林批孔) 대회에서, 장칭 등은 군 지휘부를 우경 세력, 대군벌이라고 비난하면서 권력을 탈취하고자 한다고 모함했다. 장칭은 군 지휘부를 향해 "불을 놓아 황무지를 불태워버리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李德生. 『李德生回忆录』, pp.395-400. 聂荣臻传编写组. 『聂荣臻传 』 (北京: 当代中国出版社, 2006), pp.386-389.; 徐向前传编写组. 『徐向前传』 (北京: 当代中国出版社, 2006),pp.330-335.

치를 취해야 예상치 못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예젠잉은 녜룽전의 생각에 동의했다.[341]

당시 상하이에선 문혁 급진파에 의해 조직된 민병의 반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1976년 8월 무렵 상하이 혁명위원회의 마톈쉬(马天水)는 무장 반란을 준비했다. 유사시 사인방을 무력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상하이의 민병 총 7만4220정, 대포 300문, 각종 탄약 1000만여발을 비축해뒀다.[342] 1976년 9월 21일 장춘차오는 베이징에서 단독으로 쉬징셴(徐景贤)을 만나 무장폭동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했다. 쉬징셴은 원래 상하이 공산당 서기였으며,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자 상하이 혁명위원회 서기가 되어 상하이에서 문혁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이어 23일엔 왕훙원이 상하이혁명위원회 왕시우전에게 전화를 통해 민병 40만명과 대포 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8일엔 장춘차오가 자신의 비서를 상해에 보내, 마톈쉬, 쉬징셴, 왕수이전 등에게 “경계를 유지하고, 칠 준비를 하라’고 전했다.[343] 상하이에서 일종의 동원령을 선포한 셈이다. 9월에서 10월 초 상하이 민병 지휘부가 민병에 총과 탄약을 지급했다.[344]

사인방이 상하이의 민병 준비에 나선 배경엔 군에 대한 위협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는 사인방이 상하이 민병을 준비시킨 배경이었다. 크게 두가지 사건이 사인방의 위협 인식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광저우군 사령관이었던 쉬스유의 아들 편지 사건이었다. 마오쩌둥의 병세가 위중한 상황에서, 쉬스유의 아들이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인방이 이 편지를 입수한 것이다. 편지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이후 군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중난하이와 댜오위타이를 장악한 우, 상하이방(사인방)을 죽인다는 내용이었다. 비록 왕훙원이 군사위원회 부주석이며, 장춘차오가 총정치부 주임이지만, 군 내에선 아무도 이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사인방이 통제하는 상하이 민병대는 군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사인방에 대한 군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예고하는 또다른 사건은 지덩쿠이 아들의 발언이었다. 1976년 초 부주석 지덩쿠이의 아들이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허난성 조직부 책임자에게 다음과 얘기

---

341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 『叶剑英年谱』, pp.1110-1111.
342 程中原, 王玉祥,李正华. 『转折年代：1976-1981年的中国』, pp.8-9.
343 叶剑英传编写助. 『叶剑英传』, p.398.
344 耿飚. 『耿飚回忆录』 下册, pp.257-258;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 『叶剑英年谱』,p.1112.

했다고 한다. “현재 정치국은 신파와 원로파(원로간부) 사이에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는 입을 열지 않고 있지만, 마오쩌둥 주석이 죽으면, 장춘차오를 배반자로 선포하고, 전국을 군이 관리하면서,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 발언은 신화사 허난성 사장 주밍잉의 보고로 사인방인 야오원위안에게 전달되었다.[345]

원로 간부·문혁 수혜파의 연합과 문혁 급진파는 서로 무력 사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공산당 지도부 내에서 의사결정 기구에선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이었다. 다만 마오쩌둥 사후, 군이 베이징을 점령하거나 중국 전역을 관리하는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인방 체포를 전후로, 제한적인 군의 무력 사용이 있었다. 화궈펑은 원로 간부, 문혁 수혜파의 정치적 제휴를 맺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인방을 지배 연합 내에서 고립시켰다. 그리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사인방의 도전을 최종적으로 좌절시킬 수 있었다.

먼저, 예젠잉은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인민해방군 28군을 동원해 베이징 진입로를 통제했다. 1976년 10월 4일 문혁 급진파이자 마오위안신은 선양의 두개 사단을 베이징에서 하루 거리인 산해관까지 불러들였다. 유사시 베이징으로 군을 투입, 사인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미 예젠잉이 군을 동원해 베이징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은 상황이었다. 예젠잉은 리더셩으로 하여금 마오위안신이 소환한 두 개 사단이 원대로 복귀하도록 명령을 하달했다.

다음 중앙판공청 주임인 왕둥싱은 중앙경위단을 동원해, 문혁 급진파를 체포했다. 중앙경위단의 역할은 정치적으로 각별한 의미를 가졌다. 중앙경위단은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을 경호하며, 베이징의 주요 국가 기관들의 경비를 담당하는 군부대이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신변 문제를 좌우할 수 있는 일종의 친위부대라고도 할 수 있다. 사인방의 숙청에서 중앙경위단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왕둥싱은 중앙경위단 병력을 동원해 사인방을 체포할 수 있었다. 왕둥싱은 중앙경위원단 대원들을 사인방 체포에 동원했다. 왕둥싱은 대원들에게 장칭 등이 마오쩌둥 주석이 세상을 떠난 틈을 타고 자본주의를 부활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몄다고 설명했다.

사인방 역시 중앙경위단을 장악하고자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중

---

[345] 杨继绳. 『邓小平时代: 中国改革开放二十年纪实』 上 (北京: 中央编译出版社, 1998), pp.81-83; 안치영. 『덩 샤오핑 시대의 탄생 : 중국의 역사 재평가와 개혁』, pp.109-111.

앙경위단의 통제하기 위해 리신(李鑫)을 포섭하고자 했다. 당시 리신은 중앙판공청 부주임이자, 중앙경위단 부단장이었다. 사인방은 리신이 자신들과 같은 문혁 급진파였던 캉셩의 비서였다는 경력을 믿었다. 리신은 장춘차오의 소개로 장칭을 만나 장칭의 지휘를 받겠다는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은 거짓이었다. 오히려 리신은 중앙판공청 주임인 왕둥싱과 그가 지지한 화궈펑의 편에 섰다. 리신은 사인방에게 거짓 충성을 바치면서, 사인방의 동향을 왕둥싱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는 곧바로 화궈펑에 전달되었다. 사인방이 중앙경위단 장악에 실패한 상황에서, 중앙경위단은 사인방을 체포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중앙경위단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다.[346]

사인방 체포와 동시에, 화궈펑과 예젠잉은 군을 보내 당의 핵심 선전기관인 중앙인민방송국을 점령하도록 했다. 방송국 점령임무는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부장인 경뱌오와 베이징 위수구 사령원 추웨이가오가 맡았다. 경뱌오 등은 방송국 국장 대리인 덩강에게 화궈펑의 친서를 전하면서, 당 중앙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당시 방송국은 사인방의 통제하에 있었지만, 간부들은 대체로 사인방을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이 강했다. 따라서 방송국을 장악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이뤄질 수 있었다.[347] 군이 방송국을 장악함으로써, 사인방 체포는 일단락을 맺게 되었다.

남아 있는 문제는 문혁 급진파가 상하이에서 조직한 민병이었다. 우선 공산당 중앙은 사인방 체포를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상하이의 민병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했다. 사인방 체포 다음날인 10월 7일 중앙회의를 소집하고, 특별기를 이용해 상하이, 난징, 항저우의 당·정·군 책임자들을 베이징으로 소환했다. 여기에 마톈쉬가 들어가 있었다. 이후 마톈쉬를 통해 쉬징셴, 왕수이전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였다. 일종의 두령이 없는 악당 (群魔无首)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이다. 동시에 동해 방면의 해군과 난징군구의 부대를 배치해, 상하이에 대한 무력 시위를 벌였다. 시민에 대한 직접적 군사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 조치라고 볼 수 있었다.

상하이에 남아 있는 시위원회 간부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무장 봉기를 계획했다. 베이징에 있는 쉬징셴, 왕수이전으로부터 사인방 체포에 대한 소식을 들은 직후였다. 그러나 이 역시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 민병이 상하이 거점을 장악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도부가 부재

---

346 杨继绳. 『邓小平时代: 中国改革开放二十年纪实』 上, p.93-96; 楊繼繩. 『中國改革年代的政治鬥爭』, pp.64-65.

347 耿飚. 『耿飚回忆录 』 下册, pp.258-261.

했기 때문이다. 시위원회는 마톈쉬, 쉬징센, 왕수이전 등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회의를 거듭할 뿐이었다. 상하이 시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산당 중앙은 수전화(苏振华), 니즈푸(倪志福), 펑충(彭冲)을 비롯한 간부들을 상하이에 파견했다. 그리고 공산당 중앙은 14일 정식으로 사인방에 대한 체포 소식을 발표했다. 상하이의 사인방 지지 세력은 무장반란 준비를 이어갔지만, 공산당 간부들과 군중들에 의해 결국 좌절했다. 그리고 10월 27일 공산당 상하이시위원회는 대규모 당원대회를 개최, 장춘차오·야오원위안·왕훙원 등을 상하이의 일체 직무에서 배제하고, 새로 파견한 수전화, 니즈푸, 펑충을 상하이의 새로운 당정 간부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348]

권력승계 위기 상황에서, 화궈펑과 예젠잉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군사적 수단을 활용했다. 전면적인 군사 쿠데타로는 나아가지 않았다. 사인방 체포 이후에도 예젠잉은 군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던 예젠잉은 여러 차례 사인방에 대한 무력 사용을 권유 받았다. 그러나 예젠잉은 이를 거부했다. 이른바 '쥐를 잡으려다 그릇을 깰 수 있다'는 논리였다. 장칭을 잡으려다가 마오쩌둥까지 무너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산당 전체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었다. 예젠잉은 공산당의 통치 제도 근간을 무너트리고자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은 마오쩌둥 사후에도 마찬가지로 관철된 원칙이었다.

그리고 마오쩌둥 사후 공산당 의사결정 기구에서 4인방 숙청과 후계 문제를 다뤘다. 즉 군을 장악했다고 해서 권력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군은 공산당 중앙의 결정에 반발하는 세력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수단이다. 군이 적극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은 어렵지만, 공산당 지도부의 결단을 소극적으로 관철할 수 있다. 군은 중국 공산당의 의사결정을 관철하는 집행 기구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당·군 관계에서 군이 당의 입장을 관철하는 수단인 것이다.

예젠잉은 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제도를 중시했다. 4인방 문제를 '너가 죽고 내가 사는 투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인방 숙청 이후 혼란을 최소하기 위해선 공산당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봤다. 예젠잉은 이 같은 과정이 공산당 통치에서 좋은 모델로 남길 원했다. 비록 사인방 체포는 군사적 수단을 바탕으로 이뤄졌지만, 이후 공산당 정

[348] 程中原, 王玉祥,李正华. 『转折年代：1976-1981年的中国』, pp.9-12.

치국,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인방을 체포한 다음, 정치국 결정으로 사인방을 숙청하고, 이후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는 공식적 절차를 밟았다.[349]

(4) 화궈펑의 지도자 지위 확립

문혁 급진파가 제휴 그룹을 형성하지 않는 사이에, 화궈펑은 장칭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정치적 제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사인방 숙청에 나섰다. 화궈펑은 지배 연합에서 승리 연합을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지도자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단계가 남았다. 문제는 어떤 안건이 어떤 기구에서 의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정치국원이나 정치국 상무위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는 기구는 특정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는 중국공산당 당대회, 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이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가장 수가 적지만, 가장 막강한 의사결정기구이다. 반대로 당대회는 가장 수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앞서 열거한 의사 결정 기구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약하다.

당시 10기 공산당 당장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주석 · 부주석을 선출한다. 중앙위원회는 정치국에 의해 소집되도록 했다. 중앙위원회 폐회 중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영도에 따라 당 · 군 · 정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했다.[350] 화궈펑에게 도전한 장칭 등 4인방의 숙청과 화궈펑의 권력 승계 문제는 일상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어떤 안건을 어떤 기구에서 처리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인방 숙청을 정치국에서 의결하기로 한 데엔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당시 중앙위원회엔 조반파를 비롯해 4인방이 지원하는 세력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1973년 중국 공산당 제10차 당대회에서 4인방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을 지지하는 파벌을 중앙위원회에 밀어넣었던 것이다. 이 같은 조직 구성으로 인해, 화궈펑과 리셴넨은 중앙위

349 叶剑英传编写助. 『叶剑英传』, p.400.
350 中共中央党校党章研究课题组. 『中国共产党章程编介（从一大到十七大）』 (北京: 党建读物出版社, 2008), p.269.

원회 의결에 맡길 경우 4인방 숙청에 실패할 위험이 높다고 봤다.[351] 반면 정치국은 상황이 달랐다. 정치국원 다수가 4인방의 숙청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예젠잉과 리센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화궈펑은 리셴넨에게 도움을 부탁했고, 다시 리센넨은 예젠잉을 찾아가 사인방 숙청에 대한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이 정치국원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352]

사인방 체포에 대한 사후 추인은 10월 6일 저녁 정치국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정치국원과 정치국 후보위원들이 참석했다. 당시 화궈펑, 예젠잉, 리셴넨, 왕둥싱, 천시롄, 수전화, 우더, 지덩쿠이, 니지푸, 천잉구이, 우귀셴 등 11명이 모였다. 웨이궈칭 , 쉬스유 , 리더성 , 사이푸딘 등은 당시 베이징에 없어 회의에 불참했지만, 왕둥싱이 전화로 이들의 의사를 확인했다.[353]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화궈펑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중공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의결했다. 화궈펑을 예젠잉을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으로 선출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예젠잉은 이를 고사했다. 예젠잉은 화궈펑을 중앙위 주석, 국무원 총리,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제의했다. 정치국은 예젠잉의 의견을 통과했다. 화궈펑의 주석직 결정은 향후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인받기로 했다.[354]

집단지배에서 화궈펑은 지배 연합에 속한 정치 엘리트 다수의 지지를 얻어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었다. 전임자 마오쩌둥의 지배 연합과 별개로, 화궈펑은 자신의 지배 연합을 새롭게 구축했다. 화궈펑은 원로 간부와 문혁파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사인방은 원로 간부들은 물론 자신들과 이념을 같이 하는 문혁파와의 제휴에도 나서지 않았다. 마오쩌둥 사후 사인방은 문혁파로부터 분리되었던 것이다. 화궈펑은 지배 연합 다수로부터 새롭게 지지를 얻어냈다. 이처럼 집단지배에서 후계자는 전임자의 지배 연합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집단지배의 지배 연합은 전임자의 사망 이후 얼마든지 다시 분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화궈펑에 대한 지배 연합 다수의 지지가 이념적 선호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이다. 문혁 시기의 경험에 비추어, 사인방이 집권할 경우 원로 간부나 군 지휘부는 공산당 의사결정조직에서 물러나야 할 가능성이 높았다. 사인방과의 적대 관계가 상대적으로 화궈펑에

---

351 朱元石. 『吴德口述十年风雨纪事： 我在北京工作的一些经历』, pp.180-181.
352 李先念文集, p.518.
353 叶剑英传编写助. 『叶剑英传』, p.404.
354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 『叶剑英年谱』, p.1108.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355] 사인방 숙청 이후 화궈펑은 이들의 이념적, 조직적 선호에 부합하는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즉 화궈펑은 다시 지배 연합의 지지를 재조직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표 10] 사인방 축출 이후 공산당 정치국 구성(1976년 10월 7일)

	원로 간부	**문혁 수혜파**
정치국 상무 위원	예젠잉	화궈펑(제1부주석),
정치국 원	예젠잉, 웨이궈칭, 류보청, 쉬스유, 리셴넨(5명)	화궈펑, 리더셩, 지덩쿠이, 우더, 왕둥싱, 천융구이, 천시롄 (7명)
※ 참고: 10월 6일 중앙정치국, 왕훙원, 장춘차오, 장칭, 야오원위안 등 4인방 축출 결정		

※ 출처: 中共中央组织部, 中共中央党史研究室, 中央档案馆. 『中国共产党组织史资料』 第七卷 (上) (北京: 中共党出版社, 2000), pp.67-68. 이 자료의 명단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3. 독자적 지배 연합 형성의 실패

화궈펑은 전임자의 지배 연합에서 사인방을 축출함으로써, 일단 지도자 지위에 올랐다. 권력승계 과정을 여기까지로 본다면, 권력 승계에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권력승계를 후계자의 집권 유지까지 포함한다면 아직 넘어야 하는 고비가 남았다. 화궈펑은 권력 획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독자적 지배연합을 확대해야 했다. 화궈펑에 충성하는 인물들이 지배 연합에 충원될수록, 화궈펑의 권력은 보다 공고화할 수 있었다. 동시에 화궈펑은 자신과 다른 이념적, 조직적 선호를 갖고 있는 인물들을 지배연합에서 배제시켜야만 했다. 이를 통해 화궈펑은 공고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궈펑은 이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355] 聂荣臻传编写组. 『聂荣臻传 』, pp.395-398.

(1) 후계자의 이념적 보수성

화궈펑의 마오쩌둥 이념 고수는 '양개범시'로 나타났다. 대약진 운동부터 문화대혁명 시기까지 마오쩌둥의 이념은 여러 오류를 보였다. 그럼에도 화궈펑은 마오쩌둥 이념을 부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었다. 화궈펑의 양개범시론은 1977년 2월 7일 '문건을 잘 학습해 기본 줄기를 틀어쥐자'는 제목의 인민일보·홍기·해방군보의 공동 사설에서 공식화했다. '무릇 마오쩌둥이 결정한 정책이라면, 우리는 이를 지켜야 한다'와 '무릇 마오쩌둥이 지시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두 구절이었다. 양개범시(两个凡是), 즉 두 가지가 모두 옳다는 것이다. 마오쩌둥의 정책과 지시는 그의 사후에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사설은 사인방에 대한 투쟁을 진행하고, 나아가 마오쩌둥의 사상과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56]

이 사설은 리신이 기획하고, 왕둥싱이 승인한 후, 화궈펑이 비준한 것이었다. 왕둥싱과 리신은 사인방 체포 당시 원로 간부들과 함께 화궈펑의 집권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양개범시를 두고 공산당 중앙 간부들 간에 다시 이념적 분열이 나타난 것이다. 문혁 수혜 세력과 공산당 원로 간부 세력의 대립이었다. 화궈펑을 지지하는 정치적 제휴가 이념에 따라 분열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적 분화는 공산당 중앙의 조직 개편에 대한 전조로 볼 수 있었다.

화궈펑이 생존하기 위해선 공산당 중앙 간부들을 자신의 이념을 기준으로 나누고, 자신의 이념과 부합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했다. 그러나 화궈펑은 자신의 자신의 양개범시론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이념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축출에는 소극적이었다. 예젠잉, 네룽전 등 원로 간부들은 화궈펑의 양개범시론에 부정적이었음에도, 화궈펑이 집권할 수 있었던 제휴 세력이었다. 이들을 축출하고자 시도한다면, 혁명 원로들의 집단적인 지지 이탈을 가져올 수 있었다. 화궈펑은 공산당 중앙 조직 재편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이념을 공산당 중앙의 정치 엘리트 다수의 이념적 선호에 맞추고자 하지도 않았다.

화궈펑은 후계자로 낙점 받았지만, 그것만으로 공고한 권력을 얻게

356 社论, 「学好文件抓住纲」, 『人民日报』, 1977.2.7.

된 것은 아니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 내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즉 화궈펑은 집단지배라는 권력 구조에서 지배 연합 다수의 지지가 필요했다.

(2) 이념과 조직 문제의 대두

이념의 분화는 정치 엘리트들의 정치적 제휴에 따른 파벌 형성으로 이어졌다.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공식적 후계자였다. 그러나 화궈펑의 지도자 지위가 인정을 받은 건 정치국 회의에서였다. 다시 말해, 화궈펑은 집단지배 권력 구조에서 지도자 지위에 올랐다. 그의 권력은 정치 엘리트들과의 제휴에 기반한 것이며, 정치적 생존은 어디까지나 정치 엘리트 다수의 지지에 있었다. 마오쩌둥의 공식적 후계자로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집권 이후 정치적 생존은 다른 문제였다.

집단지배에서 지도자는 정치 엘리트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 결국 선정인단에 대한 문제로 돌아간다. 선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지도자에게 유리하게 선정인단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 생존 전략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다수가 선호할 수 있는 이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념의 제시는 물론 조직적 선호와도 결부된다. 둘째는 지도자가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길 원한다면, 공산당 중앙 조직에서 자신의 이념과 맞지 않은 선정인을 축출하고 자신의 이념을 지지하는 선정인을 새롭게 충원해야 한다.

화궈펑은 이념적 차원에서 마오쩌둥이 지명한 후계자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후계자로서 그의 정당성은 마오쩌둥에게서 나왔다. 지배 연합 다수가 마오쩌둥의 이념이나 조직 정책을 반대하더라도 화궈펑은 마오쩌둥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 마오쩌둥의 이념과 조직 정책에 대한 평가에선 화궈펑과 문혁 수혜자들은 원로 간부들과 다른 이념적 선호를 보였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특정한 이념에 대한 강한 응집성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의 문혁 이념에 대한 평가에선 상대적 차이를 가졌다. 이러한 차이는 사인방에 대항해 원로 간부와 문혁 수혜자 간 연합을 이룰 때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인방 체포 이후 이 두 세력 사이에 이념적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문화대혁명 이념 투쟁 과정에서 숙청된 원로 간부들에 대한 복권 문제와 결부되었다. 문혁 시기 원로 간부들은 자본주의를 따르는 주

자파, 수정주의자로 몰려 실각한 바 있었다. 이들이 다시 당 중앙에 복귀하기 위해선 먼저 이념적 문제가 해소되어야 했다. 덩샤오핑은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1976년 톈안먼 사건으로 당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그가 다시 당에 복귀하기 위해선 수정주의라는 이념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했다. 문혁 수혜 세력은 덩샤오핑의 이념적 오류를 문제 삼았다.

문혁 수혜 세력인 왕둥싱은 1976년 11월 18일 전국 선전공작회의에서 덩샤오핑의 이념적 문제를 거론했다. 당 선전부의 방침을 지시하는 자리였다. 왕둥싱은 사인방이 덩샤오핑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덩샤오핑의 이념적 오류를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덩샤오핑을 비판한 일은 옳았다"면서, "덩은 오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덩샤오핑은 화궈펑에 비하면 한참 멀었으며, 문화대혁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357] 사인방 체포를 덩샤오핑 복권과 연결시키려는 원로 간부들의 시도를 차단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로 간부들은 일제히 덩샤오핑의 복권을 주장했다. 1977년 1월 6일 예젠잉, 천윈, 리셴넨, 쉬샹첸, 네룽전, 왕전, 쉬스유 등 원로들은 덩샤오핑의 복권 건의서를 화궈펑에 제출했다.[358]

결국 공산당 중앙 조직 문제는 다시 마오쩌둥 사상과 문화대혁명을 둘러싼 이념 논쟁에서 출발했다. 예젠잉은 4인방 숙청 이후 화궈펑과는 다른 이념을 보였다. 예젠잉은 문혁 당시 사인방으로 줄기차게 수정주의자라는 공격을 받았던 인물이면서, 공산당 원로 간부였다. 그는 이념적으로 덩샤오핑을 비롯한 원로 간부들과 유사한 반면, 문혁 세력과는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예젠잉은 톈안먼 사건으로 실각한 덩샤오핑을 각별히 대했다. 예젠잉은 1976년 12월 10일 공산당 선전부장 겅뱌오(耿飚)에게 1975년 톈안먼 사건에서 4인방이 당 중앙과 마오쩌둥 주석을 속였다는 증거 자료를 보내기도 했다. 이는 덩샤오핑의 복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359]

---

[357] 汪东兴. 「汪东兴在全国宣传工作会议上的讲话 (1976.11.18)」, 宋永毅, 『中国文化大革命文库』 (香港: 香港中文大学, 2002).
[358] 程中原. 「邓小平第三次复出经过」, 『百年潮』, 第5期, 2009.
[359] 叶剑英传编写助. 『叶剑英传』, pp.407-408.

(3) 이념에 따른 지배 연합 분화

사실 화궈펑의 '양개범시'는 단순히 이념 논쟁에 불과하지 않았다. 조직 문제를 결정 짓는 기준이었다. 화궈펑의 양개범시론은 마오쩌둥에 의해 축출된 원로 간부들의 복권을 막는 논리였다. 마오쩌둥이 했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양개범시론에 따른다면, 마오쩌둥의 결정으로 물러났던 원로 간부들은 다시 공산당 중앙 조직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반대로 마오쩌둥의 결정에 오류를 인정한다면, 문화대혁명 시기 원로 간부를 축출한 마오쩌둥의 결정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었다. 특히 덩샤오핑은 1975년 마오쩌둥의 결정에 따라 다시 공산당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바 있었다. 양개범시 논리에 따른다면, 덩샤오핑도 복권할 수 없었다.

이는 덩샤오핑과 원로 간부들이 화궈펑의 '양개범시'론에 대한 이념적 공격을 가하게 된 배경이었다. 양개범시라는 이념을 공격한다는 것은 마오쩌둥에 의해 물러난 덩샤오핑과 원로 간부들이 다시 복권해야 함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리고 원로 간부들의 복권은 공산당 중앙 조직의 개편을 가져올 수 있었다. 화궈펑 입장에선 자신이 지도자로 선출된 선정인단의 구성의 재편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양개범시, 혹은 마오쩌둥 사상의 해석을 둘러싼 이념, 노선 투쟁은 조직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었다. 특히 그 정점에는 덩샤오핑이 있었다. 덩샤오핑의 이념은 마오쩌둥의 좌경 이념에 대한 대안이면서, 혁명 원로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마오쩌둥의 이념과 덩샤오핑의 복권 문제를 둘러싸고, 화궈펑의 문혁 수혜 세력과 원로 간부들 사이에 논쟁이 이어졌다. 1977년 1월 정치국 회의에서 화궈펑은 "덩샤오핑을 복권시킬 경우 마오쩌둥의 유지를 계승한 것이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마오쩌둥의 결정이었으니 번복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화궈펑은 덩샤오핑의 복직 문제에 대해, "오이가 익으면 꼭지가 떨어지며, 물이 흐르면 자연히 개천을 이룬다"(瓜熟蒂落，水到渠成)라고 말했다. 덩샤오핑의 복권을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젠잉은 화궈펑의 발언을 일단 수긍하면서도, 덩샤오핑의 복권에 대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덩샤오핑 동지는 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다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차를 급하게 꺾으면 차가 전복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젠잉은 덩샤오핑이

가족과 함께 베이징으로 돌아오도록 조치했다.[360] 이는 덩샤오핑의 복권을 준비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3월 중앙공작회의에서 마오쩌둥의 이념과 덩샤오핑의 복권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문혁 수혜 세력과 원로 간부 간에는 이념적 차이가 분명해졌다. 원로 간부인 예젠잉은 1975년 톈안먼 사건은 억울한 모함으로 명예회복이 필요하며, 덩샤오핑 동지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에 평가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궈펑은 예젠잉의 의견을 겉으로 받아드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젠잉의 의견을 거부했다. 화궈펑은 회의 시작 후 장시간의 발언에서 마오쩌둥 사상에 대한 완고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양개범시를 지도사상으로 재차 강조하면서, 계급투쟁을 줄기로 삼으며, 무산계급 독재 정권 아래 계속 혁명 이론을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361] 마오쩌둥이 과거 결정을 모두 유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톈안먼 사건의 명예 회복과 덩샤오핑의 복권을 모두 거부한 것이었다.

원로 간부들은 소조 회의에서 화궈펑의 입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덩샤오핑의 복직을 주장했다. 천윈은 톈안먼 사건은 군중들이 단지 저우언라이 총리를 추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며, 덩샤오핑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362] 왕전 역시 톈안먼 사건은 군중들이 사인방의 전횡에 대항한 일이라며 명예 회복을 요구했다. 또 덩샤오핑은 얻기 어려운 인재로 그의 정치사상은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발언은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상당한 공감을 일으켰다. 마오쩌둥의 결정한 일을 모두 수호해야 한다는 화궈펑의 주장은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궈펑은 회의에서 마오쩌둥의 결정을 다시 강조했다. 덩샤오핑은 성과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마오쩌둥이 이미 그의 성과와 오류에 대한 평가를 끝냈다고 했다. 마오쩌둥은 이 평가에 따라 덩샤오핑을 직책에서 물러나도록 결정했다고 했다.[363] 결국 회의는 화궈펑의 결정에 따라 덩샤오핑의 복직, 톈안먼 사건의 명예 회복은 이뤄

---

360 程中原. 「邓小平第三次复出经过」.
361 李安增. 『1976-1982年中国当代史』, pp.48-49.
362 陈云. 「粉碎“四人帮”后面临的两件大事 (一九七七年三月十三日)」, 『陈云文选』 第三券 (北京: 人民出版社, 1995).
363 李安增. 『1976-1982年中国当代史』, p.50; 程中原. 「邓小平第三次复出经过」; 金冲及, 陈群, 曹应旺. 『陈云传』 第四券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2015), p.1449.

지지 않았다. 다만 화궈펑의 이념이 원로 간부들의 이념적 선호와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적 노선의 차이는 조직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다.

결국 덩샤오핑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함으로써 복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마오쩌둥의 결정이 옳았음을 전제하면서, 1977년 4월 10일 덩샤오핑은 개인 당원 신분으로 화궈펑, 예젠잉을 비롯한 공산당 중앙에 편지를 썼다. 그는 "정확하고 완전한 마오쩌둥 사상을 통해 전당, 전군, 전체 인민을 지도해, 사회주의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덩샤오핑은 편지에서 "내 업무와 관련해, 언제라도 무슨 일이든 시작할 수 있다"면서, "당 중앙이 고려해 처분한 결정을 모두 따르겠다"고 전했다. [364]

덩샤오핑은 화궈펑의 양개범시를 비판하면서도, 화궈펑의 주석직 승계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덩샤오핑은 서신에서 "이 편지를 작년 10월 10일에 보낸 편지와 함께 당 내에 배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덩샤오핑이 1976년 10월 10일 화궈펑에게 보낸 편지는 사인방 체포를 당과 마오쩌둥 사상의 승리라고 축하하면서, 화궈펑의 당 중앙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주석 임명 결정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365] 화궈펑은 덩샤오핑의 요청에 따라 편지를 정치국 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했다.

화궈펑은 원로 간부들의 압박에 덩샤오핑 복귀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자신의 이념을 훼손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왕둥싱과 리신을 덩샤오핑에 보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톈안먼 사건을 반혁명으로 규정한 마오쩌둥의 결정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양개범시론에 따르면, 톈안먼 사건은 마오쩌둥의 결정에 따라 반혁명 사건으로 규정되었고, 이는 번복될 수 없는 것이었다. 왕둥싱은 덩샤오핑에게 종이를 내밀며 '톈안먼 사건은 반혁명 사건이다'라는 글을 쓰도록 요구했다. 덩샤오핑은 왕둥싱의 요구에 "내가 나가고 안 나가고는 아무렇지도 않다. 단, 톈안먼 사건은 혁명 행동이었다"라며 거절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만년의 좌경 이념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으면서도, 마오쩌둥 이념에 대한 해석 문제를 제기했다. 또 화궈펑의 양개범시 주장을 비판하면서도, 화궈펑의 지위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덩샤오핑이 서신에서 밝힌 생각에 대해, 원로 간부인 예젠잉과

---

[364] 冷溶, 汪作玲. 『邓小平年谱 1975-1997』 上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2004), p.157.
[365] Ibid., p.152.

리셴넨은 지지를 밝혔다. 그리고 공산당 내에선 덩샤오핑의 복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덩샤오핑의 직무 복귀에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366] 리셴넨과 예젠잉은 화궈펑을 지도자 지위에 오르게 할 수 있었던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다. 화궈펑은 덩샤오핑의 복귀를 위협이라고 보았음에도, 이 두 원로 간부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덩샤오핑의 양개범시에 대한 비판은 5월 24일 왕전, 덩리췬 등 공산당 중앙 간부들과의 담화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덩샤오핑은 "양개범시는 안된다"면서 "양개범시에 입각하면, 내가 복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양개범시는 마르크스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은 일찍이 자신의 말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일을 하다보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마오쩌둥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도 모두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367] 화궈펑이 마오쩌둥의 이념아 모두 옳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마오쩌둥 이념을 왜곡하는 일이라는 비판이었다. 이념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념을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덩샤오핑의 생각이었다.

예젠잉, 리셴넨 등 공산당 간부들은 덩샤오핑의 복권을 화궈펑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1977년 10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 복권이 결의되었다. 화궈펑이 처음으로 주관한 전원회의였다. 전원회의는 네 개 사항을 통과시켰다. 첫째, 화궈펑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취임을 추인한다. 둘째, 덩샤오핑은 공산당 중위위원,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중위위원회 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국무원 부총리,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직책에 임명한다. 셋째, 왕훙원, 장춘차오, 장칭, 야오원위안을 영원히 출당, 철직하고 당내외 일체 직무에서 배제한다. 넷째, 11기 당대회를 개최한다. 이 같은 전원회의에 결의에 따라 덩샤오핑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368]

화궈펑이 지도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덩샤오핑이 당내 2인자로 복귀했다. 그리고 공산당 노선을 둘러싼 이념 투쟁은 보다 본격화했다. 덩샤오핑의 복귀를 결의한 전원회의 폐막식에서 덩샤오핑은 다시 한번 실사구시 이념을 강조했다. 양개범시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사상에 대한 완전히 정확한 이해'라는 글을 발표를 했

366 李安增. 『1976-1982年中国当代史』, p.51.
367 邓小平. 『邓小平文选』 第二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4), pp.38-39.
368 李安增. 『1976-1982年中国当代史』, pp.54-55.

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사상의 기본으로 실사구시를 강조했다. “마오쩌둥은 실사구시에 따라 당의 이념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군중의 의견에 특히 주의했다. 10여년 이상 사인방은 허위 주장을 하면서 공산당을 파괴했는데, 공산당의 기풍을 회복하기 위해선 실사구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했다.[369] 화궈펑의 양개범시론과 달리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이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오히려 마오쩌둥의 생각과 반대라고 했다. 그는 군중의 의견과 정치 상황에 따라 이념은 창조적으로 변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 11] 덩샤오핑 복귀 이후 정치국 구성(1977년 7월)

	원로 간부	문혁 수혜파
정치국 상무위원	예젠잉(부주석), 덩샤오핑(부주석)	화궈펑(주석)
정치국원	예젠잉, 덩샤오핑, 웨이궈칭, 리셴넨, 류보청, 쉬스유(6명)	화궈펑, 왕둥싱, 리더셩, 지덩쿠이, 우더, 천융구이, 천시롄(7명)

※ 출처: 中共中央组织部, 中共中央党史研究室, 中央档案馆. 『中国共产党组织史资料』 第七卷 (上) (北京: 中共党出版社, 2000), pp.67-68. 이 자료의 명단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덩샤오핑의 복귀로, 양개범시와 실사구시론의 대립은 당 내 노선 투쟁으로 발전했다. 1977년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11기 1중전회에서 화궈펑과 덩샤오핑은 이념적 대립을 보였다. 공산당 대표 1510명이 참석한 회의였다. 화궈펑은 정치보고에서 마오쩌둥 만년의 좌경 이념으로의 회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그는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이념을 긍정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문화대혁명 기간 10차 당대회의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은 정확했다. 둘째, 문화대혁명에 따라 무산계급의 독재를 실현하고, 자본가 계급의 부활을 막았다. 셋째, 무산계급 독재 아래 계속 혁명 이론은 마르크스 사상의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넷째, 계급투쟁을 줄기로 삼아야 하며, 사회주의 단계의 시작과 끝은 무산계급과

[369] 邓小平. 『邓小平文选 』 第二卷, pp.42-47.

자산계급의 계급투쟁이다. 다섯째,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이 공산당 내에 반영되어, 자본주의를 쫓는 당권파가 형성되었다.

화궈펑의 정치보고는 마오쩌둥 만년의 이념적 오류를 긍정한 것이었다. 양개범시론의 논리를 다시 확인한 것이기도 했다. 덩샤오핑은 당대회 폐막식에서 "마오쩌둥의 실사구시, 군중노선을 복원해야 한다"면서 양개범시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회에선 화궈펑의 양개범시가 승리를 거둔 듯했다. 문화대혁명의 좌경 오류를 인정하는 결의는 통과되지 못했다. 공산당 조직은 여전히 문화대혁명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었다. 화궈펑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산당 간부 조직 차원의 문제였다. 공산당 내에선 왕둥싱과 같은 문혁 수혜 세력들이 남아 있었다. 화궈펑은 문혁 수혜 세력들을 입장을 대변한 것이기도 했다. 화궈펑의 정치보고가 통과되고, 문화대혁명의 좌경 오류를 바로잡는 결의가 없었다는 점은 조직적 차원에서의 권력 관계를 반영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370]

11차 당대회 결과는 문화대혁명의 성과를 긍정한 것으로, 덩샤오핑의 이념과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이념이 원로 간부들을 중심으로 점차 지지를 얻어갔다. 마오쩌둥 서거 1주기를 맞아 예젠잉, 천윈, 네룽전, 쉬샹첸 등 추모 기고문을 잇따라 게재했다. 이들은 마오쩌둥 이론은 실제와 연결되며, 모두 실제에서 비롯되는데, 실사구시는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했다.[371] 이같은 주장은 마오쩌둥 사상도 현실과 실천의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마오쩌둥의 지시와 결정이 모두 맞다는 양개범시론은 맞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화궈펑에 대한 우회적 비판인 셈이다. 동시에 덩샤오핑의 이념에 대한 지지였다.

네룽전이 1977년 9월 5일 인민일보에 발표한 기고문도 실사구시를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실사구시의 회복이라고 했다. 마오쩌둥 주석은 공산당에서 '실사구시'의 기풍을 만들었고, 실사구시는 군중노선과 민주집중제의 바탕이라고 했다. 따라서 실사구시는 마오쩌둥 사상 체제계의 본질적 문제라고 했다. 이어 네룽전은 마오쩌둥의 '모순론'이 우리 머리 속의 관념의 세계를 설명했다면, '실천론'은 실사구시에 대한 강조였다고 설명했다. 주관적 관념은 반드시 실사구시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와 부합하는지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사구시

370 李安增. 『1976-1982年中国当代史』, pp.54-57.
371 程中原, 王玉祥, 李正华. 『转折年代：1976-1981年的中国』, p.33.

는 마르크스와 마오쩌둥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식이며, 이에 대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했다. 실사구시를 견지함으로써, 공허하거나 거짓된 주장을 반대해야 한다고 적시했다.[372]

원로 간부인 천윈도 양개범시에 대한 이념적 비판에 가세했다. 천윈은 1977년 9월 인민일보 기고에서 실사구시가 공산당 사상 노선에서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실사구시는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노선의 근본이라고도 했다. 특히 천윈은 사인방의 극단적 이념 노선과 대비, 실사구시 이념을 제시했다. 사인방을 주관주의, 관념주의를 내세우는 극단적 반동으로 규정했다. 사인방의 주관주의는 그 악영향이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윈은 실사구시를 통해 현실의 구체적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373]

천윈을 비롯한 공산당 원로 간부들은 사인방의 이념과 노선을 비판했다. 실사구시론은 화궈펑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인방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이념을 추종했다. 화궈펑 역시 문화대혁명 시기 마오쩌둥에 의해 발탁되었다. 마오쩌둥은 덩샤오핑이 아닌 화궈펑이 자신의 이념을 충실하게 계승할 것으로 봤다. 이념적인 면에서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화궈펑은 자유롭지 못했다. 화궈펑은 어디까지나 사인방의 권력 탈취 시도를 공격했을 뿐이며, 사인방이 추종한 마오쩌둥 만년의 좌경 노선과 문화대혁명을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화궈펑이 부딪힌 정치적 딜레마였다.

(4) 덩샤오핑 이념의 지지 확대

애초 원로 간부들은 화궈펑과 연합해 사인방의 도전을 물리쳤다. 그러나 마오쩌둥 이념의 계승 문제를 놓고 화궈펑과 이견을 보였다.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좌경 이념을 추종한 사인방을 축출했으면서도, 마오쩌둥의 좌경 이념을 계승했다. 여기서 화궈펑과 원로 간부 사이에 이념적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로 간부들은 화궈펑의 양개범시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마오쩌둥 만년의 좌경노선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사실 사인방은 마오쩌둥의 좌경 노선을 추종했던 정치 파벌이었다. 반면 원로 간부들은 덩샤오핑이 내세우는 실사구시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

[372] 聶荣臻. 「恢复和发展党的优良作风」, 『人民日报』, 1977.9.5.
[373] 陈云. 「坚持实事求是是的革命作风」, 『人民日报』, 1977.9.28.

덩샤오핑의 실사구시론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공산당 지도부 내에서 1975년 덩샤오핑의 '정돈'이 실질적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1977년 3월 10일부터 22일까지 중앙위원회 회 중앙공작회의에서 나타났다. 이 회의는 사인방 체포 이후 처음 열린 중앙공작회의였다. 이 회의에선 중국의 경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평가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특히 '1977년 국민경제 계획과 관련 몇 가지 보고'에 관한 토론 중, 1975년 '정돈'에 대한 재평가 이뤄졌다. 그 핵심은 덩샤오핑의 정돈이 극적인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는 것이었다.

정돈이 실시되기 직전인 1974년 중국 경제는 침체를 면치 못했다. 사인방의 '비림비공' 이념 공격 등 이념적 공격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그런데 1975년 3월부터 경제상황이 매우 빠르게 개선되었다. 덩샤오핑이 복권해 '정돈'이라고 불리는 경제 개혁 정책을 펴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당시 사인방은 정돈의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의 노선에 반대하며 자본주의를 따르는 길이라는 이념적 공격을 가한 바 있었다. 결국 덩샤오핑은 1976년 톈안먼 사건으로 공산당의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374]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 만년의 좌경 노선으로 인한 경제 쇠퇴를 덩샤오핑이 회복시켰다는 성과는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덩샤오핑은 1975년 정돈 당시 당 중앙 업무를 주도하면서, 지도 방침으로 세 가지를 내세운 바 있다. 마오쩌둥의 무산계급 정권 이론을 학습하고, 안정과 단결을 꾀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덩샤오핑은 사실상 경제 문제를 가장 강조한 것이었다. 이러한 덩샤오핑의 이념은 국무원 중앙정책연구실이 기초한 '전당의 전국 업무 총강을 논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정치적 성과는 경제 수준의 개선을 통해 평가될 수 있다는 게 요지이다. 마르크스·레닌, 마오쩌둥 모두 인민의 생산력 발전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정책의 실천에 따른 성과를 측정했다고 했다.[375]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말을 빌려, 결국 경제 발전, 생산력 향상을 강조했다. 그리고 덩샤오핑의 이 같은 생각이 정돈의 경제적 성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덩샤오핑의 이념은 다른 원로 간부들의 생각과도 같았다. 사인방 숙

---

[374] 黄一兵. 「一九七七年中央工作会议研究」,『中共党史研究』, 第2期, 2010.
[375] 朱佳木. 『我所知道的十一届三中全会』 (北京: 当代中国出版社, 2008),pp.17-18.

청 이후인 1976년 10월 16일 리센넨은 천윈에게 전화를 걸어 이후 국가의 업무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천윈은 생산을 틀어쥐어야 하며, 국민경제의 회복과 발전이 급선무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업을 원로 간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덩샤오핑, 천윈 등 원로 간부들의 생각은 일치했다. 문화대혁명 시기의 정치 사상 운동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발전을 강조한 덩샤오핑의 이념은 원로 간부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사후 복권하기 시작한 원로 간부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1977년 3월 공작회의에 왕전은 덩샤오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마오쩌둥 주석과 저우언라이 총리 모두 덩샤오핑의 정치사상은 강력하며, 그는 얻기 어려운 인재라고 말한 바 있다. 1975년 덩샤오핑이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의 업무를 주관할 때,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376] 왕전 역시 덩샤오핑이 이룬 경제적 성과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덩샤오핑의 생산력 발전, 경제 회복을 위한 이념은 공산당 고위 간부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던 것이다. 중국 경제는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고질적인 경제 침체를 겪었고, 중국 공산당 정치엘리트들 역시 경제 개혁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덩샤오핑은 그 구심점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반대로 화궈펑은 온건한 개혁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경제 개혁에 정치적 제휴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갖고 있었다.[377]

결국 덩샤오핑의 이념은 그 성과로 인해 정치 엘리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념의 피드백 과정이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덩샤오핑은 1975년 정돈 과정에서 경제적 성과를 보여줬고, 그의 이념이 다시 부활할 수 있었다. 반대로 화궈펑은 실패로 끝난 마오쩌둥 만년의 이념을 계승했고, 자신의 이념에 대한 지지를 얻기 어려웠다. 그의 이념은 왕둥싱을 비롯한 문혁 수혜 세력에서 일부 지지를 얻었다. 이념의 성과는 정치 엘리트의 지지를 확대할 수 있고, 집단지도 제도에서 지도자와 도전자의 권력 투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5) 원로 간부의 복권(平反) 문제

---

376 李安增. 『1976-1982年中国当代史』, p.49.

377 Harry Harding, *China's Second Revolution : Reform after Mao*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7). pp.38-39.

덩샤오핑의 실사구시론이 원로 간부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얻었다. 그 결과 덩샤오핑은 1977년 7월 10기 3중전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국무원 부총리에 복귀했다. 그러나 화궈펑을 지도자로 결정한 선정인단의 구성에 결정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는 8월 11차 당대회에서 문화대혁명의 좌경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벌어진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문혁 이념을 지지하는 정치 엘리트들이 공산당 간부로 편입했던 결과였다. 비록 사인방은 축출되었지만, 문화대혁명의 조직적 여파는 남아 있었다. 반면 문화대혁명 시기 물러나야 했던 원로 간부들은 아직 공산당 지도 조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야오방은 이념과 조직 차원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 공산당은 대규모 조직 개편이 벌어졌다. 기존 원로 간부들은 당 간부 직위에서 물러났고, 그 자리를 문혁 이념을 추종하는 간부들이 채웠다. 문혁 수혜 그룹의 부상이었다. 이러한 당 조직 변화는 선정인단 구성의 변화를 초래했다. 그런데 린뱌오의 쿠데타 음모가 발각된 '9·13 사건' 이후 원로 간부 간부들을 다시 복귀시켰다. 화궈펑의 권력승계는 문혁수혜 세력과 복귀한 원로 간부 사이의 균형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화궈펑의 권력은 이러한 균형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었고, 반대로 무너질 수도 있었다.

원로 간부들의 복귀는 화궈펑을 뒷받침하는 선정인단의 균형을 무너트릴 수 있는 문제였다.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조직 분야를 책임진 왕둥싱은 원로 간부들의 복귀에 소극적 모습을 보였다. 왕둥싱은 문혁 수혜 세력에 속했다. 그의 이 같은 입장은 공산당 조직부장이었던 궈위펑(郭玉峰)을 두고 드러났다. 궈위펑은 문혁 초기 사인방에서 속한 캉셩에 의해 조직부로 발탁된 인물이다. 궈위펑은 조직부의 책임자로 시작해, 조직부 핵심영도소조 조장, 조직부장이 되었다. 궈위펑의 부상은 캉성의 영향력 때문에 가능했다. 캉성은 공산당 중앙 조직선전소조의 주요 책임자였다. 궈위펑은 문화대혁명의 추종 세력이면서, 수혜자였던 셈이다. 궈위펑은 문혁 시기 사인방에 의해 축출된 간부들의 복원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이같은 성향은 사인방 체포 이후 분명하게 드러났다. 사인방 체포 이후 중국 각지에서 문혁 시기 사인방에 탄압을 받았던 많은 간부들, 혹은 유가족들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궈위펑은 이들의 재조사 요구를 묵살했다. 이는 조직부 내에서의 반발을 불러왔다.

조직부 간부들 역시 문혁 시기 멸시와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위안런위안(袁任远), 장처(张策), 양스제(杨士杰)를 중심으로 조직부 중앙과 지부 간부들이 궈위펑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중앙조직부 건물에 궈위펑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378]

이러한 상황은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보도되면서 궈위펑의 거취가 공산당의 조직 문제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중앙조직부 내 궈위펑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민일보 편집장 후지웨이(胡绩伟)와 부편집장 안강(安岗)은 대자보의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궈위펑에 대한 반발을 주도하고 있던 조직부 간부들의 검토를 거쳐 완성되었다. 후지웨이는 보고서를 예젠잉과 선전부를 책임지고 있던 경뱌오(耿飚)에 전달되었다. 궈위펑의 퇴진 문제는 당 조직을 둘러싼 갈등으로 부상했다.

문혁 수혜 세력이면서 당시 부주석이었던 왕둥싱은 간부 복권 문제나 궈위펑의 퇴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귀위펑 퇴진을 요구하는 조직부 간부들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면담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문혁 피해 간부들에 대한 처우만을 지적했을 뿐, 이들의 복권이나 궈위펑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왕둥싱의 이 같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조직부와 원로 간부들의 요구를 묵과할 수만은 없었다. 결국 1977년 12월 초 궈위펑은 조직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12월 10일 당교 부교장 후야오방이 조직부장을 겸하도록 했다.

후야오방의 조직부장 취임은 원로 간부들의 적극적인 추천에 따른 조치였다. 1977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화궈펑, 예젠잉, 덩샤오핑, 리셴넨, 왕둥싱 등은 수차례 회의를 갖고, 조직부 문제를 논의했다. 예젠잉은 복권을 요구하는 간부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간부 복권을 담당할 사람을 물었다. 이에 덩샤오핑이 후야오방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했고, 예젠잉과 리셴넨이 찬성했다. 사실 덩샤오핑은 복권하기 전인 1977년 3월 14일 후야오방에게 사인방 체포 이후 간부들의 복권에 관한 의견을 나눈 바 있었다.[379] 후야오방의 조직부장 취임은 원로 간부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범시파는 조직을 담당하는 한 축을 잃게 되었다. 후야오방의 회고에 따르면, 여론(선전)은 왕둥싱·리신·우더가, 인사(조직)는 왕둥싱·지덩귀

---

[378] 戴煌. 『胡耀邦与平反冤假错案』 (北京: 三联书店, 2013), pp.35-37.
[379] 张黎群, 张定,严如平. 『胡耀邦传(1915~ 1989)』 第二卷 (北京: 北京联合出版公司, 2005), pp.482-483.

와 궈위펑이 담당하고 있었다.[380] 하지만 후야오방의 조직부장 취임으로 간부 복권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없다. 간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선 이념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했다. 후야오방은 문혁 피해 간부들의 복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간부 복권이라는 조직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념적 난관을 극복해야 했다. 문혁은 마오쩌둥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간부 복권은 마오쩌둥의 문혁 이념을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였다. 더욱이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어떤 것도 옳다는 양개범시론을 주장했다. 후야오방이 간부 복권이라는 조직 문제를 풀기 위해선 양개범시론이라는 이념을 무너트려야만 했다. 양개범시론은 마오쩌둥의 오류를 논할 수 없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문혁 10년 동안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381]

후야오방은 범시파와의 이념 투쟁을 주도했다. 그는 당교 부교장으로 취임하면서 당교에서 내부 소책자 형태로 간행했던 '이론동태'를 복간했다. 이 간행물에 1978년 5월 10일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왔다. 그리고 다음날 11일 광명일보에 같은 글이 게제 되었고, 연이어 12일 인민일보와 해방군보에 실렸다. 이 글은 양개범시를 비판하면서, 진리 검증 기준 대토론을 불러온 도화선으로 불린다.[382] 진리검증대토론은 마오쩌둥의 오류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문혁 시기 간부 정책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념적 논리를 제공했다.

이러한 이념적 문제 제기는 이른바 실천파와 범시파의 이념 대립으

---

[380] 戴煌. 『胡耀邦与平反冤假错案』, pp.41-43.

[381] 沈宝祥. 「胡耀邦发动和推进真理标准问题讨论纪实（上)」, 『同舟共进』, 第4期, 2008.

[382] 程中原, 王玉祥,李正华. 『转折年代：1976-1981年的中国』,pp.88-91. 1977년 광명일보의 편집자가 난징에서 토론회에서 난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후푸밍(胡福明)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편집자가 후푸밍에서 광명일보 철학 전문지에 기고문을 부탁했고, 두달 후 후푸밍 교수가 두 편의 글을 기고했다. 그 중 하나인 실천은 진리 검증의 표준이다'라는 글이 채택되었다. 이후 1978년 4월 후야오방은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주제로 글을 작성하기로 결정했고, 그 초고를 당교의 순창장(孙长江)이 작성했다. 그런데 1978년 4월 광명일보 편집장 양시광(杨西光)이 후푸밍의 원고를 검토하면서 이 글의 중요성을 인식해 철학 전문지에서 빼내 광명일보 제1면에 게재하고자 했다. 다만 후푸밍의 원고 분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교 이론연구실로 하여금 원고 수정을 돕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교의 순창장은 후푸밍의 원고와 자신의 초고를 합쳐서 다시 원고를 작성했고, 우장의 수정을 고쳐서, 후야오방의 검토를 받았다. 沈宝祥. 「胡耀邦发动和推进真理标准问题讨论纪实（上)」.

로 이어졌다. 이론동태의 글은 광명일보, 해방군보, 인민일보를 거치면서, 범시파의 이념에 대항하는 강력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범시파이자 선전을 담당한 부주석 왕둥싱은 5월 17일 비판을 가했다. 그는 "실천은 진리 검증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글은 이론적으로 황당하며, 사상적으로 반동이며, 정치적으로는 마오쩌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당 중앙의 의견인가?"라며 "인민일보는 당성을 가져야 하며, 당 중앙선전부가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5월 18일 왕둥싱은 선전부와 잡지 '홍기'의 책임들을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왕둥싱은 인민일보를 비판하면서, 선전부의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383]

6월 15일엔 중앙선전부와 신화사, 인민일보, 광명일보, 홍기 등 직속 언론 매체 책임자와 담화를 가졌다. 왕둥싱은 '실천은 진리 검증의 유일한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했다. 그는 "선전부는 당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개인의 개성은 당성(黨性)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대혁명 시기 공격을 받았다고 문화대혁명이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말한 수 없다"며 "가장 나쁜 일은 창 끝이 마오쩌둥 주석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7월엔 왕둥싱은 산둥성을 시찰하면서, 사인방 체포 이후 신문 지상에 문화대혁명에 대한 선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선전부장 장핑화(张平华) 역시 왕둥싱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덩샤오핑은 장핑화에게실천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주장에 동조해줄 것을 부탁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장핑화는 덩샤오핑의 요청과는 전혀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중국 동북 지역 강연에서 실천 하나만으로 진리를 따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마오쩌둥의 실천론을 언급하면서, 진리는 실천-인식-실천으로 이어지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후야오방의 실천론이 사실 마오쩌둥 사상을 배척하고 있음을 암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384] 선전부장 장핑화가 조직부장 후야오방과 이념적 노선 차이를 두고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범시파는 후야오방의 이념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화궈펑은 자신의 양개범시론을 견지했다. 5월 29일 전군정치공작회의에서,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이념을 고수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중국 내 주요 모순을 무산계급 대 자산계급,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로 설정했다. 이러한 현실 인

---

383 程中原, 王玉祥,李正华. 『转折年代：1976-1981年的中国』, pp.93-94.
384 沈宝祥. 『真理标准问题讨论始末』 (北京: 中共中央党校出版社, 2015), pp.94-95.

식에 따라 무산계급 독재에 의한 계속혁명 이론에 바탕을 둔 계급투쟁을 주장했다.[385] 마오쩌둥의 이념을 그대로 관철한 것이었다.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이념을 그대로 관철하는 양개범시론을 고수한 것이었다.[386] 주석 화궈펑, 부주석 왕둥싱, 선전부장이 양개범시를 주장한 반면, 조직부장 후야오방은 양개범시에 맞서는 실천론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념적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부주석 덩샤오핑이 후야오방의 이념에 지지를 표시했다. 전군공작회의에서 양개범시를 내세운 화궈펑과 달리, 덩샤오핑은 실사구시와 함께 후야오방이 주장한 '실천은 진리검증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관점을 내세웠다.[387] 그는 7월 21일 선전부장 장핑화를 불렀다. 덩샤오핑은 '실천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논쟁을 소개하면서, 더 이상 이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 활발하게 발전하는 정치 국면을 퇴보시키지 말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후야오방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밝힌 것이었다. 다음날엔 다시 후야오방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와 격려를 표했다. 이어 7월 22일엔 후야오방에게 전화를 걸어 '이론동태'가 제기한 진리표준 논쟁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388] 이로서 당 중앙의 지도부 내에선 뚜렷한 이념적 노선의 분화가 나타났다. 이제 공산당 지도부는 이념적 노선을 두고 양개범시론을 추종하는 실천파와, 양개범시론을 반대하는 실천파 사이에 뚜렷한 대립이 형성되었다.

실천론이 군 지도부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건이다.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서장인 뤄루이칭은 전군정치공작회의에서 덩샤오핑의 이념을 반영한 글을 해방군보에 게재하도록 했다. 뤄루이칭은 문혁 시기 박해를 받았다가 1977년 베이징으로 돌아왔고, 1977년 8월 11차 당대회에서 군사위원회 비서장에 오른 인물이었다. 뤄루이칭의 지시에 따라, 뤄루이칭의 측근으로 해방군보 편집 책임자 야오위안팡(姚远方)은 우장의 글을 추천했다. 우장이 쓴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었다. 이 글은 저자를 본보특약평론원이라고 붙여 1978년 6월 24일 해방군보와 인민일보에 동시 게재되었다.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은 양개범시를 겨냥한 이념적 공격이었다.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밝히면서, 이론은 실천을 통한 검증

---

385 张树军,高新民. 『中共十一届三中全会历史档案』 上册, pp.258-266.
386 沈宝祥. 『真理标准问题讨论始末』, pp.99.
387 Ibid. pp.98.
388 Ibid. p.101.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린뱌오, 사인방은 인간의 주관적 관념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진리에 대한 판별 기준은 오직 객관적 실천일 뿐이라고 했다.[389] 이러한 주장은 후야오방의 실천이 진리 검증의 기준이라는 후야오방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동시에 화궈펑의 양개범시론에 대한 반대이기도 했다. 중요한 점은 이 글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관지인 해방군보에 실렸다는 점이다. 군 지도부의 이념적 입장이 덩샤오핑과 후야오방의 이념을 지지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었다.

덩샤오핑과 화궈펑의 이념을 지지하는 글이 해방군보에 게재되면서, 진리 검증 기준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실천이 진리 검증의 기준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개적 질책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대신 각 지역에서 실천기준론과 양개범시론를 둘러싼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두 이념에 대한 논쟁은 공산당에서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념적 논쟁으로 귀결될 수 없었다. 7월 말 후지웨이가 공산당 선전부 부부장을 우렁시를 찾은 자리에서, 우렁시는 실천기준론과 양개범시론의 논쟁은 정치 문제임을 못박았다. 실천기준론의 입장을 해방군보에 게재하도록 한 뤄루이칭은 문혁의 피해자였다. 그는 화궈펑 등 범시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실천기준론을 지지했던 것이다.[390]

후야오방이 실천기준론을 제시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정치 엘리트는 범시파와 실천파로 나뉘게 되었다. 범시파는 마오쩌둥의 지시와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이념을 내세웠다. 화궈펑, 왕둥싱, 리신, 우렁시, 슝푸, 후셩(胡绳), 장핑화, 정비젠(郑必坚) 등이었다. 범시파와 달리 실천파는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을 주장했다. 실천파는 양개범시론에 대해 마오쩌둥이 과거의 저지른 오류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비판했다.[391] 후야오방과 그의 주장에 동조한 덩샤오핑, 뤄루이칭 등이 대표적인 실천파라고 할 수 있다. 실천기준론은 문혁 시기 억울하게 날조된 사건으로 박해를 받았던 간부들도 실사구시에 따라 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

389 本报特约评论员, 「马克思主义的一个最基本的原则」, 『人民日报』, 1978.6.24.

390 沈宝祥. 『真理标准问题讨论始末』, pp.113.

391 Meisner, *Mao's China and After: A History of the People's Republic*., pp.433. 院铭. 『鄧小平帝國三十年』 (台北: 玉山社, 2009), pp.34-35. 루안밍(院铭)은 이념에 따라 범시파, 정확·완전파, 실천파 등 세 정치 파벌로 나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시파에 반대하는 정치 엘리트들이 대부분 후야오방의 실천기준론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범시파에 반대하는 그룹을 엄밀하게 나누기는 어렵다.

로 인해 실천기준론은 예젠잉, 리셴넨, 천윈, 쉬샹첸, 네룽전, 덩잉차오, 왕전, 뤄루이칭 등 원로 간부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392]

화궈펑의 이념 투쟁은 결국 공산당 조직 정책을 염두한 것이었다. 양개범시에 따르면, 마오쩌둥이 말년에 저지른 오류까지도 바로잡을 수 없다. 마오쩌둥의 지시는 모두 옳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문화대혁명 시기 숙청된 원로 간부들의 명예 회복과 복권도 이 논리에 따르면 가능하지 않았다. 후야오방의 실천기준론은 마오쩌둥의 이념도 실천의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면 틀릴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후야오방의 실천기준론은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 추종 세력에 의해 억울하게 숙청된 간부들을 복권시킬 수 있는 이념적 근거였다. 그리고 이는 화궈펑의 지도자 지위를 지지하는 공산당 지도부 조직 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였다.

조직 정책에서 대표적인 논란이 '61명 배반자' 사건[393]이었다. 후야오방은 조직부장에 취임, 61명 배반자 사건 재조사에 나섰다.[394] 하지

---

[392] 李先念**编写组**. 『李先念**传** 1909-1949』, p.1080.

[393] 이른바 '61명 배신자'는 1936년 국민당 정부에 반공(反共) 전향서를 써주고 베이징 감옥에서 풀려난 공산당 간부들을 이르는 말이다. 61명의 전향서 작성은 애초 중국 공산당 중앙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중국 공산당 중앙이 파견한 류샤오치가 주재한 북방국 회의에서 1936년 이를 결정했다. 이후 1943년 마오쩌둥은 전향서를 작성한 61명 중 한명인 보이보와의 면담에서 이 결정을 확인했다. 당시 마오쩌둥은 "(전향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며, 중앙이 모두 책임을 진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시건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류샤오치의 조직적 반당 음모로 비화되었다. 이로 인해 류샤오치는 홍위병에 의해 죽음을 당했고, 전향서를 쓴 61명 역시 숙청되었다. 당시 문혁소조 고문이었던 캉셩은 1966년 '61명 배반자' 사건을 조작했다. 캉셩은 류샤오치가 주재한 중국 공산당 북방국 회의에 주목했다. 당시 류샤오치는 중국 공산당 중앙의 대표로, 톈진에 파견되어 공산당 북방국 회의를 주관한 바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캉셩은 1936년 북방국의 전향서 지시가 류샤오치의 반당 음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샤오치가 공산당 내 반당, 반역 세력을 조직해왔다는 것이다. 캉셩은 마오쩌둥을 추종하면서, 마오쩌둥과 이념 노선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류샤오치를 숙청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캉셩은 1966년 8월 4일 '61명 배반자'사건과 류샤오치와의 연루 가능성을 발표했는데, 이날은 마오쩌둥이 '사령부를 포격하라'라는 대자보를 붙이기 하루 전이었다. 이 대자보는 류샤오치 등 원로 간부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394] 1977년 7월 사인방 체포 이후 덩샤오핑이 11차 당대회에서 복권되자, 보이보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잘못된 결정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덩샤오핑은 일찍이 1975년 마오쩌둥에 의해 일시적으로 부주석 직위에 복귀할 때, 61명 배반자 사건 연루 간부들에게 대한 복권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었다. 당시 조직부장 궈위펑을 비롯한 문혁 수혜 세력들의 반대로 좌절했다. 후야오방은 덩샤오핑과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마오쩌둥의

만 재조사는 쉽지 않았다. 범시파와의 충돌 때문이었다. 61명 배반자 사건의 조사, 결과 기록은 캉셩이 세운 전안조(专案組)가 보관하고 있었다. 범시파인 왕둥싱은 이 자료에 대한 열람 요구를 거절했다. 왕둥싱은 결과 자료는 내줄 수 있지만, 사건 조사 자료는 내줄 수 없다고 고집했다. 왕둥싱은 양개범시 논리에 따라 마오쩌둥이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78년 6월 9일 왕둥싱, 지덩쿠이, 우더와 후야오방이 61명 배반자 사건에 대해 나눈 회의에서, 왕둥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앙전안조 제1부서와 제3부서는 문혁이 시작된 직후 만들어졌다. 화궈펑과 저(왕둥싱), 지덩쿠이, 우더가 직접 책임을 졌다. 여기서 결정은 마오쩌둥의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61명 문제는 마오쩌둥과 당 중앙의 비준을 통해 결정되었으므로 번복될 수 없다." [395]

후야오방은 범시파의 완고한 태도에 조직부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했다. 후야오방은 조직부 간부들에게 문혁 시기 축출된 간부들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실사구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실사구시에 입각해 마오쩌둥의 결정도 번복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양개범시에 빗대어 '양개부관' (两个不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개범시를 고수할 경우 마오쩌둥이 말년에 저지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실사구시에 입각해야 한다고 했다. "언제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누가 결정했든지 상관없이, 잘못된 결정을 실사구시에 입각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후야오방은 61인 사건 재조사를 위해선 예젠잉, 덩샤오핑의 지지를 얻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공산당 중앙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덩샤오핑은 이를 받고서 6월 25일 "저 문제는 어쨌든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는 실사구시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7월 4일 화궈펑 역시 "61인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며 "조직부가 조사를 진행해서 중앙에 보고서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조직부의 간부들은 61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당시 사건을 알고 있는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직접 증언을 받아 기록했다. 조직부의 조사가 거듭되면서, 왕둥싱 등 범시파도 조직부에 61인 관련 자료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조직부는 61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조직부는 1978년 11월 20일 중앙에 '61인과 관련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해당 간부들이 억울하게 숙청을 당했다고 봤다.

[395] 戴煌. 『胡耀邦与平反冤假错案』, pp.97-99.

된 안건의 조사 보고’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문혁 시기 61인 배반자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것임을 밝혔다. 보고서는 보이보 등 61인의 전향서 작성은 당 중앙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마오쩌둥 역시 사건의 경과를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억울하게 축출된 간부들이 당적을 되찾고 합당한 직위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후 12월 16일 당 중앙은 61인 관련 조직부의 조사보고를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11기 3중전회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396] 이로서 후야오방의 조직부는 문혁 시기 숙청 당한 간부들이 당 조직에 복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문혁 피해 간부의 복권 문제는 11기 3중전회를 거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화궈펑과 왕둥싱을 비롯한 범시파의 영향력이 축소된 반면, 덩샤오핑과 천윈을 위시한 실천파가 주도권을 쥐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11기 3중전회는 직전에 열린 중앙공작회의에서의 논의에 따른 것이다. 중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사전에 논의한 결과를 부분적 수정을 거쳐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위원회는 중앙공작회의 결정을 추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397] 중앙공작회의는 정식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중앙공작회의에서 논의된 방침과 노선을 따른다. 중앙공작회의에선 다양한 주장을 개진하도록 하면서, 전당이 따라야 할 결의를 형성하도록 한다.[398] 따라서 11기 3중전회를 앞두고 열린 중앙공작회의에서의 논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화궈펑은 간부 복권 안건에 대해선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경제적 의제에 주안점을 뒀다. 첫째 의제는 농업 분야와 관련된 것이었다. 농업 발전속도 가속화를 위한 결정’, ‘농촌 인민공사 공작조례 시행 초안’이라는 문건에 대한 논의였다. 두번째 의제는 1979년과 1980년 경제계획에 관한 것이었다. 세번째 의제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제기한 리셴넨의 연설에 대한 토론이었다. 중앙공작회의는 애초 농촌과 경제 발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399] 문혁 시기 피해 간부들의 복권은 중앙

---

396 Ibid. pp.103-114.

397 안치영. 「모호한 전환점: 중국공산당의 11 기 3 중전회에 대한 재고」,『국제지역연구』, 17(4), 2008.

398 于光远. 『改变中国命运的41天: 中央工作会议、十一届三中全会亲历记』 (深圳: 海天出版社, 1998), pp.68-69.

399 于光远. 『1978: 我亲历的那次历史大转折』 (北京: 中央编译出版社, 2008), p.19-21; 金冲及, 陈群,曹应旺. 『陈云传』 第四券, pp.1486-1487.

공작회의의 의제가 아니었다. 화궈펑은 사인방과 노선 투쟁을 통해 당의 이념과 조직 문제가 이미 정리된 것처럼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화궈펑은 11월 10일 중앙공작회의 개막 연설에서 문혁 시기 간부 숙청을 긍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에서 11차례의 노선 투쟁이 있었음을 밝혔다. 천두슈의 우경 기회주의 노선을 시작으로, 펑더화이의 우경기회주의반당집단, 류샤오치의 반혁명수정주의 노선과의 투쟁을 거쳐, 린뱌오 반당집단과의 노선투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인방과의 투쟁이었다. 화궈펑은 펑더화이와 류샤오치를 사인방과 같은 반당집단으로 치부했던 것이다. 이는 문혁 피해 간부들의 복권에 대한 반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는 실천파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이었다.

의제를 경제 현안으로 국한하려고 했던 화궈펑의 의도는 관철되지 못했다. 후야오방은 문혁 시기 벌어진 정치 사건과 피해 간부 문제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61명 배반자 사건에 대한 재조사 보고서, 펑더화이 사건 등 문혁 시기 억울하게 날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을 자료들을 제출했다. 또 천윈은 간부 복권 문제에 소극적인 화궈펑의 개막 연설에 반발했다. 중앙공작회의에서의 토론 준비에 나섰다. 그는 11월 12일 조별 회의에서 간부 복권과 관련된 여섯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보이보 등 61인 배반자 사건, 문혁 시기 배반자로 잘못 결정된 타오주·왕허슈(王鹤寿) 등 문제, 펑더화이 문제, 톈안먼 사건, 캉셩이 문혁 시기 범한 오류 등이었다. 캉셩은 문혁이 시작된 직후 사건을 날조해, 원로 간부들에게 반당, 반혁명, 혹은 우경기회주의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천윈은 중앙전안조의 해체를 제안했다. 중앙전안조는 캉셩의 주도 아래 간부들에게 대한 조사를 담당했다. 천윈은 “전안조는 문혁 시기 간부 조사를 담당하면서 많은 오류를 저질렀다”면서 “전안조의 업무는 사실 중앙조직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했다. 또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에 의해 실각한 계기가 되었던 톈안먼 사건에 대한 재평가도 요구했다[400]. 천윈의 발언에 그가 속한 동북조에선 박수, 동의 소리가 나왔다고 한다.[401]

다음날인 13일 범시파인 지덩쿠이는 회의 의제로 농촌 발전을 가속화하는 결정, 농촌 인민공사 조례로 제한했다. 화궈펑 역시 “농촌 문제

---

[400] 陈云. 「在中央工作会议东北组的发言（一九七八年十一月十二日）」, 中共中央文献研究室,『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汇编』 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401] 金冲及, 陈群,曹应旺. 『陈云传』 第四券, pp.1489-1495.

에 대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조별 회의가 시작되자 중심 의제가 문혁 시기 피해를 당한 간부에 대한 문제로 옮겨갔다. 참석자들은 천윈이 제기한 간부 정책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샤오커(萧克)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안정, 단결이 요구된다”며 “천윈이 거론한 사건들은 안정과 단결의 문제이다”라고 했다. 왕런중(王任重), 완리, 캉커칭(康克清) 등 회의 참석자들 역시 천윈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2일 천윈이 다시 참석한 제2차 동북조 회의에서 네룽전은 천윈의 의견에 대한 동의의 뜻을 밝혔다. 그는 “캉셩이라는 나쁜 놈이 문혁 시기 린뱌오, 사인방과 함께 색안경을 끼고 간부들을 배반자로 몰아갔다”고 발언했다. 나아가 네룽전은 펑전, 루딩이, 양상쿤에 대한 명확한 재조사를 제안했다.[402]

천윈이 제기한 여섯 가지 의제 중에서도 1976년 톈안먼 사건에 대한 재평가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다. 화궈펑의 집권 이후 범시파는 톈안먼 사건을 반혁명 사건으로 규정한 마오쩌둥의 결정을 고수해왔다. 그리고 톈안먼 사건으로 물러난 덩샤오핑의 복권을 반대했다. 이에 반해, 실천파는 톈안먼 사건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며, 덩샤오핑의 복권을 요구했다. 실천파는 마오쩌둥의 결정과 지시는 모두 옳다는 양개범시론의 비판하며, 톈안먼 사건에 대한 마오쩌둥의 결정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톈안먼 사건은 범시파와 실천파의 이념적 투쟁의 정점에 있었다.

중앙공작회의에서도 톈안먼 사건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주장들이 나왔다 화북조(华北组)에서 리창(李昌)은 톈안먼 사건은 군중들이 저우언라이 총리를 추모하기 위한 활동으로 위대한 혁명 운동”이라고 했다. 화동조 (华东组) 에서 뤼정차오(吕正操)는 범시파인 우더의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톈안먼 사건 직후 베이징시가 대회를 열고 덩샤오핑을 비판했는데, 당시 우더(베이징 시장)는 그러한 발언을 왜 방치했는가?”라고 했다. 위광위안, 왕휘더(王惠德), 양시광은 서북조 토론에서 “톈안먼 사건은 위대한 혁명 사건”이라고 했다. 각 조에선 톈안먼 사건의 성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톈안먼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11월 15일 북경일보의 보도를 시작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북경일보는 톈안먼 사건에 대한 베이징시위원회 상임위 확대회의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1976년 군중들

[402] Ibid. pp.1496-1497.

이 톈안먼 광장에 모여 저우언라이 총리를 추도했으며, 사인방의 죄상을 비난한 혁명행동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북경일보의 보도는 중앙공작회의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신화사 사장인 청타오(曾涛), 인민일보 편집장 후지웨이, 광명일보 편집장 양시광이 베이징시 회의에 주목했다. 이들 세 명은 모두 중앙공작회의에 참석했고, 북경일보 보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베이징시위원회가 톈안먼 사건은 완전한 혁명 행동이라고 선포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기로 합의했다. 15일 신화통신 보도가 있었고, 다음날 인민일보와 광명일보가 기사를 전제했다. 신화통신, 인민일보, 광명일보의 연이은 보도는 화궈펑에 대한 톈안먼 사건 재평가 압력으로 이어졌다.[403]

중앙공작회의에선 문혁 시기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결국 11월 25일 화궈펑은 정치국을 대표해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404] 첫째, 톈안먼 사건이 혁명 행동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1975년 말부터 1976년까지 덩샤오핑을 비판한 '우경적 재평가 시도에 대한 반격' 에 대한 오류를 인정한다. 셋째, 2월 역류 사건 관련자에 대해 명예를 회복하고 복권한다. 넷째, 보이보 등 61인 사건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며 관련자들을 복권한다. 다섯째, 펑더화이의 유골은 베이징 파바오산혁명공원묘지(중국의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이밖에 타오주와 양상쿤을 복권한고, 캉셩과 셰푸즈에 대한 조사와 타당한 처리를 선언한다.[405] 화궈펑의 이 같은 발언은 문혁을 전후한 마오쩌둥의 결정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겠다는 선언이었다.

화궈펑은 양개범시 이념의 오류를 인정했다.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지시와 결정은 모두 옳다는 양개범시에 대한 고려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아가 양개범시를 제시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고 했다. 양개범시는 모두의 사상을 구속했다고 인정했다. 양개범시로 인해 실사구시에 따른 간부 정책을 실행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당내 사상은 활기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양개범시가 정치국의 동의를 거쳤음을 밝히면서도, 그 책임이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화궈펑은 자신이 마땅히 자아비판을 해야 한다면서 동지들의 비판을 환영한다고 했다.[406] 화궈펑은 문혁 피해 간부의 복권을 막았던 양개범시파의 오류를 스스로 인

403 于光远. 『1978: 我亲历的那次历史大转折』, pp.62-80.
404 李先念编写组. 『李先念传 1909-1949』, p.1082.
405 于光远. 『1978: 我亲历的那次历史大转折』, pp.89-91.
406 程中原, 王玉祥,李正华. 『转折年代：1976-1981年的中国』, p.178.

정한 것이다. 범시파의 이념적 패배, 실천파의 이념적 승리를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

양개범시 이념의 패배는 곧바로 범시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양개범시를 내세웠던 왕둥싱은 직접적인 비판을 받았다. 서북조 토론에서 장이전(江一真)은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기준'이라는 주장에 대해 왕둥싱이 보여준 부정적 태도를 비판했다. 나아가 장이전은 자신이 위생부에서 문혁 시기 당한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할 때 왕둥싱이 저지했다고 비난했다. 장이전의 발언에 이어 우광위안과 양시광은 왕둥싱이 양개범시를 이유로 덩샤오핑의 공산당 지도부 복귀를 막았다고 비판했다. 서남조 토론에선 후지웨이가 왕둥싱을 비판했다. 이후 각 조별 토론에서 왕둥싱을 지목해 비판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407] 한편, 범시파의 중심 인물인 우더 역시 톈안먼 사건을 반혁명이라고 주장한 자신의 오류를 인정했다.[408]

덩샤오핑의 12월 13일 폐막식 연설[409]은 실천파의 이념적 승리를 확인한 것이었다. 덩샤오핑은 네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사상 해방이었다. 사상해방이 있어야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해 남아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다. 둘째, 민주는 사상해방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다. 덩샤오핑은 민주의 구체적 내용으로 삼불주의(三不主义)를 제시했다. 머리채를 잡지 않고, 모자를 씌우지 않으며, 몽둥이로 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혁 시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셋째, 역사 문제의 처리는 앞을 보기 위해서라고 했다. 마오쩌둥은 중국 혁명을 이끈 위대한 업적을 이룩했지만, 문혁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 문혁의 오류를 올바르게 평가함으로써, 현 시점에서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넷째, 새로운 상황을 연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 관리방법 차원에서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관리제도 차원에서 기업의 권한을 확대하며, 경제정책 차원에서 일부 지역, 일부 기업, 일부 농민이 먼저 부유해지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선부론(先富論)이다.[410]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

[407] 于光远. 『1978: 我亲历的那次历史大转折』, pp.96-98.
[408] Ibid. p.105.
[409] 邓小平. 「解放思想, 事实求是, 团结一起向前看 (一九七八年十二月十三日)」, 中共中央文献研究室, 『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汇编』 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410] 조영남. 『개혁과 개방 1: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서울: 민음사, 2016), pp.330-332.

이념에 갇힌 화궈펑의 양개범시론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념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앙공작회의에서 실천파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후야오방에 의해 주도된 문혁 피해 간부들의 복권에 있었다. 1977년 12월 15일 후야오방은 조직부장 취임 후 첫 담화에서 “현안이 산처럼 쌓였다“고 말했다. 문혁 시기 억울하게 출당을 당한 수많은 간부들을 복권하겠다는 취지였다. 문혁 기간 입건해 조사를 당한 간부는 230만여명이었다. 그 중 6만여명은 박해를 받아 죽었고, 사건이 날조되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간부는 수십만명이었다. 문혁 전 각종 정치 운동에 의해 피해를 당한 간부들의 수는 100만명에 달했다.[411]

후야오방은 문혁 피해 간부에 대한 재조사와 복권을 조직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설정했다. 조직부에서 접수된 안건은 1만7349권 39만1363건이었다. 조사 대상 고위 간부는 669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부부장급 간부는 213명, 중앙위원과 중앙후보위원은 71명, 정치국 위원 10명, 서기처 10명, 부총리 7명이었다.[412] 후야오방이 조직부장을 맡아 추진한 문혁 피해 간부의 복권은 단지 억울한 일을 바로잡는 수준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들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복귀하면 범시파를 압도하는 정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마오쩌둥의 문혁에 의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문혁 수혜 세력인 범시파와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범시파의 지지를 얻고 있는 화궈펑과도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간부 복권은 지배 연합, 혹은 선정인단 구성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978년 7월 기준 중앙의 53개 당정기관에 모두 간부 5344명이 재배치되었다. 이는 원래 있었던 간부의 87.2%에 달했다. 사면 복권된 간부들은 진리표준 논쟁을 주도하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했다.[413] 후야오방은 이러한 조직적 변화에 맞춰 중앙공작회의를 준비했다. 그는 중앙공작회의를 준비하면서 참가자 명단에 만반의 준비를 기울였다. 당시 이미 적지 않은 문혁 피해 간부들이 복권해 중앙·지방 정부, 군 조직의 직무에 복귀했는데, 후야오방은 중앙과 지방의 당정군 간부 등 총 212명을 참가자 명단에 포함했다.[414]

---

411 童青林. 『回首 1978: 历史在这里转折』 (北京: 人民出版社, 2008), p.146.
412 Ibid. pp.157-158.
413 조영남. 『개혁과 개방 1: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p.300.
414 张黎群, 张定,严如平. 『胡耀邦传(1915~ 1989)』 第二卷, pp.562-563.

범시파에 대한 이념적 비판은 1979년 1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있었던 이론공작회의에서도 이어졌다. 후야오방은 이 회의에서 진리표준과 당 내의 논쟁을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계획되었다.[415] 이론공작회의는 진리표준 논쟁을 둘러싼 당 내의 논쟁을 통일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었다.[416] 그런데 회의는 진리표준과 관련된 이념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념과 결부된 간부 조직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회의 이튿날 인민일보 편집장 후지웨이, 광명일보 편집장 양시광, 사회과학원 부원장 우광위안, 신화사 사장 정타오, 해방군보 사장 화난, 중앙편집국 왕후이더 등 당 주요 기관지의 간부들은 연명 발언에서 양개범시를 비판했다. 이들은 왕둥싱, 우더, 장핑화, 리신, 후셩, 우렁시, 시옹푸, 왕슈 등 범시파의 주요 인물들을 지명했다. 후지웨이 등의 비판은 양개범시 이념을 명확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덩샤오핑의 복귀, 톈안먼 사건의 재평가, 천윈 등 원로 간부들의 당 중앙 업무 복귀, 문혁 피해 간부의 대대적인 복권 등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다. 또 문혁 시기 공산당 간부들에게 반혁명 분자라는 공격을 기획한 캉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417]

사인방 체포 이후 중국 정치는 범시파와 실천파 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범시파를 대표하는 화궈펑은 사실 덩샤오핑과 세부적인 정책 측면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파벌의 갈등은 이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 공산당에서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논쟁이 정책 평가 보다는 이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418] 이념은 파벌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다. 여기서 이념은 여러 정책들의 특정한 지향을 형성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세부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특정한 이념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이는 파벌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졌다. 즉 이념 노선 투쟁은 당 간부 조직의 개편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후야오방은 실천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양개범시 이념을 무너트렸고, 이는 문혁 피해 간부들이 복권할 수

---

415 胡耀邦. 「理论工作务虚会引言」, 中共中央文献研究室, 『 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选编』 (北京: 人民出版社, 1982).

416 안치영. 「중국의 개혁초기 정치논쟁과 1979 년 이론공작회의」, 『중국근현대사연구』, 제54집, 2012.

417 蕭東連. 『歷史的轉軌: 從撥亂反正到改革開放 (1979-1981)』 (香港: 中文大學, 2008), p.29.

418 Pye, *The Dynamics of Chinese Politics*. p.17.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이념적 노선 투쟁에서 승리가 공산당 조직 개편의 이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변화는 다시 이념적 변화로 이어졌다. 그 결과가 11기3중전회를 직전에 열였던 중앙공작회의에서 범시파에 대한 실천파의 이념적 승리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적 노선의 변화는 다시 조직 개편으로 이어졌다. 중앙공작회의에서의 이념적 노선의 전환이 이뤄졌다면, 11기3중전회에선 이념 전환에 따른 결과로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6) 지배 연합의 구성 변화

1978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중공 11기 3중전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회의는 양개범시의 오류를 비판했다. '계급투쟁을 대강으로 삼는다' 는 마오쩌둥의 이념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않도록 결정했다. 반면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기준' 이라는 문제에 대해 전국적 토론이 일어났음을 높게 평가했다. 또 실사구시와 사상해방을 공산당의 지도방침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이념적으로 마오쩌둥의 이념을 전부 따라야 한다는 범시파의 이념은 폐기된 반면, 마오쩌둥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실천파의 이념이 당이 추구하는 이념적 목표로 설정된 것이다.

공산당의 이념 변화에 따라, 공산당 지도 조직에서도 변화가 이뤄졌다. 실천파인 천윈이 중앙위원회 부주석에 올랐다. 그리고 역시 실천파인 덩잉차오, 후야오방, 왕전을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했다. 공산당 중앙지도 기구에서 범시파가 축출된 것은 아니었다.[419] 덩샤오핑은 추가하고 빼지는 말자는 원칙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기존 지도 조직에서 축출된 인물은 없었다. 다만 그 직위를 박탈당했다. 그럼에도 공산당 중앙 지도 조직에선 덩샤오핑, 후야오방을 위시한 실천파가 다수를 점하고, 범시파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덩샤오핑과 후야오방을 위시한 실천파는 공산당 간부 조직을 확대했다. 동시에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주석인 화궈펑은 실질적인 권력을 상실해갔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간부들을 조직하지 못했다. 화궈펑은 공식적 권력을 활용해 독자적인 간부 조직을 건설하지 않았다.

---

[419] 中共中央组织部, 中共中央党史研究室,中央档案馆. 『中国共产党组织史资料』 第六卷, pp.5-6.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후난성의 간부들을 중앙위원회로 끌어오지 않았다. 군대, 경찰, 중앙경위단 안에도 화궈펑이 심어놓은 간부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화궈펑은 최고 권력자임에도 고립무원의 처지였다.[420]

화궈펑이 자신의 정치적 제휴 세력을 확대하지 못했다. 그 사이 후야오방은 문혁 피해간부들의 복권을 주도했다. 문혁 피해 간부의 복권은 중국 공산당 지도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공산당 중앙의 고위 간부로 복귀한 세력들은 화궈펑의 지배 연합에서 문혁 수혜자인 범시파와 원로 간부를 중심으로 한 실천파 사이의 균형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지배 연합 내 파벌 균형이 무너지고, 당의 이념은 화궈펑의 양개범시론에 대한 지지는 지배 연합 내에서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양개범시론은 문혁의 성과를 긍정하는 입장이었으며, 문혁 피해 간부들의 사면 복권을 가로막는 이념적 장애였다. 문혁 시기 우파수정주의자, 반당분자, 간첩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도 조직에 다시 편입한 간부들은 양개범시와 양개범시를 내세웠던 화궈펑을 지지할 수 없었다.

문혁 전 중국에서 부(副)성장, 부(副)부장 이상 고위 간부는 1253명이었다. 그런데 문혁 중 박해를 받은 간부는 1011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배반자, 간첩, 반혁명수정주의분자, 자본가 계급 사령관의 대리인이라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던 사람은 453명으로 전체의 36%였다. 이들 간부는 조사 과정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았다. 40명은 이로 인해 사망했다. 후야오방은 1978년 조직부장 취임 후 우선 1980년 12월 말까지 부성장, 부부장 이상 간부 453명에 대한 재조사 절차를 거쳐 사면복권했다. 신체가 건강한 간부의 경우 원래 직위에 복귀시켰다.[421]

후야오방은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펑전, 뤄루이칭, 루딩이, 양상쿤, 시중쉰, 황커청 등 고위 간부들을 우선에 원래 직책에 복귀시키고, 이후 사면복권에 대한 결론을 기다리도록 했다.[422] 이후 공산당 중앙은 1979년 2월 17일 펑전에 대한 복권을 결정했다. 펑전은 문혁 직전 베이징 시장으로 해서파관을 우한을 변호하다가 마오쩌둥에 의해 반혁명분자로 몰려 박해를 받은 인물이었다. 이어 3월 28일엔 양(杨)·위(余)·보(傅) 사건[423]에 대한 복권을 발표했다. 공산당 중앙은 이 사건이 조

---

420 杨继绳. 『邓小平时代: 中国改革开放二十年纪实』 上, p.111.
421 宋任穷. 『宋任穷回忆录 (续集)』 (北京: 解放军出版社, 1996), pp.85-86.
422 蕭東連. 『歷史的轉軌: 從撥亂反正到改革開放 (1979-1981)』, p.89.
423 1968년 3월 공군창모총장이자 중앙군사위원회 상무위원인

작된 것임을 밝히고, 사건 관련자들을 복권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6월 8일엔 루딩이에 대한 복권이 결정되었다. 이듬해엔 탄전린, 시중쉰, 뤄루이칭, 양상쿤 등이 복권되었다.[424] 이들을 포함해 1979년부터 1981년까지 복권된 공산당 중앙 간부는 494명이었다.

4. 화궈펑의 퇴진

(1) 범시파의 축출

11기 3중전회 이후 지속된 공산당 지도부 개편에 따라, 최고 지도자의 권력에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화궈펑은 11기3중전회에서 자아비판을 하면서, 실천파의 노선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우더, 지덩쿠이, 천시롄, 천융구이는 실권을 상실했다. 파벌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425] 사실상 화궈펑은 지배 연합에서 더 이상 다수를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면했다. 덩샤오핑은 이미 지도부에서 핵심 지위를 획득하기 시작했다. 공산당 중앙 정치국의 절대 다수는 실천파가 차지했다. 이는 화궈펑의 권력 약화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기 3중 전회에서 화궈펑이 실권을 상실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여전히 화궈펑은 예젠잉의 지지를 얻고 있었으며, 공식적으로는 주석이었다. 화궈펑을 지지하는 범시파는 아직 정치국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극적인 변화는 1980년 2월 중국 공산당 11기 5중전회에서 이뤄졌다. 공산당 지도부에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공산당 지도부에서, 후야오방과 이념을 공유한 범시파가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실천파는 늘어났다. 진리표준 논쟁을 주도하며 양개범시 이념을 무너트린 후야오방이 자오쯔양과 함께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했다. 반대로 양개범시론을 주도했던 왕둥싱은 부주석직에서 해임되었다. 같은 범시파인 지덩쿠이, 우더, 천시롄은 정치국 위원에서 면직되었다.[426] 이로써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과거 양개범시론을 내세웠던 인물은 화궈펑 한명만 남게 되었다.

양청우(杨成武)가 공군 정치위원 위리진(余立金), 베이징 위수구 사령관 푸충비(傅崇碧)와 함께 권력을 탈취해 공산당 중앙의 문혁 세력을 공격하려는 음모를 계획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이다.

[424] 許保家. 『改革先驅 胡耀邦』 (香港: 天地圖書有限公司, 2013), pp.240-241.

[425] 蕭東連. 『歷史的轉軌: 從撥亂反正到改革開放 (1979-1981)』, p.345.

[426] Ibid.p.343.

정치국에서도 실천파는 범시파를 압도했다.

이러한 상황은 화궈펑이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 자초한 면이 있었다. 화궈펑은 왕둥싱과 달리 포용적인 성격이었다. 이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이해와 의제를 갖고 있는 다른 파벌의 지지를 얻기 힘들었다.[427] 화궈펑은 다수 파벌의 이념, 조직적 선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고서는 파벌의 지지를 얻어내기 어려웠던 것이다. 혹은 자신의 지배 연합을 확대하고, 이들의 이해를 보장해주는 전략을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화궈펑은 대립하는 파벌들의 이해를 모두 포용하려는 노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화궈펑이 냉혹한 독재자로서 면모를 갖췄다면 그의 집권은 보다 안정적일 수 있었다.

11기 5중전회에선 화궈펑의 지지 세력인 범시파의 축출과 함께, 공산당의 의사 결정 제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서기처를 부활시킨 것이다. 서기처 부활은 세대 교체와 집단지배라는 두 가지 취지에서 이뤄졌다. 먼저 마오쩌둥과 함께 중일전쟁에 참전했던 원로 간부들의 나이가 70,80대인 상황에서, 공산당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양성해야만 했다. 서기처에서 차세대 지도자들이 국정 전반을 다루고, 국정 운영 능력을 기르도록 단련시킨다는 것이다. 다음 서기처의 또다른 중요한 의의는 집체영도, 혹은 집단지도 원칙의 관철이었다. 서기처의 서기들은 상호 평등하며, 주요 결정은 집단적인 경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했다. 동시에 개인에 의한 지배를 지양하도록 했다.[428] 이처럼 서기처는 새로운 지배 연합의 충원에 직결되는 문제였음에도, 화궈펑을 지지하는 지배 연합 엘리트의 충원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오히려 화궈펑의 지지 세력인 범시파는 철저히 배제된 반면, 화궈펑의 양개범시에 맞섰던 실천파들이 서기처를 구성했다.

---

[427] 안치영. 『덩 샤오핑 시대의 탄생 : 중국의 역사 재평가와 개혁』, pp.145-146.

[428] 叶剑英. 「在党的十一届五中全会第一次会议上的讲话（一九八〇年二月二十四日）」, 中共中央文献研究室,『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汇编』 上（北京: 人民出版社, 1982); 陈云. 「在党的十一届五中全会第一次会议上的讲话（一九八〇年二月二十四日）」, 中共中央文献研究室,『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汇编』 上（北京: 人民出版社, 1982).

[표 12] 11기 정치국 상무위원 구성 변화

	1977년 8월	1978년 12월	1980년 2월
범시파	화궈펑, 왕둥싱 (2명)	화궈펑, 왕둥싱 (2명)	화궈펑 (1명)
실천파	예젠잉, 덩샤오핑, 리셴넨 (4명)	예젠잉, 덩샤오핑, 리셴넨, 천윈 (4명)	예젠잉, 덩샤오핑, 리셴넨, 천윈, 후야오방, 자오쯔양 (6명)

※ 출처 : 中共中央组织部, 中共中央党史研究室,中央档案馆. 『中国共产党组织史资料』 第七卷 (上) (北京: 中共党出版社, 2000), pp.78-79. 이 자료의 명단을 바탕으로 필자가 범시파와 실천파를 구분해 재정리

[표 13] 11기 정치국 구성변화

	1977년 8월	1978년 12월	1980년 2월
범시파	화궈펑, 지덩쿠이, 리더셩, 우더, 천시롄, 천융구이 왕둥싱, 니즈푸, (8명)	화궈펑, 지덩쿠이, 리더셩, 우더, 천시롄, 천융구이 왕둥싱, 니즈푸, (8명)	화궈펑, 리더셩 천융구이, 니즈푸, (4명)
실천파	웨이궈칭, 우란푸, 팡이, 덩샤오핑, 예젠잉, 류보청, 쉬스유, 리셴넨 위취리, 쑤전화, 겅뱌오, 네룽전, 쉬샹첸, 펑충 (14명)	웨이궈칭, 우란푸, 팡이, 덩샤오핑, 예젠잉, 류보청, 쉬스유, 리셴넨 위취리, 쑤전화, 겅뱌오, 네룽전, 쉬샹첸, 펑충 천윈, 덩잉차오, 후야오방, 왕전, 자오쯔양, 펑전 (20명)	웨이궈칭, 우란푸, 팡이, 덩샤오핑, 예젠잉, 류보청, 쉬스유, 리셴넨 위취리, 겅뱌오, 네룽전, 쉬샹첸, 펑충, 천윈, 덩잉차오, 후야오방, 왕전, 자오쯔양, 펑전 (19명)

※ 출처 : 中共中央组织部, 中共中央党史研究室,中央档案馆. 『中国共产党组织史资料』 第七卷 (上) (北京: 中共党出版社, 2000), pp.79-80. 이 자료의 명단을 바탕으로 필자가 범시파와 실천파를 구분해 재정리

(2) 화궈펑의 퇴진 과정

덩샤오핑은 8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당과 국가의 영도 제도 개혁'을 발표했다. 권력 집중, 종신제, 과다한 겸직을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덩리췬의 회고에 따르면, 덩샤오핑의 발표는 화궈펑의 퇴진을 의도했다고 한다. 화궈펑의 퇴진을 위한 이론적 준비였다고 했다. 덩샤오핑의 발표는 화궈펑이 이끄는 정치국에서 통과되었던 것으로 보면, 화궈펑이 덩샤오핑의 의중을 간파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 역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상황들을 놓고 보았을 때 덩샤오핑은 화궈펑을 퇴진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해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덩리췬은 회고했다. 특히 당시 고위 간부들 사이에선 화궈펑의 정치 경험에 비추어 총리직은 물론 중앙위원회 주석,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지속하기도 어렵다는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보인다.[429]

화궈펑의 실각은 '건국 이후 역사 문제 결의'(역사 결의) 작성 과정에서 본격화했다. 역사 결의는 건국 이후 30년 역사에 대한 평가 작업이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화궈펑의 업적과 과오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역사 결의에서 화궈펑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화궈펑 퇴진에 대한 근거로 작용했다. 화궈펑은 역사 결의 초고의 작성 과정에서 반발했지만, 공산당 고위 간부 대다수는 화궈펑의 과오를 지적한 역사 결의 초고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결국 역사 결의가 공산당 중앙에서 통과되면서, 화궈펑 역시 퇴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 평가 작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30주년을 맞아 이뤄진 예젠잉의 연설[430]로 촉발되었다. 예젠잉의 연설은 건국 이후 30년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승리 거둔 시기라는 평가이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는 마오쩌둥 사상의 지도를 통해 가능했다고 했다. 마오쩌둥은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위대한 혁명가, 전략가라고 칭한다. 다만, 1958년 경제 정책에서 객관적 법칙을 거스르는 오류를 저

429 蕭東連. 『歷史的轉軌: 從撥亂反正到改革開放 (1979-1981)』, p.382.

430 叶剑英. 「在庆祝中华人民共和国成立三十周年大会上的讲话 (一九七九年九月二十九日)」, 中共中央文献研究室, 『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汇编』 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1979년 10월 1일 국경절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30주년을 맞는 날이었는데, 이를 앞둔 9월 29일 열린 30주년 대회에서 예젠잉은 기념 연설을 했다.

질렀으며, 1959년엔 공산당 내에서의 우경기회주의 반대 투쟁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중앙과 마오쩌둥은 이같은 오류들을 바로잡았다고 함으로써, 마오쩌둥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대한 평가에서도 린뱌오와 사인방의 극좌 노선을 비판하면서도, 이들을 마오쩌둥과 분리시켰다. 예젠잉은 연설 뒷부분에서 이념과 조직 정책에 대해 밝혔다. 실사구시를 중심으로 사상해방을 추구하고, 문혁 추종자를 청산하는 조직 정책이었다.

예젠잉의 연설은 한계와 성과를 동시에 보여줬다. 마오쩌둥 만년의 오류에 대한 평가가 제한적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것이 이후 공산당의 역사 결의의 단초를 열어줬다는 점에선 성과라고 할 수 있었다. 원래 덩샤오핑은 역사 평가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른바 '결론을 내리는 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 는 것이었다. 역사 평가 작업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예젠잉의 건국 30주년 연설은 덩샤오핑의 소극적 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예젠잉 연설이 잘 써져서 이를 뼈대로 삼아 살을 붙이면 역사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431] 예젠잉 연설 이후 공산당 내에서 일어난 논쟁들도 영향을 미쳤다. 예젠잉의 연설에서 마오쩌둥의 오류를 회피한 채 린뱌오와 사인방의 죄상만을 밝힌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432]

예젠잉의 건국 30주년 연설 이후, 덩샤오핑은 10월 말 후야오방, 야오이린, 덩리췬 등에게 1980년 주요 업무를 지시했다. 그 중 건국 이후 당의 역사 문제 결의 초안 작성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10월 30일 후차오무와 덩리췬은 회의를 소집, 덩샤오핑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역사 결의 초안 작성이 시작되었다. 후차오무와 덩리췬이 초안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후 15명으로 이뤄진 소조가 구성되었다. 덩샤오핑은 1980년 3월 19일 역사 결의에 대한 세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마오쩌둥 동지의 역사적 지위 확립과 마오쩌둥 사상의 견지 및 발전이다. 둘째, 건국 이후 30년 역사의 대사건에 대해 어느 것이 정확했고,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실사구시에 따라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책임잗의 공과, 시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수반해야 한다. 셋째, 이번 결의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기본적인 총결산을 이뤄야 한다.[433]

---

[431] 冷溶,汪作玲. 『邓小平年谱 1975-1997』 上, p.574.
[432] 蕭東連. 『歷史的轉軌: 從撥亂反正到改革開放 (1979-1981)』, pp.256-257.
[433] 邓小平. 「对起草《关于建国以来党的若干历史问题的决议》的意见」, 『邓小

그런데 후차오무가 집필한 역사 결의의 초안 중 네번째 시기가 관건이었다. 현직 주석인 화궈펑에 대한 평가를 담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화궈펑의 퇴진을 위한 근거로 쓰일 수 있었다. 11기 3중전회 이전 2년(600자 분량)과 3중전회 이후 2년(2000자 분량) 시기였다. 그런데 11기 3중전회 이전 2년 부분에서 화궈펑의 공과가 들어갔다. 화궈펑이 사인방을 분쇄한 일에 대한 공은 있지만, 양개범시를 오류를 바로잡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과오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양개범시를 내세우면서 부당하게 당에서 축출된 원로 간부들의 복권을 막았다고 했다. 또 화궈펑은 자신의 개인숭배를 조장하고, 제11차 당대회에선 문화대혁명의 오류를 충분히 바로잡지 않았다고 했다. 경제 정책에선 지나치게 조급함을 보였으며, 좌경 정책을 지속했다고 했다.[434]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은 1980년 10월 10일 상무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예젠잉, 덩샤오핑, 천윈, 후야오방, 자오쯔양이 초안을 보고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리셴넨은 해외에 있어서 내용을 보지 못했다. 화궈펑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담은 초안에 당연히 반발했다. 화궈펑은 후차오무에 초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중일전쟁(중국에선 항일전쟁)이 끝난 이후에 대해서 역사적 결론을 내리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마오쩌둥의 발언을 근거로 삼았다. 덩샤오핑은 화궈펑의 반대 입장을 후차오무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 사안을 고위 간부들이 모인 ‘4000인 토론’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435]

토론회를 하루 앞둔 10월 15일 덩리췬은 중국 사회과학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화궈펑의 공과에 대해 밝혔다. 그는 역사 결의 초안 작성의 주요 책임자였다. 첫째, 화궈펑은 사인방 분쇄에서 공이 있다. 둘째, 문혁과 문혁 시기 마오쩌둥의 이론·노선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셋째, 1977년 3월 공작회의까지 화궈펑은 1976년의 덩샤오핑을 비판하고 우경번안풍 반대 운동을 긍정했다. 넷째, 양개범시를 견지

平文选』 第二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4).

[434] 胡乔木传编写组. 『胡乔木传』 下 (北京: 当代中国出版社, 2014), pp.612-613; 蕭東連. 『歷史的轉軌: 從撥亂反正到改革開放 (1979-1981)』, p.383.

[435] 胡乔木. 「胡乔木关于两个历史决议的书信三封 (一九四五年四月—一九八 0 年十一月)」, 『党的文献』, 第3期, 2002. ‘4000인 토론’은 10월 중순에서 11월 하순까지 중앙 당정군 간부 1000명, 중국 전역의 지방 간부 3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토론회였다. 원래 예정된 참석 인원이 4000여명이어서 ‘4000인 토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 참석 인원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 중앙당교 학생 1500여명도 참석해 토론을 벌였기 때문이다. 蕭東連. 『歷史的轉軌: 從撥亂反正到改革開放 (1979-1981)』, pp.284-285.

함으로써, 사실상 마오쩌둥 만년의 이론·노선·정책을 고수했다. 다섯째, 새로운 개인 숭배를 조장했다. 여섯째, 문혁 시기 억울하게 축출된 간부들의 복권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일곱째, 1977년 3월 공작회의 전후, 두 가지 성질이 다른 모순을 혼동하며, 새로운 억울한 사건을 초래했다. 여덟째, 경제 업무 중에 경제 지표를 높였다. 이중 첫번째만 공이며, 나머지 일곱 가지는 과오였다.[436]

4000인 토론회 과정에서 공산당 고위 간부들 사이에선 역사 결의 초안에 옹호하는 공통의 인식을 형성했다. 마오쩌둥이 만년에 저지른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일생 전체에선 과오보다는 공이 많다고 인정했다. 문혁에 대해선 마오쩌둥의 동기는 좋았지만, 이후 진행 상황을 잘못 예측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심지어 마오쩌둥이 군주제 사상을 갖고 있었으며, 황제처럼 군림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토론회 참석자들 상당수는 문혁 시기 탄압을 받았다가 복권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인방 체포 이후 4년 동안의 역사를 상세하게 결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회피할 수 없다는 데 참석자들은 공감했다.[437] 이는 역사 결의 초안에서 화궈펑에 대한 평가 필요성과 관련되었다.

4000인 토론회가 끝난 이후 화궈펑 퇴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치국 회의가 열렸다.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9 차례 회의가 연속으로 개최되었다.[438] 회의는 사인방 체포 이후 4년 동안의 문제에 집중했으며, 화궈펑의 과오에 대한 청산을 논의했다. 공식적인 정치국 회의에 앞서, 덩샤오핑은 공산당 원로들과 비공식적인 회의를 소집했으며, 고위 간부들과 의논하는 자리를 수차례 가졌다. 또 리셴넨과 천윈은 화궈펑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다. 하지만 화궈펑은 이를 거부하고, 자아비판을 담은 서신을 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했다. 결국 11월 10일 정치국 1차 회의에서 화궈펑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에서 물러난다는 사직서를 제출했다.[439]

화궈펑에 대한 평가는 마오쩌둥의 후계자라는 위치와 밀접하게 연관

---

436 邓力群. 『邓力群自述： 二十个春秋 (1975-1987)』 (香港: 大風出版社, 2006), p.170.

437 蕭東連. 『歷史的轉軌: 從撥亂反正到改革開放 (1979-1981)』, pp.284-289.

438 류보청과 녜룽전은 건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으며, 천윤구이와 싸이푸딩(賽福鼎)에게는 통지가 가지 않았다. 회의는 11월 10일, 11일, 13일, 14일, 17일, 18일, 19일, 29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5일 열렸다.

439 蕭東連. 『歷史的轉軌: 從撥亂反正到改革開放 (1979-1981)』, p.387.

되었다. 화궈펑의 과오는 결국 마오쩌둥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이념을 오히려 계승하고자 했다는 점에 있었다. 화궈펑이 내세운 양개범시는 이러한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낸 말이었다. 그리고 그 이념에 따라 문혁 시기 억울하게 숙청 당한 간부들의 복권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화궈펑에 대한 유일한 긍정적 평가는 마오쩌둥의 문혁 이념을 추종했던 급진파들을 체포한 공적이었다. 이 역시 마오쩌둥과 관련된 일이었다. 화궈펑이 마오쩌둥과 별개로 받았던 평가는 그가 경제 지표를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정도였다. 결국 화궈펑은 마오쩌둥 이념의 계승이라는 '이념적 보수성'으로 인해 지배 연합 다수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다.

화궈펑의 퇴진 이유는 이념과 조직 문제로 집중되었다. 후야오방은 11월 19일 정치국 회의에서 화궈펑의 잘못을 다섯 가지로 지적했다.[440] 첫째, 사인방 체포에 대해 '영명한 영도자가 사인방을 분쇄했다'는 표현을 쓰도록 했다는 점이다. 화궈펑의 공헌이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화궈펑 개인의 공헌으로 돌리는 표현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개인은 단지 역사 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따라 일을 처리할 뿐이라는 것이다. 둘째, 사인방 체포 이후 발란반정(撥亂反正)[441] 과정에서, 전당과 전인민의 요구를 저버렸다는 점이다. 화궈펑이 덩샤오핑의 복권과 톈안먼 사건의 재평가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간부 정책에서 다수 동지들의 의지에서 멀어졌다는 점이다. 화궈펑은 왕둥싱, 지덩쿠이, 우더, 쑤전화에게만 의지하며, 원로 간부들의 복권 문제를 불공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특히 리신, 궈위펑에게 선전과 조직을 맡김으로써 간부 정책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넷째, 마오쩌둥에 대해 실용주의적 태도를 취했다. 화궈펑은 양개범시를 내세우면서, 마오쩌둥이 만년에 저질렀던 사상, 노선, 정책, 기풍에서의 오류를 계승했다고 했다. 다섯째, 개인숭배이다. 마오쩌둥에 대한 과거의 개인숭배와 화궈펑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개인숭배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화궈펑의 거취와 관련해, 예젠잉과 덩샤오핑의 태도가 다소 달랐다. 예젠잉이 화궈펑을 퇴진을 요구하는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만, 그는 진심으로 화궈펑을 지키고자 했다. 예젠잉은 후주(後主) 유선을 보

---

[440] 胡耀邦. 「在中央政治局会议上的发言（一九八〇年十一月十九日）」, 中共中央文献研究室,『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汇编』 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441] 춘추 공양전에 나오는 말로 어지러움을 제거하여 바른 것으로 되돌린다는 뜻이다. 여기선 문혁에서 비롯된 혼란을 바로 잡는다는 맥락으로 사용되었다.

필한 제갈량의 심정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유비가 백제성에서 임종시 능력이 부족한 아들 유선을 제갈량에게 부탁한 고사였다. 제갈량은 유비 사후 유선을 도와 촉나라를 통치했다. 제갈량처럼 예젠잉은 마오쩌둥의 유지에 따라 후계자 화궈펑을 지키고자 했다는 뜻이다. 예젠잉은 마오쩌둥이 임종 때 자신을 바라보며 말을 하고자 했지만, 하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두었다고 전했다. 마치 자신에게 화궈펑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려고 한 것 같다고 했다. 예젠잉은 자신도 제갈량처럼 부족한 화궈펑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과거의 봉건 사상에 빠져든 잘못이었다고 고백했다.[442]

1980년 12월 5일 정치국 회의에서 화궈펑의 당 중앙위원회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대신 중앙위원회 주석직은 후야오방이, 군사위원회 주석직은 덩샤오핑이 맡기로 했다. 그리고 이 결정은 11기 6중전회에서 제출해 의결하기로 했다. 정치국 회의 통보에 따르면, '역사 결의'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당, 정, 군의 수많은 간부들이 사인방 체포 이후 4년 동안 화궈펑의 잘못을 지적했으며, 화궈펑에 대한 퇴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화궈펑의 직위 조정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정치국 회의 통보는 적시했다. 화궈펑의 잘못은 양개범시 제시, 문혁 이념의 고수 , 문혁 피해 간부의 복권 반대, 개인숭배였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서 좌경 구호를 사용하고, 모험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국민경제 손실이었다.[443] 애초 화궈펑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주석직에서도 물러날 뜻이 없었다. 하지만 공산당 원로 간부들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뜻에 맞서기 어려웠다.

5. 경제적 성과의 문제

사인방이 축출된 이후, 중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1976년 12월부터 1977년 상반기까지 당 중앙은 수차례 회의를 열고, 기업에 대한 정돈과 관련 제도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1978년 양곡 생산량은 6000억 톤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업 생산은 1977년 14.3%, 1978년 13.5% 각각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재정

---

442 范硕. 『叶剑英在1976』, p.266.

443 「中共中央政治局会议通报（一九八〇年十二月五日中央政治局一起通过）」. 中共中央文献研究室, 『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汇编』 上（北京: 人民出版社, 1982).

수입은 1977년 12.6%, 1978년 28.2%가 각각 전년에 비해 늘어났다.[444] 마오쩌둥 사후 화궈펑은 지도자로서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화궈펑은 경제 발전 전략으로 '4개 현대화'를 제시했다. 화궈펑의 경제 정책은 예젠잉, 덩샤오핑, 리셴넨 등 원로 간부들과의 협의, 동의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 1978년 2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보고에서였다. 저우언라이 1964년 제시했지만, 문혁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발전 방안이었다. 화궈펑은 4개 현대화를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저우언라이가 만들었음을 강조했다. 4개 현대화는 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의 현대화를 의미했다. 화궈펑은 전국인대 정치보고에서 10년 내에 빠른 속도로 4대 현대화를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985년까지 철강 생산량은 6000만 톤, 곡물 생산량은 8000억 근(4000억kg)이라는 대규모 목표를 세웠다. 또 120개 대형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중엔 강철 기지 10여곳, 금속 기지 9 곳, 석탄 기지 10 곳, 석유 기지 10곳이 들어 있었다.[445] 높은 속도의 계획에 대해 화궈펑은 물론 예젠잉, 덩샤오핑, 리셴넨도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는 공통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446]

이는 빠른 속도로 생산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에서, 마오쩌둥의 대약진과 유사했고, 신약진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신약진은 화궈펑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1978년 7월부터 석 달 동안, 국무원 이론회의(務虛會)가 열었다. 4개 현대화의 속도를 높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였다. 리셴넨이 주재하고, 화궈펑이 10여차례 발언했으며, 덩샤오핑 역시 회의에서 발언했다. 리셴넨은 총결 보고에서 국민경제의 새로운 대약진을 구축하고, 원안보다 4개 현대화의 속도를 높이며, 금세기 고도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해외 자금을 활용하며, 해외의 선진 기술과 장비를 들여오기로 했다.[447]

따라서 화궈펑의 경제 정책은 다른 원로 간부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었다. 안치영의 연구에 따르면, 화궈펑의 경제 정책은 서구의 기술, 자본의 대대적인 도입과 고속성장을 담아 양악진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

444 胡绳. 『中国共产党的七十年』 (北京: 中共党史出版社, 1991), p.416.
445 华国锋. 「团结起来, 为建设社会主义的现代化强国而奋斗: 一九七八年二月二十六日在第五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上的政府工作报告」, 『人民日报』, 1978.3.7.
446 蕭東連. 『歷史的轉軌: 從撥亂反正到改革開放 (1979-1981)』, p.468.
447 Ibid., p.469.

이러한 발전 전략에 대해 덩샤오핑, 리셴넨, 구무 등도 지지했다. 화궈펑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인물은 천윈이었다. 따라서 화궈펑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은 1976년 이후 경제 정책 문제의 책임을 화궈펑에게만 돌리는 것이었다. 화궈펑에 대한 부당한 비판이라고 한다.[448] 이 같은 맥락에서, 덩샤오핑이 화궈펑의 경제 정책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시장 경제 개혁을 추진했다는 분석[449]은 타당하지 않다.

화궈펑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던 인물은 천윈이었다. 그의 비판은 세부적인 경제 정책보다는 이념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대약진의 실패에 대한 기억이 깊게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천윈은 경제 발전 이념에서 온건파였다. 고속 성장이나 달성하기 어려운 생산 목표 제시에 반대했다. 높은 투자는 급격한 상승, 급격한 하락이라는 경제 주기를 몰고 온다고 봤다. 그는 재정 수지, 은행 대출의 균형, 재화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라는 삼대 균형을 중시했다. 천윈은 이러한 경제 이념에 따라 1960년대 초 대약진 운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천윈은 자신의 경험과 사상에 비추어 경제 발전에서 속도를 강조하는 방식에 매우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이 경제에서 속도와 생산 목표 달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실패했던 사례라고 본 것이다.[450]

천윈은 이 같은 관점에서 화궈펑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1978년 12월 10일 중앙공작회의 동북조 토론에서 화궈펑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했다. 천윈은 경제 정책에서 실사구시를 강조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천윈은 공업에 치중한 경제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식량, 면화, 기름, 설탕과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의 부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충족되어야 농민들의 삶이 안정되고, 국가도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무리한 공업 생산량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공업 체계를 현대화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451]

회의에선 천윈의 비판에 대한 지지가 분면하게 나타났다. 회의 참석

---

448 안치영. 『덩 샤오핑 시대의 탄생 : 중국의 역사 재평가와 개혁』, pp.206-207.

449 Susan L. Shirk,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p.35-37.

450 蕭東連. 『歷史的轉軌: 從撥亂反正到改革開放 (1979-1981)』, p.473.

451 陈云. 「关于当前经济问题的五点意见（一九七八年十二月十日）」, 『陈云文选』 第三券 (北京: 人民出版社, 1995).

자들은 농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이 경제에서 필수적인 현안이라는 공감했다. 민생 문제와 무관한 공업 생산 목표가 우선이 되어선 안된다는 취지였다. 천윈의 발언 전문은 관보에 게재되었고, 중앙공작회의의 다른 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각 조에선 "천윈의 발언에 완전히 동의한다", "(화궈펑의 경제 정책에서) 공업과 농업의 비중에 균형을 상실했다", "농민들의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혼란이 벌어진다" 등 천윈에 대한 찬성 의견이 이어졌다.[452]

중앙공작회의에선 화궈펑의 경제 정책을 비판해온 천윈을 부주석으로 추대하자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당시 천윈은 문혁 이후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강등된 상황이었다. 천윈이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데엔 그가 이전에 제시했던 정책들이 정확했다는 평가 때문이었다. 왕전은 천윈은 풍부한 경제 업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주석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오린은 "천윈은 과거 마오쩌둥 시기 인민의 기본적 생활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제 정책을 직언했는데,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충족해주는 일을 경제의 기본 방침을 삼았던 게 옳았다는 것이었다. 중앙공작회의에서의 의견을 수용해 정치국은 회의 기간 중인 12월 10일 천윈을 중앙위원회 부주석,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임위원에 동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453]

천윈의 비판이 지지를 얻게 된 데엔 그가 과거 보여줬던 경제적 성과 때문이었다. 천윈은 1962년 안후이성의 책임전을 지지하다가 마오쩌둥의 비판을 받고 물러났다가, 11기 3중전회 이후 복권했다. 천윈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산당의 정치엘리트들은 문혁을 겪으면서, 그의 경제 정책 능력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졌다.[454] 특히 천윈은 대약진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헌했다는 인상이 강했다. 당시 공산당 정치엘리트들은 화궈펑의 경제 발전 전략이 경제의 균형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던 상황이었다. 과거 급속한 경제 발전 정책인 대약진 운동으로 초래된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천윈이 신약진이라는 경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있다고 본 것이다.

공산당의 최고 경제학자 쉐무차오(薛暮桥)의 회고에 따르면, 1979년 초 공산당 고위 간부들 사이에선 대약진이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제 상황 때문이었다.

---

[452] 金冲及, 陈群,曹应旺. 『陈云传』 第四券, pp.1507-1513.
[453] Ibid. pp.1500-1505.
[454] 조영남. 『개혁과 개방 1: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p.384.

첫째, 인구당 평균 식량, 면직, 기름 등 생필품 수준이 1957년에 머물러 있었다. 둘째, 인프라투자가 중공업에 집중되었고, 경공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 비중은 1978년 5.7%에 불과했다. 면직물의 경우 시장에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민들의 수요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셋째, 에너지, 원재료, 전력, 교통운송은 부족 상태였다. 넷째, 인민생활 수준이나 소비는 개선되지 않은 채, 중공업에 대한 투자 집중이 이뤄져 균형을 상실했다. 이 같은 경제 상황이 마치 중공업 집중, 과도한 생산 목표 설정 등을 특징으로 한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쉐무차오는 이 같은 경제적 불균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선 천윈이 경제 업무를 주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455] 1979년 1월 이론공작무허회에서 쉐무차오는 “천윈 동지는 당 내에서 경험이 가장 많은 경제 분야의 최고 지도자”라면서, “천윈 동지가 관건적인 시기에 나서서 우리의 경제 업무가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서면 발언했다. [456]

1979년 1월 이론공작무허회에서 중앙당교 이론연구실 주임인 우장은 천윈이 경제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 중앙에 건의했다. 천윈은 11기 3중전회 이후 정법과 당 기율 업무로 복귀했는데, 그가 남기 공헌을 고려할 때 경제 업무를 주재해야 한다고 했다. 천윈이 저우언라이와 더불어 중요 경제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했다는 이유였다. 특히 천윈이 대약진 실패 이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인상을 공산당 간부들에게 남겼다고 했다. 우장의 이 같은 발언은 회의 간보에 실렸다. 회의 참석자들의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당 중앙은 국무원 재경위원회를 신설하고, 천윈을 이곳의 주임으로 임명했다.[457]

국무원 총리인 화궈펑 대신 천윈은 경제 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애초 화궈펑의 경제 정책을 신약진이라는 칭하면서 지지를 밝혔던 리셴넨도 태도를 바꾸었다. 그는 천윈의 경제 정책을 옹호했다. 덩샤오핑 역시 화궈펑의 경제 정책에 대한 동의를 거두고, 천윈의 경제 정책을 지지했다. 불과 수개월만에 태도를 바꾸었던 것이다. 이들은 천윈의 경제 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신뢰했고, 3중전

455 薛暮桥. 『薛暮桥回忆录』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6), pp.340-341.
456 蕭東連. 『歷史的轉軌: 從撥亂反正到改革開放 (1979-1981)』, p.474.
457 吴江. 『十年的路: 和胡耀邦相處的日子』 (香港: 鏡報文化企業有限公司, 1995), pp.110-111.

회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다.[458] 덩샤오핑은 1979년 3월 21일 영중문화협회 대표와의 회견에서, 4개 현대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렸다. 그는 “중국은 서방의 개념과 다르다” 면서 ‘중국식 4개 현대 현대화’ 라고 칭했다.[459] 또 3월 30일엔 사항기본원칙 견지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중국의 현대화는 중국의 특징에서 출발해야 한다” 면서, “중국은 매우 낮은 단계에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현대화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고 밝혔다.[460]

화궈펑의 경제 정책에 비판은 화궈펑의 입장에선 부당하게 생각될 수 있다. 일종의 희생양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핵심 원로 간부들과의 협의와 동의를 통해 경제 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이다. 화궈펑을 비판하기 위한 과장이었다거나 화궈펑을 ‘희생양’ 을 삼았다는 설명도 가능하다.[461] 화궈펑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은 화궈펑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 화궈펑의 전임자인 마오쩌둥의 이념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공산당 정치엘리트들은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시기 벌어진 경제 위기의 재연을 우려했다. 화궈펑은 선진 외국의 투자, 장비, 기술의 도입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이후의 개혁개방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엘리트들은 화궈펑의 전임자 마오쩌둥 시기 경제 위기에 대한 기억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이것이 화궈펑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던 천윈에 대한 지지와 신뢰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천윈은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으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후계자는 전임자의 이념으로부터 명확하게 이탈하지 않을 경우 전임자의 과오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다.

다음 집단지배에서 후계자의 경제 정책의 조정 가능성이다. 집단지배에서 지배 연합의 정치엘리트들은 지도자와 다른 이념적 선호를 가질 수 있다. 마오쩌둥이나 화궈펑과 다른 이념적 선호를 갖고 있는 정치엘리트들이 다른 경제 정책을 지지할 수 있다. 천윈은 화궈펑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고, 지배 연합의 다수가 천윈의 경제 정책 지지로 방향을 선회했다. 경제 성과에 따라, 기존 정책이 비판을 받고, 다른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가 생겨나는 역동성이 집단지배에선 나타날 수 있었다. 즉 집단

---

458 蕭東連. 『歷史的轉軌: 從撥亂反正到改革開放 (1979-1981)』, pp.486-487.
459 冷溶,汪作玲. 『邓小平年谱 1975-1997』 上, p.496.
460 邓小平. 「坚持四项基本原则 (一九七九年三月三十日) 」, 中共中央文献研究室,『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汇编』 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461 안치영. 『덩 샤오핑 시대의 탄생 : 중국의 역사 재평가와 개혁』, p.207.

지배에서 경제적 성과에 따라 이념적 선호가 바뀌는 피드백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념적 피드백에 따른 이념적 선호의 변화는 구체적인 경제 정책의 성과를 통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점에서 파벌 정치의 역동성이 개인적 도덕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분석[462]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은 특정 파벌의 실패가 정책의 기술적 문제가 아닌 도덕성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정치에서 파벌의 실패가 개인의 도덕성에서 흠결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이념은 특정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부정적일 경우 이념 문제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그 이념을 내세웠던 파벌은 정치적 책임을 졌다. 사인방 자체의 도덕성 결여는 물론 중요하지만, 문혁 당시의 계속혁명, 계급투쟁 이념이 중국 사회와 경제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고, 이것이 문혁 이후 마오쩌둥의 이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개혁개방 이념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6. 마오쩌둥 사후 체제 변화

마오쩌둥 사후 중국은 개혁·개방 노선으로 나아갔다. 이는 권력구조의 변화, 권력 승계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오쩌둥은 사후 중국 공산당의 권력구조는 일인지배에서 벗어나 집단지배로 바뀌게 되었다. 마오쩌둥의 지배 연합은 화궈펑에 대한 지지를 두고 분열했다. 문혁 급진파는 화궈펑을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권력을 독점하고자 했다. 화궈펑은 원로 간부, 문혁 수혜자들과 정치적 제휴를 맺고, 문혁 급진파를 축출함으로써,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무원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배 연합 다수의 지지에 의한 것이었다. 화궈펑은 지배 연합 다수의 지지를 상실할 경우 지도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었다.

문제는 화궈펑이 지도자 지위에 오른 이후 지속적으로 자배 연합 구성의 재편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었다. 덩샤오핑이 공산당 지도부에 복권했으며, 이후 후야오방의 평반에 의해 문혁 시기 피해를 받은 간부들이 공산당 지도부에 복권했다. 화궈펑을 지지했던 범시파들은 이념적 노선

462 Pye, *The Dynamics of Chinese Politics*. pp.17-18.

투쟁 과정에서 공산당 지도부에서 축출되었다. 새롭게 지배 연합으로 충원된 정치 엘리트들은 화궈펑에 대한 공고한 지지 세력이 아니었다. 즉 화궈펑은 자신을 지지하는 독자적 지배 연합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던 것이다. 지배 연합의 점진적 재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화궈펑을 지지한 범시파가 축출되었고, 마오쩌둥의 문혁에 의해 축출된 간부들이 복권했다. 이 과정에서 재편된 지배 연합은 화궈펑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이는 화궈펑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권력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같은 권력승계의 불안정성은 역설적으로 체제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이념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것이 양개범시로 나타났다. 마오쩌둥의 후계자 화궈펑이 이념적 보수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데엔, 공산당 권력구조가 집단지배였기 때문이었다. 화궈펑은 중국 공산당에서 자신의 이념적 노선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웠다. 결국 중국 공산당은 11기3중전회에서 양개범시론을 폐기하고, 사상해방을 당의 이념적 노선으로 선택했다. 집단지배라는 권력 구조는 화궈펑이 지배 연합 다수의 지지를 상실하고 지도자 지위에서 물러나게 된 조건이었지만, 동시에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이념적 노선을 선택할 수 있었던 조건으로 작용했다.

제 4 장 북한 김일성의 권력승계

제 1 절 북한 로동당 권력 구조

1. 파벌 연합 구조의 형성

해방 직후 북한 조선로동당은 다양한 공산주의 세력의 제휴로 조직되었다. 해방 이후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출신과 배경을 달리하는 다양한 파벌들의 제휴가 그 바탕이었다. 김일성과 함께 중국 동북지역에서 항일 유격대 활동을 해온 만주파,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연안파, 소련이 북조선을 장악하기 위해 북한 지역에 불러들인 소련 국적 조선인들로 이뤄진 소련파, 국내에서 조선공산당 활동을 이어온 국내파 등이 있었다.[463] 김일성은 자신이 속한 만주파 뿐만 아니라 이들 다양한 파벌들과의 제휴를 통해 조선로동당을 건설할 수 있다. 로동당은 출범 초기 레닌의 소련 공산당 모델에 입각한 집단지배적 권력 구조였다.[464]

각 정파와의 연합을 통한 공산당 건설은 김일성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김일성은 해방 후인 1945년 해방 직후 소련에서 국내로 입국했다. 김일성 공산당 참여에 앞서 민족주의자인 조만식과 조선민주당을 창당했다. 외부 정당을 통해 공산당과의 제휴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일성은 국내파가 지배하는 조선공산당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산당 조직을 추진했다. 소련 국적 조선인 허가이가 주도하는 소련파, 중국공산당의 지휘를 받았던 조선의용군 사령관이었던 무정의 연안파가 이를 지원했다.[465] 그 결과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이 수립되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추진 과정에서 김일성은 국내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국내파는 한반도 전체의 공산당 세력을 서울 중앙의 통제에 두고자 했다. 당시 국내파는 한반도에서 가장 큰 공산주의 세력

---

463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 역사·이념·권력체계』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1), pp.74-78.

464 Adrian Buzo, *The Guerilla Dynasty: Politics and Leadership in the Dprk 1945-1994* (Sydney: Westview Press, 1999). p.28.

465 와다 하루키.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p.38.

을 형성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국내파 공산주의 지도자인 박헌영과 합의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각 파벌과의 연합과 타협에 의해 탄생할 수 있었다. 인사에서 파벌 연합 성격이 드러났다. 제1비서에 김용범, 제2비서 오기섭이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국내파로 분류되는 인사였다. 김일성은 집행위원 17명 중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다.[466]

김일성은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한 바 있다. "북조선에 민주주의적 근거지를 튼튼히 닦으려면 오직 우리당이 더욱 튼튼하고 강력한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하여 광대한 인민 대중을 우리당 주위에 결속 단결하여야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당은 북조선 각지에 산만하고 조직체계가 서지 않은 각도 지방당들을 결속하여 북조선의 모든 유리한 조건과 가능한 환경들을 이용하여 적당한 정치적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강유력한 중앙조직기관이 북조선에 필요함을 인정하고 1945년 10월 중순에 조선공산당 북조선 중앙국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467] 북조선 분국의 설치는 공산당이 각 사회 세력들을 통합하고 동원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김일성은 로동당을 결성하는 사전 단계로서 정치 엘리트들 간의 제휴 기구를 둔 것이다. 김일성은 파벌 간 연합의 조직적 틀로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했다.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 17명이 위원을 맡았다. 위원장은 북조선공산당 책임비서 김일성, 민주당 당수 최용건, 신민당 위원장 김두봉, 천도교청우당 위원장 김달현이 돌아가면서 맡았다. 이들 외에도 농민, 여성, 문화, 예술, 불교, 교육, 공업, 보건 등 각 분야의 단체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각 도에서 군까지 지부조직도 설치했다. 이에 따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정치 엘리트의 연합을 통해 사회 전체를 동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468]

김일성은 1946년 7월 22일 각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 보고에서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첫째, 이승만, 김구 등 민족반역자에 대한 투쟁을 통일적으로 더욱 강력히 전개할 것. 둘째, 각 계층의 인민들을 더욱 광범히 동원하며 단결시킬 것. 셋째, 20개조 정강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조선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분투할 것. 넷째,

---

[466]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pp.74-76.
[467]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제1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142.
[468] Ibid. pp.169-170.

인민위원회를 더 튼튼히 강화하기 위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공동한 협의기관을 만들 것.[469] 즉 김일성은 정치 엘리트 파벌들과 제휴를 확대하고, 사회를 동원할 수 있는 정치, 사회조직 수립을 일관되게 추진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은 그 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점점 더 확대할 수 있었다.

북조선민족주의통일전선은 38선 이북 지역의 정파들이 제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북조선로동당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신민당은 연안파인 김두봉과 최창익이 이끄는 정당이었다. 북조선공산당과 신민당의 통합은 결국 집권당의 지도력 확대에 있었다. 김일성은 1946년 7월 27일 북조선공산당 정기 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합당의 취지를 밝혔다. “우리의 임무는 남조선 인민이 북조선 인민과 같은 환경에서 살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이민의 모든 진보적 계층에 의거하는 당이 필요하다. 우리의 영향을 북조선에 그쳐서는 안 되며 남조선 전역에도 미쳐야 한다.” 결국 김일성은 집권당의 지도력은 정치·사회 세력의 제휴에 있다고 봤다.

북조선공산당과 신민당은 합당해 북조선로동당이 창립되었다. 그 창립식이 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열렸다. 당시 북조선로동당의 성격은 파벌 간 연합이었으며, 동시에 집단지도체제 성격을 갖고 있다. 파벌 간 연합과 집단지도체제라는 두가지 바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집단지도를 위한 위원회 조직을 구성하고, 그 위원들을 각 파벌이 서로 나누는 방식이었다. 파벌 간 연합은 집단지도체제라는 당 조직을 바탕으로 해 가능한 것이었다. 집단지도체제는 각 파벌들을 하나의 공산주의 정당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라고도 할 수 있다.

창립 당시 당규약에 따르면, 당중앙위원회는 일상적 정치 지도를 위하여, 중앙위원 중에서 5명의 정치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치위원 속에서 정치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중앙위원회의 회의와 회의 간에 일상적 당사업을 지도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11~13명의 상무위원회를 선출하기로 했다.[470] 정치위원수를 제한하고, 당위원장을 정치위원장이라고 한 것은 집단지배 성격을 보여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조선로동당의 집단지도체제를 통해 각 파벌들은 연합했다. 먼저

---

469 김일성.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1 (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pp.89-98.

470 박창옥. 「북조선로동당규약해설」, 『근로자』, 제5호, 1947.

지도부 조직 구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안파이자 신민당 지도자 김두봉이 위원장을 맡았다. 만주파를 대표하는 김일성과 국내파를 대표하는 주녕하에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정치위원은 소련파 허가이와 연안파인 최창익이 추가된 5명으로 구성되었다. 상무위원은 정치위원에 김책, 태성수, 김교영, 박정애, 박일우, 김창만, 박효삼, 오길우가 포함된 13명이었다.

물론 북조선의 정치 엘리트 파벌 간 제휴에서, 소련은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소련은 후견적 위치에서 김일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김일성의 결정이 다른 파벌로부터 거부당할 수 없도록 했다. 소련은 결정적 시기마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각 파벌의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는 김일성이 다른 파벌보다 정치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었던 유리한 조건이기도 했다. 1946년 7월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스크바로 불려가 스탈린을 만났다. 스탈린은 이들에게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을 제안했다. 두 지도자는 스탈린의 제안에 합당을 약속했다.[471]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다른 파벌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아직 그가 다른 파벌들을 압도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일성의 권력은 어디까지나 다른 파벌과의 정치적 제휴에 의존했다.

이처럼 북조선로동당은 파벌 간 제휴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면서도 만주파인 김일성은 연안파, 소련파와 함께 국내파를 압도하는 양성을 보였다. 만주파, 연안파, 소련파 중앙위원은 31명으로 국내파를 압도했다. 연안파가 19명으로서 가장 많았다. 특히 만주파, 소련파, 연안파는 중앙위원 서열에서 압도했다. 상위 26위까지에서 주녕하, 박정애, 장순명를 빼고 이들 세 파벌이 장악했다. 특히 공산주의 정당의 핵심인 조직과 선전 부문에서 연안파와 소련파의 독점은 두드러졌다. 소련파가 북조선로동당의 조직부장과 기관지 주필, 연안파가 간부부장과 선전부장을 차지했다. 소련파 조직부장, 연안파 선전부장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

[471] 로버트 스칼라피노, 이정식 역.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 해방후 편 (1945-53)』 (서울: 돌베개, 1986); pp.414-419. 안드레이 란코프. 『(소련의 자료로 본)북한 현대 정치사』 (서울: 오름, 1995), pp.76-79.

[표 14]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중앙위원 내 파벌 분포

만주파	4명	김일성, 김책, 안길, 김일
연안파	19명	김두봉, 최창익, 김창만, 허정숙, 무정, 리춘암, 김려필, 박효삼, 윤공흠, 김민산, 박훈일, 박일우, 김교영, 명희조, 한빈, 임해, 리종익, 김월송, 임도준
소련파	8명	허가이, 박창식, 김영태, 김렬, 김재욱, 한일무, 태성수, 전성화
국내파	10명	주녕하, 박정애, 장순명, 한설야, 최경덕, 강진건, 장시우, 오기섭, 리순근, 장종식
불명, 기타	2명	정두명, 김욱진

※ 출처 :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 pp.178-179.

북조선로동당은 다시 남조선로동당과의 합당을 추진했다. 당시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되는 상황이었다.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해선 공산주의 정당도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48년 8월 2일 북조선로동당과 남조선로동당을 지도하는 연합중앙지도기관을 설립했다. 두 당의 중앙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지도를 받는 형태였다. 이후 두 당의 중앙위원회는 조선로동당의 중앙위원회로 통합되었다.[472]

남북로동당의 합당은 조선로동당의 정파 연합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의미했다. 만주파, 연안파, 소련파, 북조선 국내계 외에 남로파가 당내의 파벌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남로파가 연합하게 되면서 김일성에게 남로파의 지도자인 박헌영이라는 도전자와 마주했다. 다양한 파벌들이 연합하면서 조선로동당의 집단지도 성격도 함께 강화했다. 개정된 당규약은 "중앙위원회는 정치지도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정치위원회를 선거하고, 정치위원 중에서 전당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중앙위원회비서들을 선거한다"고 규정했다. 조선로동당 의사결정에서 비서들의 역할을 추가해 집단지도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남북조선로동당 통합으로 위원장에 김일성, 부위원장에 박헌영, 허가이가 선출되었다. 그런데 당무 전반을 총괄하는 당비서식이 새로 생겨,

472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122~124.

제1비서 허가이, 제2비서 리승엽, 제3비서 김삼룡이 선출되었다. 김일성은 당위원장으로 뽑혔다. 그럼에도 집단지도 성격은 강했다. 당무를 총괄하는 비서직 신설되어 당위원장 권한이 비서들에게도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당정치위원회는 김일성, 박헌영, 김책, 박일우, 허가이, 리승엽, 김삼룡, 김두봉, 허헌 등 9명이었다. 북조선로동당 출신이 5명, 남조선로동당 출신이 4명이었다.[473] 조선로동당에 파벌들이 연합하기 위해선 김일성 개인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파벌연합과 집단지도체제 강화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파벌연합이 무너질 때 개인 지배는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 15] 북조선로동당 2차대회 중앙위원 내 파벌 구성

만주파	6명	김일성, 김책, 김일, 강건, 김광협, 김경석
갑산계	2명	리송운, 박금철
연안계	18명	김두봉, 최창익, 박일우, 김교영, 김민산, 진반수, 박훈일, 허정숙, 무정, 박효삼, 림해, 조영, 김웅, 박무, 리권무, 김한중, 리유민, 리종익
소련계	16명	허가이, 박창옥, 김재욱, 김렬, 한일무, 리희준, 김승화, 기석복, 태성수, 박창식, 리동화, 방학세, 김영수, 장철, 박영성, 김찬
국내계	13명	주녕하, 박정애, 김황일, 최경덕, 강진건, 한설야, 장순명, 김응기, 리북명, 장시우, 오기섭, 리순근, 장시우
테크노크라트	2명	정준택, 정일룡
모범노동자, 농민	8명	최숙양, 최재린, 리중근, 김고망, 김상철, 송제준, 김직현, 김태현
기타, 불명	2명	정두현, 김광빈

※ 출처 :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 pp.217

[473]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 pp.230-231.

2. 권력 구조의 변동

해방 이후 파벌들의 정치적 제휴는 조선로동당의 근간을 이루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각 파벌의 연합과 제휴에 따라 김일성의 권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김일성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다른 파벌들을 압도하는 강제력을 갖고 있거나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파벌들을 숙청할 수 있어야 했다. 김일성은 경쟁 파벌을 숙청하고, 그 직책에 자신의 파벌 인사들을 채울 수 있었다. 이는 김일성의 권력 강화로 이어졌다.[474]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은 다른 파벌과의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면서, 위협이 되는 파벌을 숙청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로동당 초기의 집단지배 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인지배로 전환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김일성은 자신의 만주파를 기반으로 연안파, 소련파와의 연합해, 최대 라이벌인 박헌영의 남로당 파벌을 숙청했다. 이후 각 파벌들을 숙청하면서 다른 도전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일인지배를 형성할 수 있었다.

김일성은 먼저 당 조직을 담당한 소련파의 허가이를 숙청했다. 1951년 11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다. 김일성은 당조직담당 제1비서 허가이를 ‘관문주의자’, ‘징벌주의자’라고 비판했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유엔군에 점령당하자 당원증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허가이가 다시 당증을 교부해주지 않았다. 김일성은 이를 가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엘리트 중심의 소련식 전위정당 모델을 추구했던 허가이의 조직 노선이었다. 허가이는 당내에서 ‘이색분자’나 낙후분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허가이의 당 조직 원칙은 폭넓은 대중적 기반을 갖는 대중정당을 추구한 김일성과 부딪쳤다. 주장했다. 허가이는 김일성의 비판을 받고 제1비서와 조직부장에서 부수상으로 좌천당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 국내계 박정애, 소련계 박창옥이 비서로 취임했으며, 소련계 박영빈이 조직부장에 발탁되었다.

당 조직을 장악해온 허가이가 물러난 다음, 김일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은 연안파인 박일우였다. 1950년 10월 8일 중국공산당은 참전을 결정했다. 마오쩌둥은 펑더화이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으로 보냈다.

---

474 박형중. 『북한의 정치와 권력 : 지배관계의 기원과 개념, 구조와 동태』 (서울: 백산자료원, 2002), pp.134-135.

펑더화이는 김일성에게 박일우를 부사령원 겸 부정치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요청했다. 두달만인 12월 3일 김일성은 베이징에서 마오쩌둥을 만나 조중연합사령부 창설을 합의했다. 조중연합사령부는 인민지원군과 북한군 모두를 지휘하도록 했다. 펑덩화이는 조중연합사령부의 사령원 겸 정치위원을, 덩화(登华)가 부사령원을 맡았다. 그리고 김일성의 추천으로 김웅이 부사령원에 취임했다. 박일우는 부정치위원이 됐다. 박일우는 북한 측 최고정치책임자가 되면서, 조선로동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얻게 되었다. 박일우는 조선로동당의 정치위원, 군사위원회 위원, 내무상이기도 했다.

박일우는 김일성에게는 군사적 위협이었다. 중국의 인민지원군 수십만명이 북한에 주둔한 상황이었다. 김일성은 군 지휘권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반격을 가했다. 군에 대한 당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군내에 당 조직을 투입하는 방식이었다. 먼저 1950년 10월 21일 조선로동당 정치위원회는 '조선인민군 내 정치부제의 실시와 로동당 단체의 조직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 이 결정에 따라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은 총정치국으로, 군단에서 대대까지 각급 부대 문화부는 정치부로 개편되었다. 만주파 최용건은 개편된 총정치국에서 민족보위상이 되었다. 김일성은 군을 장악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 사단, 군단, 총정치국에는 당조직 문제를 다루는 비상설 위원회인 '당코밋치아'를 뒀다.[475] 당의 군 통제 강화와 동시에, 북한군 병사들의 조선로동당 입당도 확대했다.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김일성은 당 군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일성은 군사위원이 당과 정부의 전권대표로 해당 단위의 당 정치활동과 군사활동을 지도, 통제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매월 군사위원회를 열어, 부대의 당 정치활동 상황과 전투준비, 군사훈련, 부대관리 상황 및 군인의 정치적, 도덕적 상태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476] 그리고 군사위원회를 통해 박일우를 군 지휘에서 배제했다.

김일성이 군에 대한 통제를 회복할 수 있었던 배경엔 당의 대중 조직 확대가 있었다. 김일성은 허가이를 물러나게 하면서 당원확대 정책을 추구했다. 군에서 당원들도 크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김일성은 당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군사위원회 구성에도 영향

---

475 이기원. 『북한군사론』 (서울: 통일연구소 1978). pp.527-531.
476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304-315.

을 미쳤다. 만주파 지휘관 중심으로 군사위원회를 구성, 김일성은 점차 군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953년 2월 박일우가 조중연합사령부 부정위원에서 소환되었다. 이어 3월엔 박일우가 내무상에서 해임되고 체신상으로 임명되어 권력에서 멀어졌다. 군과 치안 조직에서 박일우가 더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477]

당이 통제하는 군대라는 입장은 1952년 7월 인민군 창건 4주년 기념 연설에서도 드러났다. 총정치국장 김재욱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조선인민의 승리의 지도자이며 조직자인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군의 력사적 승리를 보장하였다. 당중앙위원회의 지도 아래 인민군 총정치국산하 각급 정치기관과 당단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동원하여, 군내 당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군내에서 당의 위신이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병사들은 로동당의 정확한 영도에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었다."

당 조직을 장악했던 허가이, 군을 장악했던 박일우가 물러나고 남은 도전자는 남로파의 박헌영이었다. 박헌영은 남로파는 물론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게다가 남로파인 리승엽은 당연락부 조직을 확대, 남한 출신자 수천명을 모아 독자적인 군대를 조직했다. 사실 김일성의 남로파와 국내파에 대한 반감은 이미 조선로동당을 창건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만주와 소련에서 항일무쟁투쟁을 펼쳐온 김일성에게는 국내 사회주의 파벌이 가장 큰 도전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전후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를 주도했던 최대 세력은 박헌영이었다. 이같은 정치 상황에서 김일성은 연안파, 소련파와의 제휴를 통해 자신이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 김일성이 주도한 제휴에서 국내파의 고립 양상은 북조선로동당 제2차 당대회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1948년 3월 27일부터 3일 동안 열린 회의에서 국내파에 대한 비판은 거셌다. 소련파인 한일무, 김렬, 김찬, 허가이가 국내파를 비판했다. 한일무는 원산지역을 종파의 소굴로 규정했다. 오기섭, 최용달, 리강국 등 국내파 인물들의 과오를 지적했다. 이어 함경남도당위원장 김렬은 오기섭, 정달헌이 북조선 분국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국내파에 대한 이 같은 비판과 관련, 김일성은 오기섭, 정달헌, 최용달이 "자기비판이 옳지 못하고 토론 내용이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조선로동당은 1950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자강도 강계시에서

---

[477]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 pp.421-427.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를 소집했다. 당시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중국과의 국경 근처까지 밀려난 이후였다. 조선로동당 지도부는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남로파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가했다. “남조선의 우리 당조직은 주민들을 급속히 동원하여 광범위하게 빨치산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여 그 결과 우리 인민군이 작전을 관철하는 데 추가적인 곤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당정치위원회는 자기의 결정으로 당중앙위원회의 최강력한 성원의 지휘 하에 빨치산부대를 특별히 조직하여 파견하였다. 그러나 허성택 동지를 포함한 빨치산부대 지휘관들은 당의 지시대로 적의 후방에서 싸우지 않았다.”[478] 박헌영에 대한 직접 비판 대신 허성택을 비판한 것이었다.

남로파에 대한 김일성의 반감은 1952년 12월 15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당중앙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나타났다. “친척관계 친구관계 한 고향 한곳에서 일하다 왔느니 또는 남조선이니 북조선이니 이것들만 캐고 그들을 개인적으로 끌어당기고 그들의 잘못은 그저 묵과하고 그들과 투쟁하지 않는 옳지 못한 현상들이 우리의 일군들 속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다 자유주의적 현상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소부르주아적 자기본위사상에서 출발하며 개인이익을 혁명이익에 복종시키지 않는 당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들과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이어 “종파주의 잔재의 표현은 다른 문제에 대하여서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도 오직 간부등용 간부배치에 대하여서는 눈을 밝히며 그의 능력여하 성분여야 사상적 진보여하를 불문하고 당성이 없든지 있든지간에 불관하고 그저 자기와 친한 사람이면 혹은 과거 자기그룹에 속하였던 자라면 혁명운동에 변절한 자들까지도 추천 등용하자고 애를 쓰며 또한 기회만 있으면 이런 분자들을 당 정권기관에 등용 배치하는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479]

남로파에 대한 숙청은 1953년 8월5일부터 닷세 동안 열린 당중앙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졌다. 회의에선 ‘박헌영의 비호 아래 리승엽 등의 도당이 감행한 반당적, 반국가적 범죄행위와 허가이의 자살사건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박헌영과 관계된 남한 출신자 들이 당중앙위원, 후보위원에서 추방되었다. 박헌영, 주녕하,

---

[478] Ibid., pp.389-390.

[479] 김일성. 「자료4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진술한 보고」,『북한연구자료집』, 2, 1974.

장시우, 김오성, 안기성, 김광수, 김응빈 등이 반당적 반국가적 파괴, 암해분자, 종파분자라는 이유로 중앙위원에서 물러났다. 남로당계 숙청과 더불어 이 회의에선 허가이의 자살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반당적 반국가적인 간첩, 파괴, 암해분자들의 그루빠를 적발, 폭록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하등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로파가 숙청된 이후 조선로동당 내 세력관계도 당연히 변했다. 박일우가 좌천되고, 허가이가 자살했으며, 박헌영이 숙청을 당했다. 연안파, 소련파, 남로파의 중심이 사라지면서, 각 파벌을 결속할 수 있는 동력도 사라졌다. 로동당 정치위원회는 이제 김일성, 김두봉, 박정애, 박창옥, 김일로 구성되었다. 박정애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으며, 김일은 만주파였고, 김두봉은 정치적 실권이 없었다. 박창옥은 소련파였지만, 허가이만큼의 영향력은 없었다.[480] 박창옥은 남로파 숙청에 앞장선 인물이기도 했다. 이제 김일성에게 도전할 만한 유력한 도전자들은 거의 사라졌다.

파벌들 간 균형이 깨지자, 당 조직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집단지도체제 성격의 비서직과 조직위원회가 폐지되었다. 일상 당무 처리에서 실권을 가졌던 제1비서는 사라지고 당위원장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상무위원회가 부활했다. 비서였던 박정애, 박창옥, 김일은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상무위원에 박영빈, 김승화, 남일 등 소련파가 진출했다. 대신 연안계 김창만이 선전선동부장에 임명되었다. 소련파의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남로파 숙청이 끝이 아니었다. 소련파인 박영빈은 1955년 2월 선전부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선전선동에서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문제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기하곤 했다. 또 김일성과 뜻과 달리 중공업 우선 발전보다 소비재 생산을 강조했다. 이러한 태도는 김일성의 반감을 불러왔다. 1955년 12월 2일부터 이틀 간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영빈에 대한 비판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소련파 간부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일성은 박일우와 허가이를 비판하면서, 박영빈이 여전히 허가이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결국 박영빈은 선전부장에서 해임되었다.[481]

남로파, 연안파, 소련파의 지도자들이 숙청을 당하는 사이, 새롭게

---

[480]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 pp.445-447.
[481] 沈志华.『 最后的天朝 : 毛沢東, 金日成与中朝関係』 (香港: 香港中文大学, 2017), pp.302-303.

부상한 세력은 갑산파였다. 갑산파는 김일성의 직계로 분류되었다. 갑산파는 1930년대 중반 함경남도 갑산에서 한인민족해방동맹활동을 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을 이끈 박달과 박금철은 만주의 항일 세력과의 연대를 꾀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일성과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김일성이 국내에서 명성을 얻게 된 보천보 전투에 박금철의 지휘로 리송운, 김왈룡, 허학송 등 갑산파가 참가하기도 했다.[482]

김일성과 밀접한 관계인 갑산파의 박금철은 1952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인민군총정치국 부국장에서 발탁되어 당 연락부장이 되었다. 이어 1954년 4월 전원회의에서 당간부부장, 당 정치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다시 11월 전원회의에서 당 조직지도부장을 맡았다. 소련파와 연안파가 맡아오던 당 조직 분야를 김일성의 직계가 담당하게 된 것이다. 또다른 갑산파인 리효순은 1954년 10월 당 검열위원장, 1955년 8월 국가검열상을 역임, 같은해 12월 당 간부부장에 발탁되었다. 당 규율 부분을 장악함으로써 갑산파는 연안파와 소련파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483]

갑산파가 조선로동당에서 세력을 확대하면서 김일성의 지배는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갑산파는 김일성에 대한 도전 세력들을 공격함으로 김일성이 집단지도체제에서 벗어나 유일지배체제로 가는 길을 도왔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도전자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지지세력을 채움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지도부를 장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조선로동당이 수립 초기 보였던 파벌 간 연합에 기반한 집단지배가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

[482] 조우찬, 「북한 갑산파 연구」, 『현대북한연구』, 19(1), 2016.
[483]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 pp.503-504.

[표 16] 조선로동당 권력구조 변화

	남북로동당 합당(1949.6)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1953.8)	
기관	명단	김일성 세력 비율	명단	김일성 세력 비율
위원장	김일성	1/1	김일성	1/1
부위원장	박헌영, 허가이		박정애, 박창옥, 김일	3/3
정치 위원회	김일성, 박헌영, 김책, 박일우, 허가이, 리승엽 김삼룡, 김두봉, 허헌		김일성, 김두봉, 박정애, 박창옥, 김일,	4/5
상무 위원회	폐지		김일성, 김두봉, 박정애, 박창옥, 김일, 박영빈, 최원택, 최창익, 강문석, 정일룡, 김황일, 김승화, 김광협, 박금철, 남일	10/15
조직위원회	김일성, 박헌영, 박일우, 허가이, 리승엽, 김삼룡, 김두봉, 허헌, 최창익, 김열	2/11	폐지	
비서	허가이(제1비서), 리승엽(제2비서), 김삼룡(제3비서)	0	폐지	

※ 출처: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258.

3. 김일성 일인지배 강화

김일성이 독점적인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1955년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시했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대하여’라는 발표문을 통해서였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이라고 불리게 된 이데올로기를 제시한 것이다. 김일성은 맑스-레닌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구체적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나라 당들의 투쟁 경험을 조선의 실정과 결부하여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당원들에게 불어넣는 경향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484]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이데올로기가 일반적 명제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소련 방식을 강조하는 소련파나 중국 방식을 강조하는 연안파 모두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격일 수 있다. 다음 북한의 실정에 맞게 당사상사업, 계급교양을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계급교양을 통해 당원과 근로자를 불굴의 혁명투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김일성은 이데올로기를 막연하게 정권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로동당 조직 구성, 재편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김일성이 제시한 이데올로기에 해당하지 않는 파벌인 소련파나 연안파는 당연히 자신들이 당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신호’(signal)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배제된 파벌은 김일성으로부터 이탈하고 새로운 제휴를 모색을 시도할 것이다.

김일성에 대한 반발 움직임은 김일성이 1956년 6월 4일 소련으로 떠난 다음날 벌어졌다. 연안파 원로 최창익은 6월 5일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바노프 소련 대사에게 조선에서 집단지도체제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지 소련 지도부가 모스크바에서 김일성과 회담할 때 지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이바노프 대사는 다시 면담 약속을 잡았다. 최창익은 이틀 후인 8일 소련 대사와 단독 면담을 다시 가졌다. 최창익은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했다.

“간부의 선발과 임명에 연고주의와 파벌 투쟁이 존재한다. 당의 영도자(김일성)는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조직 문제의 과오를 허가이에게 전가하였다. 소련계 조선인 간부 허가이와 박창옥에 대한 비판과 투쟁은

---

[48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략사』 2 (서울: 돌베개, 1989), pp.47-48.

불공정하다. 현재의 중앙상무위원회 간부 대부분은 자질이 떨어지고, 경험이 부족하며 아첨배들이다. 당내에서 정상적인 비판과 자아비판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당의 회의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다. 조선 지도부는 조선 해방 과정에서 소련의 역할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교조주의와 형식주의 비판을 통하여 소련 문화의 제거를 옹호하고 있다." [485]

김일성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1956년 7월 14일 소련 대사관을 방문한 이필규(당시 건설자재국장)의 발언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김일성 개인 숭배는 용인할 수 없는 성격이 되었다. 그는 어떤 비판이나 자아비판도 용인하지 않는다. 김일성은 중앙위원회와 내각에서 아첨꾼과 추종자에 둘러싸여 있다"고 했다. 이어 김일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당내의 갈등을 전했다. "최용건은 최근에 김일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최창익은 혁명적 이력을 갖고 있는 자로, 김일성과의 투쟁이 시작되면 그와 적으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했다. 동시에 김일성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 비판했다. "박정애는 소련의 공산당 당교를 나왔지만, 일제가 방치했다"라고 하거나 "한설야는 총살당해야 한다. 역겨운 아첨꾼"이라고 했다.[486]

김일성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1956년 8월 전원회의를 앞두고 구체화했다. 북한 외무상 남일이 소련 대리대사 페트로브에게 7월 24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했다. "소련계 박창옥이 남일의 집에 찾아와 자신과 최창익, 김승화 등 간부들이 김일성의 통치 방식과 개인 숭배 과오를 신랄하게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남일은 "주석단의 일원으로서 김일성 과오를 수정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김일성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일의 이야기를 들은 페트로브는 "소련계(Soviet-Korean)가 나서서 김일성을 비판하게 되면 그릇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487]

김일성은 소련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8월 30일 전원회에서 김일성은 소련계 중심의 반대파에 반격을 가했다. 소련계이자 무역상 윤공흠은 김일성 개인 숭배 문제를 집중 비판했다. 그리고 김일성 개인 숭배 문제 토론, 당내 민주주의 보장 등에 대

---

[485] James F Person, "New Evidence on North Korea in 1956,"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16 (2006). pp.475-476.
[486] Ibid. pp.478-480.
[487] Ibid. pp.480-481.

한 토론을 요구했다. 김일성은 윤공흠의 발언을 중단시켰다. 최창익도 발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최창익은 개인숭배가 로동당의 큰 문제라는 발언을 했지만, 수차례 비판을 받았다.

김만금은 최창익을 수계로 하는 반당 집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모두 구금할 것을 제안했다. 또 김창만, 현정민, 리일경, 최용건은 윤공흠, 최창익, 박창옥, 서휘, 리필규 등을 실명 비판했다. 박창옥은 자신에 대한 변론권을 요구했지만 항의로 인해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폐회사에서 김일성은 최창익과 박창옥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고, 회의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다음날 속개된 회의에서 '최창익, 윤공흠, 서휘, 리필규, 박창옥 등 동무들의 종파적 음모 행위에 대하여'라는 결의가 통과되었다. 또 감찰위원회가 최창익과 박창옥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했다.[488]

이로서 8월 종파사건이 일단락되었다. 종파사건을 전후로 김일성은 일인지배로 나아갈 수 있었다. 김일성계가 최초로 정치위원회 내 다수가 된 건 1956년 3차 당대회에서였다. 국내파를 제거한 이후였다. 이어 8월 전원회의에서의 종파사건에서 연안파, 소련파를 숙청했다. 1956년 8월 종파사건은 집단지도체제에서 김일성의 유일체제로 가는 결정된 사건이었다. 이후 김일성 지지 그룹인 만주파와 갑산파는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조선로동당을 장악하게 됐다. 김일성의 일인지배가 확립된 것이다.[489]

김일성은 빨치산 출신들의 강력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도전을 물리칠 수 있었다. 국내파 지도자들이 도전했을 때엔 연안파가 중립을 취하면서, 동시에 소련계가 김일성 편에 섰다. 이후 연안파가 김일성에게 도전했을 때엔 숙청을 피한 국내파가 연안파에 가세하지 않았다. 소련계의 경우 결속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소련계는 허가이의 자살에도 소련계는 김일성에 집단적으로 도전하지 않았다. 소련계는 소련의 여러 지역에서 온 이들로 어느 한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 애초 연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항일 게릴라 활동으로 묶인 빨치산 그룹이 강력한 결속력을 가졌던 점과 반대라고 할 수 있다.[490]

북한 지도자를 정하는 조선로동당 정치위원회 구성이 김일성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김일성은 다른 지도그룹과의 제휴를 통해 도전

---

488 沈志华. 『最后的天朝 : 毛沢東, 金日成与中朝関係』, pp.342-343.
489 최진욱.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1996), p.29.
490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pp.136-137.

하는 파벌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했다. 그리고 그 파벌이 무너진 자리에 자신의 사람들을 채워나갔다. 고립, 숙청, 충원으로 이어지는 선정인단 재편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승리 연합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집단지배를 일인지배로 전환할 수 있었다. 연안파, 소련파는 김일성의 권력 확대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항하지 못했다. 집합행동의 딜레마에 처했던 것이다.

4. 일인지배의 확립

김일성은 다른 파벌들을 숙청하면서, 독점적인 권력을 얻었다. 1961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는 이러한 당내 권력 변화를 반영했다. 김일성은 총화 보고에서 "국내외에서의 계급투쟁은 당 내에서도 반영되었으며 반당 종파 분자들은 어려운 시기에 당과 혁명을 반대했습니다"면서, "우리 당은 모든 시련들을 이겨냈으며 투쟁의 모든 전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당 대열을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였습니다"고 했다.[491] 김일성이 당 내 파벌 문제를 해소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당 조직을 개편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일성이 권력투쟁에서 승리를 선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김일성이 권력을 독점하는 일인지배는 이념적 차원에서도 나타났다. 단일 이념으로 통일이었다.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초급 당 단체에 이르기까지 전체 당 단체들과 당원들이 하나의 사상 의지로 굳게 결속되었으며 당 사업에서 낡은 틀이 청산되고 혁명적 사업 작풍과 사업 방법이 전 당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이 사상 의지의 단결과 통일을 밝혔다. "우리나라 노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역사에서 오늘과 같이 우리 당이 사살적으로 강화된 때는 없었으며 오늘과 같이 전 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 단결된 때는 없었습니다."

4차 당대회는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김일성의 총화 발언에 대한 간부들의 토론에서도 일인지배를 나타났다. 토론은 박금철, 김창만, 리효순, 박정애, 김광협, 남일 순으로, 총 41명이 참여했다.

---

[491]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제2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70.

모두 김일성에 대한 지지를 밝히는 발언들이었다.[492] 이들 발언들은 김일성이 북한 로동당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김일성에 대한 대대적인 충성 선언과도 같았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일관되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박금철은 "당은 1956년 3월 전원회의와 1958년 3월 제1차 대표자회의를 계기로 하여 우리 당 발전에서 고질로 되어 오던 종파를 뿌리채 뽑아 버리고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역사적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라고 했다. 또 "모두 다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당 대회가 제기한 전투적이며 강령적인 과업을 받들고 그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전진합시다"라고 했다. 김일성에 대한 충성과 지지를 표현한 것이다. 김창만의 발언도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담았다. 그는 "전 당은 김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한 몸 한 뜻으로 단결되었다"고 말했다.[493]

개인숭배에 가까운 발언도 이어졌다. 리효순은 "김일성 동지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들과 명제들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총 노선을 정확히 규정했다"면서, "항상 비상한 통찰력과 과학적 예견성을 가지고 복잡한 혁명 발전의 매 시기와 매 계단에 적응하여 우리 당의 행동 방향과 방침들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것을 완강한 투지와 혁명적 전개력으로써 빛나게 구현시켰다"고 했다.[494] 이는 중국 공산당에서 린뱌오가 마오쩌둥에 대해 천재론을 제시한 것과 유사했다. 당 고위 간부의 개인숭배 발언은 일인지배로의 전환을 알리는 징후라고 할 수 있었다.

제도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전 조선로동당 규약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제3차 당대회에서 집체적 지도에 대한 원칙과 당내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런데 제4차 당대회에서 집체적 지도 대신 중앙집권이 강조되었다. 김일성의 안정적인 집권이 이뤄진 것이다.[495] 김일성이 권력을 다른 파벌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권력을 독점했다. 이 같은 권력 분포의 변화에 따른 점진적 제도 변천이 시작된 것이다.

---

[492] Ibid. pp.71-72.
[493] Ibid. pp.165-185.
[494] Ibid. p.199.
[495] 최진욱.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pp.30-31.

일인지배로의 변화는 1966년 10월 12일 중앙위원회 제4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나타났다. 전원회의는 당의 중앙 조직 개편을 결정했다. 북한은 당 및 국가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상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 중앙위원회에 상무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런데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를 폐지하고, 대신 총비서, 비서 직제로 개편했다. 또 비서국을 신설해 당의 노선과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과 당 사업을 조직하도록 했다.[496] 집단지배 제도 성격을 담은 위원장직이 폐지된 것이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간부 문제, 당내 문제, 당면 문제 등을 정기적으로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 지도하도록 했다. 비서국은 중앙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부서를 일상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당의 중추기관인 것이다. 비서국의 분야별 각 담당비서는 소관별 각 부서를 관장,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을 지도·통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총비서는 최고실권자이며, 각 담당 비서로부터 보좌를 받는다. 비서국은 총 비서 1명과 비서 9명으로 구성된다.[497]

총비서제, 비서제로의 개편은 김일성의 일인지배 강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에서는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의 권위도 용인했다. 정치위원에서도 각 정치위원이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있어서, 그 속에서 독립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총비서, 비서직으로 개편에 따라 총비서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수령 중심의 당 국가 체제로의 전환이었다. [498] 김일성으로의 권력 집중에 따라, 이전 집단지배에 따른 조직 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다. 권위주의 지도자의 권력 강화는 일인지배로의 제도 변천으로 귀결되었다.

신설된 비서국의 총비서는 김일성이 맡았다. 비서로는 최용건, 김일, 박금철, 리효순, 김광협, 석산, 허봉학, 김영주, 박용국, 김도만이 선출되었다. 김일성은 총비서로 비서들의 도움을 받았다. 당내 단일지도체제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반면 상무위원회의 권한은 약화했다.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금철, 리효순, 김광협 등이 선출됐다. 김일성에 도전할 만

---

496 김정일.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평안북도 및 대관군당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8월 19일)」, 『김정일 전집 』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497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p.204.

498 김갑식, 『김정일 정권의 권력 구조』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pp.86-87.

한 인물은 없었다.[499] 집단지도 성격을 갖는 상무위원회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후 실제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 찾기 어려웠다.[500] 비서국은 당의 정책 집행 기구로 총비서인 김일성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 북한에서의 일인지배인 '수령제'로 나아가는 제도 변화였던 것이다.[501]

한편, 비서국과 함께 로동당 중앙의 지도 조직인 정치국은 복잡한 부침을 겪었다. 정치국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선출된다.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게 그 역할이다. 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양당합당대회(신민당과 함당)에 이어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처음 선출되었는데, 제3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회로 명칭 바뀌었고, 제4차 당대회에서 다시 정치위원회가 되었다. 그리고 1966년 10월에 개최된 당대회에서 정치위원회 내에 상무위원회를 신설했다가, 다시 1970년 5차 당대회에서 폐지했다. 1980년 10월 제2차 당대회에서 정치위원회의 명칭을 정치국으로 바꾸고,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신설했다.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치국 위원들의 변화는 1966년 이후 상대적으로 적었다.[502]

5. 김일성 사후 권력구조: 일인지배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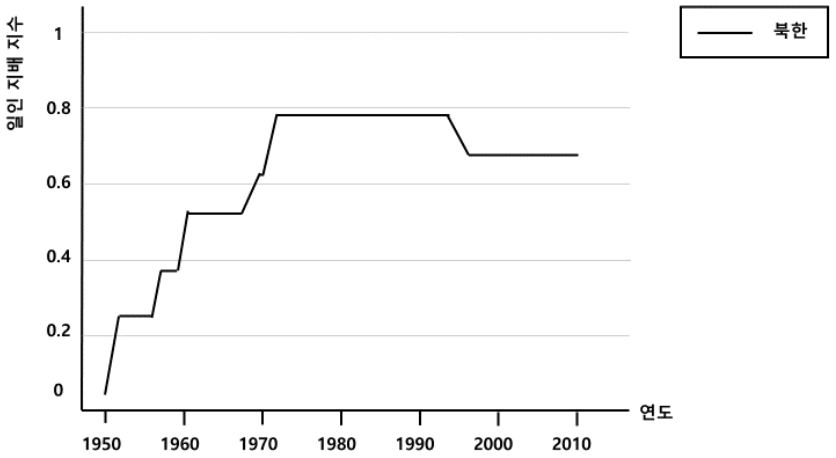
사실 북한은 김일성 이념의 계승성을 담보하기 위해 권력승계 과정에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선 후계자 선출의 세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는 후계자가 전민중적인 추대에 기초해서 선출해야 한다. 둘째, 세세대의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셋째, 수령 생존시에 선출해야 한다. 첫번째는 형식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두 가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국에서 발생하기 쉬운 권력승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먼저 새 세대의 인물을 선출하는 것은 잦은 수령의 교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수령이 자주 교체되면 영도 기간이 짧아지고 후계자 역시 자주 추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수령이 자주 바뀌면서 영도

499 최진욱.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p.34.
500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298.
501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 변화』 (서울: 선인, 2009). pp.202-203.
502 북한연구소. 『북한총람』(서울: 북한연구소, 1983), p.203.

력 부재의 위험성도 커진다고 설명한다. 다음 수령이 살아 있을 때 후계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후계자 육성과 관계 깊다. 수령이 생존한 상황에서 후계자가 수령의 사상과 변혁 노선, 영도 체계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령의 사상과 영도가 시간적 공백 없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후계자는 수령이 죽기 전 자신의 영도 체계를 공고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령 사후 권력 투쟁이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503]

[그림 6] 북한의 일인지배 지수의 변화



※ 출처 : Geddes et al.,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p.83.

마오쩌둥과 달리, 김일성 사후 후계자의 집권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다. 이는 북한에서 밝힌 후계자 선출의 원칙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선 소련이나 중국에서 권력승계가 불안정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이 앞서 제시한 후계자 선출의 원칙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후계자가 전임자의 이념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문제를 고민했던 것이다. 이것이 김정일로의 안정적인 권력 이양과 집권 유지를 가능케 했던 것이다.

---

503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발행처불명, 1989), pp.45-52.

제 2 절 후계자 선정 시기

중국에서 마오쩌둥은 일인지배를 확립하면서, 린뱌오를 공식적 후계자로 지명했다. 이후 마오쩌둥은 왕훙원, 덩샤오핑, 화궈펑을 후계자로 지명했다. 그런데 북한에선 김정일이 북한에서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기 전에 김일성의 뒤를 잇는 2인자 지위를 두고 경쟁이 벌어졌다. 갑산파 사건, 허봉학 사건 등 2인자 지위를 둘러싼 권력 투쟁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북한에서 애초 후계자로 예상되었던 김영주가 탈락하고 김정일로의 후계 문제가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갑산파의 숙청

북한에서 일인지배가 확립되면서, 이념에 따른 분화는 발생하기 어려웠다. 지도자가 주장하는 이념만 존재하게 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일성의 일인지배에 따른 이념의 통일은 1967년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유일사상체계'로 나타났다. 유일사상체계에 따르면, 김일성으로 중심으로 로동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전당을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해야 한다고 했다. 당 내에선 오직 하나의 사상만이 있을 수 있으며, 유일사상은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 사상이다. 그리고 수령은 인민대중의 혁명 투쟁을 영도하기 위해 혁명 정당을 조직한다. 그리고 전당은 수령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했다.[504]

갑산파인 박금철은 1956년 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1966년 비서국 비서를 역임하면서, 김일성의 2인자로 부상했다. 그런데 박금철은 다른 갑산파 당 간부들과 함께 1967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숙청 당했다. 김일성의 이념에서 빗겨갔다는 이유였다. 북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당내에 나타난 수정주의 및 부르주아 분자들을 폭로 분쇄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으며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철석같이 강화하며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데서 새로운 획기적 계기로 되었다고 한다.[505] 김일성은 회의에서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강령적 과

---

[504]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략사』 2, pp.217-220.
[505] Ibid.. pp.599.

제를 제시했다고 한다.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면서, 김일성은 박금철을 비롯한 갑산파를 숙청했다. 갑산파는 김일성이 소련파, 연안파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이 제휴했던 정치 세력이었다. 문제는 갑산파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투쟁이라는 혁명 전통과 다소 빗겨가 있었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면서, 전당을 항일 빨치산 투쟁 전통으로 일색화하고자 했다. 그런데 갑산파는 김일성과 보천보 전투 등에서 협력하기는 했지만, 국내에서 항일 활동을 진행했던 그룹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국광복회 활동을 또다른 혁명 전통으로 선전했다. 예를 들어, 영화 '내고향'은 농민들이 친일파의 착취에 저항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갑산이 있었던 함경도의 지역색을 강하게 담고 있었다. 이는 항일 빨치산 투쟁 전통을 전당에 관철하고자 했던 김일성의 생각과 배치됐다.[506]

갑산파 숙청 과정에서 이들에게 씌워졌던 죄목은 반당수정주의 분자들이었다. 즉 김일성의 이념으로부터의 이탈이었다. 북한 측 자료에 따르면, '박금철, 김도만 등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혁명전통교양을 방해하였다'고 했다. 이어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죄행의 본질은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체계, 영도체계를 세우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 당을 수정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했다'고 비판했다.[507] 그리고 '전원회의에서 반당수정의 분자들이 당과 혁명 앞에 저지른 죄행을 폭로 분쇄하기 위한 사상투쟁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김정일이 전하는 갑산파의 죄목은 크게 이념적 차원과 제도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념적 차원에서 갑산파는 당의 혁명전통을 말살하려고 했다고 한다. 갑산파 간부들은 "당 사상 사업을 맡으면서 혁명전통교양이 공산주의 교양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산주의 교양만 하면 혁명 전통 교양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항일 빨치산 참가들이 쓴 회상기는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것이라고 했으며, 소설을 보듯히 한번 읽어보면 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508] 갑산파는 혁명전통 교양이라는 김일성의 이념 독점을 무너트리고

---

506 조우찬. 「1967 년 북한 갑산파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의 종결」, 『현대정치연구』, 10(1), 2017.

507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pp.400-401.

508 김정일. 「량강도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튼튼히 꾸리자: 량강도책임일군 및 항일혁명투사들과 한 담화(1968년 7월 21일)」, 『김정일

자 시도했다는 것이다.

조직적 차원에서 갑산파는 유일적 영도체계를 집체적 협의체로 전환하려고 했다고 김정일은 밝혔다. 일인지배에서 집단지배로의 제도를 바꾸려고 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은 위대한 수령의 높은 권위를 헐뜯고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허물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했다”며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하고 수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혁명 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무시하고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집체적 협의제’로 대치하려는 반혁명적이며 수정주의적인 행위를 했다”고 했다.[509]

갑산파 숙청은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의 이념과 다른 이념을 제시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조직 차원에서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도전 세력이 후계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 선정인단에 진입할 수 없게 되었다. 김일성은 로동당 내에 하나의 이념만을 내세우고자 했다. 그리고 그 이념에 따라 조직을 통일하고자 했다. 조금이라도 다른 이념을 내세우는 것은 로동당 내에서 다른 제휴 세력을 형성하는 일이면서, 김일성에게 위협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 일인지배에선 권위주의 지도자와 다른 이념 자체가 허용되기 어려웠다. 이념에 따른 정치 엘리트 분화, 노선 투쟁, 집권당 지도부 조직 재편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구조였다.

갑산파와의 투쟁의 결과, 북한에서 혁명전통은 김일성이 주도한 항일 빨치산 투쟁이 유일하게 되었다. 3·1운동과 같은 투쟁은 부르주아 민족운동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1920년대의 사노동운동 역시 김일성에 의해 지도를 받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항일 투쟁은 오직 김일성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동당이 계승해야 할 혁명전통은 오직 김일성의 항일투쟁이라고 했다.[510]

일인지배에서 지배 연합의 정치엘리트들이 지도자와 다른 이념적 선호를 갖기 어렵다. 만일 다른 이념적 선호를 내세울 경우 지배 연합에서 배제되기 쉽다. 지배 연합의 정치엘리트들은 지도자와 이념적 선호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도자가 지배 연합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전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509 김정일.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일군과 한 담화(1967년 5월 25일)」, 『김정일 전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510 편집국. 「김일성동지는 조선혁명의 력사적뿌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창시자이시다」, 『근로자』, 제4호, 1970.

가능성은 극히 낮다.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 일인지배를 확립한 이후, 일부 다른 이념적 성향을 보인 갑산파가 모두 숙청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마오쩌둥이 일인지배를 확립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문화대혁명 시기 마오쩌둥은 자신의 이념으로부터 벗어난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을 수정주의로 지칭하며, 당에서 축출했다. 마오쩌둥의 후계자이자 2인자였던 류샤오치는 이념적 선호의 차이로 인해 숙청되었으며, 대신 마오쩌둥과 이념적 일치를 나타냈던 린뱌오가 공식적 후계자로 지명되었다. 1975년 덩샤오핑에서 화궈펑으로의 후계자 교체도 이념적 이유 때문이었다. 중국이나 북한 모두에서 일인지배가 확립된 이후엔 다른 이념적 성향을 지닌 정치 엘리트들이 분파를 이루지 못했다.

북한 김일성이 이념만이 당을 지배하는 유일사상체계가 제시되었다. 당이 당중앙으로부터 세포에 이르기까지 전체 당원들이 오직 김일성의 혁명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유일사상체계는 부르주아 사상, 사대주의사상, 교조주의사상, 봉건 유교사상 등 반혁명 사상과의 투쟁을 통해 구축했다고 했다.[511] 이에 따르면, 유일사상체계는 다른 이념을 추구하던 파벌과의 투쟁 과정을 통해 확립한 성과이다. 북한 로동당 내에선 하나의 이념을 추구하는 단일한 정치 세력만 남게 된다. 유일사상체계는 조직과 이념 모두가 수령의 한 사람에 의해서 독점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북한에서 유일사상체계는 김일성 이념에 따라 당 조직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라고도 설명된다.[512]

따라서 일인지배에선 이념의 단일성으로 인해 이념적 선호에 따른 지도자 선택이 존재하기 어려웠다. 정치 엘리트가 집권당 조직에서의 직책을 갖기 위해선 지도자의 이념에 대한 절대적 지지 외에는 방법이 없다. 새로운 이념을 내세울 경우, 지도자는 즉각적인 숙청에 나설 수 있다. 이는 집단지도 제도에서 서로 다른 이념을 지지하면서 이념적 분파를 형성하고,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 정치적 제휴를 이루는 모습과 대비된다. 일인지배에서 지도자는 이념을 독점하면서 안정적인 권력을 향유하게 된다.

---

[511] 편집국. 「우리 당 제5차대회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맞이하자」, 『근로자』, 제1호, 1970.
[512] 김국훈.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원칙」, 『근로자』, 제5호, 1970.

한병진의 연구는 지배 연합 내 엘리트들의 이념적 일체가 없어도, 정치엘리트들 사이에 조정 과정을 통해 지배 연합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조정 이론을 통한 연구에 따르면, 사적 신념에 차이가 있어도 공고한 협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513] 그러나 이는 혁명에서 기원한 사회주의 정당의 성격과 다소 거리가 있는 설명이다. 이념은 조직 정책을 결정하고, 조직은 정치 엘리트들의 선호이다. 이념은 조직적 선호에 대한 기대이익의 신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념과 무관한 공고한 협력이 북한 로동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갑산파 숙청 과정에서 이념에 대한 공격은 곧바로 로동당에서 갑산파의 축출로 이어졌다.

2. 군 지휘부의 부상

김일성 역시 1967년 유일사상체제에 따른 일인지배를 확립하면서, 군에 대한 통제 문제에 직면했다. 1967년 민족보위상과 대남총국장에 각각 오른 김창봉, 허봉학은 군과 대남사업총국을 장악했다. 이들은 대남 사업에서 성과를 통해 김일성에게 인정을 받고자 했다. 나아가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를 밀어내고 당권을 장악하고자 했다. 1968년 한국의 청와대 습격사건이나 울진 ·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은 이들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남조선 해방과 통일전략계획’ 이라는 계획에 따라 1970년대 초반까지 남조선을 해방하고 김일성의 환갑을 서울에서 지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1960년대 군이 자율성을 확대하고 ‘군사 모험주의’ 경향을 드러냈다. 이 배경엔 북한의대외 관계 인식 변화가 있었다. 먼저 김일성의 대남 인식 변화가 있었다. 김일성은 1960년과 1961년 한국에서 일어난 국가 혼란을 기회로 삼지 못했다고 후회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해 호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이 기간 한국에선 4·19 혁명, 박정희 쿠데타가 있었다. 김일성은 한국에서의 정변 사태를 북한을 중심으로 한 통일의 기회로 인식했다. 한국 내 급진 혁명 조직을 건설하고, 한국에서의 정치적 사건이 발생할 때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동시에 북한 군을 한국에 침투시켜 게릴라 작전, 테러를 수행해야 한다고 봤

[513] 한병진. 「북한의 권력게임과 빗장전략」, 『현대북한연구』, 16(1). 2013.

다.[514]

1960년대 중소 분쟁,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의 북한 비난이 발생했는데, 이는 북한 · 중국 · 소련의 상호 관계 악화를 불러왔다. 북한 입장에서 중국과 소련의 적극적인 안보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방에서 자위를 추구했다. 게다가 한국에선 5·16 쿠데타로 인해 남북한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북한 지도부는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회에 군사적 가치와 정책이 우선하는 군사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제시했는데, 김창봉, 최현, 허봉학, 최광, 오진우 등 군부 지도자들은 경공업과 농업을 희생시키더라도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일성의 군을 우대했고, 군의 자율성과 특권은 확대되었다. [515]

이에 따라 군은 김일성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있었다. 군사 업무와 관련 당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았다. 당 군사위원회나 정치위원회를 통해 군을 지도했지만, 구체적인 군사 업무는 군 지도부에 일임했다. 김일성은 자신과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함께 한 만주파와 그들의 측근들을 군 지도부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군 문제를 맡겼다.[516] 군의 특권과 자율성 확대는 군에 대한 당과 김일성의 통제로부터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군이 김일성의 일인지배에 또다른 위험 요소일 수 있었다.

군을 통제하는 문제의 심각성은 김정일의 발언에서 드러났다. 김정일은 1965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제4기 10차 전원회의)에서 일군들이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인민 위에 군림하여 세도를 부리는 현상에 대하여 엄하게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개별간부들을 우상화하고 아부아첨하는 현상이 허용되면 인민군대 안에서 당과 수령도 몰라보고 전횡과 독단을 부리는 군벌관료주의자들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517] 같은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간부들과 담화에서, 김정일은 군에 대한 당의 통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군사지휘관들을 특수화하면서 결함을 범하여도 비판하지 않고 그들에게 당적

---

[514]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North Korean Strategy and Tactics: An Appraisal, April 1978.
[515] 김성주. 「1960 년대 북한의 군사주의 확산 과정 연구」,『현대북한연구』, 18(2), 2015.
[516]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p.125-126.
[517] 김정일. 「인민군대간부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잡을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일군과 한 담화 (1965년 10월 13일)」, 『김정일 전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분공도 주지 않으면 그들이 당조직도 안중에 없고 군인대중도 몰라보는 독선주의자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였다. 김정일은 군의 특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를 약화시키고 인민군대를 특수화하였으며, 당의 군사 노선과 전략 전술적 방침들을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관철하지 않았다”며 “인민군대 안에서 당 조직과 정치 기관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인민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를 약화시켰다”고 했다.[518]

이 같은 군의 문제는 1968년 9월 김영주의 보고로 전면화했다. 한 달 뒤 김일성은 당 중앙의 ‘검열 그루빠’를 집단군, 군단, 사단에 파견, 두 달간 검열을 벌였다. 그 결과 김창봉 등 군 수뇌부가 호화별장을 지어놓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특수훈련을 이유로 도당, 군인민위원회 등 사무소를 습격해 인민위원장을 납치하기까지 했으며, 마음대로 병사들을 구타·고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일성은 1969년 1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 제4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56년 8월 종파 때보다 그의 죄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8월 중 이들은 뒤에서 쑥덕거리며 당의 유일사상을 헐뜯는 놀음이나 했지 당의 군사 노선을 엎어 놓치는 못했다”면서 “최창봉, 허봉학은 당의 군사 노선을 전부 엎어 놓았다”고 했다.[519]

김일성은 김창봉, 허봉학, 최광, 김철만, 유창권, 김양춘, 김정태, 정병갑 등을 숙청했다. 그리고 민족보위상 최현, 총참모장에 오진우, 총정치국장에 한익수를 임명하고, 대남비서에 김중린을 임명했다. 나아가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조치였다. 김일성은 사단, 연대에 정치위원회제를 두고 당을 대표하도록 했다. 또 모든 명령서에는 군사 간부 혼자서 서명하지 못하고, 정치위원이 서명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당이 군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취지였다. 당 조직부 내에 군 간부 사업을 장악하도록 했으며, 조직부에 군의 정치 일꾼들을 담당하는 부부장과 담당과를 신설했다.[520]

김일성은 마오쩌둥과 유사하게 일인지배를 확립하면서, 군을 통제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에서 군에 대한 통제는 다른 양

---

518 김정일.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1969년 1월 19일)」, 『김정일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519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p.127.

520 Ibid. p.128. 고명균. 「1960 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당·군 관계 변화」, 『현대북한연구』, 18(3), 2015.

상으로 전개되었다. 마오쩌둥은 군 출신인 후계자였던 린뱌오의 사망 이후 다시 숙청했던 원로 간부들을 다시 복권시켰다. 군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문화대혁명으로 당 조직이 와해된 상황에서 북한 김일성처럼 당 조직을 통해 군을 통제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마오쩌둥의 일인지배는 이 과정에서 약화했다. 반면, 김일성은 일인지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북한은 일인지배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당 조직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당 조직을 군을 통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공산당 조직 자체가 공격을 받았고, 군을 통제하는 데 충분한 조직적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문화대혁명으로 군은 당을 대체한 것이다.[521] 마오쩌둥은 문혁 시기 부상한 군을 통제해야 했고, 이를 위해 일인지배를 약화하는 대신 집단지배를 일부 복원하는 방식으로 당 조직을 재건해야 했다.

이러한 결정적 차이가 이후 김정일과 화궈펑으로의 권력승계에서 각기 다른 제도적 조건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집단지배가 다시 복원되었으며, 북한은 일인지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중국 정치 체제는 집단지도(집단지배). 북한은 수령제(일인지배) 체제로 규정될 수 있다.[522] 화궈펑과 김정일은 건국을 이룬 카리스마적 지도자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고, 전임자의 이념의 계승자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찾았다. 그러나 화궈펑과 김정일의 정치적 생존은 다른 경로를 걸었다. 결국 권력승계 시기 중국과 북한의 제도적 차이가 두 후계자의 생존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 3 절 권력 이양 시기

1. 지도자의 지지

지도자와 후계자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후계자가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하려면 권력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지도자의 권력을 잠식하는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반대로 후계자가 권력을 확

---

[521] Teiwes, *Leadership, Legitimacy, and Conflict in China: From a Charismatic Mao to the Politics of Succession*. p.110.

[522] 이상우,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연구 : 중국공산당전국대표회의(中國共産黨全國代表會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2(2), 2019.

대하지 않는다면 권력승계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후계자의 딜레마' 이다. 북한에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는 '후계자의 딜레마' 를 극복하는 데 달려 있었다. 후계자의 권력 강화가 곧 지도자의 권력 강화로 이어질 때, 지도자와 후계자가 갈등하지 않으며,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로의 후계 승계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과정과 함께 이뤄졌다. 북한에서 이른바 수령 체제라는 일인지배의 제도화는 김정일의 후계 체제와 확립과 동시에 이뤄졌다.[523] 김정일은 단일한 이념과 조직에 따라,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제도화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따라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부상했다. 김일성의 김정일에 대한 지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것을 넘어 김정일 스스로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리더십에 의해 형성, 변화, 발전하는 것이었다.[524] 김정일은 김일성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인 후계자에 머무르지 않았다. 김정일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김정일 자체가 김일성의 집권을 지지하는 지배 연합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김정일은 후계자가 되기 위해 자신이 추구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혁명 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수령"이라면서, "수령의 위업을 계승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수령의 후계자"라고 했다. 김정일은 혁명의 배신, 변절자들은 예외 없이 수령의 위업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련을 그 사례로 들었다. 소련에서 부하린, 트로츠키와 같은 수정주의자들이 레닌을 반대했고, 스탈린이 이들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레닌에게 스탈린과 같은 훌륭한 후계자가 있었기에 레닌의 업적이 계승될 수 있었다고 했다.[525]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물론 아버

---

523 이태섭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과 '단결'의 정치」, 현대북한연구, 6(1), 2003.

524 정영철. 「김일성과 김정일의 리더십 비교-'수령체계'의 구조적 분석과 전망」, 『경제와사회』, 55, 2002.

525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영화창작 준비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1970년 8월 8일)」, 『김정일 전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지 김일성의 지지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이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승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로 선택을 받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은 마오쩌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업적과 이념에 평가가 그의 사후에도 이어지길 원했던 것이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기를 후계 문제에서 찾았다. 당이 조직사상적 기초를 제대로 닦지 못해 비극적 사태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소련의 흐루시초프를 들었다. 소련 공산당이 조직사상적 기초를 바로잡지 못하다 보니, 흐루시초프와 같은 배신자, 야심가들이 권력을 탈취하고 수정주의 유포하며, 국제공산주의 전체가 시련에 직면했다고 김정일은 진단했다. 사회주의 지도자 스탈린이 마치 낡은 사회의 폭군과 같은 존재로 부당한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다른 신생 사회주의 국가들 역시 집권자들이 정치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지 못해 반혁명 세력에 권력을 빼앗기게 되었다고도 했다. 김정일은 오직 수령의 이념에 입각해 당에서의 수정주의 분자들을 몰아내고, 조직사상적 기초를 다져야만 수령의 업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라고도 표현했다.[526] 김정일은 김일성이 후계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1974년 8월 자신의 임무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정일은 이념 차원에서 유일사상체계, 조직 차원에서 유일적지도체계를 제시했다. 유일사상체제는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 조류를 반대하고, 김일성주의만을 당의 유일한 사상으로 세우는 것이다. 유일적지도체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하고, 수령의 의도대로 혁명을 전진, 승리하며,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지도체제라고 했다. 유일적지도체제에서 김정일을 지칭하는 당중앙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구현하기 구현하는 존재로 규정했다. 당중앙의 의사는 수령의 의사이며, 원칙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 당중앙의 유일적 결론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

[526] 김정일.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다질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1969년 8월 15일)」, 『김정일 전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고 밝혔다.[527]

(1) 이념 차원에서의 일인지배 공고화

① 지도자의 이념에 대한 추구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의 이념을 철저히 추종했다. 김정일은 대학 시절부터 김일성 이념에 대한 철저한 학습을 강조했다. 김정일은 1960년 김일성대학에 입학해, '만페이지 책 읽기 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1년에 김일성이 쓴 글 만 페이지를 읽자는 운동이었다. 김정일은 당시 김일성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는 학습에서 하나의 전환을 일으키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수령님의 노작을 기본으로 하여 1년에 만 페이지씩 읽을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책 읽기 운동을 본때 있게 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학 기간에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일은 만 페이지 읽기 운동의 취지에 대해 "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만들자면 노작의 구절구절에 담긴 사상을 깊이 새기면서 그 진수를 파악할 때까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읽어야 합니다" 라고 했다. 당시 김정일은 이 운동을 제안하면서, 학생들에게 김일성의 서명이 들어간 '김일성 선집'을 보여주었는데, 책에는 수많은 밑줄과 표시가 있었다고 한다. 김정일은 만 페이지 읽기 운동 노래를 만들며, 김일성의 저작 학습을 독려했다.[528] 대학 시절 김정일의 이 같은 모습은 그가 김일성의 이념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따랐는지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일성의 이념을 두고, 김영주는 김정일보다 소극적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념인 주체사상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김정일은 김영주가 마르크스 이론을 교조적으로 매달린다고 주장했다. 김영주는 객관적 조건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정일은 사람의 의지가

[527]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전국당조직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1974년 8월 2일)」, 『김정일 전집』 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528]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인민의지도자』 1 (평양: 시대사, 1982). pp.347-355.

강조하는 주체사상을 지지했다. 이러한 이념적 차이의 이면에는 후계자 지위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 있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을 위해 주체사상을 만든 황장엽을 찾아가 "삼촌(김영주)이 자꾸 주체사상을 반대하는데, 황 선생이 가서 설복을 시켜주시오"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529]

김정일은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 이후 당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에서 선전선동부 문화예술지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정일이 내세운 것은 '혁명전통'이었다. 이는 김일성의 혁명 업적과 관계 깊었다. 혁명전통은 '노동자계급의 수령의 령도 아래 혁명의 시원이 열린 때부터 장기간의 혁명 투쟁 과정에서 이룩되고 발전 풍부하게 된 혁명의 재부'이다. 주체의 혁명전통은 1926년 김일성이 결성한 것으로 알려진 '타도제국주의동맹' 등 김일성의 초기 혁명활동에서 시작된다. 이후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기에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을 이끌었고, 조선의 해방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혁명전통을 세웠다는 것이다.[530]

그는 1973년 3월 다양한 이념 학습반을 '김일성동지혁명사상학습반'을 개편하고, 김일성의 저작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했다. 특히 1973년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인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며 "학습은 형식적이 아니라 실속 있게 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문답식 학습 방법을 제시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항일 투쟁 시기 만든 항일 유격대식 학습방법을 오늘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 것이 문답식 학습 방법"이라고 했다.[531]

김정일은 김일성의 업적과 사상과 관련된 자료들도 발굴했다. 북한 자료에 따르면, 1968년 3월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를 찾았다고 한다. 당시 당역사연구소는 김정일의 제안으로 김일성도록 편찬 작업을 진행중이었다고 한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사업노트에

---

529 황장엽. 『황장엽 회고록 :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시대정신, 2006), pp.201-202.

530 최승섭, 김재형.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혁명전통』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212.

531 김정일.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김일성주의 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제1차 전국예술인 학습경연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한 연설 (1973년11월5일)」, 『김정일 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서 1955년 4월 테제와 1955년 12월 28일 노작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1958년 11월 연설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라는 친필원고를 찾았다고 했다. 김정일은 이 원고들을 김일성 도록에 수록하도록 했다.[532] 김정일은 조선로동당역사연구실을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로 이름을 바꾼 데에 따라, 이 연구실을 김일성의 유일사상교양으로 거점으로 삼도록 했다.[533]

김정일은 김일성의 혁명전통 계승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김일성이 추구했던 공산주의 혁명을 대를 이어 완성하겠다는 뜻이었다. 김정일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사업”이라며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역사적 위업”이라고 했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534] 김정일은 1965년 김일성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수행하면서, 수령의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535]

김정일에게 후계자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수령 이념의 고수라고 했다. 세대 교체에 따른 새로운 이념과 사상은 김정일에게 있을 수 없었다. 김정일은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장기적인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며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위업은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후계자에 의하여 고수되고 계승된다”고 했다. 이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후계자를 받들어 나가는 데서 변함없이 계승되어야 한다”고 했다.[536] 김정일은 수령의 이념 계승에서 자신의 정

---

[532] 탁진, 김강일,박홍제. 『김정일 지도자』 제1부 (동방사, 1984), pp.166-167.
[533] 김정일.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더 잘 꾸려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과 한 담화(1969년 5월 29일)」, 『김정일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534]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중앙 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74년 4월 14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사출판사, 1987).
[535] 김정일. 「당일군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줄 알아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과 한 담화 (1970년 11월 18일)」, 『김정일 전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536] 김정일.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당성을 주장했다. 지배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수령에 대한 충성 역시 김정일 자신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② 지도자의 이념 체계화

김정일은 김일성의 업적을 정립하는 일과 함께, 김일성의 이념을 이른바 '김일성주의'라는 이름으로 체계화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이 마르크스, 레닌의 사상을 단순히 계승-발전시킨 것이 아니며, 역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독창적인 혁명 사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김일성의 사상은 오직 '김일성주의'라고 불러야만 한다고 했다. 김정일은 자신의 사명을 "김일성의 혁명 사상과 혁명 위업의 충실한 계승"이라며 "위대한 수령의 전사로 한평생 수령을 위해 살겠다"고 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했다.[537]

김정일은 김일성주의를 제창하면서, 이를 기존의 사회주의와 구분되는 독창적 사상이라고 했다 그런데 김일성은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 사상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에 대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 있다는 사상"이라고 했다. 그는 주체사상이 자신이 주체사상을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며, 마르크스-레닌주의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했다. [538] 주체사상에 대한 김일성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김정일은 주체철학이 김일성에 의해 창시된 새로운 철학임을 강조했다.[53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1978년 12월 25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4 (평양: 조선로동사출판사, 1987).

[537]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수령님의 존함과만 결부하여 부를수 있는 독창적인 사상이다 : 량강도 삼지연군 무포에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9월 4일)」, 『김정일 전집 』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현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외무상과 한 담화(1972년 4월 20일)」, 『김정일 전집』 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538] 정성장. 「 통치 이데올로기: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 주의로 」, 『현대 북한학 강의 』 (서울: 사회평론, 2013).

[539] 김정일.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당리론선전일군들과 한 담화(1974년 4월 2일)」, 『김정일 전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김정일은 정치위원에 선출된 직후 김일성주의[540]를 선포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김정일은 자신의 독자적 이념이 아닌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관철하는 이념을 제시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한 셈이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19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전국 당사상사업 부문 간부들을 위한 강습회 자리였다. 김정일은 이 연설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주의를 당 사업의 모든 임무로 규정했다.[541] 이와 함께 군급 기관, 기업소들에 있는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연구실을 군 김일성동지혁며앗상연구실에 통합했다. 소규모로 분산된 연구실을 통합함으로써, 그 운영을 실질화하기 위한 조치였다.[542]

김정일은 이 연설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한다는 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 사상, 김일성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김일성주의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모든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수령에 대한 절대화, 신조화, 무조건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 참다운 김일성주의자의 가장 기본적 품성이라고 했다 당 조직을 김일성주의하기 위해 사상 학습을 내세웠다. 당 조직이 수령에 무조건적인 충성을 하도록 교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열렬한 김일성주의자로 만들려면 그 틀 속에서 유일사상

---

[540] 북한에서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 혁명이론, 영도방법 등 3대 구성 요소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을 정수로 하면서,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김일성이 내놓았다는 각종 혁명이론과 영도 방법을 포함한다. 혁명이론으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론, 사회주의혁명이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론, 인간개조이론, 사회주의건설이론, 사회주의문화건설이론 등이 있다. 영도방법으로는 영도체계와 영도예술이 있다. 영도체계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말하며, 영도예술은 '노동계급의 당이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방법, 묘술의 총체'라고 한다. 리성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p.44;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pp.37-40.

[541] 탁진, 김강일,박홍제, 『김정일지도자』 제2부 (평양: 평양출판사, 1994). pp.16-23.

[542] 김정일.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잘 운영할데 대하여: 함경북도 및 옹기군당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74년 5월 16일)」, 『김정일 전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교양과 혁명교양을 힘 있게 벌여야 한다" 고 했다.[543]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라는 맥락에서, 김정일은 1974년 4월 '혁명적 수령관' 을 제시했다. 혁명적 수령관에 따르면,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 이다. 사람이 뇌수를 중심으로 생명 활동을 하는 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체를 이루고 사회정치 활동을 한다고 했다. 따라서 수령은 혁명 투쟁고하 역사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혁명적 신념과 의리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544]

③ 지도자의 업적 선전

김정일은 선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김일성의 업적을 기록으로도 남겼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업적을 영화로 기록하는 일은 "수령을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받는 사업" 이라고 했다. 수령의 불멸을 업적을 대를 이어 전파하는 것이라고도 했다.[545] 다큐멘터리 영화 '청산리' 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60년 2월 청산리에서 현지지도를 통해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청산리 방법은 인민의 힘과 지혜에 의거한 사회주의 건설 방식이다. 김정일은 영화 제작자들에게 영상과 배경 음악에 대한 세세한 지시까지 내렸다.[546] 김정일은 로동당의 선전 담당자로서 김일성의 이념을 전파하는 일을 자신의 역할로 규정했다. 김정일의 이 같은 역할에 대해 김일성 역시 높은 평가를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제5차 당대회에서 문화예술부문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 언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

543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1974년 2월 19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사출판사, 1987).

544 김정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과 한 담화(1974년 4월 20일)」, 『김정일 전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545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영화창작 준비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1970년 8월 8일)」. 『김정일 전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546 김정일. 「기록영화 <청산리>의 완성 방향에 대하여: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일군들과 한 담화(1970년 7월 15일)」, 『김정일 전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다.[547]

김정일은 1970년대 초 김일성의 이념을 담은 예술 작품을 발굴, 정리, 현대화하는 사업을 주도했다. 그는 김일성이 창작한 작품들이 고귀한 문화사상적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피바다', '한 자위대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등을 소설, 가극 형태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특히 김정일은 김일성이 1930년에 썼다는 '꽃파는 처녀'를 발굴했다고 한다. 김일성의 혁명사적발굴사업 과정에서 찾은 이 작품을 불후의 고전 명작이라고 평가했다. 일제에 의해 억압받던 인민들이 계급 의식을 각성하고, 혁명적 신념을 갖게 되는 과정을 담았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 같은 예술 작품을 김일성의 이념을 교육하는 계급교양의 무기라고 생각했다.[548]

김정일은 갑산파의 혁명 전통의 다원화 시도를 무너트리고, 혁명 전통을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투쟁으로 유일화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혁명 전적지 사업도 그랬다. 김정일은 1968년 7월 보천보혁명전적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몸소 이룩한 혁명 전통"이라면서 "수령이 이룩한 혁명 전통은 우리 혁명의 만년 초석이며 우리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라고 했다. 이어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허물어버리려 하였다"면서 "혁명전적지는 김일성의 혁명 활동을 보여주는 혁명 사적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일은 혁명전통의 유일화를 위한 김일성의 혁명 전적지 사업을 직접 지도하겠다고 선언했다.[549]

이후 김정일은 직접 김일성의 항일 활동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유적지 건립을 주도했다. 김정일은 유적지 건설을 김일성 이념을 학습하는

---

[547] 김정일. 「영화예술부문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영화예술부문 일군과 한 담화(1970년 10월 16일)」, 『김정일 전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548] 김정일.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발굴한것은 혁명사적자료사업에서의 커다란 성과이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71년 3월 20일)」, 『김정일 전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김정일.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소설로 잘 옮길데 대하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과 한 담화(1971년 3월 23일)」, 『김정일 전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김정일. 「혁명가극 <피바다>의 구성을 원작의 요구에 맞게 고칠데 대하여(1971년 3월 28일)」, 『김정일 전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549] 김정일. 「혁명전적지를 잘 꾸리자: 보천보혁명전적지에서 일군들과 한 담화(1968년 7월 18일)」, 『김정일 전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거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목표를 유적지의 현장 책임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홍원혁명전적지에선 김일성의 초기 혁명 활동을 보여주기 위한 지도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를 내렸다. 김정일은 량강도 일대를 다니면서, 1930년대 후반 김일성과 항일 유격대원들이 펼쳤던 활동상을 현장에서 책임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대원들이 조국에서 밤을 보내면서 글을 써 놓았다는 이른바 '구호나무'의 보존을 강조하기도 했다.[550] 김정일은 김정일의 일인지배를 위한 이념의 정립과 선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이러한 사실은 김일성과의 밀접한 교감을 통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은 김정일의 이 같은 움직임에 호응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김일성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격화에 대해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김일성은 자신의 항일 투쟁이 폄훼 당하면, "우리는 일제와 조금밖에 못 싸웠지만 그래도 안 싸운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라는 정도로 대응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자신을 찬양하는 구호를 보고 "나에 대한 선전은 점잖게 하는 게 좋다"며 "노골적으로 하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했다. 김일성은 자신의 이념인 주체사상을 아버지 김형직에서 찾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러나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상하면서, 김일성을 신격화하자, 김일성의 태도도 달라졌다고 한다. 김일성은 조상의 묘를 호화롭게 꾸미고, 간부들이 묘를 참배하도록 했다. 또 항일 유격대 활동 경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랑했다.[551]

(2) 조직 차원에서의 일인지배 공고화

김정일은 김일성 이념을 로동당의 유일한 지도 이념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김일성 이념에 따라 당 조직을 재편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

---

550 김정일. 「량강도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튼튼히 꾸리자: 량강도책임일군 및 항일혁명투사들과 한 담화(1968년 7월 21일)」; 김정일. 「혁명사적관은 사적내용의 특성에 맞게 꾸려야 한다: 홍원혁명전적지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1968년 7월 29일)」, 『김정일 전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김정일.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더 잘 꾸리고 관리하여야 한다 : 량강도안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1971년 8월 31일, 9월 2~6일)」, 『김정일 전집 』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김정일. 「혜산시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1971년 9월 6~7일)」, 『김정일 전집 』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551 황장엽. 『황장엽 회고록 :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pp.213-214.

념에 벗어난 정치 세력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조직 차원에서 김일성의 정치적 위협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김정일은 로동당 내에서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나갔다. 김일성에게 김정일은 단지 혈육이나 후계자라를 넘어서 자신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부상했다. 북한의 일인지배인 수령제의 확립과 제도적 완성은 곧 김정일 후계 체제의 확립 과정이었다. 김정일은 북한 수령제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김정일 자신의 후계자 지위를 공고화했다.[552]

북한 문헌은 김정일 갑산파 숙청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김정일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조직사상적으로 격파했다고 한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당의 통일단결을 견결히 옹호하는 그 준엄한 투쟁의 나날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선 혁명에 충실하도록 교양하기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기울였다고 했다.[553] 김정일은 수령의 이념을 조직에 관철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김정일은 조직에서 김일성의 이념을 당 조직에 구현하는 대리인이었던 셈이다.

갑산파 숙청에서 김정일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반론[554]도 있다. 갑산파 숙청이 있었던 1967년에 김정일은 로동당에 들어온지 2~3년 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 25세의 청년이 갑산파 숙청과 같은 큰 사건을 해결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다년간 연구 결과를 종합 정리한 '조선로동당력사'에선 김정일의 역할을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이 로동당 고위 간부 숙청에 개입했다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정일이 갑산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김정일이 직접 갑산파 숙청을 주도하진 못하더라도, 갑산파에 대한 조사를 실무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 물론 김정일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장했다는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김정일에게 갑산파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이후였다. 그는 갑산파 숙청 이후 조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반당수정주의 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은 그자들이 퍼뜨린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 때까지 꾸준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552 이태섭.『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 변화』, p.251-252.
553 탁진, 김강일, 박홍제. 『김정일 지도자』 제1부 (평양: 평양출판사, 1994), p.147.
554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pp.179-186.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당조직에서도 하고 사로청조직에서도 하여야 합니다” 고 했다.[555]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념을 조직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의 이 같은 조직 방침은 ‘혁명적 동지애’ 라는 개념으로도 나타났다. 북한에서 일인지배도의 특징은 이념의 단일성이다. 이는 북한에서 ‘혁명적 동지애’ 라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혁명적 동지애에 대해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한길에서 생사운명을 실현하는 한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가장 고결하고 진실한 혁명적 사랑이다’ 라고 했다. 혁명적 단결은 사상의지의 통일에 기초하여 이뤄진다고 한다. 동지는 사상과 견해와 입장이 같고, 계급적 처지와 이해관계가 동일하며, 혁명적 이상과 목적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의 영예로운 호칭이라고 했다.[556] 이러한 혁명적 동지애는 이념의 통일을 강조하고 있으며, 당이 김일성의 유일한 이념에 입각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를 관철하기 위해, 김정일은 ‘당생활총화제도’ 를 내세웠다. 당생활총화제도는 당원들이 자기비판, 상호비판을 통해 사상을 수양하고,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는 것이다. 당생활총화제도를 통해 당원들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참다운 혁명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이는 전당에 수령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당원들이 김일성의 혁명 사상을 무장하도록 함으로써, 수령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당조직을 만든다는 취지였다. 김정일은 당생활총화제도를 먼저 문예 분야에서 도입했으며, 이후 당 전체에 확산했다고 한다.[557]

김정일은 김일성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를 당 조직 건설의 목표로 삼았다. 그는 1974년 8월 2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당조직일꾼강습회에서 자신의 당 조직에 대한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당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라는 제목의

---

555 김정일.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평안북도 및 대관군당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8월 19일)」.

556 편집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이룩된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는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과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로동신문』, 1973.4.13.

557 김정일.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1973년 8월 21일)」, 『김정일 전집 』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발표를 했다. 김정일은 “우리는 전당을 김일성주의화할 데 대한 문제를 당 건설에서 근본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당을 김일성주의화한다는 것은 모든 당원들을 다 김일성주의 정수 분자로 만들며 당 건설, 당 활동을 철저히 수령의 사상과 이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정일은 당 조직을 김일성주의를 실현하는 당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558] 김일성주의라는 이념에 입각한 당 조직을 주장한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정일은 ‘유일적 지도체제’라는 조직 원칙을 제시했다. 유일적 지도체제는 당 사업과 당 활동에 나서는 모든 원칙적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은 예외 없이 당 중앙의 유일적 결론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다. 김정일은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에 복종하는 강철 같은 중앙집권적 규율은 전당의 사업과 활동에서 어길 수 없는 원칙으로, 확고한 규범으로 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일은 유일적 지도체제의 취지에 대해 “당 중앙의 의사는 곧 수령님의 의사이며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는 곧 수령님의 유일적 영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559]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이 중앙으로부터 하부 말단까지 정확히 침투되도록 하자면 반드시 유일적인 지도가 보장되어야 한다[560]는 취지였다.

김정일은 당 조직을 김일성의 이념과 교시를 관철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이 같은 조직관은 이미 1968년 5월 남포시에서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남포시 안 공장, 기업소들에서 나타난 결함은 남포시 당위원회가 위대한 수령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당 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남포시 안의 당 조직들에는 수령의 교시를 전달 침투하는 체계가 정연하게 서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지 않고서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 정책을 철저

---

[558] 탁진, 김강일,박홍제, 『김정일지도자』 제2부. pp.56-57.

[559]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전국당조직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1974년 8월 2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사출판사, 1987).

[560]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74년 2월 28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사출판사, 1987).

히 관철해 나갈 수 없다”고 했다.[561] 김정일이 후계자에 지명된 이후 1975년 5월 도당 책임비서 회의에서 책임비서들이 공업 생산 저하를 지적했다. 김정일은 당 간부들이 ‘시상전을 통해 생산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수령의 교시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562]

김정일의 역할은 당 조직이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위한 충실한 수단이 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당 조직에 김일성의 교시전달 침투체계를 세워 간부, 당원, 근로자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하며, 김일성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했다.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관철하지 못하면, 혁명 대오 안에 또다시 ‘불순이색분자’, ‘청맹과니’(눈뜬 장님)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563]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념에 입각해 당 조직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은 자신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수령을 당 위에 두는 수령제로 발전시켰다. 당은 수령의 이념을 관철하는 수단인 것이다. 당은 당원들이 뭉친 정치조직이며,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라고 했다.[564] 이에 따라 김정일은 당 간부의 선발 기준으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충실성은 수령의 교시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제때에 실천하며, 수령과 생사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당에 대한 충성이나 계급성 등도 중요하지만 이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다음가는 평가 항목인 것이다.[565] 김정일은 당 조직을 김일성 이념 구현의 수단으로 제도화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김정일은 각급 당 조직들이 군중에게 김일성의 교시를 관철하도록 교육하는 활동도 전개했다.[566]

---

561 김정일. 「당정책은 끝장을 볼 때까지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평안남도 남포시당, 정권, 경제 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8년 5월 21일)」, 『김정일 전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562 김정일. 「도당위원회들에서 힘을 넣어야 할 당면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도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1975년 5월 13일)」, 『김정일 전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563 김정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68년 8월 18일)」, 『김정일 전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564 김정일. 「당일군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줄 알아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과 한 담화 (1970년 11월 18일)」.

565 김정일. 「당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실력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을 평가하여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1970년 7월 17일)」, 『김정일 전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566 김정일.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정일은 수령의 교시가 기층까지 관철되도록 로동당 조직 정비, 감독에 관여했다. 김정일은 1974년 5월 로동당 함경남도당의 사상사업 미비 문제를 지적했다. 로동당이 내세우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속도전' 과 같은 사상사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함경남도 이에 따라 김정일은 함경남도당에 대한 검열 지시와 함께, 로동당의 각 도당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중앙의 의도가 각 도당을 통해 각 지역의 기층 단위까지 관철하기 위해 내린 조치였다. 특히 도당위원회 조직비서가 당원의 당생활총화 참여 독려하고, 당생활을 지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김정일은 설명했다.[567]

수령과 정무원의 관계에 대해서도 김정일은 김일성의 일원적인 지배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일성의 교시, 정책이 정무원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그대로 관철되도록 한 것이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중간 간부 누구도 수령 김일성의 교시, 정책을 변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정무원의 결정, 총리나 부총리의 지시는 수령의 교시와 당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책을 집행하는 중간 간부들은 정무원 결정, 총리나 부총리의 지시가 수령의 교시, 당정책과 부합하는지 항상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수령의 지시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정무원의 사업이 당 위원회에서 집단적 토의를 거친 후에 집행하게 했다. 정무원 위원회, 부 안의 당조직 등이 정무원 정책 집행에서 수령의 교시를 관철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568]

김일성의 일인지배가 강화가 곧 김정일의 후계 확립으로 이어졌다는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2월 28일)」, 『김정일 전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567] 김정일. 「지방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1974년 5월 19일)」, 『김정일 전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김정일. 「현시기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 도당위원회 조직비서, 정무원 위원회, 부당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1974년 6월 22일)」, 『김정일 전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568] 김정일. 「정무원 위원회, 부책임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새로 임명된 정무원 위원회 부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74년 4월 9일)」, 『김정일 전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김정일. 「정무원 위원회, 부당조직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정무원 위원회, 부당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1974년 6월 10일)」, 『김정일 전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점은 중요하다. 마오쩌둥이 후계자의 권력 확대를 견제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김정일은 1974년 '유일 사상 10대 원칙'을 발표했다. 10대 원칙을 통해 김정일은 김일성의 절대화는 김정일의 유일지도체계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제10조에서 '당의 유일적 지도 체제를 확고히 세우는 것은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라고 규정했다. 제9조 제2항에선 '모든 사업을 수령님의 유일적 영도 체계에 의거하여 조직 진행하며 정책적 문제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은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 확립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569]

(3) 지도자의 후계자에 대한 평가

김정일은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공고화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후계 지위를 확립했던 것이다. 김정일은 후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세가지로 내세웠다. 첫째, 수령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둘째, 수령이 이룩해놓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영원히 계승발전시키는 것이다. 셋째, 수령이 창건한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이다.[570] 결국 김정일은 후계자의 역할을 수령의 사상, 역사, 조직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으로 설정했다.[571]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념을 조직으로 구현하는 대리인으로서 후계자의 역할을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지도자의 권력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후계자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었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로동당에서 김정일의 권력 확대는 김일성의 일인지배 강화로 이어져다. 일반적인 후계자의 딜레마 상황에서 후계자가 권력을 확대할수록 현직자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한다.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 혹은 북한에서의 수령과 당중앙의 관계는 이 같은 이론적 가설과 다른 양상이라고

569 현성일. 『북한의 국가 전략과 파워 엘리트: 간부 정책을 중심으로』, pp.117-118;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pp.143-144.
570 탁진, 김강일,박홍제. 『김정일 지도자』 제2부 (평양: 평양출판사, 1994), p.433.
571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p.139.

할 수 있다.[572] 당중앙인 김정일의 지시가 당의 하부 조직까지 침투되는 규율이 강화할 때, 수령 김일성의 의도에 따라 당을 통제하는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김정일이 제시한 '유일적지도체제'는 후계자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권력승계 방식이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김정일의 이념적, 조직적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후계자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념을 관철하면서, 조직적으로는 김일성의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김정일은 유일사상상체계와 유일지도체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던 것으로 평가된다.[573] 후계자는 단지 미래의 준비된 권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후계자가 현직자의 이념을 관철하고, 집권 조직에서 지도자의 의지를 실현할 때, 지도자의 후계자에 대한 지지 역시 지속될 수 있다. 김정일은 이 같은 후계자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1974년 3월 선전선동부 간부들에게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해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했다.[574]

김일성은 1975년 1월 15일 발언에서 농업에서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바탕에는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도체계의 구축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연간에 일군들 속에서 당정책을 걸써 대하거나 흥정하려 하는 옳지 못한 경향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인 결과 이런 현상들이 없어졌다"면서, "지금은 당중앙에서 생각하는 것이 인차 아래로 쭉 내려가고 또 아래에서 생각하는 것이 인차 당중앙에 반영되고 있다"고 했다. 또 "오늘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만을 알고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여 당의 사상으로

572 김정일. 「당내부사업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한 몇가지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1975년 6월 17일)」, 『김정일 전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김정일은 "당중앙이 내놓은 모든 방침들이 하부 말단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침투관철되고 당중앙의 지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규율이 서야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영도를 옳게 구현해 나갈 수 있으며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대로 당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573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pp.244-245.

574 김정일. 「당사상사업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1974년 3월 18일)」, 『김정일 전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한결같이 숨쉬고 있다”고 했다.

혁명전통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김일성은 “김정일 동지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한 첫 시기에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직접 지도하였는데 그때 벌써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자는 구호를 내놓았다”며, “우리나라에서 혁명전통 주제의 영화와 소설이 많이 창작된 것도, 우리의 문학 예술이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로서 인민을 위하여 건전하게 복무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의 결과”라고 했다.[575]

김일성은 김정일의 조직 사업에서의 역할도 높게 평가했다. “당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있은 다음부터 당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고 경제부서들도 자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었다”면서,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세포조직생활을 비롯한 당조직생활에 빠짐없이 참가하는 엄격한 조직 규율이 섰으며 학습을 생활화하는 기풍이 철저히 서고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할 데 대한 당의 구호도 실속 있게 집행되고 있다”고 했다.[576]

지도자의 이념 계승은 후계자가 지도자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지도자와 후계자 사이의 이념적 일체성이 후계자의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94년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김정일동지가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맡아 영도하고 있다”면서, “김정일동지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철저히 나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는 곧 나(김일성)의 사상과 영도”임을 강조했다.[577] 김일성이 김정일을 지지하는 근거는 바로 김일성의 이념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이 지배 연합의 지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은 김정일에 대한 특별한 경계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일인

---

575 김일성. 「스웨리예공산주의자로동당 위원장과 한 담화(1992년 6월 29일)」, 『김일성 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576 김일성. 「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 고지 점령을 위하여(1975년 1월 15일)」, 『김일성 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577 김일성. 「미국 ≪워싱톤타임스≫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94년 4월 16일)」,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지배를 공고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집권 안정을 뒷받침하는 한 축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념을 정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김일성과의 이념적 일치를 견지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이론화 체계화했다. 이 과정에서 수령론을 정립했다.[578] 김정일은 1960년대 말 '김일성 저작 선집' 을 출판하여 대대적으로 보급했다.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해설한 '혁명과 건설에 관한 김일성 동지의 사상해설' 을 출판했다.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과정을 담은 '김일성동지혁명활동약력' 등 김일성의 업적을 담은 책들을 출간했다. 이처럼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념을 하나의 사상체계로 정리함으로써, 김일성과 이념적 동질성을 넘어 체계화했다. 이는 김일성 일인지배의 이념적 공고화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주의에 기반한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뒷받침했다. 1972년 헌법에서 주체사상을 헌법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주석제를 신설하면서 수령의 일인지배 체제를 완성했다.[579] 김정일은 김일성에 의해 수동적으로 후계자 지위를 얻었다고만 볼 수 없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념을 체계화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형성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김정일의 후계 구도를 안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일인지배 체제에서 2세대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난 민족주의 이념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에 대한 충실한 학습의 부족을 그 원인으로 지적했다. 스탈린이나 마오쩌둥과 달리 김일성은 사회주의 이념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고, 이것이 사회주의에서 벗어난 민족주의 이념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580]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김일성은 자신의 이념을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후계자인 김정일이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안에서 이념 분파들이 북한 로동당 내에서 생겨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혁명 이념을 김일성이라는 개인에게 의인화했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혁명 이념의 개인적 독점을 보장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독점하고자

578 정영철. 「주체사상의 순수 이데올로기화와 새로운 실천 이데올로기의 등장」, 『한국과국제정치』, 31(3), 2015.
579 정순원. 「북한의 후계구도와 북한법의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13(1), 2009.
580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수성의 문제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수성은 김정일의 권력승계 정당화 작업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긴 어렵다. 동아시아의 전통적가치인 '효'(孝)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부자 혈통승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로 활용된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수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에게 효를 다했고, 이는 김정일이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근거로 설명된다. 여기서 효는 충(忠)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가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효를 다하고 국가에선 군주에 대한 충을 다한다는 논리와 유사하다. 이 같은 정당화는 소련이나 다른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동아시아의 독특한 성격이다.

가문이나 혈통을 강조하면서 혈통 승계를 강조하는 방식 역시 특수하다. 김일성 일가의 혈통에 대한 찬양 작업이 이뤄졌다. 김정일은 혁명전통과 계승을 가계와 혈통의 정당성으로 환원하는 작업을 주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혁명사적지 사업에서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뿐만 아니라 조부 김형직과 조모 강반석의 업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지도했다. 김정일은 조부의 혁명 활동을 하던 장소, 그의 집들을 잘 꾸려야 한다고 현장에서 지시하거나, 그의 사적 자료를 발굴해야 한다고 도당위원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김정일은 김일성의 가문을 뜻하는 '만경대일가'의 혁명 사적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581] 이는 가문과 혈통을 강조하는 동아시아의 유가적 사고관의 반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1973년 3월 23일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의 업적을 선전하는 봉화혁명사적관이 개관했다. 김형직에 대해선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혁명적 영향을 받으시어 남달리 애국사상이 강하고, 뛰어난 재능과 성품을 물려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김일성은 아버지 김형직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영도했다고 했

581 김정일.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량강도 후창군 혁명사적지들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68년 7월 20일)」, 『김정일전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다.[582] 당시 북한은 김형직이 항일 투쟁을 하면서 자제들을 탁월한 혁명가로 키워냈다고 선전했다.[583] 이와 함께 만경대를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를 위한 상징으로 내세웠다. 만경대에는 김일성의 조부 김보현, 조모 리보익, 부친 김형직, 모친 강반석의 묘소와 김일성의 생가가 있는 곳이다.[584]

북한 문헌은 김정일은 충성의 화신, 충신의 귀감으로 칭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을 불세출의 위인으로 존경했는데, 이는 김정일의 충성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일이 문화예술부문 사업을 맡게 된 일도 김일성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성이 문화예술부문 사업 때문에 늘 머리를 앓는다며 김정일에게 이 일을 제안했다고 한다. 김정일은 수령(김일성)이 바란다면 힘껏 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정일은 '수령님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며 나의 최대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성품을 갖췄다고 한다. 김정일은 어려서부터 김일성을 가까이 모시면서 김일성의 위대함을 체득했고, 자연스럽게 충성심을 갖게 되었다는 게 북한측의 설명이다.[585]

김정일의 효성은 김일성의 위업 계승이라는 사명감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의 구상을 언제나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안았고 김일성의 주체위업을 완성해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외국 유학이 아니라 김일성대를 선택한 것도 김일성에 대한 효성 때문이라고 했다. 김정일은 "수령님은 늘 조선 사람은 조선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수령의 사상과 우리 나라를 알기 위해 김일성대에서 공부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정일은 이 같은 사명감을 바탕으로 김일성의 의도에 따라 무엇을 해도 가장 완전무결하게 최상급으로 완성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다.[586]

결국 효성이 지극한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을 이어 권력을 계승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김일성에게 효성을 다하는 김정일은 김일성의 뜻을 관철하는 데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

582 리용석, "김형직 선생님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혁명업적은 영생불멸하리!," 로동신문, 1973.3.24.
583 리학실, "김형직 선생님의 혁명활동의 거룩한 자취는 우리 남녘땅에서도 찬연히 그 빛을 뿌리고 있다," 로동신문, 1973.3.25.
584 조선중앙통신, "만경대는 조국인민과 60만 재일동포들의 마음속에 높이 솟아 빛나는 영광의 땅," 로동신문, 1973.3.25.
585 한재만. 『김정일 인간, 사상, 령도』 (평양: 평양출판사, 1994), pp.66-71.
586 Ibid. pp.71-75.

일성의 위업을 계속 이어 나가려면 김일성에게 효성이 지극한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김정일이 수령을 충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기고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수령의 사상과 교시를 신념화, 신조화하며 수령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척도로 정립한다” 고 했다.[587]

효를 강조하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수성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권력 승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혹은 과거 조선시대의 유가적 충효 윤리가 북한의 부자세습을 정당화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충효 윤리가 주체사상에 기초한다고 설명한다.[588] 그럼에도 북한의 부자 권력승계 주장은 유가 사상이 강조하는 효와 매우 유사하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바꾸지 않고 이어받는 게 효의 근본이라는 유가의 윤리와 북한의 권력승계 논리가 일맥상통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박형중의 연구는 ‘신전통성’ 이라는 개념으로 북한의 국가 성격을 설명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적 권력에 대한 사유화, 수령에 대한 충성의 강조, 부자 권력 세습 등 북한에서 봉건적 왕조체제와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봉건제적 성격이 사회주의의 특성과 결합한다고 지적했다. 후계자의 이데올로기 독점, 성공적 영도력, 혁명의 계속성 등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전통성에 새로운 현대적 원칙이 덧붙여진 ‘신전통성’ 이 북한의 국가 성격이라고 한다.[589]

물론 동아시아의 전통적 가치, 혹은 유가적 윤리관이 북한의 부자 승계 논리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북한은 유가적 윤리관과 유사한 논리로 북한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했다. 그럼에도 김정일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효’ 라는 윤리 의식만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정당화 논리가 현대 북한 주민과 정치 엘리트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사실 입증하기 어렵다. 권력승계의 정당화가 곧 후계자의 생존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취한 전략적 선택이 안정적인 권력승계의 관건이었다.

김정일은 이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김일성의 생각에 상당한 관심을

---

[587] Ibid. p.62.
[588] Ibid. p.65.
[589] 박형중. 『북한의 정치와 권력 : 지배관계의 기원과 개념, 구조와 동태』, pp.182-184.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로동당 고위 간부 출신인 황장엽은 1959년 1월 소련 공산당 21차 대회 참석을 위해 김일성을 수행하면서, 아버지를 따라 동행한 김정일을 만났다. 황장엽은 당시 김정일에 대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권에 대한 욕망이 상당히 컸다”며, “아버지를 잘 모시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정일은 아침마다 아버지 김일성을 부축하고 나서거나, 신발을 신켜주기도 했다. 당시 김일성은 나이가 47세로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김정의 부축을 받을 때 매우 흡족했다고 한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돌아오면 부관들과, 의사, 간호원 등 수행원을 불러, 매일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당시 로동당 정치국원들이 많았는데, 고급중학생(한국에서 고등학생) 김정일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황장엽은 이 같은 모습에 “김정일이 자기 삼촌(김영주)를 내쫓고 권력을 승계할지 모른다는 생각했다”고 했다.[590] 당시 김영주는 김일성의 동생으로 그의 후계자로 여겨지던 인물이었다. 아직 김정일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아들에 불과했다. 혈연은 현직자와 후계자의 신뢰를 형성하는 기초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권력승계에선 혈연 이상의 요소가 필요하다. 아버지의 이념에 대한 충성도이다. 김정일이 김영주를 물리치고 후계자로 부상하기 위해선 혈연이라는 조건 이상의 노력이 필요했다.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공고하게 하는 일련의 치적을 쌓아, 후계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권력승계 과정에서 지도자와 후계자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하기 쉽다. 후계자가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하기 위해선 지도자가 더 많은 권력을 후계자에게 넘겨줘야 한다. 일종의 후견적 역할인 것이다. 그런데 후계자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지도자는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게 된다. 지도자는 후계자의 권력이 커질수록 위협을 느끼고, 후계자는 지도자가 자신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된다. 지도자와 후계자 사이에 의심이 싹트면서 권력승계가 실패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만다. 안정적인 권력승계의 바탕은 지도자와 후계자 사이의 충성과 신뢰이다.[591] 효는 혈연승계에서 후계자가 지도자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의 시그널일 수는 있다. 후계자에 지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선, 효도 이상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590 황장엽. 『황장엽 회고록 :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pp.149-150.
591 Huang, *Factionalism in Chinese Communist Politics*. pp.19-20.

김정일이 취했던 전략적 선택이 그 권력 승계와 집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김정일은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관철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김일성과의 철저한 일체화를 견지했다. 반면 김영주는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위한 이념과 조직 차원의 성과가 김정일에 비해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74년 2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동생 김영주에 대해 사업의욕이 없고 자신을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정일은 이념과 조직 두 차원에서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뒷받침했다. 이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일은 혈연이라는 조건에 자신의 독자적 노력이 더해져 후계자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권력승계를 둘러싼 김정일과 김영주의 갈등과 관련, 김일성은 "영주는 독하지 못한 결함이고, 정일이는 저희 삼촌보다 독한 것이 장점"이라고 평하기도 했다.[592]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념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보였다. 이것이 그가 후계자 지위를 공고화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 측 자료에서도, 김일성은 김정일이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보장해줄 수 있는 인물로 여겼다. 김정일은 김일성에게 철저하게 충성했다. 그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 누구보다 김일성의 관점에 따라 움직였다. 김정일은 아버지의 정책을 관찰하고, 적용하고, 드높이기 위한 정치적 교육을 받았다. 김일성 입장에선 김정일을 자신의 업적을 지켜줄 수 있는 후계자로 봤다.[593] 물론 김일성과의 혈연 관계는 김정일이 후계자 지위를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념을 대한 절대적 충성을 입증했으며, 이는 김일성의 김정일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나아가 김정일은 1967년 갑산파 숙청을 주도하면서, 수령제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아버지 김일성이라는 배경은 김정일이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594]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단지 아버지 김일성의 후광만으로 후계자의 지위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일성은 두번째 아내인 김성애와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동생 김영주는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

592 황장엽. 『황장엽 회고록 :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p.208.

593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North Korea: Kim Chong-il in Charge, 1986.6.25.

594 송정호. 「북한 권력승계문제의 쟁점과 전망: 사회주의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7(3), 2005.

김정일은 이들과의 후계자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가 이념과 조직 모두에서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공고화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에서 후계자는 수령의 위업을 계속해서 완성해가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계급의 당 건설에서 후계자 문제는 수령의 영도적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문제라고 했다. 즉 수령의 영도 위업은 후계자의 영도에 의해서만 완성되고 계승된다는 것이다. 후계자는 특권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이어받는 존재이다. 이에 따라 후계자의 역할을 세가지로 설정했다. 첫째,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고수관철하고 계승 완성한다. 둘째, 수령이 이룩한 혁명 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시대와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청에 부응해 부단히 발전시키는 것이다. 셋째, 수령, 당, 대중 등 변혁의 주체를 부단히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당원과 대중에게 수령의 위대성과 혁명 사상 교양을 지속하는 일이다.[595]

이념과 조직 차원에서 김정일은 김일성 일인지배를 이념과 조직 차원에서 확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김일성 일인지배를 뒷받침했다는 것만으로 후계자 지위를 공고화할 수 있었다는 주장[596]은 한계를 갖는다. 후계자의 권력승계는 후계자와 전임자와의 관계, 후계자와 지배 연합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후계자와 지배 연합과의 관계는 권력승계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변수이기 때문이다.

2. 전임자의 지배 연합 승계

(1) 빨치산 세력에 의한 후계자 추대

일인지배 제도에서 김일성은 빨치산 세력(만주파)과 지배 연합을 형성했다. 빨치산 세력은 김일성과 만주에서 항일 유격대 활동을 함께 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김일성을 지지하며, 소련파, 연안파, 국내파 등 정치 세력 숙청을 주도했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도 빨치산 세력의 김일성에 절대적 충성 덕분이었다. 빨치산

595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pp.21-35.
596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 변화』. pp.261-270.

세력은 김일성의 집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치적 제휴 세력이었다. 따라서 일인지배가 확립된 이후 빨치산 세력은 지배 연합을 독점했고, 김일성은 지배 연합 내 정치 엘리트들의 이탈로 인해 권력을 상실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문제는 후계자였다. 김일성의 지배 연합이 그대로 후계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었다. 후계자가 집권하기 위해선 전임자의 지배 연합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전임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혈족이나 배우자라고 해도, 지배 연합의 지지를 당연히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김일성은 지배 연합을 형성한 빨치산 원로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았지만, 김정일이 그 지지를 그대로 물려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지배 연합의 후계자에 대한 지지는 또 다른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다.

김정일의 후계자 추대는 빨치산 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가능했다. 이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아들이었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었다. 빨치산 원로들의 전략적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빨치산 세력은 김성애와의 갈등을 빚으며 김정일의 후계자 추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성애는 1949년 김일성이 첫번째 아내 김정숙이 사망한 이후 재혼한 아내였다. 김성애는 김일성의 신임을 받으면서, 점차 김일성의 2인자와 같은 권력을 행사했다. 특히 김일성은 1971년 1월 전국농업대회에서 김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김일성은 “김성애의 얘기는 내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후 김성애는 김일성의 대리인처럼 권력을 휘둘렀다.

심각한 문제는 로동당 조직 인사였다. 김성애가 인사에 개입한 것이다. 김성애는 동생인 김성갑, 김성호를 중용했다. 김성애는 로동당 조직에 측근들을 임명하면서, 하나의 정치적 분파를 형성했다. 동시에 김일성의 전처 김정숙의 흔적을 역사에서 지우면서, 김정숙의 칭송하는 글을 쓴 집필자들을 축출했다. 또 당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빨치산 세력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성애가 2인자로 부상하면서, 빨치산 원로들은 김성애에 정치적 공격에 나섰다. 특히 전문섭, 백학림, 조명록 등 빨치산 원로들이 김성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빨치산 세력은 김정일과의 제휴를 모색했다.[597] 김정일이 김성애를 꺾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 것이다.

원래 김일성의 후계자로 유력한 인물은 김정일이 아닌 김영주였다. 김영주는 김일성의 친동생으로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뒷받침하는 한 축이

[597]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pp.102-103.

었다. 김영주는 로동당 조직비서로 지배 연합의 참모장과 같은 존재였다. '김일성-김영주-다음 세대' 라는 후계구도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나 김영주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다. 김영주는 요양을 위해 소련, 루마니아 등을 전전하면서, 빨치산 세력의 지지를 잃었다. 김영주의 건강 문제는 김정일의 발언에서도 나타났다. 김정일은 1966년 1월 16일 치료를 위해 해이로 떠난 김영주를 공항에서 배웅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김영주가) 항일무장투쟁시기 강도 일제와 싸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다보니 환갑도 되기 전에 중병을 만났다" 고 했다.[598]

김일, 최용건, 오진우, 최현 등 빨치산 출신들 사이에선 "김영주의 병이 완쾌하기 어렵다면 그 자리를 다음 세대에 주어 정치훈련을 쌓게 하는 것이 좋겠다" 는 의견이 나왔다. 원래 김일성의 후계 구도는 동생 김영주를 거치고, 김영주에서 다음 세대로 후계를 넘긴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1970년을 전후한 후계자 결정 과정에서, 김일성은 동생 김영주가 아닌 바로 다음세대인 아들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목했다. 이에 대한 북한 측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변혁 운동의 뇌수이며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 빈번히 바뀌게 되여 영도력 부재의 위기감을 빚어낼 수 있고, 변혁 운동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데도 지장을 줄 수 있다."[599] 이는 후계자의 집권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후계자는 무리하게 쿠데타를 시도할 필요가 줄어들게 된다. 전임자는 후계자가 권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지원할 수도 있다.[600]

김정일로의 후계 구상은 1970년 제5차 당대회 준비과정에서 본격화했다. 5차 당대회를 전후해 김일, 최용건, 최현 등 빨치산 세력들은 "김정일을 당 중앙위원으로 선출해야 하고, 중앙위원이 곤란하면 후보위원이라도 임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당시 김정일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될 자격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빨치산 세력들의 이 같은 주장에, 김일성은 난색을 표시했다고 알려졌다. 아직 김정일의 나이가 28세로 젊어서 비난을 받을 수 있

---

598 김정일. 「혁명선배들을 존경하며 따라배워야 한다: 내각제1부수상, 민용항공국 일군들과 한 담화 (1966년 1월 16일)」, 『김정일 전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599 김재천. 『리론과 실천』 (평양: 평양출판사, 1990). pp.52-55.

600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후계 문제: 징후와 후계 구도」, 『한국정치학회보』, 39(2), 2005.

다는 이유였다. 김일성의 반대로 빨치산 세력의 주장은 일단 보류되었다.[601] 빨치산 세력은 김성애 일파의 정치적 부상에 대응해, 조직적으로 김정일 후계자론을 주장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빨치산 세력의 이 같은 움직임에, 김일성이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김정일의 후계자 지위가 지연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물론 김일성이 김정일의 후계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김정일의 후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한 세력이 빨치산 출신으로 이뤄진 지배 연합이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의 후계자 구도를 둘러싼, 빨치산 세력과 김일성의 온도차는 1971년 4월 제5기 제2차 전원회의 직후 열린 당 정치위원회 회의에서도 나타났다. 김영주가 김정일을 조직, 사상 비서로 임명하자고 제안했고, 빨치산 세력들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그런데 김일성은 "조금만 더 지켜보자"며 김정일의 비서 임명을 다시 보류했다. 당시 김영주는 병환으로 조직 비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972년 4월 최현은 김정일에게 김일성의 후계자가 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최현은 김정일이 "수령의 혁명 위업을 끝까지 계승 완성해 나갈 유일한 후계자"라면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운 것은 항일혁명투사(빨치산 세력)의 한결 같은 염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602]

이후 1972년 6월 정치위원회에서 최용건, 김일 등이 건강이 악화한 조직부장 김영주 대신 김정일을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일성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12월 29일 정치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김정일의 후계자 결정을 다수결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김일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603] 결국 김정일은 1973년 9월 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비서로 선출되었다. 당 고위 간부들이 김정일을 지지한 결과였다. 간부들은 중앙위원회 조직을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김정일을 비서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여러 직책을 맡아 다년간 경제, 문화, 건설 등에서 공적을 쌓았다는 이유였다. 또 김정일은 대중의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 영향력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다고도 했다. 김정일은 간부들의 전원일치로 비서로

601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pp.104-105.
602 김정일. 「혁명의 계승자들을 튼튼히 문장시켜야 한다: 민족보위상과 한 담화(1972년 4월 22일)」, 『김정일 전집』 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603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pp.106-108.

선출될 수 있었다.[604] 김정일은 이 회의에서 조직·선전 부문의 정권을 부여받았다. 김정일은 조직담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 선전담당 비서 겸 선전선동부장으로 선출된 것이다.[605]

이처럼 김정일로의 후계 구도는 당시 지배연합에 속한 빨치산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빨치산 출신 간부들의 조직적 지지가 김정일의 후계자 지위 확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빨치산 세력은 197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에서 김정일을 다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추대했다. 북한 자료에 따르면, 전원회의에서 한 노간부가 김정일을 정치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항일 혁명 시기부터 김일성을 따르며 싸운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김일성의 노고를 덜어주고 사회주의 건설을 대를 이어 완수하기 위해선 당 지도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김정일은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된 이후 중책을 헌신적으로 수행했음을 강조했다. 김정일이 정치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정일의 정치위원 추대를 제안하는 발언에 당시 회의실에선 김정일을 향해 박수가 이어졌다고 한다.[606] 빨치산 출신 간부들의 조직적 의사가 반영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정일의 정치위원 임명을 두고, 김일성은 소극적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일성이 김정일의 후계자 임명을 당연히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김정일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였다. 김일성은 “간부들의 뜻은 알았지만, 김정일 비서는 아직 너무 젊다”고 지적했다. 김일성은 김정일의 정치위원 선출 문제를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북한 자료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점을 부담스럽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일성은 혁명에서 혈연을 초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공산주의 운동에서 혁명가들의 지위는 혁명과 인민을 위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607] 김일성이 김정일의 나이나 능력을 문제삼아 그의 정치국원 임명을 유보했는지는 북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김일성이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반면, 빨치산 세력들이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의 유보적 태도에 빨치산 출신 간부들은

---

[604] 탁진, 김강일, 박홍제, 『김정일지도자』 제2부, p.11.
[605]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p.109.
[606] 탁진, 김강일, 박홍제, 『김정일지도자』 제2부, pp.12-13.
[607] Ibid. pp.13-14.

거듭 김정일의 정치국원 임명을 요청했다고 한다. 빨치산 출신 간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정일 동지를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추대하는 것은 혁명의 요청이며 전체 인민의 열망입니다. 아직 너무 젊다고 말씀하시지만 젊고 젊지 않은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수령님께서도 일찍이 김정일 동지와 같은 연세에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혁명의 운명 문제이며, 그 장래에 관한 문제이니, (김일성) 수령께서 고쳐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빨치산 출신 간부들도 연이어 김정일의 정치국원 임명 지지를 밝혔다. 김정일의 공적을 열거하면서 전국에서 김정일의 업적을 칭송하는 편지가 쇄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고령의 간부는 “수령님, 저희들은 이제 늙었습니다. 젊고 패기 있는 동지들이 수령님을 보좌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608]

빨치산 출신 간부들의 주장에,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정치위원에 올라 로동당의 수뇌부에 들어갔다. 김정일의 정치국원 추대는 그가 김일성의 지배 연합의 지지를 얻었으며, 후계자로서 지위가 공고화되었음을 의미한 것이었다. 이는 다른 김일성의 혈연들이 획득하지 못했던 것이다.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는 원래 김일성의 후계자로 거론되었지만, 지배 연합의 지지로부터 멀어졌다. 김일성이 두번째 아내인 김성애는 물론 둘 사이에 낳은 김평일도 지배 연합의 조직적 지지를 얻진 못했다. 김정일이 지배 연합의 집단적 지지를 얻어, 후계자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8차 전원회의에선 김정일은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다. 노동신문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한결 같은 의사와 염원을 담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주제 혁명의 위대한 계승자로 당과 혁명의 영명한 지도자로 높이 추대했다”고 한다.[609]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상하면서, 그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김영주는 부총리로 강등되었다. 회의에선 김영주의 측근인 선전비서 김도만과 국제비서 박용국 역시 간부직에서 물러나도록 결정했다. 황장엽에 따르면, 김영주는 북한의 변방인 자강도에서 18년 동안 사실상 연금에 처해졌다고 한다. 김일성은 1993년 김영주를 평양으로 불러 부총리에 기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주는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김영주는 항일 유격대의 독점적 지위를 정당화하는 이념이나 조직 원칙을 내세우지 않았다. 반면 김정일은 항일 유격대의 업적을 혁명전통으로 삼으면서,

---

608 Ibid. pp.13-16.

609 조선중앙통신,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건설과 활동, 투쟁업적을 집대성한 총서: ≪조선로동력사≫를 편찬발행」, 『로동신문』, 1991.12.24.

이들에게 당 내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는 빨치산 세력이 김영주에서 김정일로의 지지 변화로 이어졌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빨치산 세력으로 이뤄진 지배 연합이 김정일의 후계자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김일성의 회고록을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김일성은 김정일의 후계자 선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정일 동무를 받는 데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이 앞장에 서 있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김정일 동무를 수령의 유일한 후계자로 내세운 것은 그가 당과 국가, 군대를 영도해야 민족의 장래가 담보되고 백두산에서 개척한 주체의 혁명 위업이 한치의 편차도 없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그를 수령의 후계자로 추대했다는 것은 곧 군대가 그를 민족의 영수로 내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일, 최현, 오진우와 함께 임춘추는 김정일 동무를 우리 당과 국가의 수위에 추대하는 데서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610]

(2) 빨치산 세력의 김정일 지지 요인

김정일은 빨치산 세력의 지지를 얻어 후계자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김정일이 빨치산 세력의 조직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이념적 차원이다. 김정일과 빨치산 세력은 이념적으로 일치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항일 투쟁 업적을 국가와 당의 혁명 전통으로 정립했다. 빨치산 세력은 김일성과 함께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항일 유격대 활동을 했다. 김일성의 업적은 빨치산 세력의 업적이기도 하다. 빨치산 세력에게도 김정일은 자신의 업적을 당의 지도 이념으로 체계화해준 인물인 셈이다.

먼저 이념적 차원이다. 김정일은 영화 예술 분야에서 빨치산 세력의 혁명 업적을 선전했다. 김정일은 영화를 사상적 무기라고 생각했다. 그는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영화만큼 영향력이 큰 예술은 없다" 면서,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사상적 무기로서의 문학예술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영화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고 했다.[611] 김정일은

610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310.
611 김정일. 「혁명적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영화예술부문 창작

영화를 비롯한 예술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을 드러냈다. 김정일은 항일 유격대 활동을 영화로 표현하면서, 빨치산 세력의 업적을 당의 지도 이념으로 내세웠다.

김정일은 빨치산 세력의 혁명 업적을 예술 작품으로 형상화했고, 이것이 빨치산 세력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1971년 2~3월 김정일이 주도한 '혁명가극 총결산 모임'이 열렸다. '밀림아, 이야기하라', '꽃 파는 처녀', '피바다' 등의 작품들이 공연되었다. 빨치산 세력은 공연을 관람하고 옛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빨치산 세력은 자신들의 업적을 예술작품으로 만든 김정일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다. 이는 김정일의 후계자 추대로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612]

다음 조직 차원이다. 김정일은 항일 유격대 활동만을 당의 유일한 혁명 전통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빨치산 세력이 당 지도 조직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도록 했다. 김정일은 갑산파 숙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613] 갑산파는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업적과 다른 항일 투쟁 경험을 공유했다. 갑산파는 빨치산 세력과 함께 1967년 숙청되기 전까지 지배연합을 구성했다. 김정일은 갑산파 숙청을 주도하면서, 당 지도 조직에선 빨치산 세력만 남게 되었다.

김정일은 갑산파의 문제를 발견한 인물이었다. 당시 당의 일부 하부조직에서 갑산파 문제를 논의했는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정일은 박금철의 부인을 형상화한 연극 '일편단심'에 대해 "누구를 위한 일편단심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김정일은 갑산파를 숙청하기 위한 조사를 주도했다. 김정일은 갑산파 인물들의 담화, 문건들을 검토하고, 반당·수정주의 죄상을 찾아냈다. 문건에 적혀 있는 갑산파 간부들의 지시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며, 갑산파 문제의 심각성을 밝혔다. 김정일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67년 5월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갑산파가 숙청되었다. 이처럼 김정일은 갑산파의 죄상을 폭로하고, 이들을 숙청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614]

김정일은 갑산파 숙청 이후 당을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나섰다. 김정일은 1967년 6월 15일 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간부

가, 예술인들 앞에서 한 연설 (1966년 2월 26일)」,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612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서울: 중앙일보사 1994). p.90.

613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614 탁진, 김강일,박홍제. 『김정일 지도자 제1부』, pp.143-145.

들과 담화에서 반당반혁명분자들과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15차 전원회의에서의 갑산파 숙청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당 내에서 부르주아 사상, 수정주의 사상, 봉건유교 사상을 퍼트렸다고 했다. 갑산파는 숙청되었지만, 이들의 사상 여독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갑산파가 김일성의 권위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정일은 갑산파가 항일 혁명 전통 확립을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갑산파가 빨치산 세력의 항일 투쟁 업적을 말살했다고 비난한 부분이다. 김정일은 "(김일성) 수령님께서 조국광복을 위한 피어린 투쟁 속에서 이룩하신 항일의 혁명 전통은 우리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며 귀중한 혁명적 재부"라면서, "반당혁명분자들(갑산파)은 혁명 전통의 폭을 넓힐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왜곡하여 혁명 전통의 폭을 상하좌우로 넓혀야 한다고 하면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에 오가잡탕을 끌어넣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김정일은 로동당의 혁명 전통을 오직 김일성이 이끈 만주에서의 항일 유격대 활동에서 찾았다. 이어 "항일 빨치산 참가들의 회상기들 비롯한 혁명 전통 교양자료를 출판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으며 회상기는 옛말책에서 한번 읽어보면 된다고 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 교양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했다.[615]

이처럼 김정일은 김일성과 빨치산 세력의 업적만을 유일한 혁명전통으로 인정했다. 여기에서 벗어나 또다른 혁명 전통을 세우려는 기도를 반당, 반혁명, 수정주의로 간주했다. 따라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일인지배 확립뿐만 아니라, 그 지배 연합을 구성한 빨치산 세력의 독점적 지위를 정당화했다. 빨치산 세력 입장에서, 김정일은 자신들의 업적과 독점적 지위를 정당화해주는 인물이었다. 물론 김정일이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이유는 중요하지만, 김정일이 빨치산 세력의 당 내 지위를 지켜줬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김정일은 일찍이 대학시절부터 혁명전통의 계승성을 강조했다. 김정일 역시 빨치산 세력에 대한 로동당 내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일은 전통은 대를 이어 끊임없이 전해지는데, 혁명 전통은 이러한 계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은 로동당의 혁명전통은 오직 김일성과 함께 한 항일 빨치

615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15일)」,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산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항일 빨치산 투쟁에서 벗어난 것은 가짜혁명가이며, '오가잡탕'이라고 했다. 의열단이니 독립동맹 같은 항일투쟁은 반당종파분자뿐이라고도 했다. 김정일은 계승해야 할 혁명전통은 오직 항일 빨치산 투쟁이라고 못박았다.[616]

지배 연합의 정치 엘리트들은 미래의 이익, 기대 이익에 대해 불안을 갖기 마련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대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현재, 혹은 미래의 지도자로 지지하게 된다. 북한 정치에서 빨치산 혁명전통의 존중, 항일 투쟁 경험의 공유, 친밀감 등은 지배 연합을 이루는 빨치산 세력의 기대 이익에 대한 신호(signal)일 수 있다.[617] 여기서 핵심은 김정일이 내세웠던 이념이다. 김정일은 빨치산 세력의 이념적 독점을 강화했고, 이념의 독점은 빨치산 세력의 조직 내 우월적 지위 유지로 이어졌다. 이념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빨치산 세력의 선호이면서, 나아가 자신들이 미래에도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 이익에 대한 신호인 것이다.

김성애는 빨치산 세력의 이념적 선호와 어긋났다. 김성애는 김일성의 전처이자 김정일의 친모 김정숙의 업적을 지우는 과정에서, 빨치산 세력의 항일 투쟁 업적까지 훼손했다. 김정숙 역시 항일 유격대 활동을 했는데, 김정숙을 지우는 과정에서 빨치산 활동 전체를 폄하한 것이다. 빨치산 출신을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였다.[618] 당시 빨치산 세력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들로 인해 우려가 컸다. 당시 장칭은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류샤오치, 덩샤오핑 등 혁명 원로들을 핍박했다. 그런데 김성애가 하는 짓이 마오쩌둥의 아내 장칭과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빨치산 출신들은 김성애가 김일성을 후광을 뒤에 업고 자신들을 탄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619]

게다가 김성애는 1971년 여맹 위원회장으로 선출되는데, 그 전임자가 바로 빨치산 출신인 김옥선이었다. 김옥선은 김정숙과 같은 빨치산 동료였으며, 그의 남편 최광도 빨치산 출신이었다. 김옥선은 김정숙 사망 이후 그의 혈육인 김정일과 김경희를 보살폈던 인물이다.[620] 김성애가

---

616 김정일. 「혁명전통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질데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0년 10월 8일)」, 『김정일 전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617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618 이항구, 『金正日과 그의 참모들』 (서울: 신태양사, 1995). pp.54-55.
619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p.81.
620 성혜랑. 『등나무집』 (서울: 지식나라, 2000),

김옥선을 교체하고 여맹 위원장에 오른 것은 빨치산 출신들에게 불편하게 비춰질 수 있었다.

김성애와 달리 김정일은 빨치산을 극진히 대우했다. 김정일은 빨치산 출신들에게 전속 간호원을 보내주고 평양의 봉화진료소(당 중앙의 핵심 간부 전문진료소) 의사들을 주치의로 배정했다. 식료품, 영화 필름, 장수의학책 등 물품을 빨치산 출신들에게 우선 공급한 것도 김정일이었다. 김정일은 새해 첫날이면 염색약 등 선물을 챙겨 빨치산 출신들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했다. 오진우가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맬 때 김정일은 오진우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고 한다.[621]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숨진 마동흡의 어머니 장길부가 입원했을 때엔 직접 병문안을 가기도 했다. 당시 김정일은 “할머니가 나를 손자로 생각하고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불편 것이 있으면 다 말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622] 김정일은 항일빨치산 출신들이 휴양이나 요양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623]

빨치산 세력에게 김성애는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인물이었던 반면, 김정일은 자신들을 지위를 유지해줄 인물로 비춰질 수 있다. 빨치산 세력이 김성애과 갈등을 빚으며, 김정일에 대한 믿음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빨치산 세력에게 김정일은 김성애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었다. 빨치산 출신들에게 김정일은 자신들의 이념, 조직적 산호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 이는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김일성은 김정일의 가장 좋은 장점으로 자신과 같이 혁명투쟁을 한 오랜 혁명투사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꼽았다. 입니다. 김정일이 김일성과 함께 혁명투쟁을 한 노투사들을 혁명의 원로로 존경하며, 보살핀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일의 노투사들 모두가 김정일동지를 좋아하며 지도자로 높이 칭송한다고 전했다.[624]

빨치산 세력의 지원을 받은 김정일은 1974년 김성애 세력 축출에

---

621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p.43.

622 김정일. 「혁명선배들의 건강을 잘 돌봐주는것은 응당한 도리이다: 장길부할머니와 정부병원 간호원과 한 담화 (1966년 7월 22일)」, 『김정일전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623 김정일. 「항일혁명투사들의 휴양조직을 잘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에게 준 지시(1975년 9월 14일)」, 『김정일전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624 김일성.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1993년 2월 12일)」,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성공했다. 김정일은 평양시당과 중앙여맹에 조직지도부 및 호위국 검열원을 파견·조사했다. 특히 검열원 20여명이 1973년 말부터 5개월 동안 해군사령부 정치위원 김성갑의 평양시 당 시절의 비리를 조사했다. 또 여맹 사업을 검열해 김성애와 측근들의 비위를 파해졌다. 김정일은 그 내용을 김일성에 보고했고, 분노한 김일성은 평양시 당 전원회의를 소집, 그 자리에서 김성갑과 김성로를 비판했다. 평양시 당과 여맹이 각각 전원회의를 열어 김성애의 측근들을 탄광, 농촌으로 축출했다. 김성애는 여맹위원회 위원장 직위는 유지했지만, 사실상 일체의 활동을 금지당했다.[625]

빨치산 세력의 김정일에 대한 지지는 김정숙과의 밀접한 연대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김정숙은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함께 했던 인물이었다. 그 역시 빨치산 세력에 속했다. 전문섭과 백학림은 김정일 후계자 추대에 적극적이었는데, 이들은 항일 유격대 활동 시기 김일성과 김정숙의 전령병 출신으로 김정숙과 가까웠다.[626] 1949년 김정숙이 사망하기 직전, 빨치산 세력에게 "우리 유라(김정일의 소련식 아명)가 혁명의 대를 잇도록 잘 키워달라"고 유언했다고 한다. 김정숙의 장례식에서, 빨치산 세력인 최용건은 "동지적 의리와 의무감을 갖고 김유라(김정일)을 키우겠다고 맹세했다고 한다.[627]

결국 이 같은 요인들로 빨치산 세력으로 구성된 지배 연합은 김정일을 지지했다. 이는 김일성의 후계자 지정으로 당연히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김정일은 사실 빨치산 세력의 선호에 대한 높은 기대이익을 제공했던 것이다. 김정일은 빨치산 세력의 독점적 지위를 정당화하는 이념을 체계화했으며, 조직 차원에서 빨치산 출신을 위협한 도전 세력을 제거했다. 빨치산 세력은 김정일이 선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지였다. 빨치산 세력은 김정일을 통해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김정일이 김성애 세력을 물리치고, 빨치산 세력의 지지를 획득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직자인 김일성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는 김정일은 빨치산 세력에 대한 우대를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에 찾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일은 "항일혁명투사들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닥쳐와도 장군님(김일성)을 믿고 따라 끝까지 혁

---

625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pp.100-101.
626 Ibid. p.110.
627 Ibid. p.86.

명의 길을 걸어왔다”고 했다. 또 “항일혁명투사(빨치산 세력)들을 존경하며 영원히 잊지 않고 추억하는 것은 장군님을 따라 끝까지 혁명의 길, 투쟁을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했다.[628]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 지위에 오른 직후 자신의 이념을 내세우지 않았다. 김정일은 곧바로 김일성 이념을 김일성주의로 정립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어 김일성 이념에 따라 당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김정일의 정치적 정통성의 근거가 김일성에 있었다. 김정일이 김일성 이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취한 선택은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지위를 공고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김일성의 변함없는 지지뿐 아니라 김일성과 이념을 같이 하는 지배 연합의 조직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중국 화궈펑 역시 전임자의 이념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견지했다. 그런데 화궈펑은 김정일과는 다른 제도적 조건에 처했다. 집단지배에서 지배 연합의 정치 엘리트는 이념에 따라 분화할 수 있었다. 전임자의 이념을 지지한다고 해서 지배 연합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반해 북한의 경우 일인지배로 전임자의 이념은 지배 연합의 이념과 일치했다. 전임자의 이념에 벗어난 정치 엘리트는 집권당에서 축출될 수밖에 없었다. 일인지배에서 전임자의 이념에 대한 절대적 지지는 후계자가 전임자와 지배 연합 모두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3. 독자적 지배연합 형성

후계자의 독자적 지배 연합 확대는 지도자에게는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였다. 후계자의 딜레마인 것이다. 지도자와 후계자의 관계에서 지배 연합은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 이 같은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선 후계자의 독자적 지배 연합 확대가 지도자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거나 혹은 그의 권력을 강화하는 경우여야 한다. 김정일의 독자적 지배 연합 확대 과정은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김정일은 간부 정책에서 김일성과 김일성의 이념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았다. 김정일은 김정일의 독자적 지배 연합의 확대는 논

628 김정일. 「수령님에 대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충성심을 따라배우자: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1961년 4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김정일 전집 』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제로섬 게임이었다. 이를 통해 후계자의 딜레마를 극복했다.

(1) 김정일의 간부 정책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1964년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배치되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를 관철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일성을 대신해 당과 군 조직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조직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김정일은 자신의 이념에 입각한 당 조직 개편보다는 어디까지나 김일성의 이념에 충실하게 당 조직을 개편했다. 이는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강화하는 동시에, 김정일이 김일성의 신뢰를 얻는 계기였다.

김정일은 빨치산 세력의 조직적 지지를 얻으면서, 1974년 2월 후계자로 추대되었다. 이후 김정일은 당 중앙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노동신문은 1974년 4월 25일 당 중앙이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했다. 당시엔 당 중앙을 로동당 중앙 조직으로 오해했지만, 이후 당 중앙이 김정일을 지칭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629] 김정일이 당 중앙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령인 김일성과 후계자인 김정일이 일체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 조직에 대한 김일성의 지배는 곧 김정일의 지배와 같다는 것이다. 김정일 입장에선 김일성의 권력과 권위를 강화라는 일 곧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이었다.[630]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수령과 당 중앙의 관계를 설명했다. “당 중앙의 의사는 곧 수령님의 의사이며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는 곧 수령님의 유일적 영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사업과 당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 문제를, 중요한 문제들은 예외 없이 당 중앙의 유일적 결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에 복종하는 강철 같은 중앙 집권적 규율은 전당의 사업과 활동에서 어길 수 없는 원칙으로 확고한 규범으로 되어야 합니다.” [631] 김정일은

---

[629] Kim Hakjoon, *Dynasty: The Hereditary Succession Politics of North Korea* (Walter H.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 2015). p.84.
[630] 스즈키 마사유키.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4), pp.109-110.
[631]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전국당조직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1974년 8월 2일)」.

“당사업의 기본은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상 사업은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 밑에 진행하여야 한다”고 했다.[632]

김정일은 로동당의 지시가 당 중앙인 자신을 통해 이뤄지도록 당 조직 체계를 재편했다.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지방지도과 책임동지도원들을 통하여 장악된 아래 당 조직들의 실태와 부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다 당 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인 결론에 따라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정연한 사업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당 조직들에 대한 지도에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장악하고 통제하는 조건에서 지도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했다.[633] 김정일이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부장을 모두 맡고 있는 상황에서, 당 전체의 의사결정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것이다.

김정일은 보다 직접적으로 당 지시가 자신을 통하도록 강조했다. 그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아래 당 조직들에 내려보내는 지도서와 지시는 반드시 위대한 수령님과 나의 비준을 받은 다음에 내려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634] 김정일은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독자적 지배 연합 구축을 시작했다. 김정일은 후계자의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김정일이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는 김정일이 김일성과의 이념의 일체화가 바탕이 된 결과였다.

김정일이 로동당 조직을 장악하면서, 빨치산 세력 이후 혁명 2세대가 로동당 간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1973년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정준기, 강성산, 최재우가 취임했다. 이어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양형섭이 정치위원회 위원 및 비서에 올랐다. 김영남은 1974년 6월 정치위원회 위원 겸 비서, 연명묵은 1974년 12월에 정치위원회 위원 겸 비서로 각각 임명되었다. 이들은 김정일의 부상과 함께 새로운 당 지도 조직에 편입되었고, 상당수가 빨치산 출신의 자제들이었다.[635]

---

632 김정일. 「선전선동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73년 9월 25일)」, 『김정일 전집 』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633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74년 2월 28일)」.

634 Ibid.

635 스즈키 마사유키.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p.119.

김정일은 자연적 세대교체에 따른 새로운 지배 연합의 조직화에도 나섰다. 1970년대 초 이미 빨치산 출신들은 60,70대의 고령이었다. 자연적 세대교체에 따른 지배 연합 재편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새로운 당 조직 구축의 기반으로 삼았다. 원래 3대혁명 소조운동은 김일성의 제안에 따라, 1973년 2월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젊은 일꾼들과 대학 졸업반 학생 등 젊은 엘리트 수만 명을 3대 혁명소조라는 이름을 붙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파견했다. 3대혁명 소조운동은 로동당 내 세대교체를 위해 후계 세대의 양성이라는 의도가 있었다. [636]

이후 김정일은 3대 혁명소조운동은 직접 주도했다.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공업과 농업뿐 아니라 건설, 운수, 과학, 교육 등 모든 부문에 확대했다. 그리고 당이 3대혁명소조운동의 효율적 전개를 위해 지도체계부터 개편했다. 1974년 2월 공업과 농업 부문 3대혁명소조를 별개로 지도하던 체계를 당 중앙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지도하도록 했다. 1975년 3월 중앙과 도, 시, 군에 있는 3대혁명소조종합실을 3대혁명소조지휘부로 개편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단일하게 움직이는 조직으로 변모한 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북한 각지에 배치되어 현지 간부들을 도왔다고 한다.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자신의 지시를 당 기층조직까지 관철했던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현지 당위원회와 함께 사상을 교양하고, 생산을 지휘하는 간부들을 지원했다. 당시 현지 간부들은 경험만 믿고 과학을 무시하며, 관료처럼 거칠게 일을 하며, 기술을 배우는 일에 열의가 없었다고 한다. 소조원들은 현지 간부들의 태도를 재선하고, 당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과학기술과 업무 방식을 익히도록 했다고 한다. [637]

소조원들은 로동당에서 김정일의 독자적 조직 기반이 되었다. 김정일은 소조원들을 로동당 당원으로 입당시켰다. 3대혁명소조운동에서 성과를 거둔 이들이 그 대상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시작한 3대혁명소조운동을 자신의 조직 기반 구축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김정일은 새로운 정치 엘리트들을 당 조직으로 충원했으며, 기층 당 조직들에 자신의 지시를 관철시켰다.

---

636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pp.328-329.

637 탁진, 김강일,박홍제, 『김정일지도자』 제2부. p.151.

김정일의 독자적 지배 연합 형성은 당 내에서 일부 저항에 부딪혔다. 1976년 6월 정치위원회 회의에서 김동규 국가 부주석이 김정일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간부임명과 해임절차를 규정한 간부사업지도' 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김동규가 김정일의 간부정책, 계급정책, 후계체제 확립과정을 집중 비판했다. 김동규는 "혁명열사 가족만 지나치게 내세우지 말라"며 "노동계급 가족의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정일이 빨치산 세력의 자녀를 특별 대우하면서, 이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제멋대로 행동하고 당규율과 질서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김동규는 김정일의 '간부청년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나이든 간부들에게 노쇠 딱지를 붙여 일선에서 후퇴시키고 후계체제를 받쳐줄 청년 간부를 대거 등용한 데에 대한 반발이었다.

문제가 된 건 김동규가 김정일의 후계 체제를 언급한 것이었다. 김동규는 "후계자 부각을 너무 서두른다"고 발언했다. 그는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는 인정하면서도 김정일 치켜세우기를 너무 서둘러선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민이 납득할 수 있게 시간을 두고 교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계체제를 점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규의 발언에 일부 회의 참석자들이 가세했다. 김정일의 당 조직 정책에 대한 당의 고위 간부들의 불만을 김동규가 대변한 것처럼 비춰졌다.

회의에서 김동규의 발언에 대해 빨치산 세력들이 대거 반박했다. 오진우가 김동규의 비판에 반발하며 논쟁이 격화했다. 또 김일과 최현도 김동규의 발언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김일성은 논쟁을 지켜보고는 "노쇠 딱지 붙이기, 당 간부 대열의 청년화에는 오류가 있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해야지 입 다물고 있다가 뒤늦게 큰일난 듯 떠드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동규의 발언에 대한 불편함을 표시한 것이다.

김동규의 김정일 비판 발언은 로동당 지도 조직 내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다. 정치위원회 회의는 곧바로 재개되었다. 회의에선 김동규에게 자기 비판을 시켰지만, 김동규는 거부했다고 한다. 김일, 최현, 박성철 등 빨치산 세력은 김동규를 개별적으로 설득했지만, 김동규는 "김정일 후계 체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방법상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동규 사건은 당 내 숙청으로 귀결되었다. 당시 군 총치국장 이용무,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류장식, 당 검열위원장 지경주, 인민부력부 부부장 지병학 등이 국가보위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인민무력부 부부장 장정환은 사석에서 김동규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문제가 됐

다. 이후 지경주는 1976년 8월 25일 지병으로 사망했고, 지병학도 1977년 2월 18일 역시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용무와 장정환은 사상 검토를 받고 자강도로 축출되었다. 김동규와 류장식은 함경북도 특수교양소에 감금되었다.[638]

김동규 사건과 관련, 김일성이 김정일의 급속한 권력 장악을 견제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김동규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1년 동안 권력을 유지했으며, 독자적인 판단으로 후계 구도에 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김일성은 김정일로 빠르게 권력이 이양되는 일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으며, 김동규는 이러한 김일성의 의중을 파악해 행동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김정일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끼만행 사건은 김일성의 위신에 흠집을 낸 일이었다고 한다. 김동규의 발언 이후 김정일은 자중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권력승계 속도를 늦추게 되었다고 한다.[639] 그러나 이같은 견해는 단지 추정에 불과할 뿐 김일성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이후 김동규는 물론 김동규의 측근들이 숙청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김동규 사건은 지배 연합 내 김정일의 지지 세력이 새롭게 충원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김일성의 지배 연합과 새롭게 충원된 김정일의 지배 연합 사이의 갈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김동규는 로동당 간부의 청년화, 김정일의 조직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후계자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후계자의 독자적 지배 연합의 확대는 후계자가 안정적인 권력을 이어받는 데 중요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배 연합 내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권력승계 과정에서 지배 연합이 이원화가 나타나게 된다. 권력승계 안정성에서 지배 연합의 이원화에 따른 갈등을 극복하는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2) 만경대 혁명 학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권력승계 과정에서의 지배 연합 분화는 후계자가 극복해야만 하는 과정이다. 이 점에서 만경대혁명학원을 통한 지배 연합의 재생산은 지배 연합 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제로 역할했다.

638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pp.112-116.
639 고명균. 「김정일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후계체제의 위기」, 『현대북한연구』, 20(1), 2017.

전임자의 지배 연합이 견재했던 이념과 조직적 특권이 만경대혁명학원을 통해 지배 연합도 계승될 수 있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빨치산 세력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640] 김일성은 1947년 이 학교 창립식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희생된 동료들의 자녀를 돌보고 교육시키기 위해 학원을 창립했다”고 밝혔다. 김일성은 “전화 속에 흩어져 행처도 생사여부도 알 수 없게 된 전우들의 어린 자식들을 공부시켜 혁명가로 키워달라던 유언을 잊지 않고 만경대혁명학원을 창립했다”고 했다.[641] 만경대혁명학원은 항일 유격대 정신이라는 로동당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었다. 김정일 역시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김일성의 일화 및 연설과 함께, 항일무장혁명투쟁시기의 이야기를 배웠던 것으로 보인다.[642]

이 학교는 혁명전통에 충실한 로동당 핵심 간부들을 육성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세웠다. 김일성은 1948년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빨치산 활동의 정신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김일성은 “학생들의 부모들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의 그 어렵고 곤란한 환경속에서도 혁명투쟁을 멈추지 않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견결히 싸웠다”며 “혁명자유자녀들은 부모들의 이러한 숭고한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열렬한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고 했다. 또 “혁명가가 되려면 항일유격대원들처럼 나라와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이 로동당의 간부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성은 “혁명자유자녀들은 정치와 군사를 비롯한 여러 부분의 훌륭한 민족간부가 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643]

만경대혁명학원은 빨치산 혁명 활동의 계승을 강조했다. 이는 빨치산 투쟁을 혁명전통으로 내세우는 김정일의 이념과 같은 것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만경대혁명학원을 키워온 데 대해 “조국해방성전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혁명전우들의 자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훌륭히 키

640 김옥자. 『만경대혁명학원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2013). p.124.
641 김일성. 「평양혁명자유가족학원 개원식에서 한 훈시(1947년 10월 12일)」 『김일성 저작집』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642 김정일.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만경대혁명학원 소년열성자들과 한 담화(1953년 1월 25일)」, 『김정일 전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643 김일성. 「혁명선열들의 뜻을 이어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되라: 만경대혁명자유가족학원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1948년 12월 11일)」, 『김일성 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우기 위하여 끝없는 노고와 심혈을 기울여왔다" 고 했다.[644] 김정일은 빨치산 세력 중심의 혁명전통을 강조함으로써, 김일성과 빨치산 출신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김정일이 자신의 독자적 지배 연합을 조직하기 위해선 이러한 이념적 지향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웠다. 자신의 이념을 고수하면서, 그 이념에 맞는 새로운 정치 엘리트들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자신의 정당성을 혁명전통의 계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독자적 지배 연합 역시 혁명전통의 계승이라는 이념에 따라 조직되어야 했다. 김정일을 지지했던 빨치산 세력이 만경대혁명학원을 통해 새로운 지배 연합으로 재생산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빨치산 세력의 재생산은 김정일로의 권력승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빨치산 세력은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세웠고, 그 2세대는 김정일의 후계를 뒷받침했다. 김일, 김혁, 오중성, 김책, 최현, 김철 등 항일빨치산들은 김일성의 지배 연합을 주요 정치 엘리트였다. 그리고 이들의 아들인 박용석, 김환, 오극렬, 김국태, 최룡해, 김시학 등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이 김정일의 지배 연합을 형성했다. 항일혁명유가족의 자녀들이 만경대혁명학원에 입학했다는 점에서도, 만경대혁명학원은 빨치산 세력의 확대 재생산 역할을 했던 것이다. 물론 이후 만경대혁명학원은 빨치산 세력의 2세나 유가족 자녀에서 벗어나 애국열사유자녀, 대남침투유자녀, 사회주의혁명사업가유자녀들도 입학 자격이 주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치산 세력 중심의 혁명 전통의 계승이라는 점은 흔들이지 않았다.[645]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은 김일성의 친위부대 장교로 입대하고, 해외 유학이라는 특혜까지 받았다. 그리고 북한의 당, 군, 정부 기관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646] 이 같은 혁명전통의 계승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배 연합의 승계에 결정적이었다.

지배 연합의 재생산과 계승이라는 관점은 김정일의 발언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김정일은 만경대혁명학원의 교육 목적을 혁명의 후비대, 혁명의 대를 이어 나갈 골간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선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이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을

644 김정일. 「혁명이 대를 이어나갈 핵심골간을 더 잘 키울데 대하여 : 만경대혁명학원 원장과 한 담화(1971년 11월 17일)」, 『김정일 전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645 김옥자. 『만경대혁명학원 연구』, p.125-127.
646 김정일. 「혁명가유자녀들은 부모들처럼 혁명에 끝까지 충실하여야 한다 : 조선인민군 지휘성원과 한 담화(1971년 5월 21일)」, 『김정일 전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걸고 보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정일은 만경대혁명학원의 혁명가유자녀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혁명을 위하여 희생한 부모의 뜻을 잇고자 하는 사상적 각오가 갖췄기 때문이라고 한다.[647] 만경대혁명학원은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뒷받침하는 지배 연합의 재생산에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빨치산 2세이면서 만경대혁명학원 1기생 출신인 전병호, 한성룡, 오극렬은 김정일을 지지하는 측근이었다. 이들은 1946년 만경대혁명학원이 개교하기 전부터 김일성의 집에 살았는데, 김정일은 이들과 함께 생활했다. 특히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은 혁명유자녀들을 자신의 집에 데려다 길렀다. 김정숙에게 이들은 빨치산 동지들의 자녀이기도 했다.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과 김정일 사이엔 빨치산 동지의 2세라는 특수한 정치적 관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은 어머니 김정숙과 함께 만경대혁명학원 준공식에 참여한 적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648]

지배 연합의 재생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오극렬이다. 오극렬은 빨치산 항일투쟁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중성의 아들이다. 오극렬은 만경대혁명학원 1기 출신이다. 김일성대를 졸업한 후 소련공군대학에서 유학했다. 김정일은 그를 1979년 9월 총참모장으로 승진시켰다. 오극렬은 김동규가 김정일의 후계체제에 제동을 걸었을 때 김정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었다. 그는 이용무 총정치국장, 장정환 인민무력부 부부장, 임철 작전국장, 이필선 후방총국장 등 당시 김동규를 지지했던 군 수뇌부들을 축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오극렬은 당 정치국위원, 중앙군사위 위원, 인민군 대장을 역임하면서 김정일을 호위하는 데 앞장섰다.[649] 오극렬은 빨치산항일투쟁의 혁명전통의 계승, 그리고 이에 따른 김정일의 지배 연합의 재생산을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다.

역시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으로 김정일의 최측근인 전병호도 정치국 위원, 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김정일을 호위하는 역할을 맡

---

647 김정일. 「혁명가유자녀들을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골간으로 믿음직하게 키워야 한다: 만경대혁명학원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60년 4월 17일)」, 『김정일 전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김정일. 「만경대혁명학원 원장과 한 담화(1972년 2월 15일)」, 『김정일 전집』 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648 김정일. 「혁명가유자녀들을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골간으로 믿음직하게 키워야 한다: 만경대혁명학원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60년 4월 17일)」.

649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pp.180-181.

았다. 김정일은 1973년 9월 조직사상비서가 된 후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장이던 전병호를 1974년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불러들였다. 그는 김정일이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김정일의 조직 참모로 역할했다. 김정일은 그를 1976년부토 조직지도부 1부부장으로 자신을 대리하게 했다.

또다른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한성룡 역시 김정일에 의해 급부상했던 인물이다. 한성룡은 당 정치국 위원, 비서,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그의 아버지 역시 항일 빨치산 출신이었는데, 1938년 무산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룡은 고향을 떠돌다 흥남 기계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고, 해방 이후 만경대혁명학원에 입학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김정일은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면서 한성룡을 정무위원 3사무국장으로 발탁했고, 김정일의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는 앞장섰다.[650]

이처럼 만경대혁명학원은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제휴 세력을 양성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일성은 1972년 4월 22일 조선인민군 창건 40돌 '항일혁명투사' 들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 나가자면 혁명의 핵심을 키우는 것 중요하다"고 말했다.[651] 만경대 혁명학원은 소위 항일혁명유가족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6·25 전쟁 이후엔 전사자, 피살자의 유자녀 수 증가에 따라 입학 자격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전통의 계승이라는 성격은 바뀌지 않았다.[652]

이 같은 맥락에서, 만경대혁명학원은 1971년 5월 15일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김일성의 혁명 역사, 노작, 혁명 전통, 조선로동당 정책사 등 정치 과목들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되었다. [653] 만경대혁명학원은 특정한 이념에 따라 교육한 혁명 2세대를 당의 간부로 육성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학원 출신들이 빨치산항일투쟁의 이념을 내세우는 김정일의 지배 연합으로 성장한 것이다.

실제로 김정일이 후계자 지위를 확립한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이 장중앙위원회 위원 145명 중 34명이었다. 빨치산 출신은 26명이었다.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구 지배 연합

650 Ibid. pp.162-165.
651 Ibid.
652 강근조. 『 조선교육사』 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p.154.
653 리영환. 『조선교육사』 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p.82.

이었던 빨치산 세력의 비중은 줄어들면서, 김정일의 신 지배 연합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표 17] 1980년 제6차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위원

출신	구성	비율
빨치산 세력	김일성, 김일, 오진우, 박성철, 최현, 림춘추, 서철, 오백룡, 전문섭, 최광, 김철만, 백학림, 태병렬, 전창철, 허정숙, 방학세, 황순희, 리을설, 주도일, 리두익, 최인덕, 오재원, 전문욱, 조명선, 김좌혁, 최용진	26명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김정일, 김환, 오극렬, 계응태, 강성산, 연형묵, 최영림, 리근모, 김강환, 홍시학, 김국태, 고정식, 김일대, 김병률, 백범수, 최문선, 리동춘, 리길송, 림수만, 심창완, 박용석, 장성우, 조명록, 김일철, 최상욱, 리하일, 리봉원, 김시학, 전병호, 현준극, 리동호, 김두남, 김윤상, 리용익	34명
기타	리종옥, 김중린, 김영남, 허담, 윤기복, 조세웅, 최재우, 공진태, 정준기, 정경희, 서윤석, 현무광, 리선실, 박수동, 황장엽, 서관히, 김두영, 김경련, 정동철, 변창복, 로명근, 림호근, 김병하, 리진수, 김기남, 김관섭, 양형섭, 리정룡, 리창선, 림형구, 장국찬, 조창덕, 김윤혁, 리지찬, 윤호석, 림재만, 림계철, 김영채, 최정근, 리재윤, 김기선, 강희원, 장인석, 김치구, 박영순, 조순백, 양룡적, 리정배, 김룡운, 조희원, 한여옥, 리두찬, 장윤필, 김성애, 천세봉, 리면상, 리봉길, 문성술, 리원범, 리찬선, 김용순, 홍성룡, 김희일, 최진성, 유정숙, 김국훈, 리경선, 전희정, 리화연, 원동구, 김만금, 강현수, 림태준, 안승학, 홍기문, 홍성남, 리종목, 손경준, 주길본, 김혁철, 배철우, 김청룡, 정철, 심경철, 전재봉	85명

※ 출처 : 김옥자. 『만경대혁명학원 연구』, p.132.

김정일의 독자적 지배 연합에서 핵심인 기구인 비서국에서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비중은 더욱 두드러졌다. 1980년 김정일이 후계자 지위를 확립하면서,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은 비서국 인원의 40%를 차지했다. 이후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18] 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구성(1980~2010년)

출신	1980년 10월	1994년 12월	2000년 12월	2010년 8월	2010년 9월
혁명 1세대	김일성(총비서), 김중린, 김영남, 윤기복, 황장엽, 박수동	김중린, 서관희, 황장엽, 김기남, 김용순	김기남, 김용순, 김중린	김기남	김기남, 문경덕, 박도춘,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홍석형
만경대혁명학원	김정일, 김환, 연형묵, 홍시학	김정일,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최태복, 김국태	김정일,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최태복, 김국태	김정일, 전병호, 최태복, 김국태	김정일, 최태복, 최룡해, 태종수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비율	4/10	6/11	6/9	4/5	4/11

※ 출처 : 김옥자. 『만경대혁명학원 연구』, p.137.

(3) 지배 연합의 이원화와 계승성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지배 연합의 승계와 지배 연합의 재생산이라는 메커니즘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전임자의 지배 연합의 지지를 얻으면서, 후계자의 독자적 지배 연합을 재생산해야 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전임자의 지배 연합인 빨치산 세력의 지지를 얻었고, 이후 혁명 2세대,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 등 독자적 지배 연합을 지배 연합으로 조직했다. 이

것이 김정일의 권력승계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김일성의 지지만으로는 후계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북한 정권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권력승계 실패의 원인을 후계자를 뒷받침하는 제휴 세력에서 찾았고 이러한 교훈을 김정일 권력승계 전략에 적용했을 수 있다. 중국과 소련에서 최고지도자에 의한 지명만으로는 후계자가 되지 못한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김정일 권력승계 전략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지배 연합의 승계과 지배 연합의 재생산이라는 두 차원이다. 먼저 지배 연합 승계 차원에서, 김일성은 “김정일 동지를 받들어 나가는 데서 항일혁명투사들이 누구보다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항일혁명투사들은 나와 함께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고 발전시켜온 영광스러운 우리 혁명의 1세대”라고 했다. 또 “항일혁명투사들은 지금까지 나에게 충실하여 온 것처럼 김정일 동지를 잘 받들고 도와주어 사회주의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계속되는 것만큼 영도자에 대한 충실성도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 지배 연합의 재생산이라는 차원이다. 김일성은 “우리 혁명의 원로인 항일혁명투사들은 자신의 실천적 모범으로 인민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자기의 영도자를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그 후계자에 대한 충실성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참다운 충실성으로 되며 그러한 충실성을 지닌 사람이 바로 참다운 혁명이고 충신”이라며 “항일혁명투사들은 자녀들을 잘 교양하여 그들이 김정일 동지를 충성으로 받들고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654]

김정일의 독자적 지배연합의 확대는 ‘할일빨치산 혈통의 재생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 항일빨치산 출신 혁명 1세대와, 혁명 2세대가 지배 연합에서 중첩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하면, 단계적 권력 이양이 시작되면서 혁명 2세대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혁명 2세대가 항일빨치산 출신들과의 혈연적 재생산, 혹은 이념적 재생산이었다는 점이다. 김일성과 혁명 1세대의 정치적 제휴는 후계자 김정일과 혁명 2세대의 정치적 제휴로 계승된 것이다. 김일성과 김책의 관계는 김정

654 김일성.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일과 김책의 장남인 김국태의 관계로 이어졌던 것이다.[655] 이 같은 지배 연합의 계승성이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안정으로 어질 수 있는 기제였다.

김정일 역시 자신의 후계자 지위에서 이념적 계승성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는 김일성 사후 3년이 지난 1997년 당과 군에서 만경대혁명학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혁명무력의 후비 간부 육성 기지이다. 만경대혁명학원을 잘 꾸리고 도와 주는것은 혁명의 미래를 귀중히 여기시고 주체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 오신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다." [656] 만경대혁명학원은 지배 연합의 혈통적 계승인 동시에 주체사상 이념의 계승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김정일은 항일 빨치산의 업적을 이념화하고, 이를 당 조직 전체에 관철함으로써, 당을 항일 빨치산 세력의 연속적인 조직으로 재생산했던 것이다. 김정일 역시 간부 의식 교육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항일혁명투사들에게서 배워야 할 세가지 덕목을 제시했다. 첫째, 혁명 투쟁 과정에서 어떠한 난관도 극복했던 불굴의 투지이다. 둘째, 수령의 영도를 믿고 따르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셋째, 주인다운 자각으로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혁명가적 사업 기풍이다.[657]

전임자의 지배 연합과 후임자의 지배 연합 사이에 갈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빨치산 세력의 재생산에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 2세대는 빨치산 세력의 자녀이거나 빨치산 세력의 이념을 교육받은 자들이다. 빨치산 세력과 혁명 2세대 사이에는 이념적 선호가 일치했다. 이념적 일치에 따라 로동당 지도 조직을 둘러싼 파벌 대립은 나타나지 않았다. 게다가 빨치산 세력의 자녀가 혁명 2세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혁명 2세대의 조직 내 지위 보장은 바로 빨치산 세력의 선호이기도 했다. 북한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는 곧 전임자의 지배 연합이 누려온 독점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이었다.

---

655 박형중 등.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57; 김광운. 『북한정치사 연구 1: 건당·건국·건군의 역사』 (서울 선인, 2003), pp.540-548.

656 김정일.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한 담화 (1997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657 김정일. 「당생활을 강화하여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1970년 12월 3일)」, 『김정일 전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이러한 관점에서 김일성의 지배 연합은 군을 장악하고, 김정일의 지배 연합이 당을 장악함으로써 공생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주장[658]은 맞지 않다. 김일성의 지배 연합은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여전히 로동당 정치국을 장악하고 있었다. 김정일은 전임자의 지배 연합의 지지를 얻었고, 김정일의 독자적 지배 연합은 전임자의 지배 연합이 이념적으로 재생산된 결과였다. 당 조직 내에서 이념의 분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념에 바탕을 둔 파벌 갈등도 벌어지지 않았다.

정성윤 등의 연구는 권위주의 체제의 유형을 이론적으로 나누고, 일인지배와 일당지배가 혼합된 북한에서 반란이나 쿠데타가 없었다는 주목했다. 연구는 그 원인을 북한 특유의 엘리트 통제 시스템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659] 그러나 북한에서의 지배 연합은 일인지배 하에서 이념적 선호가 일치했고, 이에 따라 조직적 선호를 독점했다. 통제보다는 이들이 누렸던 이념적, 조직적 선호의 독점이 정치엘리트들의 공고한 지지로 이어졌다고 해석하는 게 보다 타당하다. 그리고 빨치산 세력으로 이뤄진 지배 연합의 재생산으로 인해 지배 연합 내에서 이념적 분화, 파벌 대립이 최소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의 독자적 지배 연합 확대가 김일성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오쩌둥은 자신의 후계자들이 파벌을 형성하는 일을 극히 경계했다. 린뱌오를 지지하는 당과 군의 고위 간부들이 마오쩌둥에 의해 적극적인 견제를 받았다. 또 왕훙원이 후계자가 지위에서 물러난 가장 큰 이유는 사인방이라는 파벌을 형성했다는 점이었다. 마오쩌둥은 왕훙원에게 수차례 이를 경고했다. 이와 달리 김정일의 독자적 지배 연합 확대 과정은 김일성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김정일의 독자적 지배 연합이 김일성의 지배 연합과 이념적으로 구분되지 않았으며, 파벌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독자적 지배 연합은 어디까지나 수 령 김일성과 그의 이념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기반으로 했다.

김일성과 김정일 사이에 후계자의 딜레마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혈연승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혈연승계는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

658 김인수, 이민룡. 「북한 권력 엘리트의 직위변동 구조와 정권의 안정성」, 『북한연구학회보』, 13(2), 2009.

659 정성윤, 차현진,정재관. 「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소고」,『통일정책연구』, 26(1), 2017.

것만으로 후계자의 딜레마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계자의 딜레마는 전임자와 후계자의 관계만을 고려해선 안된다. 지배 연합과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만일 후임자가 자신의 독자적 지배 연합을 확대하면서, 전임자의 지배 연합의 정치엘리트들을 축출하고자 시도한다면, 혈연관계라고 하더라도 전임자의 지위를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김정일과 그의 지배 연합이 김일성과 다른 이념적 지향을 갖고 있었다면, 이 역시 김일성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김정일의 경우 독자적 지배 연합은 김일성의 지배 연합이 이념적으로 재생산되는 형태를 취했다. 이 때문에 후계자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의 독자적 지배 연합은 사실상 독자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김일성은 후계자 김정일이 혁명 위업을 계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항일빨치산)가 백두 밀림에서 개척한 혁명위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하려면 문무충효를 다 겸비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영도하고 있는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어야 한다. 항일투사들은 혁명의 2세대, 3세대, 4세대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이 조직비서에게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는 동무들이 지금까지 나를 받들고 혁명이 길을 꿋꿋이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 일편단심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잘 받들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리라고 굳게 믿는다.” [660] 후계자가 전임자의 지배 연합 승계하고, 전임자의 이념을 추구하는 지배 연합의 재생산을 통해 후계자의 집권이 공고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4. 김정일의 지도자 지위 확립

(1) 후계자의 이념적 보수성

김정일은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공식적 후계자로 공표되었다. 김정일은 이 자리에서 “총체적으로 수령님께 충실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면서, “수령님의 혁명 사상과 수령님께서 이룩

660 김일성. 「항일투사들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들이다: 강반석어머님탄생 100돐기념 오찬회 참가자들과 한 담화(1992년 4월 21일)」, 『김일성 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하신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 것이 나의 총적 목표”라고 했다.[661] 공식적인 후계자이자 로동당 2인자 지위에 오른 김정일은 자신의 역할을 어디까지나 전임자의 이념의 계승, 유지에 두었다. 후계자의 이념적 보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1982년 3월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븍한에선 김정일은 김일성 수령이 창시해 발전시킨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체계화했음을 강조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혁명 실천 과정에서 창시, 발전시킨 독창적인 사상 이론 체계라고 했다. 김정일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로동당의 노선과 목표로 제시했다. 이 글에서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철학적 원리, 사회 역사 원리, 지도적 원칙으로 주체사상을 정리했다[662]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김일성이 1974년 북한의 최종 목표로 설정한 강령이다.[663] 김정일은 김일성이 제시한 북한의 목표로 자신이 계속 이어받아야 할 사명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정일은 김일성 이념의 충실한 계승자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1982년 10월 17일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ㅌ·ㄷ’은 1926년 김일성이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위해 결성했다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이다. 김정일은 조선로동당의 기원을 타도제국주의동맹에서 찾았다. 이에 따라 조선로동당은 조선의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일은 로동당의 조직, 사상적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김일성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664] 김정일은 자신의 역할을 어디까지나 김일성이 수립한 혁명을 이어나가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일성 이념에 대한 절대적 충성은 김정일이 밝힌 ‘혁명적 수령관’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1986년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였다.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을 절대화하고

---

661 김남진.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 』 (평양: 평양출판사 1995), p.47.
662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년 3월 31일)」, 『김정일 선집 』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663 김일성.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당조직일군강습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1974년 7월 31일)」, 『김일성 저작집』 2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략사』 2, pp.294-295.
664 김정일. 「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혁명적당이다(1982년 10월 17일)」, 『김정일 선집 』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무조건 받는 견해와 관점”이라고 했다. 이는 수령의 무오류성으로 연결된다. 김정일은 “김일성 동지가 개척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자면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목숨 바친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혁명대오의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이룩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라면서, “수령의 사상, 이론, 영도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해야 한다”고 했다.[665]

소련, 중국의 개혁 개방,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북한 정권에게는 심각한 충격이었다. 김정일의 선택은 ‘사회주의의 순결성’이었다. 1992년 10월 김정일은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 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사회주의, 주체사상의 고수를 거듭 밝혔다. 그는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당의 조직, 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조했다. 당 안에서 일체의 반혁명적 사상 조류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색적인 사상은 낡은 사상 잔재나 외부로부터 침습할 수 있다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반혁명 사상을 바탕으로 한 반당 집단의 배신임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령이 세운 단일한 사상으로 당을 일색화하는 일이 곧 로동당의 기본 임무라고 적시했다. 당의 이러한 과제는 수령의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 사회주의 영도의 계승과 결부된다고 했다.[666]

김정일의 보수성은 후계자로서 자신의 역할이었다. 후계자의 역할은 수령 김일성의 혁명 업적의 계승이라는 관점이었다. 김일성은 이념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후계자 김정일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 김일성은 1986년 5월 31일 김일성고급당학교에서 혁명위업의 계승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건설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 데서 기본은 당의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일성은 이념과 이념을 관철하는 조직 차원에서 성공했다고 평가했

---

665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당중앙위 책임인군들과 한 담화(1986년 7월 15일)」, 『김정일 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이찬행. 『김정일』 (서울: 백산서당, 2001), pp.512-513.

666 김정일.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창건 47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론문(1992년 10월 10일)」, 『김정일 선집 』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다. 당의 사상과 영도를 계승할 수 있도록 당 수뇌부가 튼튼하게 꾸려졌다. 당의 영도 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었다.[667]

사회주의의 순수성에 대한 김정일의 의지는 김일성의 이념적 노선에 입각한 결정이었다. 1989년 로동당 제6기 16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개혁개방에 대한 당의 노선을 '모기장' 론으로 설명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교류도 하고 합영도 하되 모기와 쉬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모기장을 치고 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립장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우리 당의 혁명적 노선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한다." [668]김정일은 김일성의 '모기장' 론을 개혁개방에 대한 자신의 입장으로 설정했다. 같은 해 6월 김정일은 수령의 모기장 발언을 언급하면서, "모기와 쉬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모기장을 쳐 놓으면 문을 열어놓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수정주의, 부르주아 사상을 비롯한 그 어떤 불건전한 사상요소도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게 방어진을 철저히 쳐놓아야 한다"고 했다.[669]

김일성은 후계자의 역할을 자신의 이념 계승이라고 생각했다. 김일성은 "우리는 앞으로도 주체사상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하며 주체의 지도적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일관성 있게 관철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김정일 동지와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혁명의 대를 이어 나갈 튼튼한 주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고 했다.[670]

(2) 지도 조직 제도의 개편

김정일은 1980년 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회 위원, 비서,

---

667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 경험(1986년 5월 31일)」, 『근로자』, 제6호, 1986.

668 김정일.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및 도당책임비서들과 한 담화 (1989년 6월 9, 12일)」, 『김정일 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669 김정일.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및 도당책임비서들과 한 담화(1989년 6월 9일, 12일)」, 『김정일 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670 김일성.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담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 차린 연회에서 한 연설(1992년 4월 15일)」, 『김일성 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군사위원회 위원에 선출되었다. 세 직책에 모두 선출된 사람은 김일성과 김정일뿐이었다. 중앙 당 조직의 개편과 관련, 제6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정치국으로 바뀌었다. 또 제5차 당대회에서 폐지되었던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부활했다. 상무위원회 부활은 김정일을 상무위원에 선출, 김정일의 위상을 강화할 목적이었다. 상무위원회는 김일성, 김일, 오진우, 이종옥, 김정일 등 5명이 선출되었다. 병약하고 노쇠한 김일이나 기술관료 출신 이종옥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오진우는 김정일의 최측근이었다.[671] 상무위원회는 집단지배 제도의 부활이 아니라 사실상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동 의사 결정 기구라고 볼 수 있다.

6차 당대회는 김정일이 후계자이자 2인자로서 지위를 확립한 회의로 평가를 받는다. 이 때부터 김정일은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하는 외국 국가원수 접견이나 현지실무지도를 직접 하기 시작했다. 김정일의 실무지도는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나 정무원 총리 이종옥, 강성산이 수행했다. 이는 김정일이 김일성과 공동통치를 구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후 김일성은 사실상 실무에서 은퇴하고 김정일이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672]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신문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을 제외한 다른 고위 간부들에 비해 보도되는 회수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권력승계가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만큼이나, 김정일의 권력과 권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673]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지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로동당 중앙 조직구성에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정치국에는 혁명 2세대가 충원되면서, 원로 빨치산 세력과 혁명 2세대가 분점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선 정치국 10명 중에 혁명 2세대는 김중린 한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선 혁명 2세대가 19명 중 7명을 차지했다. 기존 빨치산 출신들을 그대로 유임하면서, 혁명 2세대를 충원했다. 김일, 오진우, 박성철, 임춘추, 전문섭 등 빨치산 세력과 연형묵, 오극렬 등 혁명 2세대가 조직을 분점하는 양상이었다. 정치국은 빨치산 세력의 직위를 그대로 보존해주면서, 전체 인원수는 늘어났다.

이에 반해 비서국은 보다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1970년 비서 10명 중 혁명 2세대는 2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1980년엔 비서 10명 중 혁명

671 최진욱.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p.67.
672 Ibid. p.71.
673 U.S. Central Information Agency, East Asia review, 20 October 1981.

2세대가 9명이었다. 김일성을 제외하면 비서국은 전부 혁명 2세대로 채워졌다. 이들은 모두 김정일의 후계자 부상과 함께 로동당 중앙 조직에 들어온 김정일의 측근들이었다. 비서국은 김정일의 독자적 지배 연합을 제도적 기구로 성격이 바뀐 것이다. 사실상 일상업무를 비서국이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정일은 독자적 지배 연합을 중심으로 자신의 권한의 자율성을 확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치국과 비서국의 구성 변화는 김정일의 지배 연합 구조를 드러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일은 전임자 김일성의 지배연합을 승계 받으면서, 혁명 2세대로 이뤄진 자신의 독자적 지배 연합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의 지배 연합은 이원적 구성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원적 지배 연합을 바탕으로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승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원적 지배 연합에서 혁명 1세대와 혁명 2세대 간의 균형이 지속된 것은 아니었다. 김정일은 비서국을 중심으로 자신의 측근들을 지속적으로 등용했다. 김정일의 독자적 지배 연합 조직인 비서국은 정치국에 비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특히 김정일은 자신의 지배 연합에 속한 정치 엘리트들과의 비공식 연회를 주기적으로 가지면서, 주요 정책을 결정했다.[674]

김정일은 로동당 조직, 인사 결정에서 거의 전권을 행사했다. 김일성은 인사 문제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선정까지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는 김일성의 적극적인 후원에 따른 것이었다.[675] 김일성은 허담과의 대화[676]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혁명의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지고 있다. 혁명의 세대가 바뀌여지는 데 따라 간부 대열도 갱신하여야 한다. 이제는 간부 대열을 김정일 조직비서에게 충실한 사람들로 꾸려야 한다. 간부의 표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김정일 조직비서에 대한 충실성이다.”

1983년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 제8차 회의에서 정치국, 비서국, 중앙위원회, 검사위원회 등 주요 지도조직에서 20명을 교체했다. 이어 1984년엔 19명을 새로 충원했다. 1986년 2월엔 정치국, 비서국, 당 중앙위원회, 검사위원회회에서 37명을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1988년에 이들 당 지도조직에 52명을 새로 발탁했다. 당 지도부 교체

---

674 이교덕 등.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40.
675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pp.195-196.
676 허담. 『김정일위인상』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142.

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듬해인 1989년 8명, 1990년 21명, 1991년 17명, 1992년 23명, 1993년 19명을 새로 충원했다. 이처럼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 이전에 이미 새로운 간부들을 지속적으로 등용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배 연합을 이미 구축했던 것이다.[677]

[표 19] 로동당 지도부 구성 변화(1970~1980년)

기구	정치국		비서국	
당대회	제5차 당대회 (1970년)	제6차 당대회 (1980년)	제5차 당대회	제6차 당대회
혁명 1세대 (빨치산 세력)	김일성 김일 박성철 최현 김영주 오진우 김동규 서철 한익수	김일성 김일 오진우 이종옥 박성철, 최현 임춘추 서철 전문섭 오백룡 계응태 백학림	김일성 최용건 김일 김용주 오진우 김동규 한익수 현무광	김일성
혁명 2세대	김중린	김정일 김중린 김영남 김환 연형묵 오극렬 강성산	김중린 양형섭	김정일 김중린 김영남 김환 연형묵 윤기복 홍시학 황장엽 박수동

※ 출처: 최진욱.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1996). p.68

677 이찬행. 『김정일』, pp.603-604.

후계자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하기 전에 이미 지도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구축했다. 이는 김일성이 의도한 목표였다. 당의 위업은 후계자를 통해 대를 이어 계승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후계자가 강력한 영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1986년 김일성고급당학교 강의에서 "후계자의 영도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쌓고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 중앙위원회(김정일)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야 하며 당 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통일과 단결을 좀먹는 온갖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후계자가 절대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는 정당성은 혁명 전통의 계승에 있다. 김일성에 따르면, 후계자는 당의 위업을 계승하기 위한 존재이며, 당의 위업을 계승한다는 것은 바로 혁명 전통의 계승이라고 했다. 김일성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흐리게 하거나 말살하려는 어떤 시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혁명전통은 항일혁명투쟁에서 창시되고 해방 후 발전되어온 것이다.[678] 후계자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념만을 순수하게 고수해야 하며, 김일성 이념의 계승이 바로 후계자가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이어받는 정당성의 근원이다.

(3) 군권 이양

김일성의 일인지배가 유지되기 위해선 군을 통제해야 했다. 김일성은 당 조직을 바탕으로 군을 통제하고자 했다. 군에 대한 당의 통제는 곧 군에 대한 김일성의 통제이기도 했다. 김정일은 이 같은 김일성의 의도에 부합했다. 그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 강화함으로써, 김일성이 군을 통제하는 데 기여했다. 김정일은 군에서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김일성의 군에 대한 통제를 뒷받침했다. 이는 동시에 김정일의 군에서의 역할 확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 김정일이 군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과정은 김일성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다, 김일성의 권력을 보다 공고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념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 두가지로 이뤄졌다.

678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 경험: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강의 1986년 5월 31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p.110-113.

먼저 이념적 차원에서, 김정일은 군에서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해갔다. 1974년 4월 인민무력부 간부들에게, 김정일은 “인민군 군인들을 김일성주의자로 만들고 김일성주의에 입각해 인민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민군 간부들은 과거 항일빨치산 대원들의 혁명적 신념을 본받아, 김일성의 영도를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김정일은 인민군 간부들이 ‘당생활총화’에 참가하도록 지시했다. 당생활총화를 통해 인민들은 간부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스스로 자기비판을 함으로써, 김일성주의 이념을 강화하는 ‘혁명화’를 다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679]

이보다 앞서 김정일은 군의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김정일이 활용한 통로는 인민군 총정치국이었다. 1969년 김정일은 김일성의 제4기 제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의 발언을 관철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시했다. 당시 김일성은 군대 안에 당의 영도적 역할 제고하기 위해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김정일은 인민군 총정치국 선전선동부가 김일성의 군사 분야에서의 이룩한 업적을 정리하고 전파하도록 지시했다.[680] 이어 김정일은 1970년 로동당 정치국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임명된 이후 김정일은 인민군에서의 김일성에 대한 찬양 선전 활동을 보다 본격적으로 벌여나갔다, 인민군 총정치국 선전선동부장에게 인민군출판사에서 간행하는 모든 출판물이 유일사상체계에 입각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수령의 업적을 찬양하는 도서를 간행해, 군인들이 수령에 충성심을 갖도록 해야 지시했다.[681]

다음 조직적 차원에서, 김정일은 군 전체에 김일성의 명령이 관철되

---

679 김정일.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참다운 김일성주의정수분자가 되여야 한다: 인민무력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74년 4월 10일)」, 『김정일 전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680 김정일.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선동부장과 한 담화(1969년 6월 25일)」, 『김정일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681 김정일.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에 이바지할 출판물들을 더 많이 편집발행하자 :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선동부장과 한 담화(1971년 12월 1일)」, 『김정일 전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김정일. 「조선인민군출판사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5월 6일)」, 『김정일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김정일. 「인민군대는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전투준비와 전투력 강화의 성과로 뜻깊게 기념하여 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한 담화(1972년 1월 2일)」, 『김정일 전집』 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는 조직 체계를 세우고자 했다. 그는 김일성의 군에 대한 통제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정일은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는 군대 안의 당 조직과 정치 기관들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했다. 이어 “군벌 관료주의자들은 이러한 군대 안의 당 정치 조직들을 약화함으로써 군벌이 전횡과 독단을 일삼았다”고 했다. 김정일은 당위원회를 강화하고, 정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임으로써 당 내에서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정일은 당면한 과제로 군벌관료주의 여독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682] 김창봉, 허봉학 등 군 간부들이 김일성의 통제에서 벗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군대 내 당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군에 대한 당적 통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김정일은 당중앙인 자신의 유일적 영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당중앙이 수령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 사업을 지도하기 때문에, 인민군대가 당중앙에 충실함으로써, 수령의 영도와 의도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전군이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에 따라 당중앙의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복종하도록 지시했다. 인민군대의 중요한 원칙적인 문제들은 당중앙에 보고하고 당중앙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683] 김정일은 당중앙으로서 김일성의 군에 대한 통제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후계자 김정일은 당중앙으로써 군내 당조직을 통해 군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김정일이 군을 장악하는 핵심 조직이었다. 총정치국은 인민군 내 조직된 당 정치조직이다. 당의 지시와 방침을 군에 전달하고 군이 당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조직이다. 인민군 내 당 조직으로서 최고일 뿐만 아니라 인민군 전체에서도 최고 지위를 갖는다. 즉 군에 대한 당적 통제의 핵심기관인 것이다. 김정일은 인민군 총정치국을 통해 군내에서 유일사상체계, 유일적지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주도하도록 했다.[684] 김정일은 “인민군 총정치국은 당중앙(김

---

682 김정일.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1969년 1월 19일)」, 『김정일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683 김정일.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75년 1월 1일)」, 『김정일 전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684 김정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 총정치국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74년 4월 15일)」,

정일)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인민 군대 안의 전반적인 당정치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지도하는 인민군당위원회의 집행기관”이라면서, “인민군대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는 인민군 총정치국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밝혔다.[685]

이후 모든 당사업을 인민군 당위원회와 총정치국을 통해 김정일 조직비서에게 집중하도록 했다. 1979년 2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를 소집, 중앙에서 하부 말단까지 당사업, 군사사업 등 모든 문제를 김정일의 결론에 따라 집행하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우도록 했다. 김정일이 자신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 군의 주요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686] 김정일이 1970년대 중반 군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총정치국장 이용무,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 윤치호, 선전부장 김응도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687]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위해 김정일은 정치위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 정의했다. 정치위원은 군사칭호가 낮을 수는 있으나 군 사업에선 군사지휘관과 같다고 했다. 김정일은 정치위원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하고, 정치위원에게 군내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핵심 임무를 부여했다.[688] 김정일은 “인민군부대들의 모든 사업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에 근거하여 실속 있게 진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정치위원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고 했다.[689]

『김정일 전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로동당에서 총정치국은 중앙 조직지도부의 한 개 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정치국은 군에서의 정치 사상 통제, 군간부의 일상 생활 감시, 인사권과 군사행정에 통제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총정치국엔 조직국과 선전국, 간부국이 있다. 이대근. 「북한군 총정치국」, 북한연구학회,『북한의 군사』 (서울: 경인문화사, 2006).

685 김정일. 「당의 의도에 맞게 당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릴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과 한 담화(1975년 10월 9일)」, 『김정일 전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686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 역사·이념·권력체계』, pp.105-106;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215-218.

687 최주활. 『북한체제에서의 당-군 관계 연구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2002). pp.85-86.

688 김정일. 「부대 정치위원의 임무: 조선인민군 군부대 정치위원과 한 담화(1972년 10월 17일)」, 『김정일 전집 』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689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526부대 정치위원과 한 담화(1965년 12월 18일)」,

김정일은 수령에 대한 충성이라는 관점에서, 군 간부 양성에 관해서도 관여했다. 김정일은 1972년 2월 개편된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한 바 있다. 김일성정치대학은 군대에서의 정치위원을 양성하는 곳이다. 김정일은 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자들에게 김일성의 노선과 교시가 교직원, 학생에게 전달침투되는 체계를 세워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모든 학생들이 김일성의 의도와 방침대로만 사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군에서 수령의 지시를 관철하는 인민군 정치위원을 배출하는 일이 김일성정치대학의 교육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690] 이어 7월엔 김일성정치대학 정치부장에게 인민군에서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학생 교육을 강조했다.[691]

김정일은 이념과 조직 차원에서 김일성의 군 통제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군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군내 당조직을 바탕으로 김일성의 군 통제를 도왔다.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는 역으로 김정일의 군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제로도 작용했다. 김정일은 조직비서와 같은 당 직책을 바탕으로 군에 대한 권한을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은 이 바로 군내 지휘관 지위를 통해 군을 직접 통솔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김일성의 지지를 받으며, 인민무력부장 겸 총정치국장인 오진우 등 인민군 고위 간부들의 지원을 받았다.

한편, 전술 차원에서 김정일은 '수령님식 전법'을 제시했다. 저격, 경보병 부대 중심의 전투 개념이었다. 미국의 핵무기에 맞서기 위해선 저격, 경보병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일성의 구상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은 저격, 경보병이 원자탄보다 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저격, 경보병 군인들이 수령의 전법대로 적과 싸워이기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며, 이는 사상교양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같은 전쟁 구상을 '우리 식의 전법', '수령님식 전법'으로 제시했다.[692]

『김정일 전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690 김정일. 「인민군대정치인군양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과 한 담화(1972년 2월 23일)」, 『김정일 전집』 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691 김정일.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능력있는 정치일군들을 키워내야 한다: 새로 임명된 김일성정치대학 정치부장과 한 담화(1972년 7월 16일)」, 『김정일 전집 』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692 김정일. 「보천보전투승리 35돐 기념행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김정일은 1980년 후계자 지위를 공식하면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김정일이 군에 대한 지도를 본격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김정일은 군사위원회에서 김일성, 오진우 다음 세번째 지위로 사실상 군사위원회를 지도하는 위치에 선 것이다. 오진우는 군사위원회 서열에선 김정일 앞에 있었지만, 후계자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인물이었다. 1982년부터 김정일은 군사사업 뿐만 아니라, 정치사업, 보위사업, 군사외교사업까지 중요하고 원칙적인 문제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지시와 결론에 따라서만 처리하도록 했다. 이로써 인민군대에 관한 모든 일을 김정일이 좌우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군사 지휘관 회의에 직접 참석하기 시작했다.[693]

김정일이 군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그가 김일성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후계자의 딜레마' 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혈연관계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신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군 통제에 기여했던 김정일의 노력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 리봉원은 1988년 당 이론지 '근로자' 에서 김정일의 군에서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전군을 주체사상화 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부터 시작된 혁명무력의 주체사상화 과정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영도했다. 둘째, 전군이 김일성에게 끝없이 충성하였던 항일혁명선열들의 불굴의 혁명 전신을 따라 배울 데 해나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끌고 있다. 군대 안에 달의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을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할 데 대한 방침, 군대가 당과 수령의 두리(둘레의 북한 말)에 굳게 뭉치고 인민과의 혈연적인 연계를 이룩할 데 대한 사상을 제시했다. [694] 김정일은 군에서 김일성의 이념에 입각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군 조직이 김일성의 지시를 관철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후계자의 딜레마와 관련, 김일성은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군에 대한 지휘권을 김정일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는 점 역시 중요할 수 있다. 김정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1972년 6월 4일)」, 『김정일 전집 』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693 최주활. 『북한체제에서의 당-군 관계 연구 』, p.87. 최주활. 「김정일 30년 노력 끝에 군부 완전 장악」, 『월간WIN 』, 6월호 1996.

694 리봉원. 「조선인민군은 당의 위업을 옹호 보위하는 불패의 혁명대오」, 『근로자』, 제2호, 1998.

일은 1991년 12월 24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올랐다.[695] 다음해인 1992년 4월 20일 인민군 창군 60주년을 맞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았다.[696] 그리고 삼일만인 23일 김정일은 662명에 대한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리고 1993년 4월 9일 김정일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장에 취임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 3년여 동안 군권을 넘겨 받았던 것이다. 김일성은 당 조직과 선전 부문을 일찍부터 김정일에 맡겼지만, 최고사령관직은 권력승계의 마지막 순간까지 직접 군권을 쥐고 있었다.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이 되기 전에 군 직위를 갖지 않았다는 이력은 김일성의 또다른 아들인 김평일과 비교되는 점이었다. 김평일은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직후 김일성대학 경제학부를 1년 앞당겨 졸업하고, 동창생들을 비롯한 측근들과 함께 호위사령부에 입대했으며, 이후 여단장에 임명되었다. 김평일은 소장으로 고속 진급해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사단장 과정에 입학하였다. 김정일은 김평일 세력이 확대되고 군부 장악 가능성이 커지자 김평일이 군사대학 재학 중인 기회를 이용해 해당 여단을 해산시키고, 부대원 전원을 지방으로 추방했다. 결국 1979년 김평일은 유고슬라비아 부무관으로 임명해 해외로 보냈다.[697]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비교와 관련, 김정일 후계 체제와 덩샤오핑의 후계 전략을 비교한 이정철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덩샤오핑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것처럼, 김정일 역시 중앙군사위원회를 권력승계의 기반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698] 그러나 이 연구는 북한과 중국 모두 권력 승계 과정에서 군을 장악했다는 유사성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된 1991년 최고사령관에 올라 군을 쥐었고, 이후 군에 대한 인사권을 단행했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사망 직전, 권력승계의 최종적 단계에서 군권을 장악했다는 점이 오히려 안정적인 권력승계로 이어질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군권을 쥐었던 린뱌오는 마오쩌

---

695 편집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원회 비서이신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 『로동신문』, 1991년 12월 25일.
696 편집국,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 『로동신문』, 1992년 4월 21일.
697 현성일. 『북한의 국가 전략과 파워 엘리트: 간부 정책을 중심으로』, p.112.
698 이정철. 「조선 로동당 3 차 당 대표자회와 김정일 후계 체제: 개혁 개방기 덩샤오핑의 후계전략과 비교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8(1), 2011.

둥에게 상당한 위협이었고, 이는 마오쩌둥과 후계자 린뱌오의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4)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일인지배 유지

김일성은 후계승계 과정에서 통치 체제가 취약해지는 일을 경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후백제 몰락의 원인을 왕위계승에서 찾았다. 김정일은 "원래 후백제는 국력도 괜찮았고 싸움도 잘 했는데, 통치배들 속에서 왕위계승문제를 둘러싸고 권력다툼이 벌어지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면서부터 통치체계는 마비되고 국력이 몹시 쇠약해졌다"면서, "왕건은 이렇게 내란으로 하여 쇠약해진 후백제를 크게 품을 들이지 않고 먹어버렸다"라고 했다.[699] 김일성은 권력승계 과정에서 권력 투쟁 가능성을 경계했고, 김정일이 확고한 권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보인다.

그 결과, 김일성이 사후에도 북한은 일인지배의 권력구조가 그대로 이어졌다. 김일성은 김정일로의 안정적인 권력승계는 김정일의 유일적 영도의 구축이라고 생각했다. 김일성은 사망하기 4개월 전인 1994년 3월 "모든 당세포들은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계속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며, "당세포들은 당중앙위원회를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하며 당의 유일적 영도를 저해하는 온갖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 "당세포들은 당의 노선과 정책, 당의 결정,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교양하고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했다.[700]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20년 동안 북한 권력 구조에서 인사 변동은 매우 적었다.[701] 이는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매우 안정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사로 인한 인사 교체가 압도적으로 많

699 김일성. 「구월산을 피서지로 꾸리며 고려태조왕릉을 개건할데 대하여: 구월산피서지구 국토건설총계획사판과 고려태조왕릉형성안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1993년 1월 15일)」,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700 김일성. 「당세포의 5대과업: 전당당세포비서대회 대표들에게 보낸 축하문(1994년 3월 31일)」,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701 이종석. 『(새로 쓴)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았으며, 권력투쟁이나 숙청에 다른 인사 변동은 미미했다.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후 로동당 지도부 조직은 매우 안정적이었다. 로동당 6차 대회에서 선출된 19명의 정치국 위원 중 김일, 최현, 오백룡, 오진우, 이종욱 등 사망한 8명을 제외하고, 11명 중 김정일, 박성철, 김영남, 계응태, 강성산 등이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정치국 위원 자리를 유지했다. [702]

김일성 사후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는 매우 안정적이었다. 1995년 10월 8일 로동신문 정론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혁명투쟁에서 수령은 결정적 역할을 한다. 태양이 없는 인간 세계를 상상할 수 없듯이 수령이 없는 혁명 세계를 생각할 수 없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시며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다.” [703] 김정일이 바로 김일성이라는 선언은 김정일이 수령과 같은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즉 김일성 사후에도 북한의 권력구조는 일인지배였다. 김정일은 일인지배라는 안정권 집권을 유지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3년만인 1997년 로동당 총비서직에 취임하고, 1998년 권한이 강화된 국방위원장직에 재추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직함에 불과하며, 김정일은 이미 수령과 같은 절대적 권력을 얻고 있었다.[704]

북한에선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선 주석제를 폐지하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함으로써 권력승계를 마무리했다. 국방위원장은 사실상 국가 최고지도자 지위로 격상되었다.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일 지배 연합의 안정적 성격이 잘 드러났다. 이른바 ‘영도 핵심층’ (당 정치국원, 내각 부총리급, 군의 대장)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내각의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실무형 인재들이 발탁되었지만, 당과 군은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의 빨치산 2세들의 부상이 두드러졌다.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은 김정일과 어린시절부터 인간적 유대 관계를 쌓았던 이들로, 북한에선 이를 혈연 관계로 선전하기도 했다.[705] 지배 연합의 인적 구성이 안정적이었다는 사실은 김정일에 대한 지배 연합의 지지가 공고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지배 연합을 기반으로,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안정적인 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702] Ibid., pp.520-523
[703] 최용덕. 「정론: 수령의 전사」, 『로동신문』, 1995.10.8.
[704]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 역사·이념·권력체계』, pp.124-125.
[705] 박형중 et al.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pp.62-63.

[표 20] 북한 로동당 권력 변동(명)

1966년 10월 ~ 70년 11월 사이의 권력변동							
	1966년 10월	1970년 11월까지 남은 인물	변동 사항				
			변동자 수	변동사유			
				사망	보직 교체	숙청	불명
정치위원회 정위원	11	5	6	-	-	6	
비서국	10	3	7	-	-	7	
1970년 11월 ~ 80년 10월 사이의 권력변동							
	1970년 11월	1980년 11월까지 남은 인물	변동 사항				
			변동자 수	변동사유			
				사망	보직 교체	숙청	불명
정치위원회 정위원	11	7	4	2	-	1	1
비서국	10	4	6	2	2	1	1
1980년 10월 ~ 94년 7월 말 사이의 권력변동							
	1980년 10월	1994년 7월까지 남은 인물	변동 사항				
			변동자 수	변동사유			
				사망	보직 교체	숙청	불명
정치위원회 정위원	19	7	12	6	6	-	-
비서국	10	3	7	2	4	-	1

※ 출처: 이종석. 『(새로 쓴)현대 북한의 이해』(서울:역사비평사, 2000), p.522.

김정일의 권력은 김일성의 이념의 계승이라는 정당성을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김일성은 김정일로의 안정적 권력승계가 자신이 추구한 혁명 이념의 계승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김일성 이념에 따라 김정일의 지배 연합이 구축되었다. 김일성은 “오늘 우리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은 인민적 영도자의 풍모와 자질을 훌륭히 갖춘 김정일 동지의 영도 밑에 빛나게 계승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며, “우리 당이 영도의 계승

문제를 혁명 발전의 요구와 인민 대중의 염원에 맞게 원만히 해결한 것은 우리 당 건설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이며 이것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양양한 전도와 빛나는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여 주고 있다”고 했다.[706] 김일성은 또다른 발언에서 “김정일 동지가 우리의 사상과 영도를 믿음직하게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일이 잘되어 나갈 것이며 우리 혁명은 어떤 풍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활력 있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707]

이처럼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지배 연합으로부터의 위협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중으로부터의 저항이라는 문제는 남아있었다. 즉 권위주의적 권력 공유의 문제는 없었지만, 권위주의적 통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대중의 저항을 통제하기 위해선 물리적 강권 기구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군사국가화가 진행되었다. 김정일은 1997년 2월 “당과 군대, 인민의 지위를 바로 규정하여 한다”며, “인민군대가 있어야 당의 위업을 보위하고 조국과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낼 수 있다”고 했다.[708]

김정일은 집권 이후 국내외의 위협에 직면했다. 국외로부터의 위협은 1990년대 구소련 해체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국제적 고립이었다. 국내에서의 위협은 극심한 식량난 등 경제 위기로 인한 사회 통제 이완이었다. 특히 국내적 위협은 북한 정권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북한은 식량과 소비재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배급체제를 통해 간부와 주민에 대한 통제를 유지했다. 그런데 김일성 사후 식량난으로 인해 식량배급체제가 무너졌고, 북한 당국의 통제 수단이 약화했다. 북한 주민들은 통제를 벗어나 식량을 구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떠돌았다. 사적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 확대 역시 불가피했다. 북한 당국은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 사회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이완된 상황에서, ‘아래로부터의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709]

국가의 통제 기능이 약화한 상황에서, 김정일은 대중을 통제할 수

---

706 김일성. 「당세포의 5대과업: 전당당세포비서대회 대표들에게 보낸 축하문(1994년 3월 31일)」.

707 김일성. 「미국 씨엔엔텔레비죤방송회사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94년 4월 17일)」,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708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278.

709 박형중. 『90 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17-24; 박형중 et al.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pp.128-130.

있는 물리적 강권기구인 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군대를 전면에 내세워 사회를 통제하고, 체제의 균열을 막자는 취지였다.[710] 1997년 1월 김정일은 사회주의 체제 수호에서 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정일은 "여러 나라들에서 총 한방 쏴보지 못하고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군대를 튼튼히 꾸리지 못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며, 교훈은 군대를 강화하는가 강화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711] 김정일은 사회주의 체제 붕괴의 위기 상황에서 결국 군이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5. 경제적 성과의 문제

(1) 김일성 경제 정책의 계승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경제적 성과는 정권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일국민들의 경제적 수요가 흔들리면, 후계자에 대한 정치 엘리트와 대중의 지지가 떨어지고, 대중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경제적 실패는 지도자에 대한 지배 연합의 지지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중적 저항은 지배 연합 전체에 위협일 수 있기 때문이다.[712] 그런데 북한의 경우 김정일의 경제적 성과가 그의 후계자 지위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김정일은 현직자인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강화하고, 김일성의 이념적 유일성을 공고화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713]

김정일의 경제 정책은 김일성의 속도전 이념에 따른 것이다. 북한에서 속도전은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의 구현이며 자력경생의 혁명적 기치 밑에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 자각과 창조적 적극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을 이룩해 나가

---

710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2000), pp.11-14.

711 김정일.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한 담화 (1997년 1월 1일)」.

712 Valerie Bunce, "Changing Leaders and Changing Policies: The Impact of Elite Succession on Budgetary Priorities in Democratic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4, no. 3 (1980).

713 정순원. 「북한의 후계구도와 북한법의 변화」.

는 혁명적인 사업 전개 원칙’ 이다. 또 ‘천리마 속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속도로 빨리 달려 나가 제기된 모든 일을 전격적으로 해제끼면서 속도 높이고 질도 다같이 높일 것을 요구하는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전투조직형식’ 이라고 했다.[714] 김일성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높은 생산력을 달성하고,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계획과 지도로 가능하다는 것이다.[715]

김일성은 급속한 생산력 발전에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다.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인민 대중이 나라와 생산수단의 주인이라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때문이라는 것이다.[716] 따라서 근로자들이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치사업, 사상교양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717] 근로자들은 사상 교육을 통해 혁명적 열의를 갖게 되며, 이는 생산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718]

경제 발전에 대한 김일성의 이 같은 이념은 천리마 운동,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을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사상 · 기술 · 문화 혁명을 통해, 높은 생산력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혁명적 열정으로 천리마와 같은 속도로 생산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한다. 대중은 생산에서 끊임없이 높은 속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719] 김일성과 항일빨치산 그룹은 1950년대 중후반 국내외 위기에 봉

---

714 현준명. 「속도전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투쟁의 기치」, 『근로자』, 제4호, 1974.; 경제사전2, pp.89. 이러한 속도전은 김일성과 빨치산 세력에 의해 미화된 항일빨치산 혁명전통에 입각한 것이기도 하다. 김경욱, 「천리마시대 (1956~ 1972) 의 북한 교육교양에 대한 연구: 북조선인의 탄생」, 『현대북한연구』, 21(1), 2018.

715 황룡섭.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 『근로자』, 제3호, 1970.

716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과학교육부문일군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69년 3월 1일)」, 『김일성 저작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전용식, 이찬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천재적 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위혁한 무기,” 로동신문, 1973.3.1.

717 본사기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위대한 리론실천 무기,” 로동신문, 1973.3.2.

718 편집국.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것은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 『근로자』, 제6호, 1970.

719 심재성.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착했다. 종파투쟁, 소련과의 관계 악화, 전후 경제 악화 등이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선 경제적 성과가 필요했다. 김일성은 1956년 '천리마 운동'을 시작했고, 이를 발전시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전개했다. 대중동원을 통한 빠른 경제건설을 추구한 것이었다. 북한은 1972년 12월 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 천리마 운동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720]

이처럼 김일성의 속도전식 경제 발전 이념은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후계자 김정일은 '수령에 대한 충성'이라는 정신적인 요소를 덧붙였다. 김정일은 일찍부터 김일성의 경제발전 이념을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김정일은 평양제1중학교 재학 시절 "혁명적 성과는 당과 수령(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대한 수령은 인민대중의 지혜와 힘을 동원하며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721] 김정일은 경제 발전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수령에 대한 충성과 결부시켰던 것이다.

김정일의 이 같은 경제 발전 이념은 1974년 '70일 전투'[722]를 주도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김정일은 로동당 각급 당조직을 중심으로, 군중을 동원한 속도전을 전개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속도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대규모 사상전(思想戰), 사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사상전은 로동당 각급 조직들이 근로자들에게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갖도록 교양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일은 사상전을 위해 선전선동 수단을 강조했다.[723] 다만 군중 동원이 이뤄지는 방식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의지보다

촉진하자」, 『근로자』, 제8호, 1970.

[720] 김진환, 「천리마운동: 건설의 신화와 재현의 정치」, 『북한연구학회보』, 20(2), 2016.

[721]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충성심은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과 한 담화 (1958년 6월 5일)」, 『김정일 전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722] 김일성은 1974년 10월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6개년 경제계획 목표에 미달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1974년은 6개년 경제계획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해였으며, 6개년 경제계획의 목표 달성을 가늠하는 분기점이었다. 김정일은 경제계획에 미달하는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나서면서 '70일 전투'를 전개했다.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p.248; 이찬행. 『김정일』, pp.438-439.

[723] 김정일. 「전당이 동원되여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당중앙위원회 및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의 협의회에서 한 연설(1974년 10월 9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는 위로부터의 조직적 지도를 통해 이뤄졌다. 이른바 전투 지휘와 같은 '유일사령체계' 였다. 중앙에는 당과 정무원의 실무자들로 총참모부 역할을 담당할 중앙지휘부를 꾸리며, 각 도와 시, 군, 중요 생산단위에 전권으로 행사할 지도 그룹을 파견했다.[724]

북한에 따르면, '70일 전투' 기간 동안 공업 생산은 이전에 비해 1.7배 올랐다. 석탄은 1.8배, 금속광물 생산은 1.6~18배, 철도 화물 수송은 1.3배, 수출 계획은 2배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1974년도 계획 목표 달성은 전년에 비해 117.2% 로 늘었다. 북한은 70일 전투의 성공 요인을 김정일의 속도전으로 제시했다. 김정일은 70일 전투의 성과를 인정받아 1975년 2월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으며, 정무원 결정으로 그의 생일인 2월 16일을 임시휴무일로 지정했다.[725] 김정일 스스로도 70일 전투가 사회주의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70일 전투에서 공을 인정받은 당 간부들에 대한 표창을 추진하기도 했다.[726] 김정일의 속도전식 경제 개발은 '70일전투속도' 에서, 1980년대 '80년대속도' 로, 1990년대 '90년대속도' 로 지속되었다.

김정일이 주도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역시 김일성의 천리마 운동 이념에서 출발했다. 1973년부터 1974년까지 벌어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성과 위에서 진행되었다. 다만 천리마작업반운동이 근로단체를 통해 지도된 반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당조직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727] 이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다. 김정일은 경제 정책을 통해 자신이 김일성의 이념과 정책의 계승임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집권당 조직에 대한 김정일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1970년대 대중운동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성보다는 위로부터의 지도가 강화하였다. 이는 필연적으로 당이 모든 사회를 직접 조직하게 되었다.[728]

1987).

[724] 탁진, 김강일,박홍제. 『김정일 지도자』 제2부, pp.112-113.

[725] Ibid. p.119-120.

[726] 김정일. 「도당책임비서들앞에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도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1974년 12월 25일)」, 『김정일 전집』 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김정일. 「70일전투에서 발휘된 혁명적기세를 늦추지 말고 계속 생산적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1974년 12월 31일)」, 『김정일 전집』 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727]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728] 정영철. 「1970 년대 대중운동과 북한 사회: 돌파형 대중운동에서 일상형

물론 경제에서의 군중 동원 방식의 속도전은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했다.[729] 3대혁명소조운동의 경우 당 중앙의 혁명적 지도를 가장 정확히 실현하는 운동으로 평가되었다. 즉 소조원들은 당중앙인 김정일의 방침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철칙으로 삼고 전국의 실태를 정확히 김정일에게 보고했다. 각 분야에서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를 구현해 나간다는 취지였다.[730]

김정일은 다시 1977년부터 1984년까지 7개년 계획을 맡았다. 그러나 경제적 성과는 취약했다. 식량, 에너지, 건설 자재 부족에 직면했다. 김정일은 막대한 자원을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에 투여했고, 이는 다른 분야에 투여할 자원의 부족을 불러왔다. 육지와 바다의 교통을 연결하는 남포 갑문(서해 갑문) 건설이 대표적인 사업이었다. 김정일의 경제적 성과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7개년 계획이 2년 연장되기도 했다. 김일성은 경제 쇠퇴를 우려해 자신의 직접적인 감독을 늘리고, 김정일에게 경제와 관련된 정책 결정 권한을 줄였다.[731] 그러나 이 같은 경제 정책에서의 실패가 김정일의 후계자 지위를 흔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 경제 개혁 시도

북한에선 1984년부터 경제 개혁 정책들이 시도되었다. 김일성은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대외무역을 강조했다. 이어 8·3 인민소비품 장려 운동, 독립채산제의 강화, 대외경제개혁 정책인 합영법 등이 1984년에 등장했다. 1985년 연합기업소를 중심으로 한 경제관리체계의 분권화 등 조치를 실시했다. 북한에서 경제 개혁 흐름은 당시 북한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1984년 끝난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이 목표를 갈성하지 못하고, 경제성장률이 악화했다. 다음 김일성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발전으로 인해 받았던 충격과 자극이다. 김

대중운동으로」, 『현대북한연구』, 6(1), 2003.

729 양문수. 「1970 년대 북한 경제와 장기침체 메커니즘의 형성」, 『현대북한연구』, 6(1), 2003.

730 전영락, 「3대혁명소조운동은 3대 혁명에 대한 당의 혁명적 영도를 실현하는 위대한 운동」, 『근로자』, 제4호, 1976.

731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Signs of stability in North Korean Workers' Party: bellwether of political change?, A Research paper, 1987.9.

일성은 1980년대 전반, 중국, 구소련, 동유럽 등을 방문해 이들 국가들의 발전상을 목격했다는 것이다.[732]

김정일은 인민 소비와 관련된 경공업이 사회주의 정권의 정당성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 김정일은 인민 생활 향상을 통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인민 생활 향상은 인민들의 필수품을 생산하는 일이었다. 김정일은 이를 위해 해외 생산 방식을 참고할 것으로 주문했다. 그는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상품을 질적으로 잘 만들려면 해당 부문 일군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여 시야를 넓혀주어야 한다"면서, "도당책임비서들도 다른 나라에 보내여 그 나라 도시들에서 상업과 도시경영 사업을 어떻게 하며 인민 소비품 생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733]

이 같은 맥락에서 김정일은 1984년 '8·3소비품장려운동'[734]을 추진했다. 인민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경공업 제품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일부 벗어나 분권화 성격을 갖는 생산 방식이었다.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 안에 생필품 작업반이 조직되었고, 작업반 근로자들은 정상적인 생산활동 이외의 여유시간을 활용해 부산물이나 폐기물 등을 활용해 생필품을 생산했다. 중앙의 생산할당, 원료조달, 가격통제 등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렇게 생산된 소비품은 구역 직매점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판매되었다. 8·3소비품장려운동의 성과로 5년 동안 직매장 판매유통약은 연평균 20.8% 증가했다.[735]

기업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기업분권화' 개혁 시도도 이뤄졌다. 기업 분권화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제도가 독립채산제이다. 완전한 형태의 독립채산제는 국용기업소가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자신

---

732 양문수. 『북한 경제의 구조: 경제 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pp.353-354. 이무철, 「북한 경제개혁 연구의 쟁점」, 『현대북한연구』, 9(2), 2006.

733 김정일.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한 담화(1983년 3월 2일)」, 『김정일 선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734 북한에 따르면, '8·3소비품장려운동'은 군중적으로 내부 예비를 동원하고 그 창발성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세부에 필요한 소비품가지 원만한 생산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폭넓고 활력 있는 대중적인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다. 최인덕. 「군중적 운동으로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 『근로자』, 제1호, 1990.

735 이찬행. 『김정일』, pp.551-552.

의 지출을 충당하고, 이익을 내어서 이를 국가에 바치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채산제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갖는 기업 분권화와 관련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선 기업의 자율성보다는 국가의 이익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북한에서 독립채산제는 1984년 5월 김정일의 지시로 규정, 세칙을 개정해 확대, 강화되었다. 기업에 대한 이윤배분이 초과이윤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736]

또다른 주요 경제 개혁 조치는 '합영법'을 들 수 있다. 합영법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북한 입장에선 획기적인 조치였다. 합영법은 한 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가 공동투자, 공동경영, 이윤의 공동분배, 손실에 대한 공동부담을 전제하는 합영회사[737]의 설립을 가능케 하는 제도였다. 합영법은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984년 1월 채택한 '남남협력과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여 무역을 한층 발전시킬 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결정에선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북한에 우호적인 자본주의 제국과의 경제합작, 기술교류를 발전시킨다고 했다.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738]

하지만 합영법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는 데엔 실패했다. 1984년부터 1992년 7월까지 외국기업과의 투자유치계약 체결 건수는 140건이었다. 이 중 116건 총 1억500만 달러 규모는 조총련 동포가 투자한 사업이었다. 조업 중인 66건 가운데 85%인 56건이 조총련계 기업이었다. 이는 북한의 이념에 따른 한계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북한 정권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만을 요구했으며, 자본주의 경영 방식에 대해선 경계했다.[739]

(3) 경제 개혁의 후퇴

1980년대 중반 북한에서 후계자 김정일을 중심으로 경제 개혁 조치

---

[736] 양문수. 『북한 경제의 구조: 경제 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pp.350-352; 이찬행. 『김정일』, pp.553-554.
[737]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570.
[738] 양문수. 『북한 경제의 구조: 경제 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p.377.
[739] Ibid. pp.378-379.

들을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개혁 조치들은 사회주의 진영이 몰락하면서 후퇴하기 시작했다. 경제 개혁이 정치 개혁과 결부되는 경향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소련에서는 1986년 2월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이후 첫 당대회에서 개혁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상에 이르는 것임을 밝혔다. 중국에서도 개혁개방이 정치 영역까지 나타났다. 경제 개혁이 정치 개혀과 민주화 요구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북한 정권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740]

1992년 새해 첫날 김정일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일은 자신을 '수령의 혁명 전사'로 칭했다. 그리고 수령의 혁명사상과 노선을 그대로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본주의를 차단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는 '모기장'을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김일성의 혁명 업적을 그대로 계승하는 후계자의 역할을 고수하겠다는 의미였다.[741]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민주적 제도를 수용했다.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후계자 김정일은 보수적 노선을 택했다. 1988년 김정일은 개혁 개방 노선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밝혔다. 김정일은 "어떤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지켜야 할 혁명적 원칙을 저버리고 당의 지위와 역할을 약화시키며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자본주의를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이 나라들에서는 경제건설에서 조성된 일시적 난관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지 않고 개편과 공개성을 주장하면서 경제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자본주의적 방법을 끌어들이며 당의 지위와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일이 내놓은 대안은 혁명의 순수성,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선 혁명적 원칙을 견결히 고수해야 함을 강조했다. 혁명적 당풍을 세워 당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혁명의 순수성은 계승성과 결부되었다. 김

---

740 Ibid. p.363.

741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2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정일은 “수령의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혁명의 명맥을 이어 나가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수령이 이룩하여 놓은 업적을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는 사람만이 진짜배기 충신, 참다운 혁명가”라면서, 수령에게 충실하고 수령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자면 수령의 업적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내야 한다”고 했다.[742]

대중동원을 통한 경제 발전 방식은 사실상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최고지도자 지위에 오른 이후에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1998년 김정일은 천리마 운동을 부활했다. 김정일은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이라는 이름으로 천리마운동을 재현했다. 북한 경제는 1970년대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1980년대 정체기를 거쳐, 1990년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미 실패한 경제 발전 방식을 다시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743] 그런데 김정일은 김일성 이념에 입각한 대중동원 경제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1990년대 ‘경제의 정치화’로 인한 비효율과 경직성, 강행적 발전전략으로 인한 속도전의 한계, 무리한 중공업 중심의 발전 전략 등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했다.[744] 속도전과 같은 대중 운동은 노동자•공장 간부•중간 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의 통제와 권위를 강화하기 때문이다.[745] 문제는 속도전과 같은 강행적 발전전략이 갖는 한계였다. 강행적 발전 전략은 경제의 자연적 발전능력을 초과하여 더 빨리 나가도록 독려하는 이점이 있지만, 경제의 정치화에 따른 경제의 경직성과 비효성을 초래할 수 있었다.[746]

이러한 위기에도 북한은 1990년대 위기의 원인을 정치사상적 동요와 패배주의 확산으로 규정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역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 낙관주의 등 사상전을 제시했다. 북한은 위기를 극복을 위해 혁명적 군인정신을 강조하는 선군정치를 강조하

---

742 김정일. 「전당에 혁명적당풍을 철저히 세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1988년 1월 10일)」, 『김정일 선집 』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743 김진환, 「천리마운동: 건설의 신화와 재현의 정치」.
744 황의각, 「북한의 경제침체: 개괄 및 총량분석」,『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5).
745 양문수. 『북한 경제의 구조: 경제 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p.77.
746 김갑식, 『김정일 정권의 권력 구조』. pp.100-101.

기도 했다.[747] 김정일은 김일성이 과거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업적에서 나온 사상을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해법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김정일이 위기극복을 위해 내세운 선군정치는 후계자의 이념적 보수성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실패는 독재 정권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경제적 성과는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생존을 위해 경제적 성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개혁이 불가피하고 했다. 군을 우위에 둔 선군정치에서, 북한에서 군이 주도하는 근대화 개혁이 가능하다고 했다. 미국과 같은 외부의 위협은 북한 정권이 위로부터의 개혁을 정당화하는 근거일 수 있다고 한다.[748]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일인지배 권력구조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일인지배에선 경제적 실패가 지배 연합 내에서의 이념적 분화, 이념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가져오기 어렵다. 이 경우 경제적 실패에도 지배 연합의 이탈로 인해 독재자가 권력을 잃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주민 봉기나 외국의 개입에 의해 독재자가 권력을 상실할 가능성만 남게 된다. 북한에서 주민에 대한 통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에서 후계자가 정치적 생존에 실패할 가능성이 낮다.[749] 결국 김정일은 경제 정책은 실패로 이어졌지만, 그의 후계자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김일성 이념을 고수하는 태도는 더욱 강해졌다.

김정일은 1990년대 극심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199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소련과 중국의 대북 원조 중단의 여파였다. 1995년과 1996년에는 홍수, 1997년에는 가뭄을 겪었다. 북한에서 경제실패는 정치 개혁은 물론, 이념의 변화나 지도부의 교체로 이어지지 않았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자신의 정치적 생존 전략을 이념적 보수성에서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김정일은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했다.

---

[747] 김갑식, 「1990 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현대북한연구』 8, no. 1 (2005). 선군정치가 북한이 처한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이었다는 주장을 담은 다른 연구로, 김진환. 「김일성의 선로후군(先勞後軍) 과 김정일의 선군후로 (先軍後勞): 북한 호전성 명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 『경제와사회』, 제87호, 2010.

[748] Marcus Noland, "North Korea: The Tyranny of Deprivation," in *Worst of the Worst: Dealing with Repressive and Rouge Nations*, ed. Robert Rotberg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7).

[749] 박형중. 「북한은 왜 '붕괴'도 '개혁· 개방'도 하지 않았을까?」.

김일성 사후 1994년 10월 김정일은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을 의미한다”면서, “사회주의는 기회주의에 의하여 일시 가슴 아픈 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김정일의 순수성은 후계자로서의 정당성과 결부된 문제였다. 김정일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며, “우리 당은 지난날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백전백승하여온 것처럼 앞으로도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정일은 사망한 김일성의 유훈에 대한 충성을 경조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변함없는 추구를 강조했다.[750] 김정일은 후계자의 정당성을 전임 김일성의 이념을 계승하는 데에서 찾았다.

북한에선 1995년 ‘붉은기 사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붉은기 사상은 ‘혁명의 영도자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숭배심이며 영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여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라고 했다.[751]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붉은기사상을 오늘의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간다”고 했다.[752] 붉은기 사상은 수령 사망으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버팀과 인내의 집단적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였다.[753] 김정일은 이 같은 붉은기 사상을 통해 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결국 김일성 혁명 이념의 계승과 고수에서 찾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붉은기 사상은 어떠한 고난에도 사회주의 혁명을 이끄는 후계자 김일성을 지킨다는 이념이라고도

---

750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동신문》에 발표한 론문(1994년 11월 1일)」,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751 신년공동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하자」, 『로동신문』, 1997년 1월 1일.

752 김덕유. 「붉은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강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철학연구』, 제1호, 1997.

753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 역사·이념·권력체계』, pp.165-170. 정성장. 「김정일 체제의 지도이념과 성격 연구:‘붉은기사상’과 북한 체제의 변용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39(3), 2000. 박형중 등.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pp.18-23.

할 수 있다.

6. 북한 권력승계와 체제의 보수성

김정일이 후계 체제 확립은 김일성 이념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졌다. 김일성 지배 연합이 김정일을 지지했던 요인은 항일빨치산 혁명 전통의 유일성을 김정일이 일관되게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의 독자적 지배 연합이 되었던 만경대혁명 학원 출신을 비롯한 혁명 2세대는 항일빨치산 지배 연합의 재생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역시 김정일의 혁명 전통의 계승이라는 이념과 부합하는 정치엘리트들이었다. 김정일은 전임자 김일성의 이념에 대한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지배 연합을 구축했던 것이다. 이는 김정일의 후계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동시에 김정일이 김일성의 이념에서 벗어나기 힘든 일정한 한계로 작용했다. 김정일이 자신의 후계 권력을 뒷받침하는 지배 연합의 이념적 선호를 무시한 채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의 이념적 노선 변화를 이루기에는 힘들었다.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 사후 최고지도자의 지위에 올랐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념을 계승을 거듭 확인했다.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창건 50주년을 맞아 1995년 10월 2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754]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정일은 로동당이 오직 김일성의 이념만을 추구함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계승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일은 전임자인 김일성 사후에도 김일성의 이념에서 이탈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보수적 태도를 보였다.

김정일은 후계자인 자신의 역할을 전임자의 이념 계승에 두었음을 밝혔다. 그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수령의 위업, 당의 위업이며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역사적 위업”이라고 하면서, “당 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혁명의 대가 끊어 지고 혁명의 배신자들이 나타나 수령의 위업, 당의 위업을 망쳐 먹는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준 심각

754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1995년 10월 2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한 교훈”이라고 했다. 김정일은 권력승계 목적이 어디까지나 김일성의 사후에도 김일성의 이념을 영원히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본 것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에 대한 추모를 자신의 정치적 계승의 정당성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체제 변화 문제에 대해, 장달중은 북한은 내부의 도전 중소 분쟁에서의 고립, 사회주의체제의 해체위기, 김정일에게로의 권력승계 과정 등을 거치면서 생존을 위해 변화해왔다고 지적했다. 유일지도체제는 권력 체제의 확립을 통한 체제개혁의 사상개조 캠페인이라는 것이다.[755] 물론 북한도 일부 생존을 위한 변화의 거듭했지만, 김일성의 이념으로부터 이탈이 나타났는지 의문이다. 김정일은 김일성 혁명 이념의 계승이라는 정당성을 기초로 권력승계에 성공했다. 김정일의 지배 연합은 김일성의 이념을 바탕으로 로동당에서 독점적인 조직적 지위를 누려왔다. 김일성의 후계자 김정일 체제의 근본적 속성은 보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

가번 맥코멕의 연구는 북한의 위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북한의 국가 성격을 전체주의로 규정했다. 일상생활까지 침투한 감시, 도덕적 전체주의, 공포, 대중적 지지를 받는 지도자라는 두드러진 특징을 요소로 한다는 것이다. 맥코멕은 김일성주의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와 시민 개인들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잠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다른 전제주의 국가들처럼 저항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756] 맥코멕의 주장이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북한 체제의 보수성을 지적했다는 점에선 의미 있다. 다만 그가 북한의 보수성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선 설명이 부족하다. 북한 체제의 보수성은 권력승계의 전개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김용현의 연구는 북한은 ‘죽은 수령의 계승자 국가’, ‘수령 없는 수령제 국가’의 길을 갔다. 김정일의 통치는 죽은 김일성을 통한 간접 통치라고도 할 수 있었다.[757]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2주년을 맞아 김일성의 유훈을 강조했다.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수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민들과 함께 있다”

---

755 장달중. 「김정일체제와 주체비젼: 이데올로기, 당, 그리고 군중을 중심으로」, 『김정일 체제의 북한: 정치·외교·경제·사상』 (서울: 아연출판부, 2004).

756 Gavan McCormack, "Kim Country: Hard Times in North Korea," *New Left Review*, no. 198 (1993).

757 김용현, "선군정치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정치변화," *현대북한연구* 8, no. 3 (2005).

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최고뇌수로서, 수령님의 모습을 닮아 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영생한다”고 했다. 그리고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 피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서 수령님의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다”고 했다.[758]

다만, 김정일 집권 시기 이념적 보수성이 이념에 대한 실용적 해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은 1980년대 인민 생활의 향상을 주장한 바 있다.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 농업 발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 김정일 역시 현실에 적응하면서 절충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대규모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었음에도, 사회주의 체제 생존에는 성공했다.[759] 이처럼 김정일 시기 북한이 현실에서 적응하고자 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극심한 실패를 경험하고서도 이념적 보수성을 견지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북한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이 사실 권위주의 국각에서 지도자로부터 지명된 후계자는 지도자로부터 정당성을 찾게 된다. 이는 중국에서 화궈펑이나 김정일 모두 해당된다. 특히 일인지배의 경우 지배 연합은 지도자와 같은 이념적 선호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 조직에서 특권적 지위를 독점하기 마련이다. 후계자 입장에선 전임자의 사후에도 이념을 변경하기 어려운데, 이는 전임자의 이념적 선호가 지배 연합에도 관철되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지배 연합은 김일성을 지지했던 빨치산 세력, 빨치산 세력의 이념에 따라 재생산된 혁명 2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김정일은 이념적 보수성을 견지했고, 주체사상에 의해 구성된 지배 연합으로부터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았다. 후계자 김정일에게는 일반적으로 독재자를 집권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권위주의적 권력 공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화궈펑이 지배 연합의 지지 이탈로 인해 무너지고,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당의 노선을 선회했던 것과는 달랐다. 김정일은 이념적 보수성으로 인해 견고한 지배 연합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758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한 담화 (1996년 2월 11일)」.

759 안경모. 「북한의 이데올로기 변화와 그 정치적 함의 (1966-2012):‘적응’(Adaptation) 의 과정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49(4), 2015.

재 5 장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비교 분석

제 1 절 전임자와 후계자의 관계

1. 후계자의 독자적 지배 연합

중국 마오쩌둥은 후계자의 독자적 지배 연합 형성을 심각하게 경계했다. 린뱌오가 장칭 파벌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파벌을 확대하고자 하자, 마오쩌둥은 즉각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마오쩌둥은 파벌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린뱌오의 측근들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가했다. 마오쩌둥은 후계자의 파벌 형성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왕훙원의 파벌 문제에 대해서도, 마오쩌둥은 비판을 가했다. 왕훙원은 사인방이라는 문혁 급진파에 속했는데, 마오쩌둥은 왕훙원의 이 같은 파벌주의에 대해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이는 왕훙원이 마오쩌둥의 후계 지위에서 탈락하게 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후계자가 독자적 지배 연합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권력승계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화궈펑은 자신의 집권을 뒷받침할 만한 독자적 지배 연합을 구축하지 못한 채 마오쩌둥의 죽음을 맞았다. 그는 장칭 등 문혁 급진파의 공격을 받았고, 자신과 이념적으로 이질적인 원로 간부들과 정치적 제휴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화궈펑의 양개범시와 덩샤오핑의 실천론이 이념적 대립을 벌이는 과정에서 원로 간부들의 지지 이탈이 나타났고, 결국 화궈펑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 최고지도자 지위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마오쩌둥이 후계자의 지배 연합을 용인하지 않았다고, 이는 권력승계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마오쩌둥과 달리, 북한 김일성은 후계자의 독자적 지배 연합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김정일은 로동당의 간부 조직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부장에 올라, 로동당에서 자신의 지배 연합을 확대할 수 있었다. 김정일의 독자적 지배 연합 확대는 김일성의 지배 연합인 일부 빨치산 세력들의 반발을 불러오긴 했지만, 김일성은 이러한 도전으로부터 김정일을 보호했다.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의 빨치산 세력 2세대는 김정일의 충직한 지배 연합이었다. 김정일은 자신의 독자적 지배 연합을 바탕으로 후계자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김일성은 후계자 김정일의 독자적 지배 연

합을 파벌주의,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후계자가 독자적 지배 연합을 확대할수록 최고지도자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의 경우 김정일 지배 연합 확대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다. 김일성의 지배 연합에서 새로운 도전 세력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였다. 갑산파의 독자적 세력 확대에 대해선 김일성은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반해 김정일의 독자적 지배 연합에 대해선 오히려 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후계자의 지배 연합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이는 후계자가 지배 연합의 형성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김정일은 자신의 지배 연합을 김일성의 지배 연합과 구분하지 않았다. 김정일은 자신의 지배 연합을 구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만경대혁명학원을 수령에 대한 충성스러운 핵심 간부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설정했다. 김정일은 자신의 지배 연합을 김일성의 지배 연합과 구분하지 않고자 노력했다. 김정일은 후계자 지위에 오르자 자신의 이름을 뺀 채 당중앙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당중앙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수령의 이념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일의 독자적 지배 연합 역시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제휴 세력으로 설정한 것이다.

나아가 김정일은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제도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김일성주의를 체계화했으며, 당을 김일성주의에 따라 재편했다. 이러한 김정일의 역할과 공헌은 김일성의 김정일에 대한 지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게다가 김정일의 독자적 지배 연합이 김일성의 지배 연합의 재생산이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김정일의 지배 연합은 빨치산 출신의 2세들이 다수인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이었다. 김일성의 지배 연합과 김정일 지배 연합은 이념적 연속성을 갖고 있었다. 김정일이 자신의 지배 연합을 형성하는 방식은 김일성의 권력을 더욱 공고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중국 사례에서 린뱌오나 왕훙원이 취했던 지배 연합의 확대 방식은 달랐다. 이들은 지배 연합의 형성하면서, 마오쩌둥의 지배 연합에 균열을 초래했다. 마오쩌둥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중국 린뱌오는 자신의 후계자 지위에 대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후계자 지위를 확고하게 위해 마오쩌둥을 국가주석으로, 자신을 부주석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마오쩌둥 입장에선 린뱌오가 독자적인 지배 연합을 구축하면서 파벌 형성하고, 장칭을 비롯한 문

혁 급진파들을 축출하고자 하는 시도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린뱌오는 마오쩌둥과 같은 혁명 세대이기 때문에 마오쩌둥이 느끼는 위협은 더 심각할 수 있었다.

지도자와 후계자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권력승계의 불안정은 소련에서도 나타났다. 스탈린은 말렌코프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정했으면서도, 말렌코프의 지나친 권력확대에서 대해선 우려했다. 스탈린은 1949년 흐루시초프를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로 불러들여 세번째 정치국원에 임명했다. 이로써 스탈린은 흐루시초프를 말렌코프의 정치적 대항마로 삼음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이뤘던 것이다.[760] 문제는 말렌코프에 대한 스탈린의 견제가 권력승계의 불안정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말렌코프가 자신의 독자적 지배 연합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스탈린 사후 지도자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2. 혈연 승계의 영향

마오쩌둥의 경우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에 따라 혈연승계에 대해 봉건적 유산으로 치부하며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761] 마오쩌둥이 후계자로 마오안잉을 고려했다는 사실을 찾기는 어렵다. 또 문혁 급진파였으며, 마오쩌둥이 죽기 전까지 그의 연락관 역할을 담당했던 조카 마오위안신 역시 후계자로 고려되지 않았다. 중국 사례에서 혈연승계와 권력승계의 안정성의 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북한에서 혈연승계에 이뤄졌다. 1974년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일찍부터 후계자로 지정되었고, 이후 김정일의 후계자 지위는 거의 흔들림이 없었다.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비교는 혈연승계라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승계가 두 국가의 권력승계 안정성을 설명하는 단일 변수가 될 수는 없다.

박형중의 연구[762]에 따르면, 족벌관계가 두드러졌던 국가는 주로 공산주의 전통이 저발전 국가, 변방 지역들에서 나타났다. 공산주의가 보

---

760 Rush, *Political Succession in the Ussr*. pp.48-49.

761 Saxonberg, *Transitions and Non-Transitions from Communism: Regime Survival in China, Cuba, North Korea, and Vietnam*.

762 박형중. 『북한의 정치와 권력 : 지배관계의 기원과 개념, 구조와 동태』, pp.110-113; 박형중. 「루마니아와 북한: 사회주의 주변부의 스탈린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 연구」, 『통일문제연구』, 7(1), 1995.

다 발전된 국가에 비해 ‘레닌주의적 당규범’이 약했고, 이것이 족벌체제로 이어졌다고 한다. 특히 당 관료에 대한 소련의 압력이 약했던 국가들에서 족벌체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산당 지도 조직의 충원과 퇴출이 공식적인 제도가 아닌 파벌투쟁과 숙청에 의해 이뤄지고, 간부의 충원과 퇴출이 인격적 충성관계에 의해 이뤄지기 쉽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 충성도가 강한 가족,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통치 체제를 이룬다고 한다.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사례에서 혈연 승계는 주요 차이이다. 그러나 혈연승계의 차이와 권력승계 안정력의 상관 관계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툴록은 혈연승계는 ‘후계자의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혈연관계인 후계자가 지도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후계자는 안정적으로 자신의 권력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권력승계 사례에서 툴록의 이론적 가설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했다. 후계자의 지배 연합 확대가 혈연승계와 무관하게 용인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지배 연합에서 린뱌오 파벌의 권력 확대를 견제했던 것은 사실이다. 1970년 8월 제9기 2중전회에서 린뱌오 파벌은 국가주석직 부활 문제로 장칭 파벌을 압박했다. 마오쩌둥은 국가주석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가주석 부활을 주도했던 천보다를 비판했다. 이후 마오쩌둥은 지속적으로 린뱌오 파벌의 영향력을 축소시켰다. 이는 다시 린뱌오의 마오쩌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결국 1971년 9월 13일 린뱌오 도주 사건이 벌어졌다. 린뱌오 사건 이후 후계자로 부상한 왕훙원 역시 마오쩌둥으로부터 파벌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다. 왕훙원은 장치 등과 함께 문혁 급진파인 사인방으로 불렸다.

린뱌오, 왕훙원으로의 후계 실패를 비혈연승계에서 오는 지도자와 후계자의 상호 불신으로 원인을 돌리기는 어렵다. 후계자의 독자적 지배 연합 확대가 지도자의 지배 연합에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린뱌오나 왕훙원의 독자적 지배 연합 확대는 마오쩌둥의 권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로-섬(Zero-sum) 게임과 같았다. 혈연승계라고 하더라도 지도자가 후계자의 권력 확대를 위해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위험에 빠트리는 일을 용인하기는 어렵다.

린뱌오 파벌과 장칭 파벌의 권력 투쟁에 따른 지배 연합의 분열은 마오쩌둥의 집권에 대한 위협일 수 있었다. 왕훙원의 파벌 형성에 대한 마오쩌둥의 반대 역시 마오쩌둥의 권력 기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문혁 급진파가 독점한 지배 연합은 린뱌오 사건 이후 원로 간부, 문혁 수혜자, 그리고 문혁 급진파로 재편되었다. 마오쩌둥은 지배 연합 내 파벌들의 균형을 바탕으로 집권을 유지했다. 왕홍원이 속한 문혁 급진파의 원로 간부들에 대한 공격은 지배 연합의 분열, 그리고 마오쩌둥의 권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다. 마오쩌둥이 공산당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지속적으로 단결을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도자가 후계자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후계자의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이론적 가설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후계자의 권력 공고화 시도가 반드시 '후계자의 딜레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지도자의 권력을 위협하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 강화로 이어질 경우이다. 이 점에서 북한의 권력승계 사례는 중국과 비교해 중요한 함의를 갖게 된다. 김정일의 권력 공고화는 김일성 지배 연합 균열을 야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일성의 일인지배를 공고화하는 역할을 했다. 김정일은 로동당 내 혁명 전통을 강조함으로써, 갑산파 숙청에 기여했다. 또 이념을 체계화하고 유일화하는 동시에, 로동당 조직 전체에 김일성의 의지와 이념이 관철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의 권력도 공고화했다.

북한에서 김정일의 독자적 지배 연합은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중심의 혁명 2세대였다. 이들이 로동당 핵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김일성의 지배 연합에 균열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혁명2세대가 김일성의 지배 연합인 항일빨치산 세력의 재생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 2세대는 항일빨치산의 자녀이거나 유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항일빨치산 이념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 항일 빨치산 이념의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이뤄진 교육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 김정일의 지배 연합인 혁명2세대의 부상은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다만 지도자와 후계자의 혈연 관계가 둘 사이의 협력 관계를 이끌어내기에 보다 용이할 수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유가적 관점에서 충과 효는 혈연승계를 문화적으로 정당화하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김일성은 김정일을 충효의 귀감이라고 자랑하곤 했다. 김일성은 "김정일동지는 문무와 충효를 겸비한 걸출한 영도자"라고 하면서, "그는 뛰어나 사상 이론가이고 군사전략가일 뿐 아니라 나라와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고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한 충효의 귀감"이라고

평가했다.[763] 김일성에 대한 김정일의 효성이라는 유가적 윤리는 김정일이 지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 승계만으로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독재자들은 후계자 선정에서 복잡한 고려를 한다. 지도자는 사후 자신의 업적, 이념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했다. 이는 혈연승계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사후 문혁 이념이 이어지기 원했고, 김일성은 혁명 전통이 계승되기를 원했다. 이는 아들이라는 이유가 후계자 지명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혈연 승계가 지도자와 후계자 사이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기능을 하지만, 지도자의 후계자에 대한 지지는 보다 다차원적 고려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를 26년 동안 통치한 리콴유는 아들 리센룽 대신 고촉통에게 총리직을 이양했다. 고촉통이 전문 관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리콴유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1985년 1월 내각에 후계자 선택을 제안했는데, 각료 12명 중 7명이 당시 부총리 고촉통을 선택했다. 3년 뒤 1988년 리콴유는 각료들에게 후계자 선택을 제고해달라고 밝혔다. 리콴유는 토니 탄(당시 교육부 장관)을 후계자로 염두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각료들의 선택은 여전히 고촉통이었다. 결국 1990년 고촉통은 리콴유의 뒤를 이어 총리직에 올랐다. 리콴유의 아들 리센룽은 15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한 고촉통이 퇴임한 2004년 총리직에 올랐다. 리센룽이 1984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장관직을 거치고,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적 성과를 낸 다음이었다. 이 과정에서 리센룽은 싱가포르 인민행동당에서 지지를 확대하고, 여용분, 테오 치 힌 등 각료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사실 리콴유는 싱가포르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후계자 선정에서

---

[763] 김일성.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1993년 2월 12일)」. 김일성은 김정일의 효심을 다음과 같이 칭찬했다. “김정일동지는 나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고 효성이 지극합니다. 내가 나이 80이 넘도록 건강한 몸으로 혁명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김정일동지의 덕분입니다. 김정일동지는 늘 나의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모든 것을 나의 건강에 복종시키고있습니다. 그는 내가 문건을 많이 보면 시력이 나빠지고 피곤해할 것을 염려하여 나에게 보고하는 문건을 녹음하여 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건을 녹음한 것을 사무실에서도 듣고 산보하면서도 듣습니다. 자료 같은 것도 기술성원들이 옆에서 읽어 주기 때문에 피곤을 많이 덜고 있습니다. 김정일동지는 내가 문화정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화와 음악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녹화하거나 녹음하여 보내주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서생활을 하면서 낙천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콴유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리콴유는 은퇴를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자신이 일군 업적이 후계 실패로 무너지는 일을 가장 우려했다. 그는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원칙을 고수했으며, 가장 뛰어난 인물이 총리직에 취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리센룽은 이미 1984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리콴유가 후계자로 지정했으며, 고촉통은 리센룽의 자리를 따뜻하게 데우는 역할(seat warmer)에 불과하다는 예상이 팽배했다. 그럼에도 고촉통은 각료 인사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었으며, 리콴유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리콴유는 고촉통의 능력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764] 결국 리콴유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들로의 권력승계에 우선해 자신의 이념에 따라 이뤄낸 싱가포르의 업적이 지속되는 일이었다.

권헌익 등의 연구는 북한의 혈연승계를 카리스마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이 연구는 아버지 김일성, 어머니 김정숙과 김정일의 서사적 상징이 세습적 카리스마를 구축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김일성이 아들 김정일에게 권총을 선물하면서 혁명 정신을 가르치는 이야기,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의 항일 빨치산 시기의 영웅담 등이 김정일로의 카리스마 계승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위대한 혁명가의 아들임을 이야기함으로써 김정일에게 카리스마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연구는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의 단절이라는 문제는 북한에선 서사를 통해 극복한다고 설명했다.[765]

카리스마 때문에 김일성의 지배를 수용했고, 그의 아들인 김정일의 지배를 받아들였는지 의문이다. 카리스마의 계승은 김일성, 김정일의 권력승계 정당화에 대한 설명일 뿐이며, 북한 주민이 이 같은 정당화를 수용하는 문제와는 별개일 수 있다. 북한 권력 승계의 안정성을 카리스마의 계승에서 찾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카리스마의 계승 차원에서의 연구는 주로 북한 로동당의 선전, 선동 자료에 의존한 한계를 가졌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권력 관계에 대한 분석이 소홀했다.[766] 따라서 카리스마의 계승이나 부자세습을 정당화하는 상징화 차원에선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후계자와 지배

---

[764] Diane K Mauzy,Robert Stephen Milne, *Singapore Politics under the People's Action Party* (London: Routledge, 2002). pp.114-127.
[765] 권헌익, 정병호. 『극장 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 되는가』, pp.176-180.
[766] 박형중. 『북한의 정치와 권력 : 지배관계의 기원과 개념, 구조와 동태』, pp.67-69.

연합 사이의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

3. 이념적 요인

혈연승계가 지도자와 후계자의 사이의 신뢰를 강화하는 기반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혈연승계만으로 지도자와 후계자의 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근대 사회주의 국가의 집권당은 혁명정당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767] 즉 이념적 요소를 배제한 채 혈연승계의 차이만으로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지도자의 후계자 선정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북한 모두 이념의 계승을 중시했다. 사회주의 국가는 혁명이라는 정당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념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핵심 관건이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이념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밝힌 린뱌오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린뱌오 후계 실패 이후 마오쩌둥은 왕훙원을 후계자로 염두했다. 왕훙원은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상하이에서 노동자들의 조반파 조직을 이끌면서, 노동자와 농민들의 문혁 참여의 불씨를 일으켰던 인물이었다. 린뱌오나 왕훙원과 달리 덩샤오핑의 경우 마오쩌둥과 다른 이념적 선호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마오쩌둥은 덩샤오핑에 대한 후계 지명을 철회했다. 그리고 마오쩌둥의 이념을 충실하게 따랐던 화궈펑을 최후의 후계자로 지명했다.

후계자 선정에서 이념을 강조하는 태도는 북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념을 철저하게 학습했다. 나아가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념을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했다. 이러한 김정일의 태도는 1960년대 김일성의 2인자 지위까지 올랐던 갑산파와 달랐다. 또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나, 후처인 김성애, 김일성과 김성애 사이에 낳은 이복동생들과 구분되는 것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념만을 북한 로동당이 추구하는 유일한 이념으로 인정하는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도 했다. 김일성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후계 문제가 흔들리면서 위기에 직면했지만, 북한은 후계 문제를 잘 해결해 사회주의 국가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정일로의 후계는 곧 김일성의 이념의 계승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

[767] Huntington,Moore, *Authoritarian Politics in Modern Society: The Dynamics of Established One-Party Systems*.

4. 물리적 강권기구

후계자가 강권 기구를 장악한 경우 지도자와 후계자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린뱌오는 문혁 이후 수립된 군위판사조에 자신의 측근들을 임명하고, 군사 문제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이는 마오쩌둥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했다. 문혁 과정에서 당 조직이 와해된 상황에서, 군은 사회를 통제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조직이었기 때문이다.[768] 결국 마오쩌둥은 린뱌오의 지배 연합 확대를 봉쇄했다. 이와 달리 북한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군권을 맡기지 않았다. 김정일이 군권을 이어받게 된 것은 1990년대 초로 김일성 사망 직전이었다. 다만 김정일은 당의 조직과 선전 부문을 통해 로동당의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당의 군에 대한 통제력은 김일성의 군 통제력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린뱌오와 달리 김정일이 군권을 쥐지 않았다는 점은 김정일이 김일성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후계자가 강권 기구를 장악할 경우 권력승계의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요시프 브로즈 티토의 후계 사례에서도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티토(Josip Broz Tito)는 1966년 그가 지정한 후계자와 알렉산다르 란코비치(Aleksandar Rankovic)를 일체의 직위에서 몰아냈다. 비밀경찰을 장악한 란코비치가 티토와 공산당(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동맹)의 고위 간부들을 사찰하고, 도청했다는 혐의였다. 결국 란코비치는 1963년 티토의 공식적 후계자로서 부통령에 오른지 3년만에 후계자 지위에서 물러났다. 란코비치는 부통령 재임 기간 경제 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개혁 성향의 에드바드 카르델즈(Edvar Kardelj)와 권력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란코비치는 임기 4년의 부통령 재직 기간 동안 불안한 후계자 지위를 공고화하고자 했지만, 티토는 이를 용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티토는 란코비치와 카르델즈 사이에 권력 균형을 유지하길 원했다.[769]

강권 기구 장악과 달리, 후계자가 조직 부문을 장악할 경우 권력승계의 안정성은 제고될 수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은 조직 부문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독자적 지배 연합을 확대했고, 이것이 권력승계 안정으로 이어졌다. 루마니아 독재자였던 게오르게 게오르기우 데지(Gheorghe

---

[768] Teiwes, *Leadership, Legitimacy, and Conflict in China: From a Charismatic Mao to the Politics of Succession*, pp.107-109.
[769] Rush, *How Communist States Change Their Rulers*. pp.223-249.

Gheo rghiu-Dej)는 후계자 차우세스쿠의 독자적 지배 연합 확대를 용인했다. 게오르기우 데지는 차우체스쿠를 제2비서로 임명하고, 간부 인사를 맡겼다. 차우체스쿠는 조직, 인사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배 연합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대신 게오르기우 데지는 차우체스쿠의 조기 집권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 알렉산드루 드라기치를 비밀경찰의 수장으로 임명해 차우체스쿠의 권력을 견제하도록 했다. 드라기치는 강권 기구를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지배 연합을 확대할 수는 없었다.[770] 이러한 권력 균형을 통해 게오르기우 데지는 안정적은 권력승계를 이룰 수 있었다.

제 2 절 권력 구조의 차이

마오쩌둥과 김일성 모두 건국 이후 강력한 일인지배를 구축했다. 중국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추동하면서, 합의제적 성격의 옌안 체제를 붕괴시켰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권력구조는 파벌연합적인 집단지배에서 일인지배로 전환했다. 북한 김일성의 경우 해방 이후 파벌연합 성격의 집단지배 권력구조를 재편했다. 종파투쟁에서 승리하고, 갑산파를 숙청하고, 김창봉·허봉학 등 군 지휘부를 숙청하면서 김일성은 자신의 일인지배를 확립했다. 일인지배 확립 이후 두 독재자의 결정은 최종적이었으며, 절대적이었다. 당과 군의 간부 인사에서도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그런데 마오쩌둥과 김일성 사후 중국과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마오쩌둥 사후 중국 공산당의 권력구조는 일인지배에서 집단지배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화궈펑으로 권력승계는 일인지배에서 집단지배로의 전환된 권력 구조에서 이뤄졌다. 반면 북한 로동당의 권력구조는 일인지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일인지배가 공고하게 유지되는 권력 구조에서 이뤄졌다, 이같은 권력구조의 차이는 화궈펑과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안정성 차이로 이어졌다. 화궈펑은 1976년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무원 총리에 모두 올랐지만, 이후 지배 연합 다수의 지지가 이탈하면서, 결국 최고지도자 지위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화궈펑과 달리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 사후 종신 집권에 성공했다.

---

[770] Ibid. pp.121-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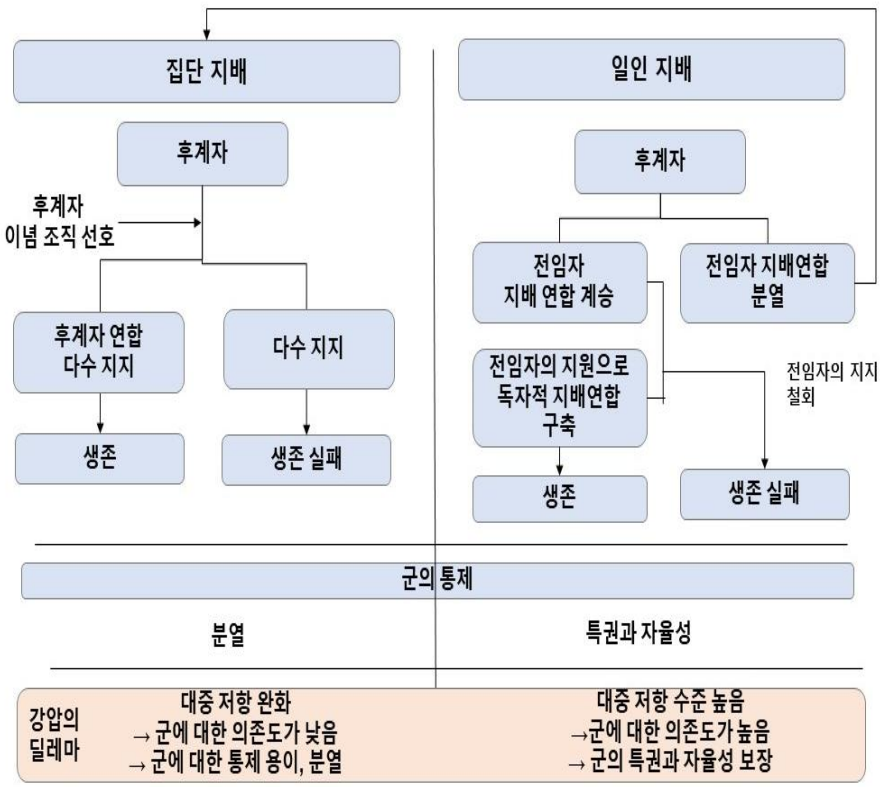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지배에 비해 일인지배에서 권력승계의 안정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오쩌둥과 김일성 사후 중국의 북한의 권력구조는 달라졌다. 중국은 일인지배에서 집단지배로의 변화가 나타났던 반면, 북한에선 일인지배가 그대로 지속되었다. 권력 구조의 차이는 중국 마오쩌둥과 북한 김일성의 권력승계 안정성에서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화궈펑은 집단지배에서 지배 연합의 지지 이탈로 인해 주석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와 달리, 김정일은 지배 연합으로부터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았으며, 흔들리지 않는 종신 집권을 이룰 수 있었다. 북한에선 김정일이 단순히 지도자 지위를 물려받게 하는데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 일인지배 권력구조의 유지를 권력승계로 포함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는 로동당 위에서 절대적 권력을 갖는 '수령' 직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화궈펑과 김정일은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었다. 화궈펑과 김정일 모두 전임자의 지명으로 후계자가 되었고, 둘 다 전임자의 이념을 계승했다. 화궈펑이 마오쩌둥 이념의 절대적인 계승을 내세웠던 것처럼, 김정일도 김일성의 이념을 계승했다. 중국과 북한의 두 후계자는 국가를 건국한 강력한 권위주의 지도자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았다. 화궈펑의 양개범시론이나 김정일의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이러한 이념적 지향을 드러낸 말이었다. 김정일과 화궈펑 모두 전임 지도자의 이념을 충실하게 계승했고, 여기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찾았다.

권력승계에서 김정일과 화궈펑이 다른 권력 구조에 처했다는 점이 두 후계자의 운명을 가른 요인이었다. 후계자 김정일은 일인지배 권력구조에서 권력승계를 이뤘기 때문에 지배 연합의 지지 이탈로 인한 위협은 존재하지 않았다. 김정일은 당과 군 간부 인사에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 '권위주의적 권력 공유'에서 오는 문제가 이미 해소된 상황에서 김일성 사후 최고지도자 지위에 올랐던 것이다. 게다가 일인지배 권력구조에서 김정일의 보수성은 김정일의 권력을 더욱 공고화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김일성의 지배 연합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일인지배에서 지배 연합은 지도자의 이념을 지지하고, 그에 따라 당 지도 조직에 남아 있는 정치 엘리트들로 구성된다. 지배 연합 입장에선 김정일이 자신들의 이념과 조직적 선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후계자였다. 김일성 사후 로동당 정치국과 비서국 인사에서 자연사로 인한 인사 교체 외에 큰 변화가 없었다. 김정일에 의한 숙청이 적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김정일이 지배 연합의 절대적 지지를 유지했

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림 7] 집단지배와 일인지배에서 권력승계



집단지배에서 화궈펑의 권력승계 과정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이념을 계승했다. 화궈펑의 이 같은 이념적 선호는 물론 마오쩌둥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근거였다. 그러나 지배 연합의 지지를 얻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 집단지배에선 일인지배와 달리 지배 연합에 의해 지도자가 교체될 수 있다. 지배 연합 다수의 선호에 부합하는 도전자가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다. 화궈펑이 지도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배 연합 다수의 지지를 유지했어야 했다. 정치 엘리트들의 여러 이념적 선호가 존재할 수 있었다. 만일 지배 연합의 다수 정치 엘리트가 전임자의 이념과 다른 선호를 갖고 있다면, 화궈펑 역시 전임자의 이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화궈펑으로의 권력 승계 당시 지배 연합의 다수는 마오쩌둥의 이념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는 지배 연합에 의한 지도자의 교체로 이어졌다.

권력 구조의 차이로 인해, 중국과 북한에서 권력승계의 결과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이슨 브라운리의 이론적 가설과 다르다. 브라운리에 따르면, 집권당이 지도자에 앞서고 당에서 지도자를 결정한 선례가 있을 경우 정치 엘리트들이 전임자가 지정했거나 혈연 관계인 후계자 대신 직접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한다. 반대로 지도자가 당에 앞서고 지도자를 뽑았던 확립된 선례가 없을 경우 정치 엘리트들이 지도자가 지정했거나 혈연 관계인 후계자를 승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차이는 정치 엘리트들의 위험 회의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한다.[771] 그러나 본 연구에서 중국과 북한에서 권력승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쳤던 변수는 지도자 사후의 권력 구조의 차이였다. 중국은 마오쩌둥 사후 집단지배로 전환되었고, 지배 연합의 정치 엘리트 다수의 이념, 조직적 선호에 따라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했다. 이에 반해 북한은 김일성 사후에도 일인지배가 유지되었고, 지배 연합에 의해 교체 가능성은 없었다.

물론 집단지배에서 전임자가 지정한 후계자가 반드시 집권에 실패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권력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다. 화궈펑은 집단지배 상황에서 지배 연합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이념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화궈펑은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화궈펑의 정당성은 마오쩌둥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마오쩌둥의 이념을 부정하고,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면, 그가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지시와 결정은 모두 옳다는 양개범시론을 포기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화궈펑을 지지했던 문혁 수혜자로 이뤄진 범시파는 실권을 잃고 당 지도부에서 축출되었다. 화궈펑은 지배 연합으로부터 고립되었고, 화궈펑의 실각으로 이어졌다.

집단지배에서 권력승계가 실패한 사례는 소련 스탈린의 후계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스탈린은 1948년 말렌코프를 비서국, 국무원, 정치국 등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모두 임명했다. 이는 말렌코프가 유일했고, 그가 스탈린이 지명한 후계자임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런데 1953년 스탈린 사후 소련의 권력 구조는 집단지배로 전환됐다. 비록 말렌코프는 국무원 총리에 올랐지만, 안정적인 권력승계에는 결국 실패했다. 말렌코프는 국무원에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 반면, 흐루시초프는 공산당

[771]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고위 간부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냈다. 몰로토프(Molotov), 카가노비치(Kaganovich), 보로실노프(Voroshilov), 불가닌(Bulganin) 등이 흐루시초프를 지지했다. 특히 공산당 간부들은 스탈린의 후계자 말렌코프가 스탈린처럼 자신들을 숙청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흐루시초프를 지지했다. 흐루시초프는 1955년 1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말렌코프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고, 말렌코프는 결국 총리직에서 사임했다.[772] 집단지배 권력 구조에서, 공산당 고위 간부들은 자신들의 조직적 선호를 보장해줄 수 지도자로 흐루시초프를 선택했던 것이다.

화궈펑은 지배 연합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집단지배에서 일인지배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지배 연합의 재편을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 엘리트들을 새롭게 지배 연합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화궈펑은 독자적 지배 연합의 구성에 실패했다. 후야오방은 공산당의 선전, 조직 권한을 바탕으로 문혁 시기 축출된 원로 간부들의 복권을 대대적으로 추구했다. 이 과정에서 화궈펑의 양개범시 이념에 입각한 조직 정책이 좌절되었다. 복권한 원로 간부들이 다시 지배 연합으로 편입되면서 화궈펑은 독자적 지배 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권력 구조 개편이 가로막히면서 화궈펑의 지도자 지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제 3 절 지배 연합 구성의 성격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는 지배 연합의 지지를 통해서 집권을 유지할 수 있다. 후계자의 집권도 지배 연합의 공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될 수 있다.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도 지배 연합에 기반해 집권할 수 있었다. 바샤르는독재자였던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Hafiz al-Asad) 사후 2000년 대통령직에 올랐다. 그가 권력승계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엔 하페즈의 지배 연합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집권 바트당(Baath party) 간부들은 하페즈와의 지배 연합을 형성했는데, 이들이 바샤르를 후계자로 지지하면서, 바샤르가 순조롭게 아버지의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특히 바트당과 의회는 대통령 최저 연령 기준을 40세에서 34세로 낮췄고, 젊은 바샤르 알-아사드가 대통령 선거의 단독 후보로 출마하도록 했다. 바샤르는 단독 출마한 대통

[772] Rush, *Political Succession in the Ussr*. pp.58-71.

령 선거에서 97.3%의 득표율을 얻었다.[773] 바샤르는 이들과 지배 연합을 형성하면서, 대통령직에 오를 수 있었다.

후계자는 자신의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배 연합의 정치 엘리트 다수에게 기대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분석에 앞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선호를 규정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치 엘리트들의 선호는 이념과 조직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념에 따라 집권당의 조직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직적 선호는 이념적 선호에 종속되는 경향을 갖는다. 사회주의 국가의 집권당에서 이념을 둘러싼 노선 투쟁이 벌어지고, 그 결과 집권당 조직의 개편이 이뤄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사회주의 국가에선 이러한 이념적 선호에 따라 독재자와 지배 연합 사이의 정치적 제휴가 결정된다.

따라서 기대 이익 제공의 문제는 지배 연합 정치 엘리트들의 이념적 분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지배 연합이 각기 다른 이념을 지지하는 파벌들로 다원화할수록 기대 이익 제공은 더욱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이를 방정식에 비유하자면, 지배 연합의 정치 엘리트들이 지지하는 이념적 선호가 단일할 경우 일차방정식이라면, 이념적 선호가 많을 경우 고차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배 연합의 구성에 따라 권력승계의 안정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선, 중국 마오쩌둥과 북한 김일성의 사례를 통해, 지배 연합 구성에 따른 권력승계의 안정성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지도자 모두 일인지배를 확립했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었다. 다만 지배 연합의 구성이 달랐다. 마오쩌둥의 지배 연합에선 이념적 선호가 다른 파벌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마오쩌둥의 일인지배는 이들 파벌들 사이의 균형을 통해 유지되었다.[774] 마오쩌둥은 린뱌오 사건 이후 위기에 직면했다. 마오쩌둥은 원로 간부들을 지배 연합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마오쩌둥의 지배 연합 구성은 변화했다. 마오쩌둥의 문혁 이념을 지지하는 급진파가 장악했던 지배 연합은 원로 간부, 문혁 수혜자, 급진파로 다원화한 것이다. 이들 세 파벌이 균형을 이루면서, 마오쩌둥의 일인지배가 지속되는 양상으로 전개된 것이다. 집단지배가 복권된 것은 아니었지만 집단적인 의사 결정 제도가 일부 기능을 되찾기도 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 등 공산

---

[773] Volker Perthes, *Syria under Bashar Al-Asad: Modernisation and the Limits of Change* (Routledge, 2014). pp.7-8.
[774] Huang, *Factionalism in Chinese Communist Politics*.

당의 집단적 의사 결정 제도가 일부 기능을 회복하기도 했다.

린뱌오 사건 이후 지배 연합 구성이 다원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의 일인지배가 흔들렸던 것은 아니었다. 마오쩌둥은 당과 군의 인사, 정책 결정에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 마오쩌둥이 생존할 때엔 지배 연합 내 이념적 선호는 잠재된 형태로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지배 연합의 구성 변화는 마오쩌둥 사후 집단지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마오쩌둥 사후 원로 간부, 문혁 수혜, 급진파라는 파벌 사이의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가 집단지배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았다. 공산당 지도부의 집단적 의사가 중요해진 것이다.

마오쩌둥과 달리, 김일성의 일인지배는 이념적 선호의 차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지배 연합 내에선 파벌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김일성의 일인지배는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배체계에 입각한 것이었다. 김일성의 지배 연합은 갑산파와 군부 실력자였던 김창봉과 허봉학 숙청 이후 일원적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김일성은 일체의 파벌적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빨치산 출신들이 단일한 지배 연합을 구성했다. 지배 연합의 세대 교체 과정에서도 지배 연합이 분화되는 양상이 전개되지 않았던 점은 중요한 특징이다. 이는 빨치산 출신 지배 연합의 재생산 때문이었다. 이른바 혁명 2세대는 항일빨치산 출신과 혈연적 관계에 있거나, 항일빨치산 이념에 따라 재생산된 인물들이었다. 마오쩌둥 사후 중국 공산당과 달리, 김일성 사후 북한 로동당 내에선 파벌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다. 지배 연합은 김정일에 대한 지지를 두고 분화되지 않았다. 지배 연합은 김일성과 이념, 조직적 선호가 일치했고, 김일성의 이념을 계승한 김정일과도 동일한 이념, 조직적 선호를 갖고 있었다.

이처럼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집권 기간 일인지배를 확립했지만, 그 지배 연합의 구성은 달랐다. 마오쩌둥의 지배 연합 구성은 이념, 조직적 선호를 달리는 여러 파벌들로 구성된 다원성을 갖고 있었다. 이와 달리, 김일성의 지배 연합 구성은 하나의 이념, 조직적 선호만을 갖는 정치 엘리트들로 구성된 일원성을 갖고 있었다. 중국 화궈펑으로의 권력승계 사례에서 보듯이, 지배 연합의 다원성은 후계자의 집권에서 불안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지배 연합 다수의 선호를 얻는 과정이 그만큼 복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사례처럼, 지배 연합 구성에서 일원성은 후계자의 집권에서 안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은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제

고할 수 있었던 주요한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원적 지배 연합 구성에서, 지배 연합은 전임자의 이념적, 조직적 선호에서 이미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 이들은 전임자가 지정한 후계자가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던 기대 이익을 보존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후계자가 전임자의 이념적, 조직적 선호를 급격하게 바꾸지 않는 이상 지배 연합의 지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쉽다. 북한 김정일은 김일성의 지배 연합인 항일빨치산 출신의 혁명 전통의 계승을 내세웠다. 혁명 전통의 계승은 항일빨치산 출신의 이념, 조직적 선호에 대한 기대 이익의 보장이라고 볼 수 있었다. 지배 연합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김정일은 자신들이 기존에 누렸던 이념, 조직적 선호를 그대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 김정일은 이들의 단일한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을 공고화할 수 있었다.

김정일의 지배 연합은 이념적 일치를 보였다. 북한의 지배 연합 구성이 이념적 단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 연합이 다른 이념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임자의 이념은 김정일과 지배 연합 모두의 이념적 선호와 일치했다. 따라서 김정일이 제시하는 이념은 지배 연합의 지지를 얻는 데 문제가 없었다. 나아가 전임자의 지배 연합과 후계자의 지배 연합 사이에 파벌적 대립이 나타나지 않았다. 후계자의 지배 연합이 전임자 지배 연합의 재생산의 결과였다. 후계자 지배 연합의 성격은 빨치산 2세대였으며, 상당수가 전임자 지배 연합과 혈연 관계에 있었다.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지배 연합이 이념적 일체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혈연적인 유대감까지 갖고 있었다.

전임자의 지배 연합이 후계자가 자신들이 누렸던 이익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기대할 때 권력승계가 안정적일 수 있다. 북한 항일빨치산 그룹은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지했다. 김정일은 1960년대 후반부터 항일빨치산을 로동당의 유일한 혁명전통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며, 이들의 업적을 예우했다. 김정일의 이 같은 입장은 김일성의 후처 김성애가 항일빨치산 활동을 평가절하했던 것과 대조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김정일의 지도자 자질로 항일빨치산 출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들기도 했다.[775] 김정일이 내세운 항일빨치산 혁명 전통의 유일성, 혁

775 김일성. 「항일투사들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들이다: 강반석어머님탄생 100돐기념 오찬회 참가자들과 한 담화(1992년 4월 21일)」. 김일성은 김정일의 항일빨치산 출신에 대한 예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김정일)는 지난날 나와 함께 투쟁한 일군들을 언제나

명 선배에 대한 존경은 김일성 지배 연합의 기대 이익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신호'(signal)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이 북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안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0년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로의 권력승계 역시 전임자의 지배 연합이 자신들의 기대이익에 따라 합의한 결과였다. 당시 부통령 압둘 할림 하담(Abdul Halim Khaddam)와 국방장관 무스타파 틀라스(Mustafa Tlas)에 따르면, 하페즈 알-알사드(Hafiz al-Assad) 사후 집권 바트당 지도부와 군·정보 기관 간부들은 후계 문제를 논의했다. 그리고 하페즈의 아들 바샤르를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하는 데 합의했다. 지배 엘리트들은 시리아 일인지배 독재 체제에서 바샤르가 자신들의 기존 지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판단했다. 일인지배 독재자의 부재에 따른 권력 공백의 불확실성, 혼란을 해소할 필요도 있었다. 이는 지배 엘리트들이 바샤르를 새로운 독재자로 합의한 동인이었다.[776]

지배 연합 구성이 일원적일 경우와 달리, 다원적일 경우 기대이익 제공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었다. 화궈펑이 파벌들 사이에서 정치적 제휴를 통해 지도자 지위를 다시 인정받아야 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후계자 화궈펑은 전임자의 지배 연합을 그대로 승계하지 못했다. 즉 전임자였던 마오쩌둥의 지배 연합이 후계자 화궈펑에 대한 지지를 놓고 분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화궈펑은 지배 연합 내 이익 배분이나 조정이 쉽지 않았다. 마오쩌둥 사후 지배 연합은 원로 간부, 문혁 수혜자, 문혁 급진파(사인방)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배 연합 내에선 각기 다른 이념, 조직적 선호가 존재했다. 특히 문혁 급진파는 화궈펑의 후계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파벌을 배제한 채 자신들이 권력을 독점하길 원했다. 화궈펑는 원로 간부, 문혁 수혜자들과 연합해 문혁 급진파를 축출할 수 있었다. 이후 원로 간부들은 문혁 당시 억울하게 축출된 간부들의 복권, 양개범시

존경하고 잘 돌봐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한 노투사들이 생활에서 불평이 있을 세라 극진히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는 집에서 휴식하고 있는 항일투사들에게도 좋은 옷을 해주고 고급승용차를 보장해주었으며 그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조직비서는 항일투사들이 앓지 않도록 건강을 잘 돌봐 주고 있으며 그들을 해마다 휴양도 보내주고있습니다. 그는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한 노투사들뿐 아니라 해방후부터 나와 함께 일해온 일군들도 존경하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 주고 있습니다."

[776] Joshua Stacher, "Reinterpreting Authoritarian Power: Syria's Hereditary Succession," *The Middle East Journal* 65, no. 2 (2011).

이념에 대한 반대하는 '실천기준론'을 주장하면서, 화궈펑과 갈등을 빚었다. 문혁 피해 간부들의 복권은 지배 연합 내 파벌 균형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화궈펑은 집권을 유지할 수 없었다.

더욱 어려운 문제는 정치 엘리트들이 지지하는 이념적 선호의 역동성이다. 리처드 바움의 연구에 따르면, 파벌 투쟁의 결과는 후계자의 집권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파벌의 구성은 유동적이며 가변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책 주기가 발생한다고 했다.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위기를 겪고 나서 실용적 정책을 내세운 덩샤오핑의 파벌이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화궈펑이 지도자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한다.[777] 바움의 분석은 파벌의 형성과 제휴에 따라 권력승계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움은 파벌의 유동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선 설명이 부족했다. 지배 연합의 정치엘리트들이 갖는 이념적 선호가 이념적 피드백 과정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지배 연합 구성의 다원성이 반드시 권력승계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후계자는 각 파벌들의 복잡한 이해 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선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가 1990년 10월부터 사망한 2006년 12월까지 일인지배를 구축했다. 니야조프가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상황에서 당시 부총리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가 대통령 경호실장 아크무라트 레제포프의 연합, 최고의결기구인 인민회의의 지지를 얻어,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전임 니야조프 사후 일인지배가 무너진 상황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지배 연합의 씨족 파벌들에게 직위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슬람 카리모프가 1990년부터 사망한 2016년 8월까지 일인지배를 공고화했지만, 그의 사후 일인지배가 무너졌다. 각 씨족 파벌을 대표하는 지배 연합의 정치엘리트들은 권력 배분을 통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총리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데 합의했다. 미르지요예프는 씨족들 사이에 지역 자원, 관직 배분 등 이익 균형을 통해 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778] 투르크메니스탄의 베르디무하메도프나 우즈베키스탄의 미르지요예프 모두 지배 연합을 구성하는 씨족 파벌 사

---

[777] Baum, *Burying Mao: Chinese Politics in the Age of Deng Xiaoping*. pp.3-23.

[778] 윤도원,백우열.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권력승계 과정과 체제 안정성 연구」,『국제정치논총』, 59(3), 2019.

이의 이익 배분에 따른 합의를 바탕으로 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지배 연합에서 이념적 노선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관직을 배분하는 문제보다 더 첨예할 수밖에 없다. 화궈펑과 김정일 권력승계 시기 지배 연합의 구성의 차이는 권력승계 안정성 차이로 이어졌다. 화궈펑은 지배 연합의 이념적 단일성을 관철한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배체계는 북한에서 후계자 김정일이 집권을 공고화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지배 연합에서 파벌이 존재하지 않았고, 김정일은 전임자의 이념 계승만으로 전임자의 지배 연합 다수의 이념적 선호를 충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 4 절 권력승계와 정책 변화의 상관성

권력승계와 정책 변화의 상관성은 권력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따라서 권력승계는 정책 변화에 충격을 준다는 발러리 분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분스는 '누가 통치 하느냐가 변화를 만든다' 는 일반적 명제를 제시했다. 권력승계에 따라 공공, 재정 정책이 변화하는 주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후계자는 정책적 성과에 따른 반응성을 고려하면서, 정책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민주주의 체제에선 대중의 반응을 중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관료 엘리트들의 반응에 따라 권력승계 과정에서 정책 변화의 주기성이 나타난다고 했다.[779]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권력구조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 어렵다. 분스는 일인지배 독재자인 스탈린 사후 소련 공산당 권력구조가 집단지배로 변화한 이후 사례를 분석했다. 일인지배에선 정책적 성과에 대한 반응성이 낮은 차원에 머무르는 반면, 집단지배에선 정책적 성과에 대한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마오쩌둥 사후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는 집단지배로 전환되었다. 이는 경제 정책이 성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화궈펑의 경제 정책은 리셴넨, 덩샤오핑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 정책은 천윈에 의해 비판을 받았고, 천윈의 비판이 공산당 내에서 지지를 얻게 되었다. 이후 경제 정책은 화궈펑이

779 Valerie Bunce, *Do New Leaders Make a Difference?: Executive Succession and Public Policy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p.222-256.

아닌 천윈에 의해 주도되게 되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이념에 따라 경제 정책을 관철할 수 있었지만, 화궈펑은 공산당 내에서 집단적 협의를 거쳐야만 추진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후계자 집권 시기 권력구조의 변화가 경제 정책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조건이었다.

다만, 화궈펑에 대한 비판은 사실 대약진 운동, 문혁 시기 마오쩌둥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 정책에서 화궈펑은 마오쩌둥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대약진 운동과 대중 동원을 통한 급진적인 경제 정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화궈펑 입장에선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었다. 천윈의 비판이 공산당 간부들에게서 설득력을 얻었던 것은 마오쩌둥 시기 그가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성과 때문이었다. 이점에서 화궈펑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그를 후계자로 지명한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였던 셈이다.

김정일도 전임자 김일성의 이념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이미 1970년대부터 김일성의 속도전식 경제 발전 정책은 문제를 드러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념을 더욱 공고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김정일은 실패한 경제 정책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 정책의 바탕이 되는 김일성의 이념을 그대로 계승했던 것이다. 그런데 화궈펑과 달리, 김정일은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이념으로 인해 권력이 흔들리지 않았다. 지배 연합의 지지 역시 확고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념의 피드백 과정이다. 지도자의 이념이 경제 위기와 같은 생산력 저하라는 결과로 나타날 경우, 지배 연합의 정치 엘리트 선호는 변화할 수 있다. 이는 지도자에 대한 지지 변화, 지배 연합에 의한 지도자의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피드백 과정이 제도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인지배에선 지도자의 이념이 부정적 결과를 낳더라도, 다른 이념적 선호가 지배 연합 내에 존재하기 어렵다. 지도자의 이념을 비판하는 정치 엘리트는 지배 연합에서 곧바로 숙청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김정일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문제가 그의 권력승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나타나지 않았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에선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했지만, 지배 연합에 의한 지도자 교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집단지배에서 화궈펑이 처했던 상황과 달랐다.

결국 김정일 체제의 보수성의 기원은 권력승계 과정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김정일의 보수성은 그가 권력승계에 성공하고, 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김정일은 1990년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하는 상황에서도, 김일성의 이념을 견지했다. 그는 당시 "나에게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가 권력승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김일성 이념과의 일체화가 역으로 체제의 보수성을 가져온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김정일의 지배 연합은 김일성의 이념만을 지지하는 항일빨치산 출신과 항일빨치산 출신의 재생산에 의해 구성되었다. 김정일은 지배 연합의 지지를 지속하기 위해선 김일성주의를 변경하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권력 구조와 지배 연합 구성의 차이에 따른 것이었다. 집단지배이면서 지배 연합의 이념적 구성이 다원적일 경우, 지배 연합의 정치 엘리트들이 경제적 성과에 따라 이념적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 공산당 지도부 내에선 여러 이념과 파벌이 공존할 수 있다. 마오쩌둥 사후 중국에서 범시파와 실천파가 각각 다른 이념적 노선을 추구했고, 이러한 내부 투쟁의 결과 마오쩌둥의 이념에서 벗어난 덩샤오핑, 후야오방, 자오쯔양과 같은 지도자가 등장했다. 하지만 일인지배에선 경제적 성과에 따라 지배 연합 정치 엘리트들의 이념적 선호가 변화하기 어렵다. 특히 지배 연합 구성이 일원적일 경우 이념적 선호의 대안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다.

집단지배 권력 구조, 지배 연합 구성의 다원성은 경제적 성과에 따른 지도자 교체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다. 이 같은 지도자 교체는 체제 변화와 결부되었다. 이는 베트남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베트남은 1969년 호치민 사망 이후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지도자를 두지 않고, 공산당 정치국이 집단지배 규정에 따라 국가를 통치했다. 집단지배에 따라 공산당 지도부 내에선 파벌주의와 이념적 차이가 존재했다. 개혁의 범위와 속도에 대해서도 단일한 합의가 이룬 것은 아니었다.[780] 공산당 정치국 내 여러 이념과 이를 지지하는 파벌들이 공존했다. 이러한 조건은 경제적 성과에 따라 지도자 교체와 이에 따른 공산당의 정책적 변화를 가능케 했다. 경제적 침체,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경제 정책과 이념을 수정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나타났다.[781]

---

[780] Zachary Abuza, *Renovating Politics in Contemporary Vietnam* (Lynne Rienner Publishers, 2001). p.19.; Douglas Pike,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in Vietnam," in *Asian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ed. Robert A . Scalapino, Seizaburo Sato,Jusuf Wanandi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1986).

[781] Saxonberg, *Transitions and Non-Transitions from Communism: Regime*

일인지배 독재자였던 스탈린 사후 소련에서도 후계자의 정책은 그의 집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당시 소련 공산당의 지배 연합은 공산당의 전통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인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경공업과 농업 생산품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스탈린의 후계자 말렌코프는 전쟁 산업인 중화학 공업에 대한 재정 비중을 줄이고, 농업 생산에서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말렌코프의 정책은 소련 공산당 지배 연합 다수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 공산당의 전통에서 지나치게 빗겨난 것이었으며, 중화학 공업과 관련된 지배 연합 정치엘리트들의 입장과도 상반된 것이었다. 이에 반해 흐루시초프는 중화학 공업, 전쟁 산업에 대한 재정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결국 지배 연합은 흐루시초프를 선택했고, 말렌코프는 축출되었다. 이후 지도자 지위에 오른 흐루시초프의 경우 농업 생산 위기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지배 연합에 의해 지도자 지위에서 축출당했다. 도시에서 인구 증가가 농촌을 앞서는 상황에서 식량 가격은 급등했지만, 식량 생산은 오히려 위축되었다고, 그 책임을 흐루시초프가 져야 했던 것이다.[782]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당대회에서 응유엔 반 린(Nguyen Van Lin)이 최고지도자인 총서기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경제적 성과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1982년 제5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에서 물러났다가 1985년 정치국에 복귀했다. 응우옌 반 린이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시행했던 개혁 프로그램이 가시적인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비효율적이었던 집단 영농을 중국에서 시행했던 호별영농 방식으로 대체했는데, 이것이 농업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 같은 성과에 따라 제6차 당대회에서 베트남 공산당은 응우옌 반 린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베트남 전역에서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그를 총서기로 선출했다. 동시에 보수파인 쯔엉찐(Truong Chinh)은 지도자 지위는 물론, 다른 보수파 고위 간부들과 함께 정치국에서 퇴진했다. 이에 따라 정치국에서도 개혁파 인사들의 비율이 증가했다.[783]

이처럼 공산당에서, 경제적 성과가 이념적 노선의 변화를 가져왔고,

Survival in China, Cuba, North Korea, and Vietnam.

[782] Breslauer, *Khrushchev and Brezhnev as Leaders: Building Authority in Soviet Politics*. pp.23-38, pp.81-114.

[783] Abuza, *Renovating Politics in Contemporary Vietnam*. p.17. Tin Bu, *Following Ho Chi Minh : The Memoirs of a North Vietnamese Colonel* (Honolulu: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pp.137-140.

이것이 공산당 지도부의 개편으로 이어졌다. 베트남은 1975년 통일 이전까지 민족주의가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이었던 반면, 그 이후엔 경제적 성과가 정당성의 관건이었다. 베트남 통일 이후 공산당은 급격한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했고, 이는 극심한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 베트남 국민들이 주변 동남아 국가나 서방으로 탈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베트남 공산당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만 통치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베트남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 머이' (doi moi)는 한 순간이 이뤄진 결단이 아니라, 통일 이후 공산당이 경제 성과에서 정당성을 추구해온 과정에서 나온 결과였다.[784]

일인지배 권력 구조, 일원적 지배 연합 구성에서 권력승계가 이뤄진 북한에선, 경제적 위기가 이념, 조직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후계자 김정일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지만, 김정일의 집권이 흔들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김정일은 1997년 10월 당 총비서에 취임했고, 이듬해 9월 헌법 개정해 국방위원장에 올랐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은 생존했다.[785] 경제 정책의 문제는 중국에서 화궈펑이 물러나야 했던 문제였으며, 베트남 공산당에서 보수파와 개혁파 세력이 진퇴를 반복했던 요인이었다. 그런데 북한에서 경제 정책의 실패가 후계자의 집권과 권력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일은 1998년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들고 나왔다. 강성대국 건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대 국가수 앞에, 조국과 민족 앞에 다지신 애국충정맹약이며 조선을 이끌어 21세기를 찬란리 빛내이려는 담대한 설계도"라고 했다. 또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주체적인 강성대국 건설 방식"이라고 했다.[786] 1998년 9월 9일 공화국 창건 50주년 로동신문 사설에서도 "김정일의 사상과 정치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것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라고 했다.[787]

---

[784] Le Hong Hiep, "Performance-Based Legitimacy: The Case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and" Doi Moi","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012).

[785] 김갑식. 「권력구조와 엘리트」.

[786] 최칠남, 동태관, 전성호. 「정론: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8.22.

[787]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자」, 『로동신문』, 1998.9.9.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 정권에서도 경제는 악화되었지만, 그가 지배 연합으로부터 위협을 받지는 않았다. 루마니아는 북한과 함께 스탈린식 경제정책을 고수한 몇 안되는 국가였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적어도 지배 연합으로부터의 위협을 초래한 것은 아니었다. 일인지배에선 정책의 실패를 견제하고 바로잡기 어렵다. 이는 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 '독재자의 딜레마' 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독재자는 군이나 비밀경찰과 같은 물리적 강권 기구를 통해 대중의 저항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788]

[788] 박형중. 「루마니아와 북한: 사회주의 주변부의 스탈린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 연구」.

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중국 마오쩌둥과 북한 김일성의 권력승계 사례를 비교했다. 두 사례에서 권력승계의 안정성은 다르게 나타났다는 데 주목했다. 권력승계의 안정성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났던 원인을 찾기 위해, 전임자와 후계자의 관계, 전임자의 지배 연합 승계, 후계자의 독자적 지배 연합 형성이라는 세 차원에서 중국과 북한 사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전임자와 후계자의 관계이다. 혈연승계는 전임자와 후계자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방식이라는 가설은 상당히 강력하지만, 중국과 북한 사례에서 전임자가 후계자를 지지하는 기준으로 이념을 중시했다. 이념의 일치성은 후계자가 전임자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로동당은 사회주의 혁명 정당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는 모두 자신의 이념이 사후에도 관철되기를 원했다. 중국 덩샤오핑이 후계자가 될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문혁 이념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념을 체계화하고, 유일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김일성은 유일사상체계를 수립한 김정일의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이는 김일성의 동생으로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던 김영주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다소 회의적이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다음 권력구조의 차이에 따라, 권력승계의 안정성이 달랐다. 집단지배에 비해 일인지배에서 권력승계의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화궈펑과 김정일 모두 전임자의 지명으로 후계자가 되었고, 둘 다 전임자의 이념을 계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궈펑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산당 주석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반면 김정일은 종신 집권에 성공했다. 김정일과 화궈펑이 다른 권력 구조에 처했다는 점이 두 후계자의 운명을 가른 요인이었다. 후계자 김정일은 일인지배 권력구조에서 권력승계를 이뤘기 때문에 지배 연합의 지지 이탈로 인한 위협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른바 '권위주의적 권력 공유' 에서 오는 문제가 이미 해소된 상황에서 김일성 사후 최고지도자 지위에 올랐던 것이다. 반면에 집단지배 권력구조에서 화궈펑이 지도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배 연합 다수의 지지를 유지했어야 했다. 화궈펑으로의 권력 승계 당시 지배 연합의 다수는 마오쩌둥의 문혁 이념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는 마오쩌둥의 이념을

계승할 수밖에 없었던 화궈펑에 대한 지배 연합 다수의 지지 이탈로 이어졌다.

집단지배에서 후계자는 집권당 정치 엘리트들과 새로운 지배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변수는 지배 연합에 참여한 정치 엘리트 다수의 선호 변화이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 첫째는 전임자에 대한 평가이다. 전임자가 내세운 이념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 엘리트의 이념적 선호가 바뀔 수 있다. 둘째, 집권당 정치 엘리트의 대규모 교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생물학적 세대교체에 따라 이뤄질 수도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전개될 수 있다. 후계자는 지배 연합의 정치 엘리트 다수의 선호 변화에 대응해야만 집권을 유지할 수 있다. 전임자의 이념으로부터 이탈해 새로운 이념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념적 유연성을 전임자가 지정한 후계자에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한계가 있다. 후계자의 정당성은 바로 전임자에게 있으며, 전임자의 이념을 부정할 경우 바로 후계자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 지배 연합 구성의 일원성은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지배 연합 구성이 다원적일 경우, 전임자의 이념과 다른 이념을 추구하는 정치 행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임자가 내세운 이념이 오류가 드러날 경우 지배 연합 내 정치 엘리트들이 대안적 이념을 추구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다원적 지배 연합 구성에서 권력을 승계한 후계자는 전임자의 이념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지배 연합 다수의 이념적 선호에 맞춰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혹은 후계자는 지배 연합에서 다른 이념적 선호를 갖고 있는 정치 엘리트들을 지배 연합으로부터 축출함으로써 권력을 공고화할 수 있다.

지배 연합의 이념적 단일성을 관철한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배체계는 북한에서 후계자 김정일이 집권을 공고화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지배 연합에서 파벌이 존재하지 않았고, 김정일은 전임자의 이념 계승만으로 전임자의 지배 연합 다수의 이념적 선호를 충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배 연합 구성이 일원적일 경우와 달리, 다원적일 경우 기대이익 제공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었다. 화궈펑이 파벌들 사이에서 정치적 제휴를 통해 지도자 지위를 다시 인정받아야 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후계자 화궈펑은 전임자의 지배 연합을 그대로 승계하지 못했다. 즉 전임자였던 마오쩌둥의 지배 연합이 후계자 화궈펑에 대한 지지를 놓고 분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중국 마오쩌둥 권력승계 사례는 현재 중국의 권력승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마오쩌둥의 권력승계가 권력승계의 제도화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중국에서 마오쩌둥 사후 만들어진 권력승계 제도의 기능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권력승계의 제도화가 마오쩌둥의 권력승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권력승계 제도가 없어지거나 바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권력승계의 문제를 예측하는 데에서도 함의를 갖는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제도는 권력을 구속하기보다는 권력의 반영일 수 있으며, 권력 분포의 변화에 따라 제도는 폐지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 이 점에서 권력승계의 제도화 이전의 마오쩌둥 사례에 대한 분석은 현재 중국에 함의를 갖게 된다.

마오쩌둥 사후 중국 권력승계 제도화는 격세지정, 임기제한제, 연령제한을 통해 이뤄졌다. 그런데 이 같은 권력승계의 제도들이 19차 당대회 이후 파기되었다. 먼저 격세지정 후계자 결정이 19차 당대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격세지정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다른 상무위원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위원을 선출해 후계자로 지정하는 비공식적인 관례이다. 다음 2018년 1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부주석의 중임제한 규정이 제거되었다. 이로써 임기제한제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또 전국인대에선 왕치산을 국가부주석으로 임명함으로써 연령제한 제도까지 파기되었다. 이에 따라 권력승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789]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가져온 제도의 폐기로 인해, 마오쩌둥의 권력승계 사례는 시진핑 집권 시기 중요한 함의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체제 변화 가능성과 결부해 김일성의 권력승계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존재한다. 마오쩌둥 사후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나아간 반면, 김일성 사후 북한은 체제의 보수성이 유지되었다. 독재자의 사후 권력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차이가 각기 체제 변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각기 다른 조건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권력승계 과정은 개혁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제 변화의 경로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중국 권력승계 사례를 통해 되짚어 볼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사례에서, 권력승계의 안정성과 체제의 변

789 이정남. 「중국 집단지도체제 권력승계의 제도화와 19 차 당대회이후의 변화: 새로운 게임 규칙의 모색인가?」.

화 사이의 상관 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 독재자에 의해 지명된 후계자는 '후계자의 함정' 에 처하기 쉽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독재자는 권력을 승계할 후계자를 지명하는 경향을 보인다. 독재자의 후계자 결정은 후계자의 집권에 정당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후계자는 전임자의 이념을 부정하기 어렵다. 자신의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결국 후계자는 전임자의 이념을 고수하는 '이념적 보수성' 을 갖게 된다. 화궈펑, 김정일 모두 전임자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 같은 후계자의 이념적 보수성은 권력승계의 안정성에 따라 체제 변화 가능성에서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 마오쩌둥 사후 중국은 체제 변화로 나아간 반면, 김일성 사후 북한에선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지배에선 전임자와 다른 이념적 선호를 갖고 있는 정치행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권력승계의 안정성은 취약하게 된다. 지배 연합 내에서 후계자를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념적 보수성을 갖는 후계자의 교체는 체제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화궈펑의 권력 상실 과정에서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권력승계의 불안정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일인지배에선 후계자는 전임자의 이념을 고수하는 게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지배연합의 이념적 선호가 전임자와 일치하고, 그것이 단일하기 때문이다. 후계자가 전임자의 이념적 선호를 바꾸지 않는다면, 지배 연합의 정치엘리트들은 집권당에서 동일한 조직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지배연합의 후계자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다. 권력승계의 안정성은 높지는 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일인지배에서 권력승계의 안정성이 역으로 체제의 필연적 보수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전임자의 이념을 계승했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지배 연합의 지지를 물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체제의 보수성으로 귀결되었다. 이념의 피드백 과정은 일인지배 제도에서 나타나기 어려웠다. 후계자 입장에서 지배 연합의 일체화된 보수성으로 인해 이념을 전환을 극적으로 이뤄내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김정일은 1994년 11월 11일 1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일성사후 지도자 지위에 올른 직후 발표한 글이었다. 그러나 글의 주요내용은 1974년 2월 김정일이 당 내부에서 후계자로 지명된 후 발표한 논문, 담화의 정리에 불과했다.[790]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라는

[790] 고유환.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지속과 변화」, 『통일문제연구』, 9(2),

논문[791]에서,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계승발전을 강조하고, 김일성의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일은 국제 정세의 변화, 경제 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보수성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적 성과가 김정일의 이념 변화나 지배 연합 내의 이념적 분화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에 대한 비교 분석은 체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함의를 갖는다. 발러리 분스의 연구에서 발견했듯이, 소련에서 권력승계 과정은 정책의 변화와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이러한 상관관계는 일인지배에서의 권력승계 과정에선 잘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의 경우가 그러했다. 일인지배에서 전임자의 이념이 더욱 공고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전임자 집권 시기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지배 연합이 후계자의 지배 연합으로 이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후계자는 전임자 이념을 지지하는 지배 연합의 지지를 통해서 집권을 유지할 수 있다. 나아가 후계자의 독자적 지배 연합이 전임자의 지배 연합이 재생산을 통해 이뤄졌다면 이념적 보수성은 더욱 강력하다. 북한 김정일의 지배 연합은 전임자의 지배 연합과 그것의 재생산을 통해 이뤄진 지배 연합이었던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권력구조의 변경을 수반할 수 있다. 앞선 분석에서 중국, 베트남의 경우 권력구조의 변경이 체제 변화로 이어지는 결정적 조건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배 연합 구성이 일원성에서 다원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집단지배 권력 구조에선 다양한 이념들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경제적 성과에 따른 이념적 노선의 변경이 이뤄지기 쉬웠다. 반면 지배 연합 구성이 일원적인 일인지배 권력구조에선 상대적으로 다른 이념이 지배 연합 내에서 공존하기 어려웠다. 지배 연합 내에서 다른 이념적 선호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도자의 이념이 그대로 관철되며, 이념적 노선 투쟁이 존재하기 어렵다.

결국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을 이루기 위해선 정치적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792] 김정은은 일인지배 권력구조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가 개혁개방을 결정하면 로동당의 이념적 노선 변경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지배 연합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김일성, 김정일의

1997.

[791]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11.4.

[792] 김병연. 「사회주의 경제개혁과 체제이행의 정치적 조건: 구소련, 동유럽, 중국의 경험과 북한의 이행 가능성」, 『비교경제연구』, 12(2), 2005.

혁명전통에 따라 로동당 지도부에 편입된 지배 연합의 정치 엘리트들이 대규모로 교체되고, 그 자리를 개혁개방 이념을 갖고 있는 정치 엘리트들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물리적 숙청을 수반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또다른 방법은 김정은이 직접 집단지배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김정은이 권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해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어떤 경우이든 북한 김정은의 개혁개방 가능성은 북한 로동당의 정치적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참고 문헌

1. 1차 자료

<중문>

邓小平, 「坚持四项基本原则（一九七九年三月三十日）」, 中共中央文献研究室, 『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汇编』 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pp.127-144.

———, 「对起草《关于建国以来党的若干历史问题的决议》的意见」, 『邓小平文选』 第二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4, pp.291-310.

———. 『邓小平文选』第二卷, 北京:人民出版社, 1994.

———, 「全党讲大局, 把国民经济搞上去（一九七五年三月五日）」, 中共中央文献编辑委员会, 『邓小平文选』 第二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4, pp.4-7.

———, 「解放思想, 事实求是, 团结一起向前看（一九七八年十二月十三日）」, 中共中央文献研究室, 『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汇编』 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pp.15-24.

冷溶,汪作玲. 『邓小平年谱 1975-1997』 上, 北京:中央文献出版社, 2004.

李先念传编写组. 『李先念年谱』5, 北京:中央文献出版社, 2011.

毛泽东, 「工作方法六十条 （草案）(一九五八年一月)」, 中央文献研究室, 『毛泽东文集』 第七券, 北京: 人民出版社, 1993, pp.344-364.

———, 「给江青的信(一九六六年七月八日)」, 『建国以来毛泽东文稿』 第十二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8, pp.71-75.

———, 「对“四人帮”的几次批评(一九七四年~一九七五年)」, 『建国以来毛泽东文稿』 第十三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8, pp.394-399.

———. 「对《上海市各干嘛造反派团体贺电》等五份材料的批语（一九六七年一月十一日）」, 『建国以来毛泽东文稿』 第十二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8.

———, 「对邓小平来信的批语(一九七二年八月十四日)」, 『建国以来毛泽东文稿』 第十三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8, pp.308-309.

———, 「培养无产阶级的革命接班人(一九六四年六月十六日)」, 『建

国以来毛泽东文稿 』 第十一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8, pp.85-88.
———, 「关于健全党委制 (一九四八年九月二十日) 」, 『毛泽东选集』 第四券, 北京: 人民出版社, 2009, pp.1340-1341.
———, 「关于用中央名义发文件 `电报问题的信和批语 (一九五三年五月十九日) 」, 中央文献研究室, 『建国以来毛泽东文稿 』 第四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0, pp.229-231.
———, 「时局及其它问题(一九四五年二月十五日)」, 『毛泽东思想万岁 (1943—1949) 』, 1967, pp.28-41.
———, 「我的一点意见(一九七〇年八月三十一日) 」, 『建国以来毛泽东文稿 』 第十三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8, pp.114-118.
———, 「在成都会议上的讲话(一九五八年三月)」, 中央文献研究室, 『毛泽东文集 』 第七券, 北京: 人民出版社, 1993, pp.365-377.
———, 「在杨家沟中共中央扩大会议上的讲话(一九四七年十二月二十五日 `二十八日)」, 中央文献研究室, 『毛泽东文集 』 第四券, 北京: 人民出版社, 1993, pp.328-333.
———, 「在外地巡视期间沿途各地负责人谈话纪要(一九七一年八月-九月) 」, 『建国以来毛泽东文稿 』 第十三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8, pp.242-255.
———, 「在八大二次会议上的讲话 (二) (一九五八年五月十七日)」, 『毛泽东思想万岁(1958—1960)』 四券, 1968年武汉版, 1968, pp.73-80.
———, 「整顿党的作风 (一九四二年二月一日) 」, 『毛泽东选集』 第三券, 北京: 人民出版社, 2009, pp.811-829.
———, 「第七届中央委员会的选举方针(一九四五年五月二十四日)」, 中央文献研究室, 『毛泽东文集 』 第三券, 北京: 人民出版社, 1993, pp.356-375.
———, 「重看《人民日报》社论《发动全民 , 讨论四十条纲要 , 掀起农业生产的新高潮》后写的信(一九五八年五月二十六日) 」, 『建国以来毛泽东文稿 』 第七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8, pp.254.
———, 「中国共产党在民族战争中的地位 (一九三八年十月十四日) 」, 『毛泽东选集』 第二券, 北京: 人民出版社, 2009, pp.519-536.
———. 「必须组织和发展无产阶级左派队伍 (一九六六年) 」, 『建国以来毛泽东文稿』 第十二册.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8.

———, 「学习和时局（一九四四年四月十二日）」, 『毛泽东选集』 第三券, 北京: 人民出版社, 2009, pp.937-951.
逄先知,冯蕙. 『毛泽东年谱 (1949-1976)』第四卷, 北京:中央文献出版社, 2013.
社论. 「把无产阶级文化大革命进行到底」, 『人民日报』, 1967.1.1.
聂荣臻. 「恢复和发展党的优良作风」, 『人民日报』1977.9.5,
汪东兴, 「汪东兴在全国宣传工作会议上的讲话 (1976.11.18)」, 宋永毅, 『中国文化大革命文库』, 香港: 香港中文大学, 2002.
张树军,高新民. 『中共十一届三中全会历史档案』上册, 北京:中国经济出版社, 1998.
———, 『中共十一届三中全会历史档案』下册, 北京:中国经济出版社, 1998.
中共中央, 「一九五六年到一九六七全国农业发展纲要（修正草案）（一九五七年十月二十五日）」, 中共中央文献研究室, 『建国以来重要文献选编』 第十册, 中央文献出版社, 1995, pp.633-657.
———, 「政治义结案（一九二八年七月九月）」, 中央档案馆, 『中共中央文件选集』 第四册, 北京: 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82, pp.295-328.
———, 「中共中央通知（一九七六年十月十八日）」, 中央档案馆, 『共和国五十年珍贵档案』 下册, 北京: 中国档案出版社, 1999, pp.1168-1174.
中共中央党校党史教研究室资料组编. 『中国共产党历次重要会议集』下, 上海:上海人民出版社, 1983.
中共中央党校党章研究课题组. 『中国共产党章程编介（从一大到十七大）』, 北京:党建读物出版社, 2008.
中共中央党史研究室. 『中国共产党历史』第二券 下册, 北京:中共党史出版社, 1991.
———. 『中国共产党历史大事记（1921年7月-2011年6月）』, 北京:人民出版社, 2011.
中共中央文献研究室. 『毛泽东文集第七卷』, 人民出版社, 1999.
———. 『周恩来年谱 (1949-1976)』下卷, 北京:中央文献出版社, 1997.
中共中央,「中共中央政治局会议通报（一九八〇年十二月五日中央政治局一起通过）」, 中共中央文献研究室, 『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汇编』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pp.787-789.

中共中央组织部, 中共中央党史研究室,中央档案馆. 『中国共产党组织史资料 』第六卷, 北京:中共党史出版社, 2000.

———. 『中国共产党组织史资料』第七卷（上） 北京:中共党出版社, 2000.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 『叶剑英年谱』, 北京:中央文献出版社, 2007.

中央档案馆. 『中共中央文件选集.第三册:一九二七』, 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89.

陈伯达. 「在毛泽东同志的旗帜下」, 『红旗』第4期, 1958. pp.1−12.

———. 「全新的社会, 全新的人」, 『红旗』第3期, 1958. pp.9−11.

陈云. 「坚持实事求是是的革命作风」, 『人民日报』1977.9.28.,

———, 「粉碎 “ 四人帮”后面临的两件大事 （一九七七年三月十三日）」, 『陈云文选』 第三券, 北京: 人民出版社, 1995, pp.230−231.

———, 「关于当前经济问题的五点意见（ 一九七八年十二月十日）」, 『陈云文选 』 第三券, 北京: 人民出版社, 1995, pp.235−238.

———, 「在党的十一届五中全会第一次会议上的讲话（一九八〇年二月二十四日）」, 中共中央文献研究室, 『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汇编』 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pp.483−485.

———, 「在中央工作会议东北组的发言（一九七八年十一月十二日）」, 中共中央文献研究室, 『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汇编』 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pp.10−11.

叶剑英, 「在庆祝中华人民共和国成立三十周年大会上的讲话（一九七九年九月二十九日）」, 中共中央文献研究室, 『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汇编』 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pp.292−316.

———, 「在党的十一届五中全会第一次会议上的讲话（一九八〇年二月二十四日）」, 中共中央文献研究室, 『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汇编』 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pp.480−482.

胡乔木. 「胡乔木关于两个历史决议的书信三封 (一九四五年四月—一九八0 年十一月)」, 『党的文献』第3期, 2002. pp.9−12.

胡耀邦, 「理论工作务虚会引言」, 中共中央文献研究室, 『 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选编,』, 北京: 人民出版社, 1982,

———, 「在中央政治局会议上的发言（一九八〇年十一月十九日）」, 中共中央文献研究室, 『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汇编』 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pp.735−747.

华国锋. 「团结起来，为建设社会主义的现代化强国而奋斗: 一九七八年二月二十六日在第五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上的政府工作报告」, 『人民日报』, 1978.3.7.
———. 「在毛主席纪念党奠基仪式上的讲话」, 『人民日报』,1976.11.24.

<북한>
김일성, 「구월산을 피서지로 꾸리며 고려태조왕릉을 개건할데 대하여: 구월산피서지구 국토건설총계획사판과 고려태조왕릉형성안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1993년 1월 15일)」,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46-58.
———. 『김일성저작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당조직일군강습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1974년 7월 31일)」, 『김일성 저작집』 2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p.372-393.
———, 「당세포의 5대과업: 전당당세포비서대회 대표들에게 보낸 축하문(1994년 3월 31일)」,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329-338.
———, 「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 고지 점령을 위하여(1975년 1월 15일)」, 『김일성 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p.17-38.
———,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1993년 2월 12일)」,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59-72.
———, 「미국 ≪워싱톤타임스≫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94년 4월 16일)」,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360-375.
———, 「미국 씨엔엔텔레비죤방송회사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94년 4월 17일)」,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382-390.
———,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과학교육부문일군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69년 3월 1일)」, 『김일성 저작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444-470.
———,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103-128.

———, 「스웨리예공산주의자로동당 위원장과 한 담화(1992년 6월 29일)」, 『김일성 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376-393.
———,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담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 차린 연회에서 한 연설(1992년 4월 15일)」, 『김일성 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352-359.
———, 「일군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여야 한다」, 『김일성 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212-218.
———. 「자료4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진술한 보고」, 『북한연구자료집』 2, 1974. pp.296-329.
———,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당사상사업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67년 5월 25일)」, 『김일성 저작집 』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259-276.
———.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 경험: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강의 1986년 5월 31일』,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평양혁명자유가족학원 개원식에서 한 훈시(1947년 10월 12일)」 『김일성 저작집』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항일투사들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들이다: 강반석어머님탄생 100돐기념 오찬회 참가자들과 한 담화(1992년 4월 21일)」, 『김일성 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360-372.
———, 「혁명선열들의 뜻을 이어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되라: 만경대혁명자유가족학원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1948년 12월 11일)」, 『김일성 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508-510.
김정일, 「70일전투에서 발휘된 혁명적기세를 늦추지 말고 계속 생산적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1974년 12월 31일)」, 『김정일 전집』 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pp.484-491.

———, 「기록영화 <청산리>의 완성 방향에 대하여: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일군들과 한 담화(1970년 7월 15일)」, 『김정일 전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pp.194-195.
———,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더 잘 꾸려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과 한 담화(1969년 5월 29일)」, 『김정일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p.287-288.
———, 「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잘 운영할데 대하여: 함경북도 및 옹기군당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74년 5월 16일)」, 『김정일 전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pp.356-362.
———,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과 한 담화(1974년 4월 20일)」, 『김정일 전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pp.288-303.
———,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능력있는 정치일군들을 키워내야 한다: 새로 임명된 김일성정치대학 정치부장과 한 담화(1972년 7월 16일)」, 『김정일 전집 』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pp.213-219.
———, 「당내부사업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한 몇가지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1975년 6월 17일)」, 『김정일 전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pp.153-171.
———, 「당사상사업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1974년 3월 18일)」, 『김정일 전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pp.59-63.
———,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74년 2월 28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사출판사, 1987,
———,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2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241-274.

———,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전국당조직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1974년 8월 2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사출판사, 1987,
———,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전국당조직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1974년 8월 2일)」, 『김정일 전집』 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pp.1-68.
———, 「당생활을 강화하여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1970년 12월 3일)」, 『김정일 전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pp.409-421.
———,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및 도당책임비서들과 한 담화(1989년 6월 9일, 12일)」, 『김정일 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342-392.
———,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68년 8월 18일)」, 『김정일 전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p.246-248.
———,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에 이바지할 출판물들을 더 많이 편집발행하자 :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선동부장과 한 담화(1971년 12월 1일)」, 『김정일 전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pp.391-396.
———, 「당의 의도에 맞게 당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릴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과 한 담화(1975년 10월 9일)」, 『김정일 전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pp.401-411.
———,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1978년 12월 25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4, 평양: 조선로동사출판사, 1987,
———,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다질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1969년 8월 15일)」, 『김정일

전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pp.36-42.
———, 「당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실력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을 평가하여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1970년 7월 17일)」, 『김정일 전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pp.200-204.
———, 「당일군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줄 알아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과 한 담화 (1970년 11월 18일)」, 『김정일 전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pp.394-396.
———, 「당정책은 끝장을 볼 때까지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평안남도 남포시당, 정권, 경제 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8년 5월 21일)」, 『김정일 전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p.52-54.
———,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일군과 한 담화(1967년 5월 25일)」, 『김정일 전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pp.508-514.
———, 「도당위원회들에서 힘을 넣어야 할 당면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도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1975년 5월 13일)」, 『김정일 전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pp.48-68.
———, 「도당책임비서들앞에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도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1974년 12월 25일)」, 『김정일 전집』 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pp.469-477.
———, 「량강도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튼튼히 꾸리자: 량강도책임일군 및 항일혁명투사들과 한 담화(1968년 7월 21일)」, 『김정일 전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p.177-191.
———, 「만경대혁명학원 원장과 한 담화(1972년 2월 15일)」, 『김정일 전집』 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pp.154-155.
———,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15일)」,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평안북도 및 대관군당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8월 19일)」, 『김정일 전집 』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 「보천보전투승리 35돐 기념행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1972년 6월 4일)」, 『김정일 전집 』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pp.20-33.
———,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2월 28일)」, 『김정일 전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pp.463-473.
———, 「부대 정치위원의 임무: 조선인민군 군부대 정치위원과 한 담화(1972년 10월 17일)」, 『김정일 전집 』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pp.524-529.
———,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소설로 잘 옮길데 대하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과 한 담화(1971년 3월 23일)」, 『김정일 전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pp.190-193.
———,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발굴한것은 혁명사적자료사업에서의 커다란 성과이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71년 3월 20일)」, 『김정일 전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pp.188-189.
———,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선동부장과 한 담화(1969년 6월 25일)」, 『김정일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p.339-405.
———,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동신문》에 발표한 론문(1994년 11월 1일)」,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453-485.
———, 「선전선동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73년 9월 25일)」, 『김정일 전집 』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pp.314-322.
———, 「수령님에 대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충성심을 따라배우자: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1961년 4월 4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김정일 전집 』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pp.432-438.
———, 「영화예술부문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영화예술부문 일군과 한 담화(1970년 10월 16일)」, 『김정일 전집 』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pp.337-349.
———,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1974년 2월 19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사출판사, 1987,
———,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한 담화 (1997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253-273.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한 담화 (1996년 2월 11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145-148.
———,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충성심은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과 한 담화 (1958년 6월 5일)」, 『김정일 전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pp.5-9.
———,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영화창작 준비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1970년 8월 8일)」, 『김정일 전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pp.231-235.
———,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현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외무상과 한 담화(1972년 4월 20일)」, 『김정일 전집』 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pp.368-370.
———,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수령님의 존함과만 결부하여 부를수 있는 독창적인 사상이다 : 량강도 삼지연군 무포에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9월 4일)」, 『김정일 전집 』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pp.86-92.
———,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1969년 1월 19일)」, 『김정일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p.8-18.

———, 「인민군대간부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잡을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일군과 한 담화 (1965년 10월 13일)」, 『김정일 전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pp.33-37.
———, 「인민군대는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전투준비와 전투력 강화의 성과로 뜻싶게 기념하여 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한 담화(1972년 1월 2일)」, 『김정일 전집』 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pp.1-4.
———, 「인민군대정치인군양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과 한 담화(1972년 2월 23일)」, 『김정일 전집』 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pp.163-168.
———,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참다운 김일성주의정수분자가 되여야 한다: 인민무력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74년 4월 10일)」, 『김정일 전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pp.214-218.
———,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한 담화(1983년 3월 2일)」, 『김정일 선집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400-408.
———,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75년 1월 1일)」, 『김정일 전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pp.7-15.
———,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중앙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74년 4월 14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사출판사, 1987,
———,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1973년 8월 21일)」, 『김정일 전집 』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pp.197-206.
———, 「전당에 혁명적당풍을 철저히 세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1988년 1월 10일)」, 『김정일 선집 』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117-147.
———, 「전당이 동원되여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당중앙위원회 및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의 협의회에서 한 연설(1974년 10월 9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242-267.
———, 「정무원 위원회, 부당조직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정무원 위원회, 부당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1974년 6월 10일)」, 『김정일 전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pp.417-445.
———, 「정무원 위원회, 부책임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새로 임명된 정무원 위원회 부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74년 4월 9일)」, 『김정일 전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pp.191-196.
———, 「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혁명적당이다(1982년 10월 17일)」, 『김정일 선집 』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252-284.
———.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1995년 10월 2일 ". In *김정일 선집 14*, 104 -10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만경대혁명학원 소년열성자들과 한 담화 (1953년 1월 25일)」, 『김정일 전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pp.5-9.
———, 「조선인민군 제526부대 정치위원과 한 담화(1965년 12월 18일)」, 『김정일 전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pp.258-259.
———, 「조선인민군출판사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5월 6일)」, 『김정일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p.221-225.
———,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당중앙위 책임인군들과 한 담화(1986년 7월 15일)」, 『김정일 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448.
———,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년 3월 31일)」, 『김정일 선집 』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143-216.
———,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당리론 선전일군들과 한 담화(1974년 4월 2일)」, 『김정일 전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pp.124-130.
———, 「지방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1974년 5월 19일)」, 『김정일 전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pp.376-396.
———,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김일성주의 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제1차 전국예술인 학습경연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한 연설 (1973년11월5일)」, 『김정일 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항일혁명투사들의 휴양조직을 잘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에게 준 지시(1975년 9월 14일)」, 『김정일 전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pp.334-335.
———, 「혁명가극 <피바다>의 구성을 원작의 요구에 맞게 고칠데 대하여(1971년 3월 28일)」, 『김정일 전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pp.194-204.
———, 「혁명가유자녀들은 부모들처럼 혁명에 끝까지 충실하여야 한다 : 조선인민군 지휘성원과 한 담화(1971년 5월 21일)」, 『김정일 전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pp.346-348.
———, 「혁명가유자녀들을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골간으로 믿음직하게 키워야 한다: 만경대혁명학원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1960년 4월 17일)」, 『김정일 전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pp.490-495.
———, 「혁명사적관은 사적내용의 특성에 맞게 꾸려야 한다: 홍원혁명전적지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1968년 7월 29일)」, 『김정일 전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p.195-197.
———,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량강도 후창군 혁명사적지들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68년 7월 20일)」, 『김정일 전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p.165-172.
———, 「혁명선배들을 존경하며 따라배워야 한다: 내각제1부수상, 민용항공국 일군들과 한 담화 (1966년 1월 16일)」, 『김정일 전

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pp.93-96.
———, 「혁명선배들의 건강을 잘 돌봐주는것은 응당한 도리이다: 장길부할머니와 정부병원 간호원과 한 담화 (1966년 7월 22일)」, 『김정일 전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pp.93-96.
———, 「혁명의 계승자들을 튼튼히 문장시켜야 한다: 민족보위상과 한 담화(1972년 4월 22일)」, 『김정일 전집』 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pp.379-382.
———, 「혁명이 대를 이어나갈 핵심골간을 더 잘 키울데 대하여 : 만경대혁명학원 원장과 한 담화(1971년 11월 17일)」, 『김정일 전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pp.342-347.
———,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창건 47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론문(1992년 10월 10일)」,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171-207.
———, 「혁명적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앞에서 한 연설 (1966년 2월 26일)」,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122 -137.
———, 「혁명전적지를 잘 꾸리자: 보천보혁명전적지에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68년 7월 18일)」, 『김정일 전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p.134-137.
———,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더 잘 꾸리고 관리하여야 한다 : 량강도안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1971년 8월 31일, 9월 2~6일)」, 『김정일 전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pp.75-83.
———, 「혁명전통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질데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0년 10월 8일)」, 『김정일 전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pp.119-120.
———, 「현시기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 도당위원회 조직비서, 정무원 위원회, 부당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1974년 6월 22일)」, 『김정일 전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pp.459-473.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 총정치국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74년 4월 15일)」, 『김정일 전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pp.272-284.
———, 「혜산시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1971년 9월 6~7일)」, 『김정일 전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pp.99-102.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제1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제2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주체경제학연구소, 사회과학원. 『경제사전』 2,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5.

2. 단행본

<국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 교수진, 『정치학의 이해』, 서울: 박영사, 2019.
권헌익, 정병호. 『극장 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 되는가』, 파주:창비 2013.
김갑식. 『김정일 정권의 권력 구조』,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1: 건당·건국·건군의 역사』, 서울 선인, 2003.
김구섭, 차두현. *북한의 권력구조와 권력엘리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박형중. 『90 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8.
———. 『북한의 정치와 권력 : 지배관계의 기원과 개념, 구조와 동태』, 서울:백산자료원, 2002.
박형중, 이교덕, 정창현,이기동.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서울:통일연구원, 2004.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북한연구소, 1983.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청계연구소, 1989.
———.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을유 문화사, 2000.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 서울:선인,

2005.
성혜랑. 『등나무집』, 서울:지식나라, 2000.
안치영. 『덩 샤오핑 시대의 탄생 : 중국의 역사 재평가와 개혁』, 파주: 창비, 2013.
양문수. 『북한 경제의 구조: 경제 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이교덕, 김국신, 조정아,박영자.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서울:통일연구원, 2009.
이기원. 『북한군사론』, 서울: 통일연구소 1978.
이종석. 『(새로 쓴)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역사비평사, 2000.
———.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1995.
이종석,백학순.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성남:세종연구소, 2000.
이찬행. 『김정일』, 서울:백산서당, 2001.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 변화, 서울: 선인, 2009.
이항구. 『金正日과 그의 참모들』, 서울: 신태양사, 1995.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 역사 · 이념 · 권력체계』, 파주:한울아카데미, 2011.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서울:선인, 2005.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서울:토지, 1999.
조영남. 『개혁과 개방 1: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서울:민음사, 2016.
———. 『중국의 엘리트 정치』, 서울:민음사, 2019.
주장환. 『중국 엘리트 정치 : 구조 · 행위자 · 동학』, 서울:아연출판부, 2013.
최진욱.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서울:통일연구원, 1996.
특별취재반, 중앙일보.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서울: 중앙일보사 1994.
현성일. 『북한의 국가 전략과 파워 엘리트: 간부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선인, 2007.
황장엽. 『황장엽 회고록 :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시대정신, 2006.

<북한>
강근조. 『 조선교육사』4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91.

김남진.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 』, 평양:평양출판사 1995.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8,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세기와 더불어 』6,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1, 평양:국립인민출판사, 1949
김재천. 『리론과 실천』, 평양: 평양출판사, 1990.
———.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불명 발행처불명, 1989.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11.4.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평양출판사, 2000.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략사』2, 서울:돌베개, 1989.
리성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3.
리영환. 『조선교육사』5,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93.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Vol.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20,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최승섭,김재형.『영광스러운 우리당의 혁명전통』,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탁진, 김강일,박홍제. 『김정일 지도자』제2부, 평양:평양출판사, 1994.
———. 『김정일 지도자 제1부』, 평양:평양출판사, 1994.
———. 『김정일 지도자 제1부』, 동방사, 1984.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인민의지도자』1, 평양: 시대사, 1982.
한재만. 『김정일 인간, 사상, 령도』, 평양:평양출판사, 1994.
허담. 『김정일위인상』1,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중문>
耿飚. 『耿飚回忆录 』下册, 北京:人民出版社, 2017.
高皋. 『後文革史: 中國自由化潮流』 上券, 臺北:聯經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 1993.
金冲及. 『周恩来传』三, 北京:中央文献出版社, 2008.
金冲及, 陈群, 曹应旺. 『陈云传』第四券, 北京:中央文献出版社, 2015.
戴煌. 『胡耀邦与平反冤假错案』, 北京:三联书店, 2013.
董边, 镡德山,曾自. 『毛泽东和他的秘书田家英』, 北京:中央文献出版社, 2

016.
童青林. 『回首 1978: 历史在这里转折』, 北京:人民出版社, 2008.
邓力群. 『邓力群自述』, 北京:人民出版社, 2015.
———. 『邓力群自述： 二十个春秋 (1975－1987)』, 香港:大風出版社, 2006.
逢先知,金冲及. 『毛泽东传』第六券, 北京:中央文献出版社, 2013.
李德生. 『李德生回忆录』, 北京:人民出版社, 2012.
李先念编写组. 『李先念传 1909－1949』, 北京:中央文献出版社, 1999.
李安增. 『1976－1982年中国当代史』, 北京:新华出版社, 2004.
李锐. 『大跃进亲历记：毛泽东秘书手记』上券, 北京:中央文献出版社, 1999.
———. 『庐山会议实录』, 郑州:河南人民出版社, 2001.
林蘊暉. 『中華人民共和國史 第二卷 向社會主義過渡: 中國經濟與社會的轉型, 1953－1955』, 香港:香港中文大學, 2009.
薄一波. 『若干重大决策与事件的回顾 』上卷, 北京:中央党史出版社, 2008.
———. 『若干重大决策与事件的回顾 』下卷, 北京:中央党史出版社, 2008.
范硕. 『叶剑英在1976』, 北京: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95.
逢先知,金冲及. 『毛泽东传』第五券, 北京:中央文献出版社, 2013.
史雲,李丹慧. 『從批林到批鄧: 1972－1976. 難以繼續的 “繼續革命”』, 香港:香港中文大學當代中國文化研究中心, 2008.
舒雲. 『林彪傳』下冊, 香港:明鏡出版社, 2016.
徐向前传编写组. 『徐向前传』, 北京:当代中国出版社, 2006.
席宣,金春明. 『“文化大革命” 简史』, 北京:中共党史出版社, 2006.
薛暮桥. 『薛暮桥回忆录』, 天津:天津人民出版社, 1996.
聂荣臻传编写组. 『聂荣臻传 』, 北京:当代中国出版社, 2006.
蕭東連. 『歷史的轉軌: 從撥亂反正到改革開放 (1979－1981)』, 香港:中文大學, 2008.
宋任穷. 『宋任穷回忆录（续集）』, 北京:解放军出版社, 1996.
楊繼繩. 『墓碑: 中國六十年代大饑荒紀實』下編, 香港:天地 图书有限公司, 2018.
———. 『中國改革年代的政治鬥爭』, 香港:天地圖書有限公司, 2010.
———. 『天地翻覆』上册, 香港:天地圖書, 2018.

———. 『天地翻覆』下册, 香港:天地圖書, 2018.
杨继绳. 『邓小平时代: 中国改革开放二十年纪实』上, 北京:中央编译出版社, 1998.
杨尚昆. 『杨尚昆日记 』下册, 北京:中央文献出版社, 2001.
吴江. 『十年的路: 和胡耀邦相處的日子』, 香港:鏡報文化企業有限公司, 1995.
吳法憲. 『歲月艱難：吳法憲回憶錄』, 香港:北星出版社, 2006.
王光美,刘源. 『你所不知道的刘少奇』, 郑州:河南人民出, 2000.
王年一. 『大动乱的年代』, 北京:人民出版社, 2009.
汪东兴. 『汪东兴回忆: 毛泽东与林彪反革命集团的斗争』, 北京:当代中国出版社, 2010.
于光远. 『1978: 我亲历的那次历史大转折』, 北京:中央编译出版社, 2008.
于光远, 王恩茂, 任仲夷,李 德生. 『改变中国命运的41天: 中央工作会议 ` 十一届三中全会亲历记』, 深圳:海天出版社, 1998.
院铭. 『鄧小平帝國三十年』, 台北:玉山社, 2009.
张黎群, 张定,严如平. 『胡耀邦传(1915~ 1989)』第二卷, 北京:北京联合出版公司, 2005.
张素华. 『变局: 七千人大会始末, 1962年 1月 11日-2月 7日』, 北京:中国青年出版社, 2012.
张云生. 『毛家湾纪实: 林彪秘书回忆录』, 北京:春秋出版社, 1988.
程中原, 王玉祥,李正华. 『转折年代：1976-1981年的中国』, 北京:中央文献出版社, 2008.
朱佳木. 『我所知道的十一届三中全会』, 北京:当代中国出版社, 2008.
朱元石. 『吴德口述十年风雨纪事： 我在北京工作的一些经历』, 北京:当代中国出版社, 2004.
中共中央党史研究室. 『中国共产党历史 』第一券, 北京:中共党史出版社, 1991.
陈丽凤. 『中国共产党领导体制的历史考察, 1921-2006』, 上海:上海人民出版社, 2008.
陈锡联. 『陈锡联回忆录』, 北京:解放军出版社, 2007.
陈长江,赵桂来. 『毛泽东最后十年(1966-1976：跟随毛泽东27年的警卫队长回忆录)』, 南京:江苏人民出版社, 2018.
沈宝祥. 『真理标准问题讨论始末』, 北京:中共中央党校出版社, 2015.

沈志华. 『最后的天朝 : 毛沢東, 金日成与中朝関係』, 香港: 香港中文大学, 2017.
許保家. 『改革先驅 胡耀邦』, 香港:天地圖書有限公司, 2013.
叶剑英传编写助. 『叶剑英传』, 北京:当代中国出版社, 1995.
胡乔木. 『胡乔木回忆毛泽东』, 北京:人民出版社, 2014.
胡乔木传编写组. 『胡乔木传』下, 北京:当代中国出版社, 2014.
胡绳. 『中国共产党的七十年』, 北京:中共党史出版社, 1991.
胡鞍钢. 『中国道路与中国梦想』, 杭州:浙江人民出版社, 2013.
———. 『中国集体领导体制』, 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3.
中共中央党史研究室. 『中国共产党历史 』第二券, 北京:中共党史出版社, 1991.

<일문>

鐸木昌之. 『北朝鮮 : 首領制の形成と変容 : 金日成, 金正日から金正恩へ』, 東京:明石書店, 2014.

<영문>

Abuza, Zachary. *Renovating Politics in Contemporary Vietnam.* Lynne Rienner Publishers, 2001.

Baum, Richard. *Burying Mao: Chinese Politics in the Age of Deng Xiaop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Bell, Daniel A. *The China Model: Political Meritocracy and the Limits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Bennett, Andrew. *Condemned to Repetition?: The Rise, Fall, and Reprise of Soviet-Russian Military Interventionism, 1973-1996.* Cambridge: MIT Press, 1999.

Breslauer, George W. *Khrushchev and Brezhnev as Leaders: Building Authority in Soviet Politics.* London George Alen & Unwin, 1982.

Brownlee, Jason. *Authoritarianism in an Age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Bu, Tin. *Following Ho Chi Minh : The Memoirs of a North Vietnamese Colonel.* Honolulu: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Bunce, Valerie. *Do New Leaders Make a Difference?: Executive Succession and Public Policy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Buzo, Adrian. *The Guerilla Dynasty: Politics and Leadership in the Dprk 1945-1994.* Sydney: Westview Press, 1999.

Dahl, Robert.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Yale Up. New Haven1971.

De Mesquita, Bruce Bueno,Alastair Smith. *The Dictator's Handbook: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 New York: PublicAffairs, 2011.

Deng, Rong. *Deng Xiaoping and the Cultural Revolution.*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2012.

Dittmer, Lowell. *Liu Shaoqi and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New York: Routledge, 2015.

Domes, Jurgen,Marie-Luise Näth. *China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Politics between Two Party Congress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Dutt, Clemens. *Fundamentals of Marxism-Leninism.*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 House, 1963.

Fewsmith, Joseph. *Elite Politics in Contemporary China.* Routledge, 2015.

Gandhi, Jennifer. *Political Institutions under Dictatorship.* New York: Cambridge Unviversity press, 2008.

Gardner, John E. *Chinese Politics and the Succession to Mao.* London: Macmillan, 1982.

Geddes, Barbara, Joseph George Wright, Joseph Wright,Erica Frantz.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Greitens, Sheena Chestnut. *Dictators and Their Secret Police: Coercive Institutions and State Viol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Hakjoon, Kim. *Dynasty: The Hereditary Succession Politics of North Korea.* Walter H.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 2015.

Harding, Harry. *China's Second Revolution : Reform after Mao.*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7.

Huang, Jing. *Factionalism in Chinese Communist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Huntington, Samuel P. *Social and Institutional Dynamics of One-Party Systems.* Basic Books, 1970.

Huntington, Samuel P,Clement Henry Moore. *Authoritarian Politics in Modern Society: The Dynamics of Established One-Party Systems.* Basic Books, 1970.

Jin, Qiu. *The Culture of Power: The Lin Biao Incident in the Cultural Revolution.* Redwoo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Kissinger, Henry. *On China.* New York: Penguin Books, 2012.

Landman, Todd,Edzia Carvalho. *Issues and Methods in Comparative Politic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2003.

Levitsky, Steven,Lucan A Way.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Hybrid Regimes after the Cold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Li, Cheng. *Chinese Politics in the Xi Jinping Era: Reassessing Collective Leadership.*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6.

Linz, Juan José.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Lynne Rienner Publishers, 2000.

Lynch, Michael. *Mao.* London: Routledge, 2004.

MacFarquhar, Roderick. *The Origins of the Cultural Revolution.* Vol. 3,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 *The Origins of the Cultural Revolution.* Vol. 2,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MacFarquhar, Roderick,Michael Schoenhals. *Mao's Last Revolu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Machiavelli, Niccolò. *The Prince.* Translated by Peter Bondanella.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Magaloni, Beatriz. "Voting for Autocracy: The Politics of Party Hegemony and Its Demi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Mauzy, Diane K,Robert Stephen Milne. *Singapore Politics under the People's Action Party.* London: Routledge, 2002.

McCauley, Martin,Stephen Carter. *Leadership and Succession in the Soviet Union, Eastern Europe and China.* Springer, 1986.

Meisner, Maurice. *The Deng Xiaoping Era: An Inquiry into the Fate of Chinese Socialism 1978-1994.* Hill and Wang, 1998.

———. *Mao's China and After: A History of the People's Republic.* Simon and Schuster, 1999.

Merritt, Richard L. *Systematic Approaches to Comparative Politics.* Illinois: Rand McNally, 1970.

Mesquita, Bruce Bueno de , Alastair Smith, Randolph M Siverson,James D Morrow.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IT Press, 2003.

Nordlinger, Eric A. *Soldiers in Politics: Military Coups and Governments.* Prentice Hall, 1977.

Olson, Mancur. *The Theory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Press, 1965.

Perthes, Volker. *Syria under Bashar Al-Asad: Modernisation and the Limits of Change.* Routledge, 2014.

Przeworski, Adam. *Democracy and the Market: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rzeworski, Adam,Henry Teune.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New York: Wiley-Interscience, 1970.

Pye, Lucian W. *The Dynamics of Chinese Politics.* Cambridge, MA: Gunn & Hain, 1981.

Rush, Myron. *How Communist States Change Their Ruler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 *Political Succession in the Uss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5.

Saxonberg, Steven. *Transitions and Non-Transitions from Communism: Regime Survival in China, Cuba, North Korea,*

and Vietna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Schurmann, Franz.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Univ of California Press, 1971.
Shirk, Susan L.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Snow, Edgar. *The Long Revolution.* New York: Random House, 1972.
Svolik, Milan W. .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Teiwes, Frederick C. *Leadership, Legitimacy, and Conflict in China: From a Charismatic Mao to the Politics of Succession.* London: Macmillan, 1984.
———. *Revival: Politics and Purges in China: Rectification and the Decline of Party Norms, 1950-65.* New York: Routledge, 2015.
Teiwes, Frederick C,Warren Sun. *China's Road to Disaster: Mao, Central Politicians, and Provincial Leaders in the Unfolding of the Great Leap Forward, 1955-1959.* New York: ME Sharpe, 1999.
———. *The End of the Maoist Era: Chinese Politics During the Twilight of the Cultural Revolution, 1972-1976.* New York: Routledge, 2014.
———. *The Tragedy of Lin Biao: Riding the Tiger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1966-1971.*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6.
Teiwes, Frederick C.,Warren Sun. *The Politics of Agricultural Cooperativization in China : Mao, Deng Zihui, and the "High Tide" of 1955.* New York: Routledge, 2015.
Tullock, Gordon. *Autocracy.* Hingham: Kluwer Academic Publisher, 1987.
———. *Autocracy.*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2.
Vertzberger, Yaacov. *The World in Their Minds: Information Processing, Cognition, and Perception in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Voslenskiĭ, MS. *Nomenklatura: The Soviet Ruling Class.* Garden City, NY: Doubleday, 1984.

Walder, Andrew G. *China under Mao: A Revolution Derailed.*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Walder, Andrew G. *China under Mao.*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Wang, Ting. *Chairman Hua: Leader of the Chinese Communists.* Montreal: McGill-Queen's Press, 1980.

Wintrobe, Ronald.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Zhi-Sui, Li. *The Private Life of Chairman Mao.* New York: Random House, 1994.

<번역서>

로버트 스칼라피노. 이정식 역.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 해방후 편 (1945-53)』, 서울:돌베개, 1986.

스즈키 마사유키.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중앙일보사, 1994.

와다 하루키. 서동만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파주:돌베개, 2002.

필립 쇼트. 양현수 역. 『마오쩌둥(Mao : The Man Who Made China)』 2, 서울:교양인, 2019.

3. 논문

<국문>

고명균. 「1960 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당·군 관계 변화」, 『현대북한연구』 18(3), 2015. pp.7-58.

———. 「김정일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후계체제의 위기」, 『현대북한연구』 20(1), 2017, pp.130-178.

고유환.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지속과 변화」, 『통일문제연구』, 9(2), 1997. pp.5-29.

김갑식. 「1990 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현대북한연구』8(1), 2005, pp.9-38.
———. 「권력구조와 엘리트」, 장달중 편, 『현대 북한학 강의 』, 서울: 사회평론, 2013, pp.51-98.
김경욱. 「천리마시대 (1956~ 1972) 의 북한 교육교양에 대한 연구: 북조선인의 탄생」, 『현대북한연구』 21(1), 2018, pp. 7-53.
김광용, 『북한 ‘수령제’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5.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36(2), 2002. pp.349-365.
김병연. 「사회주의 경제개혁과 체제이행의 정치적 조건: 구소련, 동유럽, 중국의 경험과 북한의 이행 가능성」, 『비교경제연구』12(2), 2005. pp.215-251.
김성주. 「1960 년대 북한의 군사주의 확산 과정 연구」, 『현대북한연구』18(2), 2015. pp.270-309.
김옥자, 『 만경대혁명학원 연구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용현. 「선군정치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정치변화」." 『현대북한연구』 8(3), 2005, pp.111-138.
김인수,이민룡. 「북한 권력 엘리트의 직위변동 구조와 정권의 안정성」, 『북한연구학회보』 13(2), 2009, pp.75-95.
김진환. 「김일성의 선로후군 (先勞後軍) 과 김정일의 선군후로 (先軍後勞): 북한 호전성 명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 『경제와사회』, 87, 2010. pp.45-73.
———.「천리마운동: 건설의 신화와 재현의 정치」, 『북한연구학회보』, 20(2), 2016, pp.31-62.
김태효,강채연. 「북한 권력승계의 주기 (週期) 모델과 북한 체제의 작동원리」, 『국제정치논총』58(2), 2018. pp.109-143.
류길재, 「김일성・김정일의 문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남대 북한대학원,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pp.46-70.
박형중. 「루마니아와 북한: 사회주의 주변부의 스탈린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 연구」, 『통일문제연구』7(1), 1995. pp.48-73.
———. 「북한은 왜 ‘붕괴’도 ‘개혁・ 개방’도 하지 않았을까?」,

『현대북한연구』16(1), 2013. pp.37-69.
송정호. 「북한 권력승계문제의 쟁점과 전망: 사회주의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7(3), 2005, pp.7-51.
안경모, 『북한의 선군노선과 권위구축동학: 정치적 계승의 위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북한의 이데올로기 변화와 그 정치적 함의 (1966-2012): '적응' (Adaptation) 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49(4), 2015. pp.157-179.
안치영. 「마오쩌둥 (毛澤東) 의 옌안 (延安) 체제 재편과 가오강 (高崗) 사건」, 『서강인문논총』44, 2015. pp.139-177.
———. 「모호한 전환점: 중국공산당의 11 기 3 중전회에 대한 재고」, 『국제지역연구』17(4), 2008. pp.61-88.
———.「중국 개혁개방 정치체제의 형성, 1976-1981」,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중국의 개혁초기 정치논쟁과 1979 년 이론공작회의」, 『중국근현대사연구』제54집, 2012. pp.219-242.
양문수. 「1970 년대 북한 경제와 장기침체 메커니즘의 형성」, 『현대북한연구』6(1), 2003. pp.53-94.
양호민. 「'프롤레타리아 혁명'과'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의 재고: 고전적 맑스주의에서 소련의 붕괴까지」, 『북한학보』29, 2004. pp.9-33.
오경섭. 「북한 권력승계의 특징과 3대세습체제의 지속가능성」, 『세종정책연구』6(1), 2010. pp.281-318.
유영옥. 「김정일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상징전략 분석」, 『한국정치학회보』30(3), 1996. pp.287-306.
윤도원,백우열.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권력승계 과정과 체제 안정성 연구」, 『국제정치논총』59(3), 2019. pp.265-307.
이대근, 「북한군 총정치국」,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군사』, 서울: 경인문화사, 2006, pp.169-203.
이무철. 「북한 경제개혁 연구의 쟁점」. 현대북한연구, 9(2), 2006, pp.49-87.
이상우.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연구 : 중국공산당전국대표회의(中國共産黨全國代表會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22(2), 2019, pp.122-157.

이정남. 「중국 집단지도체제 권력승계의 제도화와 19 차 당대회이후의 변화: 새로운 게임 규칙의 모색인가?」, 『중소연구』 42(2), 2018. pp.7-42.
이정철. 「조선 로동당 3 차 당 대표자회와 김정일 후계 체제: 개혁 개방기 덩샤오핑의 후계전략과 비교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8(1), 2011. pp.187-205.
이태섭.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과 '단결'의 정치」,『현대북한연구』 6(1), 2003, pp.11-51.
장달중, 「김정일체제와 주체비젼: 이데올로기, 당, 그리고 군중을 중심으로」, 『김정일 체제의 북한: 정치·외교·경제·사상』, 서울: 아연출판부, 2004, pp.9-58.
정성윤, 차현진,정재관. 「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소고」, 『통일정책연구』 26(1), 2017, pp.77-103.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후계 문제: 징후와 후계 구도」, 『한국정치학회보』 39(2), 2005, pp.345-368.
———. 「김정일 체제의 지도이념과 성격 연구: '붉은기사상'과 북한 체제의 변용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39(3), 2000. pp.305-322.
———, 「통치 이데올로기: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 주의로」,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 사회평론, 2013, pp.16-47.
정순원. 「북한의 후계구도와 북한법의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13(1), 2009. pp.253-278.
정영철. 「1970 년대 대중운동과 북한 사회: 돌파형 대중운동에서 일상형 대중운동으로」, 『현대북한연구』 6(1), 2003. pp.121-167.
———. 「김일성과 김정일의 리더십 비교-'수령체계'의 구조적 분석과 전망」, 『경제와사회』 55, 2002, pp.219-245.
———. 「주체사상의 순수 이데올로기화와 새로운 실천 이데올로기의 등장」, 『한국과국제정치』 31(3), 2015. pp.57-83.
조우찬. 「1967 년 북한 갑산파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의 종결」, 『현대정치연구』 10(1), 2017, pp.193-218.
———. 「북한 갑산파 연구」,『현대북한연구』 19(1). 2016, pp. 87-135.
조영남. 「덩샤오핑 시기 중국 엘리트 정치의 파벌 분석」, 『중소연

구』 39(4), 2016. pp.7-44.
주장환. 「2012 년 중국 권력 투쟁의 전개와 그 특징」, 『대한정치학회보』 20(2), 2012. pp.243-262.
최주활. 「김정일 30년 노력 끝에 군부 완전 장악」, 『월간WIN 』 6월호 1996. pp.161-167.
———, 『북한체제에서의 당-군 관계 연구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2002.
한병진. 「권력투쟁의 미시적 작동원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28(3), 2017, pp.141-156.
———.「북한의 권력게임과 빗장전략」,『현대북한연구』 16(1) , 2013, pp.7-36.
———.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15(1), 2009. pp.119-141.
황의각. 「북한의 경제침체: 개괄 및 총량분석」,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5, pp.1-35.
한병진. 「권력투쟁의 미시적 작동원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28(3), 2017. pp.141-156.

<북한>

김국훈.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원칙」, 『근로자』, 제5호, 1970. pp.39-45.
김덕유. 「붉은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강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철학연구』, 제1호, 1997.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 경험(1986년 5월 31일)」, 『근로자』, 제6호, 1986. pp.161-162.
리봉원. 「조선인민군은 당의 위업을 옹호 보위하는 불패의 혁명대오」, 『근로자』, 제2호, 1998.
박창옥. 「북조선로동당규약해설」, 『근로자』 제5호, 1947. pp.43-49..
심재성.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촉진하자」, 『근로자』, 제8호, 1970. pp.43-50.
전영락. 「3대혁명소조운동은 3대 혁명에 대한 당의 혁명적 영도를 실현하는 위대한 운동」, 『근로자』, 제4호, 1976, 43-44.
최인덕. 「군중적 운동으로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 『근로자』, 제1호, 1990.
편집국.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것은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 『근로자』, 제6호, 1970. pp.2-9.
———. 「김일성동지는 조선혁명의 력사적뿌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창시자이시다」, 『근로자』, 제4호, 1970. pp.28-36.
———. 「우리 당 제5차대회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맞이하자」, 『근로자』, 제1호, 1970. pp.10-17.
현준명. 「속도전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투쟁의 기치」, 『근로자』, 제4호, 1974.
황룡섭.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 『근로자』, 제3호, 1970. pp.18-26.

<중문>
蒯正明. 「中国共产党集体领导制度建设的历史演进与现实启示」, 『理论学刊』, 第10期, 2012. pp.27-31.
刘平斋. 「邓小平与 1975 年的整顿」, 『社会科学研究』, 第5期, 2004. pp.11-14.
陆剑杰. 「论1962年的党内争论--读《毛泽东传(1949-1976)》的笔记」, 『党的文献』, 第5期, 2014. pp.55-69.
李方祥. 「新民主主义革命时期中共反对 "山头主义" 的历史考察」, 『中国高校社会科学』, 第5期, 2015. pp.27-37.
李逊. 「王洪文的升沉」, 『炎黄春秋』, 第10期 , 2015, pp.50-58.
李维民. 「万毅张军在庐山会议」, 『淡黄春秋』,第3期, 1995. pp.17-20.
李海文. 「《 园丁之歌》 引发的一场波澜」, 『党史博览』, 第6期, 2015. pp.41-43.
李晌. 「"五马进京, 一马当先" 撤销大区的台前幕后」, 『国家人文历史』第5期, 2015. pp.36-42.
马永辉. 「邓小平三次复出中的三位关键人物」, 『党史纵横』, 第1期, 2004. pp.13-15.
社论. 「把无产阶级文化大革命进行到底」, 『红旗』, 第1第, 1967, pp. 4-13.
舒云. 「毛泽东为何选王洪文当接班人」, 『党史博览』, 第6 第, 2005. pp.30-34.
王华玲. 「"请示报告": 解放战争时期中央与地方关系新探」, 『党史研究

与教学』, 第3期, 2016, pp.13-23.
王钦双,王前. 「七大前后毛泽东如何破除山头主义」, 『党的文献』, 第4期, 2015. pp.122-124.
张明军. 「1975 年全面整顿的历史考察」, 『党的文献』, 第1期, 1995. pp.74-77.
程中原. 「邓小平第三次复出经过」, 『百年潮』, 第5期, 2009.
曾红路. 「再论“大跃进”的历史成因」, 『南京大学学报』, 第4期, 1998. pp.73-78.
陈伙成. 「关于党反对山头主义历史的思考」, 『中共党史研究』, 第3期, 1993. pp.61-67.
沈宝祥. 「胡耀邦发动和推进真理标准问题讨论纪实 (上)」, 『同舟共进』, 第4期, 2008. pp.18-25.
彭厚文. 「文革前中共中央的“一线 `二线”制度」, 『党史博览』, 第8期, 2010. pp.22-23.
霞飞. 「毛远新缘何被 “保护审查”」, 『党史博览』, 第4期, 2006. pp. 30-36.
黄力民. 「“五马进京” 之说并不准确」, 『党史博采』, 第4期, 2017. pp.24-27.
黄一兵. 「一九七七年中央工作会议研究」, 『中共党史研究, 』第2期, 2010. pp.17-26.

<영문>

Acemoglu, Daron, Thierry Verdier,James A Robinson. "Kleptocracy and Divide-and-Rule: A Model of Personal Rule."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2, no. 2-3 (2004): 162-192.

Atkine, Norvell B. De. "Why Arabs Lose Wars." *Middle East Quarterly* (December 1999).

Banister, Judith. "An Analysis of Recent Data on the Population of Chin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0, no. 2 (1984): 241-271.

Besley, Timothy J,Masayuki Kudamatsu. "Making Autocracy Work." *STICERD Development Economics Discussion Paper*, no. 48

(2007).

Blyth, Mark. "Powering, Puzzling, or Persuading? The Mechanisms of Building Institutional Order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1, no. 4 (2007): 761-777.

Boorman, Howard L. "Mao Tse-Tung: The Lacquered Image." *The China Quarterly* 16 (1963): 1-55.

Breslauer, George W. "Political Succession and the Soviet Policy Agenda." *Probs. Communism* 29 (1980): 34.

Brownlee, Jason.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59, no. 4 (2007): 595-628.

Bunce, Valerie. "Changing Leaders and Changing Policies: The Impact of Elite Succession on Budgetary Priorities in Democratic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4, no. 3 (1980): 373-395.

Bunce, Valerie Jane. "The Succession Connection: Policy Cycles and Political Change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 no. 4 (1980): 966-977.

Chen, Jerome. "The Communist Movement 1927-1937."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edited by John King Fairbank and Denis Twitchett, 168-22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Dittmer, Lowell. "Patterns of Elite Strife and Succession in Chinese Politics." *The China Quarterly* 123 (1990): 405-430.

Frank, Peter. "The Soviet Union." In *Leadership and Succession in the Soviet Union, Eastern Europe and China*, 16-28: Springer, 1986.

Gandhi, Jennifer,Adam Przeworski. "Authoritarian Institutions and the Survival of Autocra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 no. 11 (2007): 1279-1301.

Geddes, Barbara. "Authoritarian Breakdown: Empirical Test of a Game Theoretic Argu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tlanta, 1999.

———.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 no. 1 (1999): 115-144.

Goldstein, Avery. "Trends in the Study of Political Elites and Institutions in the Prc." *The China Quarterly* 139 (1994): 714-730.

Guriev, Sergei,Konstantin Sonin. "Dictators and Oligarchs: A Dynamic Theory of Contested Property Righ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 no. 1-2 (2009): 1-13.

Harding, Harry. "Political Development in Post-Mao China." In *Modernizing China : Post-Mao Reform and Development*, edited by A. Doak Barnett and Ralph N. Clough. New York: Routledge, 1986.

Hiep, Le Hong. "Performance-Based Legitimacy: The Case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and" Doi Moi"."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012): 145-172.

Hiniker, Paul J. "The Cultural Revolution Revisited: Dissonance Reduction or Power Maximization." *The China Quarterly* 94 (1983): 282-303.

Huang, Jing.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Succession in China: Progress and Implications." *China ' 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Prospects for democracy* (2008): 80-97.

Jacobsen, John Kurt. "Much Ado About Ideas: The Cognitive Factor in Economic Policy." *World Politics* 47, no. 2 (1994): 283-310.

Jo, Yung-hwan. "Succession Politics in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olitical Stability." *Asian Survey* 26, no. 10 (1986): 1092-1117.

Kathleen, Thelen,Sven Steinmo.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edited by Sven Steinmo, Thelen Kathleen and Frank Longstreth, 1-3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Kou, Chien-wen,Xiaowei Zang. "Informal Politics Embedded in

Institutional Contexts: Elite Politics in Contemporary China." In *Choosing China's Leaders*, edited by Chien-wen Kou and Xiaowei Zang, 15-35. London: Routledge, 2013.

Levitt, Barbara,James G March. "Organizational Learn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14, no. 1 (1988): 319-338.

Li, Wei,Dennis Tao Yang. "The Great Leap Forward: Anatomy of a Central Planning Disaste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3, no. 4 (2005): 840-877.

Lijphart, Arend.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Comparative Metho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 no. 3 (1971): 682-693.

Lim, Jae-Cheon. "North Korea's Hereditary Succession: Comparing Two Key Transitions in the Dprk." *Asian Survey* 52, no. 3 (2012): 550-570.

MacFarquhar, Roderick. "The Succession to Mao and the End of Maoism."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edited by Roderick MacFarquhar and John K. Fairbank, 305-40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The Succession to Mao and the End of Maoism 1969-1982." In *The Politics of China*, edited by Roderick MacFarquhar, 246-33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Malesky, Edmund,Paul Schuler. "Nodding or Needling: Analyzing Delegate Responsiveness in an Authoritarian Parlia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4, no. 3 (2010): 482-502.

McCormack, Gavan. "Kim Country: Hard Times in North Korea." *New Left Review*, no. 198 (1993): 21.

Meyer, Alfred G. "Communism and Leadership."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16, no. 3 (1983): 161-169.

Miller, Alice L.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Changing Dynamics of Chinese Leadership Politics." *China'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Prospects for democracy* (2008): 61-79.

Nathan, Andrew J. "A Factionalism Model for Ccp Politics." *The*

China Quarterly (1973): 34-66.

Noland, Marcus. "North Korea: The Tyranny of Deprivation." In *Worst of the Worst: Dealing with Repressive and Rouge Nations*, edited by Robert Rotberg, 89-114.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7.

Person, James F. "New Evidence on North Korea in 1956."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16 (2006): 447-527.

Pierson, Paul.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 no. 2 (2000): 251-267.

Pike, Douglas.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in Vietnam." In *Asian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edited by Robert A . Scalapino, Seizaburo Sato and Jusuf Wanandi, 42-58.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1986.

Rush, Myron. "The Problem of Succession in Communist Regim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1978): 169-179.

Sartori, Giovanni.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 no. 4 (1970): 1033-1053.

Schoenhals, Michael. "New Texts: Speeches at the Ninth National Congres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Stockholm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2 (1990): 91-102.

Slyke, Lyman Van "The Chinese Communist Movement During the Sino-Japanese War 1937—1945."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edited by John King Fairbank and Denis Twitchett, 609-72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Sohn, Injoo. "After Renaissance: China's Multilateral Offensive in the Developing World."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8, no. 1 (2012): 77-101.

Stacher, Joshua. "Reinterpreting Authoritarian Power: Syria's Hereditary Succession." *The Middle East Journal* 65, no. 2 (2011): 197-212.

Steinmo, Sven. "Political Institutions and Tax Policy in the United

States, Sweden, and Britain." *World Politics* 41, no. 4 (1989): 500-535.

Teiwes, Frederick C. "The Politics of Succession: Previous Patterns and a New Process." In *China's Post-Jiang Leadership Succession: Problems and Perspectives*, 21-58: World Scientific, 2002.

Tsou, Tang. "Prolegomenon to the Study of Informal Groups in Ccp Politics." *The China Quarterly* 65 (1976): 98-114.

Zhang, Yongjing. "The Successor's Dilemma in China's Single Party Political Syste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7, no. 4 (2011): 674-680.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wer success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Lee Jae-Jun
Political Science Maj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n autocratic state, power succession implies a crisis and uncertainty in the system. The successor's weak legitimacy has also led to a power struggle among the political elite. In the former Soviet Union, after the death of dictator Stalin, the crisis of succession was caused by a power vacuum. However, power succession did not necessarily lead to a crisis. In this regard, China and North Korea are significant examples of comparison. After Khrushchev's criticism of Stalin in the Soviet Union in 1956, Mao Zedong and Kim Il-sung both began to consider the succession issue seriously. However, the stability of power succes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differed. China's Mao Zedong failed to resolve the crisis of succession.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s Kim Il-sung succeeded in blocking the crisis of succession.

Therefore, the question of this study is: Why were the stability of power succession between Mao Zedong in China and Kim Il-sung in North Korea different? Through this, I wanted to find variables that affect the stability of power succes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comparison of power success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s also meaningful in that the two countries, after the death of Mao Zedong and Kim Il-sung, moved on to different ideological lines. After Mao Zedong's death, China broke away from the radical leftist ideology and entered the path of reform and opening.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maintained a more solid radical ideology after the death of Kim Il-sung.

This study analyzed the power succession in China and North Korea, focusing on a rational choice theory-based approach. However, in rational choice theory, preferences were viewed as being formed by institutional contexts, as opposed to those that view preferences as exogeneous. In the context of the socialist system, we can define the preferences of political actors in China and North Korea. In socialism, political actors have ideological preferences. Political actors tend to want their ideology to be realized. In addition, the socialist system's ideological line struggle leads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ruling party's executive organization. Ideological preferences thus become closely related to organizational preferences.

In the two cases, the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stability of power succession were analyzed through the theory of comparative authoritarian theory. It analyzed the cases of China and North Korea in three dimens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decessor and the successor, the succession of the predecessor's ruling coali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successor's independent ruling coalition. This led to the discovery of variables that affected the stability of power succession, such as: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decessor and the successor, ideological concordance was a factor in which the successor could maintain the support of his predecessor.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North Korean Rodong Part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ist revolutionary parties. In this regard, both Chinese and North Korean leaders wanted their ideology to be carried out after death. The decisive reason why China's Deng Xiaoping could not be the successor was that he did not support the liberal ideology. On the other hand, Kim

Jong-il made a decisive contribution to systematizing and unifying Kim Il-sung's ideology.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ccessor and the ruling coalition, the stability of power succession differed according to the power structure's difference. Compared to collective control, the stability of power succession in one person-to-one distribution was higher. Both Hua Guofeng and Kim Jong-il were succeeded by the nomination of their predecessors, and both succeeded the ideology of their predecessors. Nevertheless, Hua Guofeng had to step down as Chinese Communist Party chairman against his will. On the other hand, Kim Jong-il succeeded in taking power for life. The fact that Kim Jong-il and Hua Guofeng were in the different power structures was the factor that determined the fate of the two successors. The threat posed by the departure of support from the ruling coalition did not exist because the heir apparent Kim Jong-il had achieved a power succession in the one-person power structure. On the other hand, Hua Guofeng should have maintained the support of the majority of the ruling coalition in order to maintain his leadership position in the collective ruling power structure. At the time of the power succession to Hua Guofeng, the majority of the ruling coalition was negative about Mao Zedong's literary and revolutionary ideology. This led to the departure of the majority of the ruling coalition's support for Hua Guofeng, who was forced to inherit Mao Zedong's ideology.

In collective rule, the successor must establish a new ruling coalition with the ruling party's political elite. Here the variable is the preference change of the majority of the political elite involved in the governing coalition.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fact that such ideological flexibility cannot be expected from the successor designated by his predecessor. The legitimacy of the successor lies directly with his predecessor, and if he denies his predecessor's ideology, he could immediately lead to the loss of his own political legitimacy. For this reason, the stability of power succession in the collective-governance power structure was weak.

Third, the unity of the last ruling coalition formation was a factor that could enhance the stability of power succession. In other words, if the ruling coalition is pluralistic, there may be political actors who pursue ideologies different from those of their predecessors. In particular, political elites in the ruling coalition are more likely to pursue alternative ideologies if the ideology put forward by their predecessors is revealed to be wrong. The successor who succeeded in the formation of a pluralistic ruling coalition can only maintain power by aligning with the majority of the ruling coalition's ideological preferences rather than keeping the ideology of his predecessor. Or the successor can consolidate his power by ousting political elites from the ruling coalition who have other ideological preferences. The monolithic ideology system and monolithic command system, which carried out the ideological unity of the ruling coalition, was the basis on which heir apparent Kim Jong-il was able to consolidate his rule in the North. If the power structure was collective, the provision of expected returns would inevitably have been more complex. That's why Hua Guofeng had to be re-recognized as a leader through political alliances among factions. The successor, Hua Guofeng, failed to carry on the ruling coalition of his predecessor. In other words, Mao Zedong's ruling coalition, which was his predecessor, was divided over support for his successor Hua Guofeng.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China and North Korea. First of all, the case of Mao Zedong's succession in China also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China's current power succession. This is because the power succession of Mao Zedong in China took place befor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wer succession. This has two meanings. First, it can be a clue to understanding the function and effect of the power succession system created after Mao Zedong's death in China, becaus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wer succession stems from the purpose of overcoming Mao Zedong's power succession crisis. Second, it also has implications for predicting the problems of power succession

that could emerge if the power succession system is eliminated or changed. After Mao Zedong's death, China's institutionalization of power succession was carried out through the designation of two generations, the term limit and the age limit, Still, these systems of power succession were destroyed after the 19th Party Congress.

In the case of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ase of Kim Il-sung's succession in connection with the possibility of regime change. After Mao Zedong's death, China moved toward reform and openness, while after Kim Il-sung's death, North Korea maintained the conservatism of its regime.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a dictator's post-power succession have created different conditions that could lead to a regime change.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North Korea to move toward reform and opening can be traced back to China's power succession case.

Keywords: China, North Korea, power succession, comparative authoritarian theory, regime transformation
Student Number: 2015-30051